1080 누르고 福 지으세요
일반전화·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
060-700-1080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우리이웃

현대불교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천덕 인쇄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천덕홈페이지 : www.chonduk.com
한글홈페이지 : 천덕인쇄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49년 (서기 2005년) 9월 14일(음력 8월 11일) 수요일 (주간) 제 543 호

충청지역 스님들 교정전문가 '학구열'

20여스님 경기대 대학원서 '교정교화' 과정 수강



대전 충청권 교정위원스님들이 수용자들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대학원 교양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9월 8일 오후 6시 30분, 3기 경기대 대학원 교정교화 전문화과정 강의가 처음 열리는 대전 유성문화원. 모처럼 학생이 된 20여 스님들을 비롯해 40명이 수업에 열중이다. 참가자들은 대전 청주 공주 천안 등 대전 · 충청권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교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정위원들.

강의내용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스님들의 열의를 지켜보던 법무부 교정위원협의회중앙회 회장 혜명 스님(대전 혜명정사 주지)은 불교 교정위원이 채 10명도 되지 않았던 1,2기 과정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의실의 절반을 스님들이 차지한데다가 나머지 20명 가운데 15명도 교화위원으로 참여하거나 교화위원을 희망하는 재가불자였던 것.

오랜 세월 맨주먹으로 일궜던 교정위원들은 수용자 포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했다. 3기 과정에 등록한 교정위원 스님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학원 과정에 등록한 스님들의 반응에서 변화의 흐름과 기대가 읽혀진다.

"교정활동도 이젠 몸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다"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하는 일인데,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수용자들의 심리를 모르고서야 교정이 되겠느냐"
"전문적인 지식을 현장에서 펼 날이 멀지 않았다"

경기대 대학원이 대전에서 수업을 연 것은 2기에 이어 두번째. 대전과 수원을 오가며 1기 과정을 수료한 대전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공 스님(대전 황룡사 주지)이 대전지역에서도 수업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경기대 대학원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 먼 거리를 이동하는 수고를 덜었다.

대전에서 수업을 열게 되자, 교정활동에 열정을 보여 왔던 혜명 스님과 진공 스님은 동료 교정위원들을 설득하고 나섰다. 대전교도소에서 매월 한차례 '자매법회'라는 상담시간을 운영하고 있는 의당정사(도탈심인당 주교)는 전문화 과정을 이수하자는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였다. 수용자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면 수용자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은 물론 상담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원주 청주 공주 등 7개 교도소 교정위원인 연기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은 재가불자들의 활동을 더 많이 이끌어내기 위해 10명의 신도들과 함께 등록했다. 한달에 300여통의 편지를 쓸 만큼 수용자 포교에 열심인 일봉 스님은 14년간의 경험에서 열심히 활동할 '사람'의 절대 부족이 가장 힘겨웠다. 그런 그에게 이번 전문화 과정은 이를 해결하는 돌파구인 셈이다.

일봉 스님은 "그동안 수용자 포교가 '원력'에 의해 이뤄졌다면, 전문화 과정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며 "자신의 '시간'과 '돈'을 들이고도 고생까지 해야 하는 교정활동이 이왕이면 더 좋은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전=박봉영 기자

가야산 골프장 다시 추진

해인사 · 지역주민, 대책위 구성 "결사 반대"

건교 · 내무장관 출신 등 "구상 단계"

지난 10년간 논란을 빚었던 가야산국립공원내 해인골프장(18홀) 건설이 재추진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골프장 건설 불가 결정이 난지 불과 2년 6개월여 만에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

해인골프장 건설을 다시 추진하는 사람들은 내무 · 건설부장관 · 대구시장 이상희 씨와 前 대구시청 국장을 지낸 서상택 씨다. 이들은 최근 골프장에 대한 규제 완화조치가 이루어지자 지역 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해인골프장 건설을 재추진하고 있다.

서상택 씨는 "아직 구상단계에 있다"며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최고의 정화시설을 갖추고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골프장 건설에 뜻이 있음을 시인했다.

이와 관련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과 대구 환경운동연합 문창식 운영위원장, 덕곡리 골프장 반대 대책위원장 여보연씨는 최근 모임을 갖고 9월 말경 가야산을 골프장 개발지역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키로 하고, 건설사업주가 골프장 사업신청을 하는등 구체적인 활동을 할 경우 대대적인 골프장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기로 합의했다.

해인사 재무국장 진각 스님은 "가야산 국립공원에 골프장이 들어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골프장 건설사업이 법적으로 판결난 문제고, 지역민 모두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골프장 건설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덕곡면 주민 장기화씨는"2003년 대법원의 판결로 대책위를 무산했는데 골프장 건설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 골프장 건설 반대대책위를 7월경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운동연합도 7일 성명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다시 우리의 산하를 파괴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골프장 조성으로 인한 세 수입이 골프장으로 인한 자연환경과 지역공동체의 파괴를 만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가야산 해인골프장 건설사업은 1990년 가야개발(대표 이상경)에 의해 추진됐으나 상수원 오염 등의 이유로 인근 고령군 덕곡면 주민, 환경단체, 해인사와 법적 공방을 벌이다. 2003년 대법원의 판결로 중단됐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美 카트리나 피해지역에 자비를

종단협, 범종단적 모금운동 펼치기로

불교계가 미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민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전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9월 8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미국 동남부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이재민에게 자비 손길을 전하는 모금운동을 범종단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각 종단별로 30일까지 카트리나 이재민돕기 성금을 모아 불교계 명의로 구호성금 및 물품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조계종도 9월 30일까지 불교계 언론사를 통한 성금모금 광고와 ARS 운영을 비롯해 교구본사별로 현수막과 모금함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원우 ·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전화 한통화로 신청
●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 · 자동이체 신청 ●
문의 02)2004-8211~2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 … 마감 12월 17일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5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6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39 ■ 이메일 접수 : bypark@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지 사장상)
  · 특별상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천태종 총무원장상, 관음종 총무원장상, 총화종 총무원장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드립니다.



한국불교 1994~2004를 만난다

부다피아 '보도사진으로 보는…' 갤러리 오픈

현대불교신문이 창간한 199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한국불교 현대사를 200여 장의 사진으로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취재 일선에서 촬영한 주요 사진을 모아 '보도 사진으로 보는 한국불교 현대사' 갤러리를 9월 14일 오픈합니다. 불교계의 현재 모습을 전하는 현대불교신문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진을 추가하겠습니다.

■주소: http://hompy.buddhapia.com/homepy/photobuddhapia/

금주 '계율 특집' 부록 발행 타블로이드판 16면

'할'



그림 · 조태호

법혜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사 과 문

시사지 월간중앙은 최근 다룬 불교계 관련 기사에서 출가자의 인격과 불교계의 신성성을 훼손할 내용을 게재하여 제작 · 배포한바, 이에 불교계 및 그 관계자 분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립니다.

8월호 '갓 쓴 양반들의 성담론' 글은 역사적 근거가 희박한 사례를 담음으로써 많은 훌륭한 스님들과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또 9월호 '조계종의 4대 의혹을 캔다'는 제하의 조계종단 비리 의혹 제기로 인해 조계종단의 명예에 누를 끼쳤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월간중앙은 한국 불교계의 위상을 폄하하려는 어떤 사전적 의도가 없었음을 밝힙니다. 앞으로 월간중앙은 실추된 종단과 불자들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울러 유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9월 9일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월간중앙

불교 콘텐츠 전문가로 길러야…

화랑 스님 · 김성철교수 동국大 불교대학생 사회진출 방안 모색

제4차 동국대불교대학발전위 세미나서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생들을 정신 치유나 명상 등 불교와 관련된 고급 콘텐츠를 공급할 전문가로 키워야 한다."

9월 12일 다향관 동국대 세미나실에서 열린 제4차 동국대불교대학발전위(위원장 영담)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성철 불교문화학부 교수의 지적이다.

'불교대학 졸업생의 사회진출 현황과 개선방안'을 발표한 김 교수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교대학 졸업생의 진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식 정보화' 'NGO' '중국' 세 가지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재학생 교과과정을 혁신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김 교수는 향후 정보통신 사회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주장했다. 이전 산업화 사회에서는 물건을 만들고 이것을 사고파는 직업이 환영받았지만, 미래에는 정신적 가치를 상품화하고 유통하는 직업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문명시대의 불교문화콘텐츠 제작자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김 교수는 불교 NGO활동가도 유망한 분야로 제시됐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비판적 견제세력으로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 불교를 주목받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산화 이후 법맥이 끊겼지만 정부주도로 무섭게 성장해 나가는 중국불교의 조력자를 양성하는 것도 유망한 사회진출 방편으로 제시했다.

김 교수는 특히, 자신이 재직중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졸업생들의 열악한 사회진출 현황을 공개해 세미나 참석자들을 안타깝게 했다. 입학정원 40명인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의 경우 2003년 2월 졸업생 가운데 취업자는 16명이었다. 그나마 종교관련 취업에 포함된 스님 13명을 제하면 단 3명. 이 가운데 학원 강사 1명, 조교 1명을 제하면 전공에 맞춰 취업한 경우는 불교방송 PD로 입사한 단 1명뿐. 2004년에도 불교계 신문에 입사한 1명이 유일했다. 2005년에는 일반 기업체 취업 5명과 조계종 포교원에 취업한 졸업생이 1명으로 불교학과의 존폐마저 걱정해야할 수준이었다.

조계종 불학연구소 화랑 스님도 이날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계와 종단의 불교대학 인력 활용방안을 모색했다. 포교와 전법에 필요한 인력 양성계획과 수급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화랑 스님은 "조계종과 중앙신도회 차원에서 '불교인력정보센터(가칭)'을 설치하고 동국대 재단과 학교당국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맞춤형 인재양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국대 불교대학발전위는 그동안 불교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제, 교과과정, 우수교원 초빙방안 등을 연구해왔다. 이번 4차 세미나의 논평에는 조의연 교수(동국대 학생처장), 차차석 박사(동국대 강사),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용 행정관(청와대) 등이 참석해 '불자인재 양성'이라는 화두를 놓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조용수 기자

선거인단 보완 · 축소 · 추대…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 방안…13일 토론회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이 4가지로 가닥 잡았다.

조계종 종헌종법특별위원회 소위원회(위원장 중원, 이하 종헌종법특위 소위)는 9월 6일 회의를 속개하고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방안을 검토했다.

회의에서는 △현행제도 보완(선거공영제 도입, 선거관리법 강화, 재적승 200명 이상 교구본사의 경우 100명 당 선거인단 1명 증가 포함) △선거인단 축소(선거인단 교구본사주지와 중앙종회의원으로 한정) △추대(합의추대위 구성, 선거인단 추첨) △총무원장 권한 축소(임기 2년, 총무원 기채 · 재산처분승인권 교구종회로 이양) 등 4가지 개정방안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 추석 이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직선제(선거권자 구족계 10년 이상 비구 · 비구니로 확대)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논외로 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종헌 개정안 4개(총무원장, 법안 스님 외 26인, 수현 스님 외 34명, 무자 스님 외 25명 제출) △중앙종회법 개정안 2개(호법분과위원회, 토진 스님 외 4인) △총무원법 개정안(수현 스님 외 9명) △교육법 개정안(총무원장) 등을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한편 선거제도 개선과 관련한 토론회가 13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중앙종회의원 자승 스님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는 중앙종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총무원장 선거와 관련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남동우 기자



중국의 젊은 학승들이 통도사에서 간화선 강의를 들으며 한국불교를 체험하고 있다.

중국수행단 한국불교체험

종단협, 36명 대상 통도사등서

중국의 젊은 학승들이 불보종찰 통도사를 찾았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최로 9월 5일부터 12일까지 통도사에서 열린 한국불교 수행체험 프로그램에는 정명 스님(호국사 주지)을 단장으로 비구 20명, 비구니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수행체험단은 승가교육체계 소개, 간화선 강의 및 참선실수, 연등축제 소개 등 한국불교를 소개하고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더불어 연등 만들기, 단청그리기, 삼보일배 등 다양한 체험을 했다. 이 밖에도 범어사, 불국사, 석굴암 등의 사찰을 방문했다. 천미희 기자

"진실 밝히고 반성 · 참회해야"

법장스님 日 '세계'誌 인터뷰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이 올바른 한일 관계 정립과 일본의 역할론에 대해 견해를 피력했다.

법장 스님은 일본 유수 월간지인 〈세카이(世界)〉지 10월호에 실린 인터뷰 기사에서 한일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는 "(일본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시인하며 다시 그러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참회를 해야 한다"며 "상대를 인정하지 않으면 동아시아는 늘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법장 스님은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전범을 신으로 모시는 야스쿠니 신사를 한나라를 대표하는 총리가 머리를 숙이고 참배하는 것은 마치 '당신들은 잘했다'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것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두번의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법장 스님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에게 "물질적, 경제적인 힘의 논리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제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하며 "일본의 정치인이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면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존경받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동우 기자

금강대, 日 다이쇼대와 학술교류협정

김유혁 총장 타다코분 부총장과 7일 조인식

금강대(총장 김유혁)는 9월 7일 금강대 대회의실에서 일본 다이쇼(大正)대학과 학술교류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김유혁 총장과 다이쇼대학 타다코분(多田孝文) 부총장은 협정서에 서명하고, 양 대학간 학술교류 및 교육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직원 및 학생의 인적교류 ▲공동주제 연구등의 학술교류 ▲학술자료의 교환 등에 서로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을 제정해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다이쇼대는 1926년 설립된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대학으로 전교생 5,000여명에 인간학부에 불교학과, 인간복지학과, 인간과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문학부에 표현문화학과, 역사문화학과 등이 개설되어 있는 인문학 분야의 명문대학이다. 조용수 기자

열반종에 불상 기증

태국왕실, 7톤 규모

열반종(총무원장 해곡) 와우정사가 태국 왕실로부터 무려 7톤이 이르는 금동불상을 기증받았다. 이 금동불상은 태국 '프라크루 선톤 키자락사'라는 절에 의뢰해 5년간 제작한 것으로 높이 5m40cm, 너비 2m85cm에 이르는 대규모 불상이다.

와우정사와 태국 왕실은 1970년 태국공주의 방문을 계기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져왔다.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금으로 외관을 입힌 이 불상 외에도 좌우에 안치될 60kg 불상 2구도 함께 보내왔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임시중앙종회

26~30일, 선거법개정등 논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총무분과위원은 9월 7일 타워호텔 회의실에서 제20차 연석회의를 열고, 제167회 임시 중앙종회를 9월 26일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열기로 결정했다.

167회 임시종회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는 △종헌 개정 및 종법 제 · 개정의 건을 비롯해 △호법분과위원장 선출의 건 △사설사암실태파악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법규위원 선출의 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추천 동의의 건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 및 질의의 건 △봉은사 직영사찰 지정 건의의 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남동우 기자

"방장 종헌 종법대로 추대"

수좌회, 종회의장단에 '입장'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중앙종회의장단에 영축총림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현산 · 혜국 스님과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 등 12명은 9월 6일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법등 · 수석부의장 장주 스님 등과 만난 자리에서 "중앙종회는 종헌 제105조와 총림법 제6조, 승려법 제35조 제36조 등 종헌 · 종법에 입각해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통도사 주지 '3개월 직무대행' 내홍

젊은승가회 "약속 지켜라" 참회정진 돌입

양산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이 3개월간 주지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도사 젊은 승가회'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통도사 대웅전에서 3일간 참회정진에 들어갔다.

지광, 영수, 희문 스님 등 통도사 젊은 승가회 소속 50여명은 8일 열린 고불식에서 취지문 낭독을 통해 "현문 스님이 대중스님과의 어떠한 공의도 거치지 않고 방장스님의 주지 재임추천서를 가지고 총무원에 가서 주지 대행 임명장을 받은 것은 대중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도사 젊은 승가회 운영위원 희문 스님은 "10일 오후 1시 예정된 참회정진 회향 때까지 현문 스님이 사임하지 않을 경우 대중공사를 통해 강제 사임시키는 방안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문 스님은 "3개월간의 직무대행은 임기만료로 인한 주지 공석을 해결하고 9월 임시종회에서의 방장 추대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종회가 끝나는 대로 사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도사=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7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미국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보냅시다

지난 8월 29일 발생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하여 뉴올리언스를 중심으로 한 미국 동남부 지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 동포 4천여 명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 국민들이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명 피해도 1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피해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인종과 국경 종교를 뛰어넘는 인류애와 불자들의 자비의 손길을 보냅시다.

기 간
■ 9월 5일(월)부터 9월 30일(금)까지

모금 방법
■ 각 사찰에서 실시하는 각종 법회 및 행사 때에 모금 활동 동참
■ ARS 모금 전화 1통화 하기 ■ 온라인 입금 하기

모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3-25-0011-991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 농협 053-01-239894 예금주 (재)대한불교조계종 ■ ARS 전화 : 060-700-0482, 1통화당 5천원

○ 사부대중 여러분이 모아주신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피해민들에게 전달됩니다.
○ 자세한 문의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02)2011-1820~25)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총 무 원

개산대제 전국서 열린다

10월 범어사 · 통도사 · 갑사 등 주요사찰서

창건의 의미를 되새기고 개산조의 사상과 가르침을 계승해 사찰의 법통을 바로 세우는 개산대제가 전국 사찰에서 잇따라 열린다.

부산 범어사는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창건 1300년 기념 '문 없는 문을 여는 개산문예대제전'을 개최한다.

이번 개산대제에서는 '근현대 불교와 범어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개산대제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의식행사, 공연, 상설전시, 어울림 한마당 등이 개최되며 10월 1일 오후 8시에는 박물관 앞마당에서 음악회가 열린다. 10월 2일 오후 1시 30분 부터는 대웅전 앞에서 범패한마당이 진행된다.

양산 통도사는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통도사 창건 제1360주년 개산대제'를 봉행한다. 첫날인 10일 오전에는 설법전에서 개산대제 입제식과 함께 영축사생대회가, 오후 1시부터는 부도헌다제가 열린다. 오후 7시에는 대웅전 앞마당에서 만등불사 점등식이 거행된다. 더불어 박물관 중앙괘불전에서 제14회 청도적천사 괘불탱 특별전이, 대웅전에서는 부처님과 자장율사의 가사 친견 행사가 열린다.

영천 은해사는 10월 8일 오후 3시 부도전에서 다례제를 진행하고 9일 오전 11시부터 법요식을 진행한다. 앞서 오전 10시에는 지장전에서 지장봉안식을 봉행하고, 오후에는 보살계 법회를 개최한다. 또 저녁에는 만등불사 점등식과 함께 제등행렬에 나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든다.

계룡산 갑사는 10월 9일 '천년의 산울림'이라는 주제로 제1585주년 개산대제를 연다. 이날 11시부터는 무형문화재 범패이수자인 송강 스님이 범패와 작법 시범을 보이는 영산재 대법회가 시작된다. 이 개산대제에서는 조선 효종 원년에 조성된 국보 제298호 '갑사 삼신불괘불탱'을 친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9일부터 10월 30일까지 보장각 전시관에서 영조6년에 의겸 스님이 조성한 갑사 부처님 복장물특별전시회도 개최한다. 갑사는 이외에도 계룡대 호국사 불자회원과 함께 연차 시연회를 베푼다.

대구 동화사는 10월 9일 개산대제를 열며 서울 불광사도 오는 10월 16일 보광당에서 '창립31주년 기념법회'를 개최한다. 이은비 기자

"출가자의 소비생활을 규정하는 청규가 사찰 재정의 운영 및 관리방법과 적절히 결합할 때, 삼보정재의 투명한 운용은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개혁을 위한 종교인 네트워크'가 9월 6일 우리함께회관에서 개최한 '종교재정의 투명성 · 공익성 제고' 열린포럼에서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유승무 교수는

"21세기형 청규 만들자"

유승무 교수, 종교재정 투명화 포럼서 주장

재정 운영과 관련한 청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무 교수는 '자본주의적 소비환경과 삼보정재' 발제를 통해 "문제는 오늘날 한국불교의 사찰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 ·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부처님 당시부터 이어져 온 계율의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자본주의적 소비환경에 부합하는 청규를 제정해야 하며, '원융산림'과 '산중공의'의 정신을 사찰운영에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 교수는 사찰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을 갖는 실질적 기구로 거듭나야 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해 사찰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참여불교재가연대 윤남진 사무처장은 "청정한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자들부터 지킬 수 있는 청규를 만들어야 한다"며 동의를 표시했다.

또 이날 포럼에서는 서강대 김재득 박사, 가톨릭 우리신학연구소 박영대 소장, 개신교 성터교회 방인성 목사가 각 종교의 재정 투명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유철주 기자

'노인복지법 개정' 반대 종교계 성명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8월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종교계 및 노인복지법인단체가 9월 8일 비상대책위원회(회장 서경석)를 구성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단 및 종교계 복지관 관장들로 구성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자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설치 · 운영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위탁관리는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는 비영리 노인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노인복지기관들의 반발을 사고 있었다.

비상대책위는 김 의원의 발의 내용을 "사회복지법인의 오랜 헌신적인 노력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새로운 종교 탄합으로 규정될만큼 특정 단체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역차별적 개정악법"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종교 · 사회복지법인들의 민간자원 동원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비전문가의 발상에 의해 선의의 사회참여를 원천봉쇄하는 비현실적 망상"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지완 스님은 "전문성이 결여된 법안을 통과해 노인들의 실질적 서비스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진 기자



9월 9일 열린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시상식'에서 영등포 '보현의집' 원장 지거 스님이 서울복지재단 박미석 대표이사로 부터 우수상을 수상하고 있다.

불교계 잇따라 복지상 수상

불교계 사회복지시설들이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각 단체로부터 사회복지상을 수상해 불교사회복지의 위상을 높였다.

노숙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영등포 '보현의 집(원장 지거)'은 9월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 1회 사회복지 우수프로그램 공모 시상식'에서 생활시설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복지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공모전에서 보현의 집은 '동절기 거리노숙인 응급구호사업'을 응모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도 '전문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노인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용시설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앞서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은 9월 5일 '제3회 서울사랑시민상' 시상식에서 복지부문 우수단체로 선정됐다. 승가원은 자비복지타운이 건립되고 있다는 점과 기관들의 운영실적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승가원은 또 9월 7일 원주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원주사회복지대축제에서 소쩍새마을 직원 김윤동씨와 봉사자 이명순씨가 각각 원주시장상을 수상해 기쁨을 더했다. 김강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포럼 개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8일 한국역사기념박물관 2층에서 '불교사회복지 특별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6월 23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10주년 기념 '불교사회복지 아젠다 개발 세미나'에서 다뤄지지 않은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포럼은 '청소년복지 현황과 발전과제' '정신복지제공처로서 사찰의 역할탐색' '사회복지영역의 NGO 육성과 실천전략' 등의 3주제로 논의됐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연말 사회복지대회 전까지 올해 세미나와 포럼 자료를 묶어 책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김강진 기자

10 · 27법난 정부 진상규명

10 · 27법난의 진상이 정부 차원에서 규명된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이하 과거사위)는 9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10 · 27법난을 2차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거사위 이기욱 위원은 "1차 대상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10 · 27법난을 비롯한 4가지 사건을 2차로 조사할 것"이라며 "현재 1년인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 · 27법난 조사를 맡은 과거사위 염규홍 조사1과장은 "당시 사회분위기에서 왜 불교만이 탄압을 받았는지와 전국 3000여 사찰이 왜 한꺼번에 정화의 대상이 됐는지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과장은 또 "가능하면 전두환씨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차대상 선정 유감"

그러나 조계종 10 · 27 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추진위원회(위원장 법타, 이하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는 과거사위 결정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조계종 법난진상규명위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에 '법난'이 우선적 과제로 선정되지 아니 하고 2차 과제로 선정되었다는 점에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심히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철주 기자

불교언론문화상 공모

불교언론문화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수불)는 '제13회 불교언론문화상'을 공모한다. 불교언론문화상(옛 보리방송문화상)은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과 건강한 사회 발전을 위해 방송 · 신문 · 출판 등 3개 분야에서 공로가 큰 사람에게 주어진다.

추천 대상은 2004년 11월 이후 제작된 불교 관련 프로그램으로 장르 제한은 없다. 응모하려면 추천서 1부, 프로그램 기획서, 추천작 VHS 녹화 테이프 1개를 9월 30일까지 이메일(boribang90@hanmail.net)이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상 내역은 △대상 △방송-일반방송, 불교방송, 불교TV △신문-불교계신문 △출판-불교도서 등이다. 입상작 발표는 10월 중순경. 시상식은 11월 9일 KBS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02)745-5811 노병철 기자

"친일청산 촛불집회 2천만 불자 동참을"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촛불집회에 2000만 불자가 동참해주기를 호소합니다."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 · 재문 · 손안식 · 임헌영, 이하 추진위)가 9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촛불집회에 불자와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진위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조계종은 친일청산에 앞장서 온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아직까지 떨쳐내지 못한 친일망령의 청산을 위해 촛불집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부조리한 이 시대의 악행을 제거하고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파사현정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법원이 봉선사가 제기한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친일재산환수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사중의 역량을 모두 동원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승려노후복지실태 조사

조계종 1200여명 대상

조계종이 스님들의 노후환경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9월 5일부터 조계종 소속 만 65세 이상 스님들 1200명을 대상으로 '승려노후복지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결과는 10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는 조계종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실태조사라는 의미를 가지며 종단이 앞으로 '자비의 보험금' 사업 등의 승려노후복지사업을 단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시행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설문지 형식의 조사표 발송 이후 한 달 동안 조사연구원들의 전화 질의로 이뤄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스님들의 노후 문제를 정확히 진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에서는 기본 인적 사항, 노스님이 상좌나 속가 가족의 도움을 받는지의 여부, 질병의 유무, 국가의 기본적 복지 체계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했는가를 알 수 있는 기본생활 실태, 스님 개인의 노후대책 마련 여부 · 종단에 요구하는 노후 대책 마련 방법 등을 파악한다. 김강진 기자

'올해의 불서' 후보작 접수

불출협, 9월 20일까지

불교출판문화협회(회장 원택, 이하 불출협)가 한 해 동안 출간된 서적 중 불교출판문화 발전에 기여한 책을 선정 · 발표하는 '올해의 불서 10' 사업을 추진한다.

선정 분야는 불교관련 저 · 역사로, 경전해설서나 교리입문서, 수행관련서, 학술 · 역사서, 문화예술, 어린이 · 청소년 도서를 망라한다. 단, 시나 소설은 제외다.

참가를 원하는 출판사는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 사이에 국내에서 초판 발행된 불교관련 도서에 대한 서지정보 및 300자 이내의 소개글 등의 신청서류를 선정위원회로 접수하면 된다.

후보작 접수는 9월 20일까지 받으며, 11월 중순경 불교계 신문을 통해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이다. (02)926-8361 여수령 기자

봉 제2회 재가오계 수계식과 바른참선 지도대법회 축

향곡대선사로부터 한국의 선맥을 이으신 진제대선사께서 1971년 해운대 해운정사를 창건하신 개산일을 기념하여 원로의원이신 지혜대종사, 진제대종사님을 모시고 이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수승한 인간의 복락과 지혜를 누리는 인연은 재가오계(불살생,불투도,불사음,불망어,불음주)를 수지하는데 있으므로 불명과 수계첩을 받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수계식과 함께 올바른 참선법문을 들으시고, 오후에는 참선지도와 실참시간이 마련되어 직접 정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풍요로운 가을, 인연되는 많은 분들과 함께 두루 동참하시어 탑을 돌며 재가오계를 지키고 참나를 밝히려는 서원을 세우고, 올바른 참선법을 분명히 지도받아 간절하게 화두일념이 되도록 일상생활 가운데 꾸준히 노력하시어 마침내 대안락과 대지혜를 성취하십시오.

대한불교조계종 해운대 해운정사 주지 지 상 합장



■ 증 명 : 지혜 대종사(조계종 원로회의 수석 부의장)
■ 전계와 바른참선지도 법문 : 진제 대종사
(해운정사·동화사 조실, 조계종 원로회의 원로의원)
■ 장 소 : 부산 해운대 해운정사
■ 일 시 : 불기2549(2005)년 10월 17일 (음 9.15)
오전 10시 : 바른 참선법문과 수계식
오후 2~4시 : 참선수행 실참
저녁 7시 : 예불 후 재가오계등 점등
■ 동 참 금 : 15,000원
(불명은 행사 일주일 전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 수 : 해운정사 사무실(T. 051-746-2256,4812)
(팩스: 051-741-8882)
■ 홈페이지 : http://www.seon.or.kr
■ 입금계좌 : 농 협: 909-17-002300(예금주:해운정사)
국민은행: 119-01-0324-888(예금주:해운정사)
※기타안내 : 20여대의 관광버스 주차여건이 완비되었사오니 앞으로 있을 삼사순례 때 많은 참배를 바랍니다.


돌사람 크게 웃네 (石人大笑)
진제대선사 법어제1집 : 향상일로의 사자후! 역대 선지식들의 화두법문에 대한 고준한 평창 법어. <도서출판 백광>


염화인천 (꽃을 들어 하늘과 사람에게)
진제대선사 법어제2집 : 지혜의 보배칼로 다생의 무명초를 단칼에 베어 없애는 돈오참선법문. 옛 도인들의 차별삼매에 대한 점검. <화산문화사刊>


신판 禪백문백답 얼마나 참선법을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실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제방납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법문. 올바른 참선법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刊>

'맞춤 포교' 인프라를 구축하자

'불교'가 늙어가고 있다. 40~50대에서는 종교활동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불교인 비율이 20~30대에서는 30%대로 떨어지고 있다. 2003년 통계청 종교활동 참여인구 조사결과를 분석해 보면 10년 후 불교는 '대한민국 제1종교의 자리'를 개신교에 내줘야할 지도 모른다.

불교의 고령화를 극복할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당연히 청년 포교에 있다. 그러나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포교의 현실이다.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군장병과 대학생 포교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종단·단체 구분없는 '포교 공개념' 정립하자

● 글 싣는 순서 ●

1. 프롤로그 – 포교, 지금 이 순간의 사명
2. 포교사들의 원력과 고뇌 그리고 희망
3. 일터불심, 신행과 포교의 틈 좁히기
4. 사이버 공간 첨단 포교 공간인가?
5. 불교와 어울리는 대중문화
6. 문화 공간에 연꽃 피우기
7. 복지와 불교는 '같은 말'
8. 포교에 지역이 따로 있나?
9. 불교의 미래 어린이와 청소년
10. 캠퍼스와 군부대에 불교 심기
11. 지식인, 포교 주체인가 대상인가?
12. 무엇을 들고 해외로 나갈 것인가?
13. 기자방담



4월 9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열린 전국 대불련 신입생 환영회에서 대학생 불자들이 리듬에 맞춰 율동을 배우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군선교에 대한 타종교의 막대한 물량공세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불교가 군포교에 '올인' 할 때란 목소리가 높다. 법회를 끝내고 군포교사가 준비해 온 빵을 받는 군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캠퍼스

조직·지도자·지원체계 기독교에 뒤져
종단·동문 나서 템플스테이 등 활용을

▥ 무너지는 신행활동

요즘 대학 동아리나 학생회 활동은 거의 자취를 감췄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취업난과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는 학사관리시스템 등으로 인해, 대학의 특징인 함께 모여 활동하고 고민하는 '조직문화'가 대학 캠퍼스에서 실종된 이미 오래다. 대학생들은 뿔뿔이 흩어져 각종 취업시험을 준비하기에도 바쁘다.

대학생 포교를 상징하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이하 대불련)도 이런 어려움을 고스란히 겪고 있다. 대불련은 1963년 창립 이후 오랫동안 불자 인재의 산실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대불련의 모습을 보면 40년 역사를 가진 단체라고 말하기에는 왠지 부족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외형상으로는 전국 23개 지부와 176개 지회로 구성돼 작지 않은 조직은 갖춘 듯하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실질적인 활동을 펴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 지부중 동아리방 등 실질적 활동공간을 가진 곳은 서울 부산 대구 경북 뿐이다.

서울 지역 45개 지회 중 지도법사가 정기적인 법회를 주재하는 대학은 절반에 그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불련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 가는 간사는 10여명에 불과하다.

개신교 대학 선교단체 중 하나인 한국대학생선교회의 간사가 6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이렇다보니 대학내 위상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불교 신행단체로서의 활동력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대불련 한승희 지도위원장은 "대학생 포교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종단이나 사찰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제대로 된 사무실과 활동 인력 등 대학생 포교를 위한 물적 토대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찰·동문·재학생 유기적 관계 필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대학생 포교의 활로는 더이상 없는가?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전국에 있는 사찰이 개별 대학 불교학생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교구본사급 사찰이 대불련 각 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말사급 사찰은 각 지회와 일상적인 신행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도법사 초빙과 신행활동 공간 확보라는 두 가지 화두를 한꺼번에 풀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문들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어린 후배들의 신행활동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후원자가 필요한 것이다. 현재 내실 있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대학으로 알려진 인천대나 충남대, 계명대, 공주교대 등의 경우, 동문들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신행활동을 벌이고 있어 귀감으로 삼을만하다.

사찰 대학생회를 강화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현재 서울 봉은사와 불광사 등 일부사찰을 제외하고는 대도시 사찰에서도 대학생회를 찾아보기 어렵다. 대학생회 활성화는 곧 젊은층 포교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라도 대학생회 조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템플스테이를 대학생 포교에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템플스테이에는 불자 아닌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불교문화에 다가서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매년 초 진행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나 MT, 각종 수련회 등을 사찰에서 진행한다면 말 그대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불련 회장을 지낸 바 있는 조계종 중앙신도회 최연 사무총장은 "대학생 포교가 활발하게 전개되기 위해서는 신세대 감각에 맞는 프로그램을 포교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불련도 다양한 논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ycj@buddhapia.com

군부대

'초코파이 포교' 이젠 옛말… 포교 전쟁터
1사찰 1군법당 후원 등 현실적 대안 절실

"우리 절 신도가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무작정 쏟아붓기만 하겠어요?" '군법당 지원에 나서달라'는 주문에 대한 강원도 모부대 인근 ○○사 주지스님의 하소연이다. 스님은 "당장 빠듯한 예산으로 사찰을 운영하는 형편에서 군법당까지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토로한다.

군포교의 현실이다. 군포교는 시급한 종단사업과 사찰업무의 다음 순위로 항상 밀려나기만 한다.

이유가 뭘까? 개신교 가톨릭 불교의 군포교 예산을 살펴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진다. 군종교구 종무실장 전창응 법사는 "개신교 군선교 예산은 1년 100억 원이고 가톨릭 예산도 50억 원 이상이다. 반면 불교 군포교 예산은 6억 원에 불과하다. 개신교의 논산훈련소 한곳 선교예산만도 10억 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고 밝혔다. 군종장교에서도 군승 숫자는 개신교 군종목사 276명에 훨씬 못 미치는 130여 명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매년 필요한 정원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계가 매년 6만 7천여 군장병들을 위한 수계법회를 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기할 뿐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군 불자 숫자는 2000년 이후 15만 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개신교가 선교활동의 활로를 찾기 위한 군선교 프로그램인 '비전2020운동'을 통해 국군장병 75%를 신자화하겠다고 장담하고, 가톨릭은 95년 군종교구 출범이후 매년 군신자수를 빠르게 늘리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군불교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 군포교 위한 종단협의기구 구성을

1968년 군승법사를 파견하며 군포교를 시작한지 40여년. 그러나 군포교 현장은 여전히 '초코파이 포교'에 머물고 있다. "내 절, 내 종단 일도 아닌 군포교는 돈만 들어가지, 해 봐야 생색도 안 난다"는 의식이 불교계 내부에 팽배해진 탓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군포교공개념'에 대한 불교계 전체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토지이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토지공개념처럼, 군포교활동을 어느 개인과 종단에 종속시키지 않고 범불교적인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보자는 것이다. 범종단 차원에서 역량을 집중해 군포교를 위한 인적 재정적 투자를 하면, 불교계가 거기에서 나오는 청년불자 증가 등 효과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계종 이외 종단들은 이런 점에서 최근 출범한 조계종 군종교구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군포교를 범불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 종단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다.

'군포교공개념'에 대한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졌다면, 범불교 차원에서 군포교 현안을 논의할 틀을 갖춰야 한다. 그것은 모든 종단이 참가하는 군포교 관련 '종단협의기구'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전체 불교계의 역량을 모은 후 군포교 재정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익 및 후원사업, 1사찰 1군법당 후원체계 구성, 군승 군포교사 등 군포교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구성 등이 실천돼야 한다.

불교 종단들보다 훨씬 개성이 강한 개신교 17개 교파가 군부대 선교를 위해 초교파적인 '군선교연합회'를 구성했다는 사실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다. 군선교연합회는 "모든 교회가 군선교를 통해 미래 교인 양성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있다.

▥ 군승 선발 및 교육 체계 확립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적 인프라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

최근 열린 조계종 군포교종책연찬회에서 일백 스님(연등국제선원 주지)은 "군포교의 핵심주체는 분명 군승이다. 포교인력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 예비군승 선발 및 교육체계, 현역 군승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우수한 군승 자원수급이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진각종 위덕대, 천태종 금강대 등 불교계 대학의 군승파견이 이뤄져야 한다. 비구니스님의 군승활용, 가톨릭의 경우처럼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군종신부를 거쳐야 하는 '전면 요원제도'나 '전면 후보생제도'와 같은 제도의 실시 등도 고려해 봐야 한다.

교육 및 관리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 4박 5일씩 1년 2회의 연수교육을 시킨 후 군승으로 임명하는 현행 교육시스템으로는 우량 군승자원을 육성할 수 없다. 이와 함께 현역 군승교육 및 관리 장치 마련에도 불교계가 하루빨리 나서야할 것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제3회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약천사 양력 9월 25일(일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 2005년 9월 25일 월요일 오전11시 (음, 8월 22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9월 25일 (음, 8월 22일)
● 3재 : 양력 10월 9일(음, 9월 7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1월 6일 (음, 10월 5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배내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선요 강좌 안내

삼보에 귀의 하옵고
서울 불교전문강당을 졸업하고 경전을 깊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자 모임을 구성한 경전연구회가 1차 육조단경 강좌에 이어 2차 「선요」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설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교 재 : 선요 ■과 정 : 6개월
■강 주 : 각화사 고우 큰스님
■과 정 : 6개월
■일 시 : 매월 2째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저녁 6시 ~ 8시
■장 소 : 옥수동 미타사 내 대승암
■수 강 료 : 6개월 35만원 (저녁공양, 교재무료 제공)
■수강신청 : 9월 30일까지 (입금후 전화)
■개 강 일 : 2005년 10월 13일 오후 3시
■계좌번호 : 국민은행 222002-04-057361(예금주:김묘경)
■문의전화 : 회장 011-420-7838(지장)
재무 011-9910-1025(진호)

※조계종 비구, 비구니스님으로 구족계 15년 이상인 스님에 한합니다.
※종단의 중징계를 받은 스님은 입회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유없이 3번이상 불참시하시는 스님은 차기에는 함께 공부할 수 없으며 수료증이 나가지 않습니다.
※경전강좌가 끝나면 옛날 큰스님의 수행처 및 성지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사진 2매(수료증, 회원수첩)가 꼭 필요합니다.

경 전 연 구 회 일 동

“원 스톱 서비스로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부산에 ‘무량수 요양원’ 착공



8월 27일 착공식에 들어간 무량수 요양원 조감도.

22년간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왔던 선래 스님(사회복지법인 관음원 이사장)이 이제 노인복지에까지 눈길을 돌렸다.

7년 전 환갑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관음원을 설립한 스님은 8월 27일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서 무의탁 노인을 위한 무료 노인요양시설 ‘무량수 요양원’ 착공식을 가졌다. 최신 시설을 갖추고 내년 3월경 완공 예정인 무량수 요양원은 노년을 부처님 품안에서 염불하며 보낼 수 있도록 보살피고 돌아가신 후에는 천도재까지 책임지는 원 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를 펼치게 된다.

79세 성공 스님 땅 보시
무료로 사후 천도재까지
물리치료실 주민들에 개방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인 성공 스님(세수 79)이 평생의 원력을 담아 절을 짓기 위해 마련했던 땅 6백여 평을 5년전 선래 스님에게 내놓았고 선래 스님은 이 땅을 법인의 재산으로 등록해 무량수 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무량수 요양원은 604평의 대지에 연건평 333평 지상 4층 건물로 노인진료센터, 물리치료실,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침대용 승강기 등 최고의 시설과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을 갖추고 문을 열게 된다.

이 밖에도 층별로 취사, 여가 생활 등 소규모 그룹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동생활 공간을 설계해 입소자들이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물리치료실은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돼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시키고 향후에는 재가노인복지 프로그램을 도입해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지원법인으로 활동하며 동래구 관내의 결손 가정에 매년 1천여만 원의 장학금 지급과 경로잔치를 열어온 사회복지법인 관음원은 앞으로 무량수 요양원에 인접한 관음사부지에 치매요양시설과 법당을 갖춘 현대식 건물을 새롭게 건립,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이사장 선래 스님은 “무량수 요양원이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바탕으로 동래 지역의 노인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시설이자 어르신들이 기도 정진하는 도량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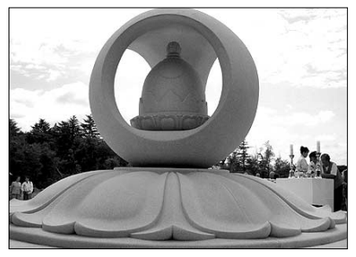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성림당 월산대종사 부도탑 제막식이 불국사 주지 종상 스님(앞줄 맨 왼쪽),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가운데) 등 1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봉행됐다.

“큰 가르침 중생의 이정표”

월산 대종사 8주기, 부도탑 8일 제막식



동국대 홍광표 교수 설계
비문 고은 · 글씨 정병철씨

前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성림당 월산 대종사의 부도탑이 열반한 지 8년 만에 모습을 드러났다.

불국사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 세워진 부도탑은 총 높이 4.5m로, 전통적인 석종형 부도 3면에 구멍이 뚫고 그 안에 지름 1.65m의 원구을 안치했다. 지름 6.5m 연화좌대와 9m 길이의 정방형 좌대가 그 밑을 받치고 있다.

동국대 홍광표 교수가 설계한 이 부도탑은 1999년 문중 스님들과 문도 문화재위원들의 발의로 착공됐으며, 사리함은 경주 금오산방의 최광웅 거사가 3년동안 제작하여 2003년에 봉안했다. 또 행적비의 비문은 고은 · 글씨는 운포 정병철 선생이 썼다.

9월 8일, 월산대종사의 열반 8주기를 맞아 봉행된 제막식에는 문중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 · 포교원 · 교육원 임원들과 종회의장 법등스님, 종회의원 · 본사주지 등 500여명의 스님과 800여명의 재가불자가 자리했다.

무설전에서 진행된 1부 법요식은 헌향 헌화, 죽비9배, 회주 성타 스님 인사, 주지 종상 스님의 경과보고, 법주사 회주 혜정 스님의 경모사, 총무원장 법장스님 (총무부장 현고 대독), 이의근 경북도지사 (김용대 행정부지사 대독) 백상승 경주시장, 이종근 경주시의회의장의 추모사로 이어졌고, 2부 부도탑 제막식으로 회향됐다.

글 · 사진/경주=배지선 기자

은해사, 봉사단 전문화 된다

동산간호보조학원서 간병교육 복지학부 개설 계획

은해사 자원봉사단(단장 혜해)이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 자원봉사단으로의 변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은해사 자원봉사단 중 30명이 지난 7월 1일부터 2달간 동산간호보조학원에서 시행하는 체계계적인 간병 교육과 실습을 받고 지난 8월 29일 전원이 전문 간병인 자격증을 받았다. 9월 29일부터는 2기생 30명의 교육이 시작될 예정이다. 2008년부터 시행될 노인요양보장제도에 대비해 전문 간병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봉사단장 혜해 스님은 은해사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복지관련 학부를 개설해 3급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다 전문화된 자원봉사단으로 키울 포부를 밝혔다.

2003년 발족한 은해사 자원봉사단은 그동안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봉사도 전문성을 갖춰야한다는 인식을 공감, 전원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미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복지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혜해 스님도 “봉사 교육을 통해 봉사하는 사람의 가치관이 확립돼야 진정한 ‘자리이타’ 사상을 체험하게 된다”며 전문적인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활동을 강조했다.

배지선 기자

봉화 축서사 사리 친견법회

봉화 축서사는 9월 4일 2002년 축서사 괘불탱 보물지정 과정에서 발견된 희귀한 적사리 2과와 미얀마에서 모셔온 불사리 108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사리친견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고운사 주지 혜승 스님, 축서사 주지 무여 스님, 류인희 봉화군수 등 3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무여 스님은 경과보고를 통해 “축서사 괘불탱화에서 부처님 진신 적(赤)사리 2과가 나와 이를 모실 방법을 찾다가 불탑 건립의 원을 세웠고, 그 후 매우 특별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정골 사리 108과를 더 모시게 돼 친견법회를 열게 되었다”며 “귀한 부처님 진신사리를 축서사에 봉안하게 돼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구도회, 부처님 이운법회

한국불교연구원 대구구도회(회장 하재웅)가 법당 증축공사 낙성을 맞아 9월 4일 부처님 이운법회를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불교연구원장 정병조 교수를 비롯한 재가불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하재웅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 구도회 설립 30년을 앞두고 법당을 마련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법당 마련을 계기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혼탁한 불교계를 밝히는 구도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각원사 울산포교원 연화사 개원

각원사 울산 포교원 연화사(주지 덕륜)는 9월 3일 혜인 스님을 초청 법사로 개원법회를 봉행했다.

동주 원명 스님을 증명으로 관세음보살 점안법회를 봉행한데 이어 열린 개원법회에는 통도사 전계대화상 혜남 스님, 각원사 불교대학장 대원 스님 등 3백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인 스님은 법문에서 “불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불자들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연화사가 불법을 널리 펴는 교육 도량이 될 것”이라고 축원했다.

내년 개강을 앞두고 있는 연화사 부설 호계불교대학은 10월부터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052)293-5550

천미희 기자

사회복지의 날 행사 풍성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난승)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9월 6일은 선린대학에서 ‘기업 자원봉사 활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사회복지 워크숍을, 7일은 포항시장애인복지관 야외광장에서 포항시사회복지시설종사자 파워업 페스티벌을, 10일은 환호 해맞이 공원에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백일장 및 미술대회를 열었다.

포항시사회복지협의회는 포항시사회복지단체와 자원봉사관련 기업, 학교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직능단체로 2000년 출범했으며, 지난3월부터 사회복지법인 열린가람 대표이사 난승 스님이 회장을 맡고 있다.

배지선 기자

관음사 레크리에이션 특강

“여러분은 법회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입니다. 율동을 익히겠다는 생각보다는 법회의 진행을 염두에 두고 레크리에이션의 큰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회주 우학)는 9월 4일 경주 향림사 법명 스님을 초청 어린이 청소년 지도교사를 위한 불교 레크레이션 특강을 열었다. 이날 특강은 영남불교대학 대구, 경산 칠곡의 어린이, 청소년법회 지도교사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9시간 동안 진행됐다.

실제 동작과 놀이를 통해 레크레이션의 진행 요령을 익히고, 구체적인 게임을 통해 자료를 모으는 방법까지 교육받은 지도교사들은 레크레이션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배지선 기자

“사경반 모집합니다”

영남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재원)이 사경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함께 수행정진할 사경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경반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대구시 수성구 상동 영남불교문화연구원에서 운영될 예정이며, 사경 지도는 계명대 서예과 대학원 출신의 시우 김난영 강사가 담당한다. 회비는 무료. 김재원 원장은 “부처님 말씀을 옮겨 적는 사경은 자신의 원력과 믿음을 한 글자에 담아 신앙의 힘을 키워 나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기도”라며 “많은 지역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053)761-8950

배지선 기자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포교를 …

대구경북 풍경소리 문화부 발족

‘풍경소리’ 대구경북지부(지부장 류병구)가 9월 2일 운영위원장 취임식과 함께 문화부 발족식을 가졌다.

수성구여성단체협의회, 대구교도소 교정위원, 홀트 아동복지회 등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해 온 김길희씨가 운영위원장으로, 제8기 포교사며, 살풀이고전무용전수자인 유희연 씨가 문화부장으로 취임했다.

풍경소리 류병구 지부장은 “많은 사찰들이 산사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비용부담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풍경소리 문화부의 인적 역량을 발휘해 최소한의 실비로 문화활동을 기획할 수 있도록 봉사함으로써 지역신도와 사찰간의 화합을 다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053)963-4080

배지선 기자



법주사 대웅보전
복원불사 회향 대법회

380년만의 복원 - 그 향기를 다시 만난다

속리산 법주사는 신라고찰로서 553년(진흥왕14년)에 창건되었으며 1624년 벽암대사가 중건한 천년고찰로서 역대 조사의 수행가풍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는 충북지역의 본사이며 수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사찰입니다.
이번에 낙성식을 봉행하는 법주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보전은 총170평에 이르는 2층 목조건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웅장한 불전으로 4년 동안 해체하고 복원 불사를 진행하여 380년만에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뜻깊은 낙성을 기념하는 행사를 봉행하오니 참석하시어 복원불사회향을 봉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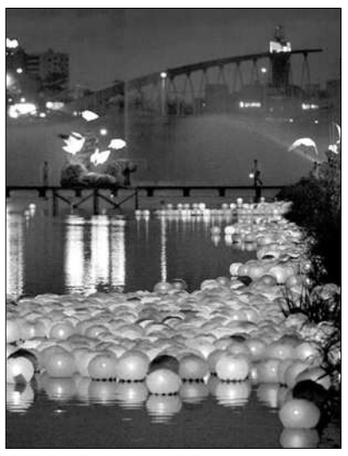
▶ 행사내용 •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대법회 : 오후1시
•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기념 보살계 수계식 : 오후 2시 30분
• 법주사 대웅보전 낙성식 축하 10만등 점등식 : 오후 7시

※ 보살계 및 10만등 접수 동참 문의 : 법주사 종무소 043)543-3615

• 일 시 : 불기2549년 10월 7일 (음력9월5일)오후1시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 주 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5교구본사 법주사

“직지 우수성 세계에 알리자”

청주청원사암련 무심천서 ‘제1회 직지찾기 유등축제’


청주 무심천에 떠 있는 유등.

형형색색 연등이 청주 무심천의 물결 위를 환하게 수놓았다.

청주청원사암연합회(회장 각의)는 9월 1~4일 ‘제1회 직지찾기 유등축제’를 무심천과 청주 예술의 전당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유등축제는 현존하는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널리 알리기 위해 1회 유네스코 직지상 시상식 및 기념행사와 연계해 열렸다.

행사기간 내내 무심천을 수놓은 ‘직지등’ ‘학등’ ‘연꽃등’ 등 전통 한지등은 밤마다 달빛과 어우러져 유유히 떠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절정을 이뤘다. 높이가 3~4m나 되는 20여개의 전통등과 직지찾기의 소원을 담은 ‘직지등’ 200여개가 출품된 ‘전통등전시회’도 눈길을 끌었다.

청주 시민들과 불자들은 청주 예술의 전당과 무심천 일대를 거닐며 전통 등 앞에서 사진을 찍는 등 불교문화축제의 화려함에 감탄했다. 적문 스님의 정갈하고 감칠 맛 나는 ‘전통사찰음식 시식회’도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붙들었다.

이밖에도 행사기간동안 신명예술단의

전통燈 200여점 전시
사찰음식 시식회도 인기

‘축하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다.

2일 제1회 직지상 시상식에서는 체코 국립도서관장 블라스타 밀예제크씨가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마지막 날인 4일에는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직지대법회’도 봉행됐다.

청주청원사암련 회장 각의 스님은 법회에서 “직지축제 기간 동안 직지찾기에 동참하고 시민들과 함께 직지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유등문화제를 개최하게 됐다”며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자랑하고 계승 발전을 위해 사부대중의 마음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법회에는 풍주사 선원장 범추 스님, 충청북도 이원종 지사, 한대수 청주시장 등을 비롯한 5000여명이 동참했다.

글 · 사진=혜철 충남 대전 지사장

스님 · 신도 · 지역민 한마음으로 불사

고흥 금탑사, 폐사지 위에 대가람 6일 회향

고흥 금탑사(주지 휴정)가 9월 6일 중창불사를 마치고 회향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회향식에는 송광사 회주 법흥, 주지 영조, 동학사 승가대학장 일초 스님을 비롯 송광사 교구 산하 스님과 지역기관장, 재가신도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은 축사에서 “폐허나 다름없던 사찰이 10여년 만에 대가람으로 면모를 일신했다”며 “대중스님은 물론 지역주민과 신도들의 간절한 원력에 감사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법흥 스님도 법어를 통해 “대작불사를 이룬 신심은 거룩한 것으로 참 자아를 찾아가는 정진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중창불사는 지난 1991년 서림 스님(금당선원장)이 금탑사 주지로 부임해 12년여에 걸쳐 노력을 해온 결과다. 그동안 나한전, 지장전, 삼성각, 선원, 승당 등을 신축하고 극락전, 응향각, 명부전, 괘불탱화를 보수했으며 1000관 규모의 대범종을 조성했다.


금탑사 중창불사 회향법회에 30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금탑사는 신라 선덕여왕 6년(서기637년) 원효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 보물 제1344호 괘불탱화와 지방유형문화재 제102호 극락전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39호 비자나무숲이 가람을 외호하고 있다.

글 · 사진=이준엽 기자

봉은사 ‘선지식 및 명사초청’ 법회

25일부터 매주 일요일 14회 걸쳐
웰빙 정치 · 경제 · 평화 등 주제 다양

서울 삼성동 봉은사(주지 원혜)가 큰스님과 명사를 초청해 ‘선지식 및 명사초청법회’를 연다.

법회는 9월 25일 이성호 연세대 교수의 ‘모든 자녀가 1등할 수 있는 발상의 전환’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총 14회에 걸쳐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개최된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지관 스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인드라망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김경남 코엑스 상무이사 등이 법사 또는 강사로 나선다. ‘부처님에게서 배우는 희망의 웰빙정치’ ‘불교와 경제의 상관관계’ ‘아름다운 나눔과 진정한 보시’ ‘생명평화, 인드라망’ 등 주제도 다양하다.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선지식법회, <선요> 강좌 등을 개최한데 이어 이번 기획법회를 개최함으로써 서울의 중심도량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선종 수사찰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2)511-6070 www.bongeunsa.org

박봉영 기자

날짜	법사(강사)	주제
9월 25일	이성호(연세대 교수)	모든 자녀가 1등할수 있는 발상의 전환
10월 2일	보광 스님(前 해인사 주지)	발심과 수행
10월 9일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부처님에게서 배우는 희망의 웰빙정치
10월 16일	김경남(코엑스 상무이사)	불교이론과 경제의 상관관계
10월 23일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삼학의 전통과 그 수행
10월 30일	도법 스님(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생명평화, 인드라망
11월 6일	도영 스님(조계종 포교원장)	미래세대 포교를 위하여
11월 13일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아름다운 나눔과 진정한 무보시의 실천
11월 20일	청화 스님(조계종 교육원장)	교육! 100년을 바라본다
11월 27일	미정	불교의 생명관
12월 4일	종범 스님(중앙승가대학 총장)	‘선종 수사찰’ 봉은사의 방향
12월 11일	혜담 스님(경기도 광주 각화사 주지)	불교 상담은 이렇게
12월 18일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	소외계층 포교는 이렇게
12월 25일	현진해(고대병원 내과 전문의)	양약으로 바라보는 불교

천년고찰 외호 단풍나무 문화재 지정

고창 문수사 진입로 500여그루

고창 문수사(주지 선법) 진입로에 자생하는 단풍나무 500여 그루가 지난 9월 8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63호로 지정됐다. 단풍나무숲으로는 국내 최초 문화재가 된 문수사 진입로 단풍나무는 직경 30~80cm, 높이 10~15m, 나무둘레 2~2.95m 크기로 수령 100~400년의 노거수가 군락(20필지 12만65㎡)을 이루고 있다.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된 군락지에는 단풍나무 이외에도 고로쇠나무, 졸참나무, 개서어나무, 상수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도 함께 분포되어있다.


문수사 진입로의 단풍나무 군락.

문수사 주지 선법 스님은 “단풍나무 숲에 가을 단풍이 들면 부처님 영산회상을 화려하게 장식하듯 장엄하다”며 “천년 문수도량과 단풍나무 수호에 더욱 힘 쓰겠다”고 말했다.

이준엽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하남 상불사

새싹불자들의 열린 공간


하남 상불사는 미래불자 양성을 위해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힘쓰고 있다. 사진은 7월 30일~8월 1일 해남 진학사에서 열린 ‘야단법석’ 수련회 때 모습.

어려운 여건에서도 불교의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절이 있다.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하남 IC 바로 옆에 위치한 상불사(주지 동효)가 그 곳. 상불사가 ‘불교의 미래’와 통하는 이유는 매주 일요일 열리는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법회가 상불사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일요일, 일반 불자는 상불사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렵다. 법당은 물론 대중방에 이르기까지 도량 곳곳이 어린이 · 청소년에게 점령당하기 때문. 법회가 끝나면 아이들은 대중방에 모여 주지 동효 스님과 함께 한자공부에 열심이다. 신도들은 이날만은 아이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도 흐뭇한 표정일 수밖에 없다.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상불사의 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것은 물론 여름과 겨울 두 차례에 걸쳐 ‘야단법석’ 수련회를 열어 흥미를 돋운다. 법회 참석률과 한자공부 성적, 인터넷 상불사(cafe.daum.net/sangbulsa) 활용빈도 등을 점수로 환산해 장학금과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 상불사가 사부대중의 알림방이요 쉼터로 자리잡은 이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하는 가족법회로 변화를 주고 있다. 주지 동효 스님은 법회에 참석하는 어린이 ·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할 때 불교가 생활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야기해야 부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집에서 밥을 먹을 때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상불사는 동효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올해 신도층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젊은층 신자와 가족단위 신도가

법회 · 한자공부 등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진력
하남 불교 활성화 위한 산사음악회 계획

늘고 있는 것. 동효 스님이 권위를 내세우기 보다는 어깨를 나란히 하는 ‘눈맞춤식 포교’에 공을 들인 결과다.

동효 스님은 어린이집을 설립해 미래불자 양성하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현실적인 문제이지만 불교세가 약한 하남지역의 불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필요하다는 것이 스님의 강한 신념이다.

동효 스님은 “하남지역 포교를 위한 첫 걸음으로 10월 28일 산사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며 “서툴지만 착실히 추진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박봉영 기자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제19기 「전생요법 · 빙의 치유」 특별강좌


상담학 박사 임재형

무료공개강좌 9월 22일 13:00~16:00까지

개강안내 9월 23일 10:00~18:00까지 (매주 금요일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전생상담사 이수증 발급 및 회원 가입 후 정기적 보충교육 실시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같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 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사 주 명리학	사주 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면의 원리, 자기최면, 타인최면 최신기법, 심리치료, 자율훈련, 성격개선,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공포증 소거법,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슬픔, 번뇌 집착에서 벗어나는 후최면 건망법,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1만원을 송금하시면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

심리상담 전문가 / 한국생활최면 실천학회장
한국최면지도사협회 회장
한국치유목회대학원 겸임교수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i세상 속으로, iTV, TJB, CMB방송 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외 다수 대학과
공무원 연수원 기업체 등 에서 강의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전 화 : (042)255-0734~5
•주 소 : 대전시민회관 후문 청운빌딩 (2층강의실) 대전역에서 5분거리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주최 : 한국전생 · 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최면과학원 www.HYPNOS114.COM



지역 최고의 유치원으로 꼽히는 '맑고 향기로운 연꽃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평택 명법사에서 어린이들이 컴퓨터 학습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

개신교 강세속 불교 '대중화'

평택 신행 · 복지 · 문화분야서 눈부신 활약

안성 명찰의 고장, 발길 닿는 곳곳에 성보

오산 사찰 10여곳…사암련 활동 '이미지 UP'

경기 평택·안성·오산

평택

평택은 인구 36만의 도농복합도시다. 미군부대가 위치해 있어 개신교세가 강한데다, 유동인구가 많아 불심이 약한 편이다. 무속신앙도 뿌리가 깊고,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지형탓에 사찰들 간의 왕래도 쉽지 않다. 이래저래 평택 불교는 쉽지 않은 여건을 안고 있다.

그런 여건속에서도 평택 불교를 대표하는 명법사는 신행 · 복지 ·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부신 활동을 하고 있다. 30개 팀으로 구성된 신도조직과 대학생 · 일반 · 젊은 기혼자로 구성된 3개의 청년회와 어린이회, 학생회 역시 평택 불교의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수도사는 평택 불교의 지형을 바꿀 기대주로 꼽힌다. 사찰음식강좌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수도사를 평택시가 원효대사 오도성지로 성역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어 머지 않아 평택 불교 발전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자비사와 만기사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새싹불자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2년 전 불사를 마친 법장사는 올해 초 새 주지 보광 스님이 오면서 본격적으로 포교에 뛰어들었다. 신도회가 신행과 봉사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어린이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불교대학 등 교육 프로그램과 음악회 등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다.

안성

안성에는 이름 있는 절이 많다. 신라 선덕여왕 때 자장 율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 칠장사, 고려시대 수행도량으로 이름을 떨쳤던 석남사, 남사당패가 머물렀다는 청룡사, 종이로 만들어진 부처님으로 유명한 청원사, 천년고찰 운수암, 수행공동체가 형성돼 있는 보현도량 도피안사 등.

많은 성보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안성 불교의 자랑거리. 칠장사 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과 죽산리오층석탑(보물 제435호), 석남사 영산전(보물 제823호)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10점이나 되고, 기솔리석불입상과 청원사칠층석탑 등 경기도 지정 유형문화재 · 기념물 · 문화재자료 만도 30여 점이나 된다.

유기로 유명해 '안성맞춤'이라는 말을 낳은 곳 안성. 배와 포도, 인삼으로도 유명한 안성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브랜드는 바로 '불교'다. 이름 있는 절과 성보문화재가 많은데다, 사찰들도 나름대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지역 정서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40여 사찰들이 종단 구분없이 모인 사암연합회는 지역 현안에 공동대처하는 등 불교 위상 강화에 동참, 부처님오신날 문화축제와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으로 불교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다.

사찰로는 도피안사의 활동이 단연 돋보인다. 올해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제1차 구국구세법회'를 열고 본격적으로 불교 대중화와 사회화에 나섰다. 또 칠장사 석남사 청룡사 청원사 등은 전통사찰이자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통해 안성불교 알리기에 기여하고 있다.

오산

인구 13만명의 오산은 시치고는 비교적 규모가 작다. 이런 가운데에서 10여 곳 남짓한 오산의 사찰들은 서로 힘을 합쳐가며 불교를 지켜가고 있다. 불교가 다소 침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찰 수와 개신교세를 감안하면 오히려 현재와 같이 나름대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견한 일이다.

대각포교원은 16년 동안 어린이 법회를 진행, 새싹불자를 키우면서 오산불교의 미래를 가꾸고 있다. 이제는 어린이법회 출신 아이들이 성장해 법회 교사로 활동하고 있을 정도가 됐다.

선불사 역시 복지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신도회가 초 · 향 · 염주 등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으며, 사회 재난 때에도 빠뜨리지 않고 성금을 내놓는다. 또 오산사암연합회도 9년 째 부처님오신날 쌀 20가마를 오산시에 기탁, 지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이미지를 심었다. 도심포교당인 각황사는 성지순례 등 다양한 신행 프로그램으로 불교심기에 주력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부모은중경탑 건립, 효사상 전파

정무 스님 (안성 석남사 회주)



정무 스님 하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효'다. 인성 회복과 바른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효'이며, 혼탁한 세상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효사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신념이 확고하다. 30년전 용주사 주지 때 경내에 부모은중경탑을 세웠으며, 석남사에도 같은 탑을 세웠다.

1968년 불교계에서는 처음으로 신도수련회를 여는 등 한국불교 포교에 크게 기여했다. '일일부작 일일불식'의 백장청규를 실천하는 수행자로서 후학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신도들과 격의없이 신행 이끌어

대운 스님 (오산 선불사 주지 · 본원종 중앙종회의장)



대운 스님은 오산에서만 30년간 활동해 온 오산불교의 터줏대감이다. 신도들과 격의없이 어울리며 활발한 신행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자신을 낮추며 모든 공을 신도회장인 신장호 거사와 신도들에게 돌린다. 그런 대운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는 두텁다. 신도들과 함께 불우이웃돕기 및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오산불교 발전과 불교 미래를 위해서는 새싹 포교가 절실하다는 생각에서 불교유치원에 뜻을 두고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복지 원력

원경 스님 (평택 만기사 주지)



원경 스님은 13년간 선방에서 수행하다 1995년 만기사 주지를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포교에 뛰어들었다. '사회복지 없는 불교 미래는 없다'는 소신이 확고하며, 이를 위해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10년 전 연꽃어린이집을 설립해 어린이 포교에 나섰으며,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에도 뜻을 두고 있다.

1985년 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창립했으며, 1965년 전국체전 검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

오산불교 중심…종단 화합 일궈

정호 스님 (오산 대각포교원 주지 · 오산사암련 회장)



'명함'도 못 내밀던 오산불교가 지역에서 무시할 수 없는 종교단체로 자리잡기까지는 17년 간 불교 위상을 높이기 위해 고군분투한 정호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10년 넘게 오산사암련 회장을 맡아 교육 · 포교 · 복지 · 사회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성실하며,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암련 회장 외에 현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오산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화성경찰서 경승실장을 맡고 있다.

전통사찰음식 강좌 인기몰이

적문 스님 (평택 수도사 주지)



2년 전 수도사 주지로 부임, 전통사찰음식학습체험관을 세우고 템플스테이와 템플라이프를 운영하는 등 짧은 시간 안에 수도사를 평택에서 주목받는 사찰로 바꾸어놓았다.

현재 적문 스님이 진행하고 있는 전통사찰음식 강좌는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높다.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원을 설립하고 13년간 사찰음식을 연구하며 대중화에 기여했다. 사찰음식을 해외에 알리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미혼모 시설 마련 소외계층 돌봐

순형 스님 (평택 명법사 주지)



명법사가 평택불교의 대명사로 불리기까지는 30년간 한결같은 원력으로 포교에 매진해 온 순형 스님의 땀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든 해내는 강한 추진력과 밤낮을 가리지 않는 부지런함으로 명법사를 교육 · 포교 · 문화 · 복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포교도량으로 자리매김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복지활동에 더욱 주력, 현재 미혼모 수용시설을 마련해놓고 있으며, 내년 중 양로원도 개원할 예정이다.

자비동산 세우고 새싹불자 키워

법성 스님 (평택 자비사 주지)



폐사에 가까운 자비사를 중창하고 30년 간 포교에 매달리며 평택불교 발전에 앞장섰다. 지금은 97년 설립한 어린이집 '자비동산'에 매달려 새싹포교에 주력하고 있다.

법성 스님은 1975년부터 지금까지 불우한 아이들과 청소년 160여 명을 키워왔으며, 지역 포교와 복지에 기여한 공로로 총무원장상과 경기지사상을 받기도 했다.

조계종 12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조계종 단일계단 갈마위원을 맡고 있다.

광덕 스님 뜻 이어 불교 대중화 앞장

송암 스님 (안성 도피안사 주지)



불광운동을 통해 근대한국불교 대중포교의 기틀을 다진 광덕 스님의 상좌로, 은사스님의 뜻을 이어 교육 · 포교 · 수행 · 사회운동 · 출판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 사회화에 앞장서고 있다.

송암 스님은 날카로운 시각 · 폭넓은 식견 · 열린 마인드로 도피안사를 안성의 대표적인 사찰로 자리매김시켰다. 특히 독서운동, 어린이 천문학교실, 구국구세법회 등 새로운 아이템을 통한 포교활동으로 안성불교를 넘어 한국 불교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승 창립 주도, 종단개혁 박차

해월 스님 (안성 쌍미륵사 주지 · 법상종 총무원장)



안성 불교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바로 해월 스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데 누구나 동의한다. 13년 전 사암련 총무부장을 맡아 지역의 스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화합을 이끌어 냈다.

사암연합회장 도광 스님과 함께 경승을 창립하고 본격적인 지역 포교활동에 뛰어들었다. 하루도 좌선을 거르지 않는 등 수행자로서 신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법상종 총무원장으로서 종단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발우·육법공양 등 체험포교 나서

보광 스님 (평택 법장사 주지)



평택불교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대주로 꼽히는 젊은 스님. 교육, 포교, 복지, 사회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법장사를 평택의 포교 1번지로 발돋움시키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보광 스님은 발우공양 육법공양 등 모든 의식을 신도들이 직접 해보고 몸으로 체득함으로써 불교를 알 수 있도록 체험위주의 체계적인 교육을 준비 중이다.

봉원사에서 3년간 범패를 배우고, 현재 동국대에서 국악을 전공하고 있다.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 (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맑고 향기로운 세상 자연식의 집
자연식 식이요법 암(癌) 성인병전문수양원
– 음식물과 생활을 바꾸지 않는 限 근원적 치유는 불가능하다.

달성 가창 우미산 황새골에 위치한 자연식의 집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울창한 숲과 깨끗한 공기 우미산과 삼성산 사이에서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 따스한 햇볕 다양한 산책로와 등산로가 있어 숲속의 정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산림자연 쉼터이며, 수양원으로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본원은 자연치료원리에 의한 자연 식이요법과 원장님의 30가지 음식 처방에 따라 현대의학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성인병 및 질환에 일체의 약물 조미료를 쓰지 않고 생활환경과 습관을 개선하여 인체의 생리작용을 변화시키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며 조직의 향상성을 높여 질병의 증상을 예방하고 자연치유력에 의하여 병이 스스로 고쳐지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나무약사여래불

맑고 향기로운 세상 전화 053)767-0036

조계종 가사의제 통일

조계사서 설단식…종단 상징문양 삼보륜 직조



조계종 스님들의 의제를 통일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조계사는 9월4일 가사불사를 시작했다. 사진은 편수 무상 스님(오른쪽 두번째)과 도감 재경 스님(왼쪽)이 가사천을 재단하고 있는 모습.

조계종 의제 통일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불기2549년 가사불사 설단식'이 9월 4일 조계사 임시 가사당에서 열렸다.

가사불사 설단식은 불사를 시작하기 전 총감독 격인 편수와 도감, 화주 등 가사 제작의 실무자들이 가사당에 모여 불단을 세우고 가사불사에 쓰일 천과 기구들을 점검하는 의식.

조계사 신도회 옆 조립식 건물에 임시로 마련된 가사당에는 공업용 재봉틀 4대와 다림질 테이블 4개가 가로로 길게 놓였고, 재단과 시침질을 할 넓은 자리도 한 가운데 마련됐다.

편수를 맡은 무상 스님(법주사)은 "여래와 보살의 큰 옷인 가사를 수하는 자는 큰 복전이 되고, 가사를 조성하는데 동참한 사람은 수승한 복이 구름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주지 도문 스님도 "이번 가사불사는 달리 종단의 의제를 통일하는 불사"라고 강조하고 "편수 무상 스님의 지도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으로 가사불사가 원만회향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사불사는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영원불변한 불성과 불법을 상징하는 법구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법의(法衣)를 공양하는 것으로, 설단식에는 조계사 부주지 도문 스님, 법주사 무상 스님, 포교국장 재경 스님, 진실행 신도회 부회장 등 실무자 10여명이 동참했다.

특히 올해 조계사 가사불사는 종단의 의제를 통일하는 시범사업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조계종과 조계사는 올해 동안거 입제전까지 모두 1000벌의 가사를 만들기로 하고, 최근 종단상징 문양으로 등록된 '삼보륜(불법승 3원을 하나로 두른 큰 원)'이 직조된 옷감의 생산을 의뢰했다.

먼저 종단 최고 어른인 대종사부터 일반 스님들까지 품계에 맞는 가사를 시범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법계에 따라 원로스님인 대종사와 종사는 25조, 선사 율사 법사 강사는 15조, 비구 비구니 스님들에게는 9조 가사를 종단 원로대덕 스님들과 올해 10월 3급 승가고시 합격자들에게 봉헌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사도감 설단식에 조계사 가사당에서는 침선(재단, 재봉, 바느질, 다림질)을 비롯해 가사제작에 동참하려는 자원봉사자 또는 재봉틀(공업용 미싱)을 빌려줄 신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다.

가사불사 회향은 11월 6일. (02)732-2187

조용수 기자

남북 평화통일 기원 수륙영산재

관음종, 금강산 신계사서

"금강산의 자연은 그대로가 비로자나의 화신입니다. 전쟁터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은 아름다운 자연의 법문을 듣고 극락왕생하소서."

남북 평화통일 기원 수륙영산재가 봉행된 8월 30일 북한 금강산 신계사(주지 제정).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의 영가 천도법문이 금강산 계곡을 타고 울려 퍼진다. 관음종 각 사찰 주지 스님과 150여 사부대중들이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전쟁을 통해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한 영혼 및 유주무주 인연 영혼을 천도하기 위한 법회를 마련했다.

한국전쟁이 끝날 무렵 한 치의 땅이라도 더 빼앗기 위한 전투가 신계사 지역에서 벌어져, 수많은 남북한 군인들이 희생됐다. 천년고찰 신계사도 이때 불에 타 50여 년간 잿더미로 방치돼 있었다. 지난해에야 대웅전이 남북 불교계의 합심으로 다시 건립됐고, 지금은 만세루 복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홍파 스님은 이날 "금강산 신계사 복원 불사는 종단을 초월하여 추진돼야 하며, 북한 동포에게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음종은 이날 복원불사에 써달라며 금일봉을 신계사 주지 제정 스님에게 전달했다.

강유신 기자



평화통일 기원 수륙영산재가 8월30일 금강산 신계사에서 관음종 사부대중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태고종 경남교구 선암사서 자비실천 수계대법회 열려

태고종 경남교구종무원(원장 월봉)이 9월 7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자비실천 수계대법회(사진)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산림은 종정 혜초 스님을 증명으로도월 수진 대화상을 전계 아사리로, 철화 경호 대화상을 교수 아사리로, 운산 대행 대화상을 갈마 아사리로 청은, 등법, 산옹, 금룡, 태우, 월봉, 서산 스님을 각각 7증사로 봉행했다.

이번 자비실천 수계 대법회에서는 경남종무원 소속 중부분원, 밀양분원, 서부분원, 김해분원, 남부분원, 동부분원, 고성분원 등 7개 분원 산하 150여 사암 신도 2000여명이 보살계를 받았다.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 월해 스님 취임·종무원 임명

태고종 대전교구 종무원장으로 선출된 월해 스님(현 금강정사 · 봉서사 주지 · 총무원 총무부장)의 취임법회(사진)가 8월 25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봉행됐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태고종 사정원장 법장 스님, 대전시 사암연합회장 운봉 스님, 태고종 대전교구 윤석인 신도회장등 1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대전교구 종무원장 월해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전교구가 비록 60여 개 미만의 사찰로 구성되어 힘은 미약하나 분골쇄신하는 마음으로 종단의 발전을 돕고, 나아가 대전교구가 한국불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대전교구 종무원장 취임식에 이어 종무원 임명식도 함께 열렸다.

△부원장 지륜(백련사) △사정원장 법안(안심정사) △교육원장 동산(대각사) △포교원장 동해(동관음사) △총무국장 남산(안국사) △기획국장 우담(혜안사) △사회국장 용원(화암사) △재무국장 성인(석림사) △교육국장 무진해(용해사).

김원우 기자

진각종 국제불교 업무 통합

진각종의 국제불교 관련 업무가 통합 운영된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진산 정사)는 9월 2일 서울 총인원 무진설법전에서 제 344회 임시 종의회를 갖고 국제불교 업무를 국제불교연구소에서 관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불교연구소법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따라 국제불교연구소는 문화사회부 소속에서 독립된 전문 연구부서로 지위를 격상됐다.

또 국제불교 연구소장은 진각종의 스승으로서 부장급으로 하고 위촉은 원의회를 거쳐 통리원장이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불교연구소는 그동안 문화사회부 소속이면서, 사실상의 업무는 포교부에서 관장함에 따라 업무의 통일성과 연계성 등이 미흡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국제불교연구소는 앞으로 △국제포교에 관한 사항 △JGO 해외지부 운영 및 관리 △해외 심인당 포교연구 및 상호지원 △국제불교 및 국제학술교류 △남북불교교류 △통일이후의 북방포교 등의 연구 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김원우 기자

진각종 원로 스승 10월 퇴임

진각종 원로스승 기로진원식 및 퇴임식이 10월중에 개최되는 추기스승강공 때 봉행된다.

진각종 원의회(의장 회정)는 9월 1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제 240회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퇴임하는 원로스승은 일정 정사(능인심인당), 자각정 전수(능인심인당), 실각정 전수(통리원), 혜정각 전수(묘향심인당), 명선각 전수(법상심인당) 등이다.

김원우 기자

태고종 건설사업단 발족

태고종은 종도들이 사찰을 증 · 개축할 경우 불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해 건설사업단(단장 성중) '가람'을 발족했다.

건설사업단 '가람'은 외부의 전문업체를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직영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02) 382-7361

김원우 기자

천태종 을유년 하안거 해제

천태종 을유년 하안거 해제식이 9월 10일 밤 10시 구인사 5층 설법보전에서 봉행됐다.

천태종 하안거는 8월 11일 입제해 한달 동안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천태종-조불련 영통사 낙성 실무회담

천태종이 9월 14일 금강산에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영통사 낙성식 봉행에 따른 실무접촉을 갖는다.

조불련은 9월 6일 천태종에 정서정 서기장 명의로 접촉을 갖자는 내용의 팩스전문을 보내왔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사회부장 무원 스님 등 3명을 금강산으로 파견해 조불련 정서정 서기장 외 2명과 실무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8월 16일 영통사 낙성식을 천태종 스님과 신도 350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8일 경 현지에서 개최하고, 학술세미나도 열자고 조선불교도연맹에 제안했었다.

김원우 기자

지역사찰 활성화 주제로 조계종 포교종책연찬회

"사찰이 농촌과 손을 잡고 지역개발을 통한 포교 방법을 연구해야 할 때입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은 9월 8일 2층 회의실에서 '공공기관 지역활성화 정책과 지역사찰 활성화 방안 연구'를 주제로 제4차 포교종책연찬회를 열었다.

이날 '공공기관의 활성화 방안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박승현 마을만들기 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역과 사찰이 하나가 되는 '마을육성계획'을 만들어 행자부의 소도읍 육성사업과 농림부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을가꾸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개발사업과 불교계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임경수 (주)이장 대표는 "종단에서 사찰을 중심으로 마을을 네트워킹 한다면 지역개발의 좋은 모델이 될 것"라며 "전북 부안군 입암마을은 농촌전통테마마을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마을 이름을 아예 '내소사 입암마을'로 바꾸어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비 기자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맬토차단캡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의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만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종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 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는 간편하게 안방 침대 바닥에 놓고 멜토차단캡은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옴마니 반메훔 건강밸트

축복의 밸트!
성공의 밸트!
지혜의 밸트!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형통된다는 옴마니 밤매홈 건강밸트가 불교 법구 전문업체인 불광사에서 출시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만나지 않고, 정의롭게 살며, 나쁜곳에 빠지지 않으며, 어려움에 처해 있을때 3불의 지혜를 받아 해결되고, 동서남북의 복을 받아 시작부터 끝이 하는일 마다 풍요롭게 되는 뜻을 담은 법구밸트다. 또한 일반밸트와는 달리 건강기능을 갖춘 밸트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음이온과 원적외선이 발산되며 허리와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는 맬토에너지까지 발산되는 천연가죽으로된 고품격 고급밸트로 만사 형통하는 선물로 품위가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88
농협053-12-102911

평생 부자지갑

존경하는 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여성용銀나노장지갑 (진보라색)

남성용반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사는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들어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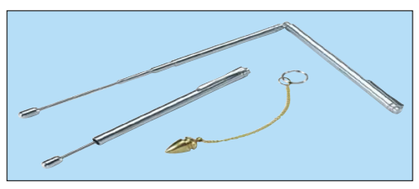
고급천연銀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받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숫한 화제를 낳는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 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53-12-102911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집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인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려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氣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응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銀나노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면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氣기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銀나노 엘로드와 탐사추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법책 셋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농협053-12-102911

금강저의 영험

험한세상 화를 미리 쫓는 수호신



왜! 금강저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수호신으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영험의 지혜인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강간, 유괴,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속에 사는 현실이다. 군에 있는 자녀, 딸자녀, 경찰관, 직장인, 학생,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분, 가정주부등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영험의 수호신으로 여성은 핸드백속에 학생은 가방속에 남성은 지갑속 또는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순금처리하여 축원불공을 마치고 불광사에서 전화로 판매하고 있다. 가격25,000원

문의 (02)741-4485 농협053-12-102911

대구불교방송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과연 사람들은 언제쯤 분쟁을 멈추고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 대단한 결단이나 행동보다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사소한 일에서 인류 평화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런 만남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브라함이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두 민족이 종교와 정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행한 역사를 거듭해왔다.지금은 예루살렘을 동서로 갈라놓은 장벽만큼이나 마음 속 장벽 또한 너무 높다.

평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다는 거창한 명제에 앞서, 우선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자는 목적으로 이-팔 대학생 20명이 세계평화축전에 참가차 8월 26일~9월 6일 한국을 찾았다. '세계평화축전'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은 특히 9월 3~4일 고양 흥국사에서 한국불교를 체험하며 민족간 화해를 모색했다.


"미움을 버리고 마음속 등불을 밝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이 연등을 들고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탑돌이를 했다.

미움 버리면 세상은 연등


이-팔 대학생들이 서로의 발우에 음식을 떠주고 있다.


연등 제작을 체험하는 이-팔 대학생들.


차담을 나누며 한국불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대학생 흥국사서 템플스테이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니…

9월 3일 오후 흥국사(주지 대오). 외국인 대학생 20명이 범종각 옆을 지나 사찰 안으로 들어온다. 자유분방하게 어깨동무를 하고 선글라스를 낀 눈으로 사찰 단청이며 탱화를 흥미롭게 관찰하는 모습은 흥국사가 매주 개설하는 주말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체험하려는 보통의 외국관광객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몹시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열흘 전만 해도 이들 사이에는 서로 눈길을 주거나 말을 건네는 게 어색할 정도로 싸늘한 냉기가 감돌았다. 바로 지금도 서로를 죽고 죽이고 있는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 땅에서 건너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노아 씨(이슬라엘 대학생)는 "팔레스타인인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많다"며 "한국에 오기 전까지 서로 만나 이야기한다는 것은 꿈도 꾸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대학생들은 제3국에서라도 이스라엘인을 만나는 일이 고통 받는 민족에 대한 배반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한국을 찾아왔다 한다. "이스라엘의 압제를 받고 있는 본국에 이런 사실이 잘못 알려질 경우 지하드 조직에게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마이클 씨(팔레스타인 대학생)의 말을 듣는 순간 이-팔 분쟁의 심각성이 피부로 느껴졌다.

#"발우공양에 무슨 평등 · 청결함이 있지?"

3일 저녁 흥국사 설법전. 이스라엘 대학생 10명과 팔레스타인 대학생 10명이 수련회복을 갈아입고 전통 발우공양을 체험하기 위해 나란히 앉아있다. 5분이 지났을까, 발우를 풀어놓지도 못했는데 '밥 먹는 것이 고문'이란 표정이 하나 둘 늘어난다.

청수물과 밥 국 찬을 돌리는 진지, 오관게 암송, 공양, 숭늉받기, 찬상내기까지 무려 한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각경 스님이 "발우를 씻은 물에 이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마시세요"라는 말에 학생들은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린다.

발우공양 체험에 대해 살램 양(팔레스타인 대학생)은 "발우공양에 무슨 평등정신과 청결함이 담겨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비드 씨(이스라엘 대학생)는 "2천년을 끌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간의 다툼도 상대방을 겉만 보고 판단했기에 벌어진 측면이 적지 않다"며 "점심 식사를 한 후 수없이 음식 쓰레기를 버렸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니,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깨끗하게 다 먹는 발우공양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총 대신 희망의 연등 들고

3일 저녁 9시. 이-팔 대학생들은 연등제작을 마치고 약사전 앞 석탑 앞에 섰다. 연등을 켜고 탑을 돌며 이-팔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시간. 각경 스님이 "이 순간 미워했던 마음을 잊어버리고 서로를 위해 불을 밝히자"는 제안에 따라 20명 이-팔 학생들이 석탑을 돈다. 총 대신 희망의 연등을 든 것이다.

산사의 저녁은 너무나 고요하고 연등을 든 사람들 사이에는 나와 네가 없다. 우리편과 적이 없다. 환한 불빛을 바라보며 평화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눈치다. '미워하는 마음을 쉬면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요아프 씨(이스라엘 대학생)는 "팔레스타인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 공통점이 생각보다 많았다. 상대 입장을 생각한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친구"라며 중동의 평화를 기원했다.

아미르 씨(팔레스타인 대학생)는 "연등을 들고 탑을 돌며 우리가 오랜 세월을 싸운 이유를 찾아 봤지만 어디에도 없는 것 같다. 짧은 시간이지만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한국사회에서 처음 평화란 것을 맛 봤다"고 말했다.

9월 4일 오전. 울력을 마친 사기 씨(이스라엘 대학생)가 약사전 부처님 앞에 합장을 하고 섰다. 천천히 무릎을 꿇더니 부처님께 오체투지를 한다. 유일신을 믿는 이스라엘인이 '타종교의 우상' 앞에 절한다는 것이 너무나 의외였다.

사기 씨에게 무슨 이유로 오체투지를 했는지 물었다. "내면의 평화와 타인에 대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종교의 본질은 모두 같다고 생각한다. 오체투지를 하든, 성경을 들든, 코란을 읽든 종교인의 길은 모두 같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서 같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으로 절을 했다." 또다시 합장하는 사기 씨의 얼굴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고양 흥국사=강유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세계평화축전 참가자 20명…다도·발우공양 통해 마음 열어
함께 희망의 연등 만들고, 오체투지하며 중동 평화 기원



"자신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 4개국 초청 평화토론회 열 것"


텔아비브 대학 보아즈 총학생회부회장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함께 살아갈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할 생각입니다."

경기도가 주최한 세계평화축전의 일환으로 8월 26일~9월 5일 열린 코파이스(KOPAIS: 한국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약자) 평화친구 행사에 참가한 텔아비브대학 총학생회 보아즈 트포르프스키 부회장의 소감이다.

보아즈 부회장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던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친구로 사귀게 됐다"며 "오늘의 소중한 경험을 계기로 삼아 내년 8월 텔아비브대학에서 한국 북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초청한 평화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이-팔 대학생들이 9월 1일 남북 분단의 상징인 도라산 역에서 중동분쟁의 해결방법을 놓고 진행한 토론에서 나온 것이다.

보아즈 부회장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당사자들이 만나다 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남북한도 자꾸 만나다 보면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밀납양초 (Bees Candle) 2005年 新製品

삼보귀의 하옵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 개발중 이번에 밀납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밀납초의 특징
① 그을음이 없습니다.
② 연소 시간이 일반양초 2배이상 길어집니다.
③ 연소 되면서 벌꿀향이 은은히 실내를 가득채워 실내공기를 정화 시킵니다.
④ 지금까지 양초에서 발생하는 내음새 그을음을 한꺼번에 해결하였습니다.
⑤ 토종벌집에서 추출한 밀납이니 순수한 우리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생각하시어 양초도 선별하여 사용하십시요.

• 1호 59中 × 18cm 約 연소시간 72시간 以上
• 2호 59中 × 13cm 約 연소시간 50시간 以上
• 3호 47中 × 14cm 約 연소시간 30시간 以上
• 4호 47中 × 9.5cm 約 연소시간 24시간 以上
• 밀납초 받침대 1호~4호까지 사용
• pc컵초 7시간 以上
• 선물용 세트(1~4호 밀납초 받침대)



※ 팩스로 주소 보내주시면 견본이나 팜플렛 보내드리겠습니다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테마가 있어야 뜬다"

우리는선우 · 강남 봉은사, 색다른 신행 프로그램 눈길



(사)우리는선우의 '빛깔있는 법회'와 서울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가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우리는선우의 요가법회 모습.

(사)우리는선우의 '빛깔 있는 법회'와 서울 삼성동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가 '뭔가 다른' 법회와 순례를 원하는 불자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프로그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의 '빛깔 있는 법회'는 '우리 시대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서'라는 주제를 내걸고 매월 한차례 열린다. 각 분야에서 명망을 얻고 있으면서 불교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재가불자들을 법사로 초청하는 형태다.

우리는선우 '빛깔있는 법회'
'불교 생활화' 실천 재가불자 초청 인기
강남 봉은사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
단순 여행 탈피, 기도 가미시켜 차별화

대한태극권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호 박사를 초청해 6월 25일 연 첫 '빛깔 있는 법회'에는 100여명이 함께 했다. 평소 30~40명 수준의 참석인원을 고려해볼 때 폭발적인 반응. 7월과 8월에는 김진태 인천지검 검사와 요기니 곽은구씨(천안 여여요가아쉬람)로부터 '그들의 삶과 불교'를 들었다.

'빛깔 있는 법회'를 들여다보면 준비하는 이들과 법회참석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의 고민이 읽혀진다. 평범한 법회가 아닌 색다르면서도 신행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키워드' 법회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선우는 이같은 고민을 '빛깔 있는 법회'에 반영하고자 했다.

성태용 우리는선우 이사장(건국대 교수)은 "달라진 법회를 통해 재가불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고 신행문화를 바꾸어 나가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봉은사(주지 원혜)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 취지도 주제를 담아 불자들의 신심을 높이는데 있다. 의례적으로 행해오던 성지순례가 단순히 여행 정도로 치부될 만큼 본래 의미가 약해진 상태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그런 의미에서 순례지에서의 기도를 가미시킨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는 적격이었다.

올해 봉은사는 해인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주요 기도처로 꼽히는 남해 보리암, 여수 향일암, 강화 보문사를 다녀왔고, 9월과 10월 각각 설악산 봉정암과 팔공산 갓바위를 순례할 예정이다. 봉은사가 7월 이후 순례지를 기도처로 선택한 이유는 수능 100일기도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봉은사는 동참불자가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어나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기도하는 순례로 구성된 점도 순례자들의 호응이 높이는데 보탬이 됐다.

우리는선우의 '빛깔 있는 법회'와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는 일률적인 식순과 똑같은 방식, 내용을 반복하는 '따분한' 불교의례와의 차별을 보여주고 있다.

특별한 테마를 설정해 '뭔가 다른' 법회 · 성지순례로 바꾼 점이 주효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낸 것이다. 이것이 우리는선우의 '빛깔 있는 법회'와 봉은사의 '주제가 있는 성지순례'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20년 맞은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

9월 23일 의왕 용화사서 기념법회

이달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건설교통부 산하 국토개발연구원 불자회(회장 양진홍, 이하 국불회)가 9월 23일 의왕 용화사에서 기념법회와 세미나를 개최한다.

1980년대 중반 직장불교의 태동에 힘을 보탠 국불회는 회원 25명 전원이 박사로 구성돼 지식인불교를 대표하는 단체로 자리잡았다.

국불회는 참선모임을 운영하는 등 수행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직장단체로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에는 100일 1만배 운동을 발기해 10여명의 회원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절 수행을 회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국불회는 안양시청, 경찰서, 교도소, 운불련 안양지역회 등 지역 직장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시너지 효과를 거뒀다. 기념법회에 이어 열리는 세미나의 발제도 이웃 단체회원들이 맡을 정도.

국불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국불회와 직장불교 2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10년을 설계할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우리단체 이사람



조경미

수화봉사모임 '심여회' 부회장

아름다운 손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의 손은 마술사의 그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 손에서는 때론 말이, 때론 노래가 흘러나온다. 그 아름다운 손의 주인공은 바로 수화통역사 조경미(43 · 수연심 · 사진) 씨. 듣지 못하는 이들의 입이 되고 귀가 되어 불법을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창단된 수화 봉사 모임 심여회(회장 김해순) 조경미 부회장의 아름다운 손짓은 청각장애인들에겐 보여지는 '소리'다.

1999년 농아불자회 창립 주역
청각장애인의 영원한 대변인

1997년 수화합창단을 시작으로 1998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수화반을 졸업하며 심여회를 창립해 본격적으로 수화 통역 봉사활동을 시작한 조 부회장은 부산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사로 활동하며 수화 교육 강의도 맡고 있는 전문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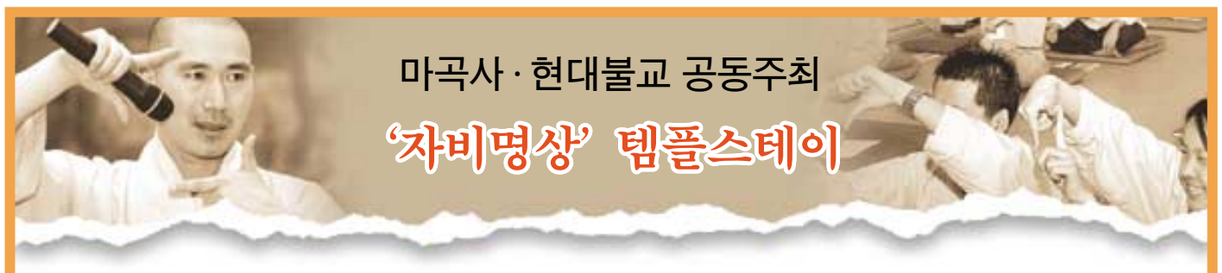
'청각장애인들이 길을 물으면 길을 알려주려고' 우연히 배운 수화였다. 조 부회장의 소박한 바람은 더 크게 이뤄졌다. 1999년 농아불자회를 창립하고 법회 통역과 각종 불교행사에서 수화 통역을 하며 불법을 묻는 청각장애인에게 길잡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봉사로 시작됐던 수화는 이제 생활이 되어 버렸다. 청각장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사로도 활동하다보니 그들이 필요로 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야 한다. 때론 새벽 한 두시에 경찰서에 달려가 청각장애인의 보호자겸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그 순간만큼은 온전히 청각장애인의 입장이 되어야 그들의 뜻을 놓치지 않고 전달할 수 있기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늘 부족함을 느껴요. 법문을 수화로 통역 할 때도 어려운 한자용어가 많고 불교수화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아 힘들어요. 그러나 욕심내지 않아요. 불법과 청각장애인을 이어주는 환한 통로가 될 수 있길 늘 기도할 뿐이죠."

심여회와 조 부회장의 바람은 늘 한결같다. 청각장애인 불자들을 위한 법회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법회와 복지 프로그램을 열고 장애가 없이 태어난 자녀들의 영유아기 교육도 챙겨주고 싶다. 그래서 조 부회장의 기도는 더욱 간절해지고 아름다운 손짓은 날로 바빠지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템플스테이 둘째날 진행된 '감사명상'. 세상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합장을 하고 있다.



프로그램 진행에 앞서 몸과 마음을 쉬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참가자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달려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10차 취업대기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청년 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살려 사회에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한 현실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9월 2~4일 마곡사에서 취업대기자를 위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템플스테이'가 열렸다.

'내 안'에 있는 문제들을 찾아보고 개선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모색해보는 시간이었던 이번 템플스테이를 통해 20대 젊은 청춘들은 자신 있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마곡사(주지 진각)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자신을 감추려 말고
세상의 주인공 되세요

 # 미래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한바탕 내린 마곡사. 태화산 정상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린다.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석한 18명의 참가자들이 하나 둘 마곡사 연화당에 모였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대학생, 아버지와 함께 온 학생, 대학원에 다니다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등 참가 사연도 제각각이다.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묘운 스님의 설명에 따라 참가자들은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 처음 만난 사람과 손을 잡고 인사하는 것이 쑥스럽지만 눈에서 눈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느낌이 낯설지 않다.

저녁 공양 후, 이번에는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을 서로에게 털어 놓는다. 몇 년 후 사회 현장에서 뛰고 있을 자신들의 모습을 미리 그려보는 것이다.

경기도 용인에서 온 강병식(29)씨는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통역사가 되겠다고 한다. 박지연(28 ·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씨는 대학원 공부를 계속해 예방수의학의 권위자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기 중임에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박지희(21 · 전북 전주시 중앙동)씨는 건축학 전공을 살려 건설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한다. "건설회사를 만들어 집 없는 사람들을 돕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집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당찬 발표에 박수가 쏟아졌다.

 # 내가 바라는 내 모습은

둘째날 오전 9시부터 마가 스님의 지도로 '감사 명상'이 시작됐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들을 100가지씩 적어본다. 나의 뿌리와 줄기, 가지가 되어 준 존재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친구들….

작은 종이 하나에 셀 수 없는 존재들이 가득 찼다. 하나의 그물, 인드라망이 만들어졌다.

이예지(22 · 안양시 평촌동)씨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 어느 것 하나 나와 관련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힌다.

이소진(21 · 전주시 서신동)씨도 "이 그림을 보면 너무나 많은 도움을 받아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작 나는 이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것 같다"고 반성한다.

 # 내안의 장애요소는 무엇일까

감사 명상에 이어 자신의 어떤 요소가 사회진출을 어렵게 하는지, 그리고 그 장애요소는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참가자들은 답을 찾기 위해 잠시 마곡사 경내로 흩어졌다. 의자에도 앉아 보고 극락교 다리 위에 서서 생각도 해보지만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김대호(27 ·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씨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라고 밝힌다.

장재혁(27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씨도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나가지 못하는 것이 고쳐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신현범(30 ·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씨는 "좀더 차분하고 진지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반성했다.

마가 스님은 "어느 누구에게나 장애요소는 있다"면서도 "단점을 감추려하지 말고 자신 있게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참가자들은 이후에도 맨발 산행과 죽음명상, 화 다스리는 명상 등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봤다. 그리고 템플스테이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부처님 되기' 시간. '나의 존귀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순서다.

연화당에 놓인 세 개의 법상에 3명이 오르고 다른 참가자들이 정성을 다해 삼배를 올린다.

"내가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던가?", "그렇지 않더라도 더 열심히 살아보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모든 이웃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동시에 "나도 사회에서 나의 몫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가져본다.

조귀영(21 ·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공부하고 목표를 위해 뛸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했다"며 "반드시 중국의 땅을 모두 측량하는 기사가 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취업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 보다 더 힘들다는 세상. 그래서 내안에서 문제들을 찾기 위해 마곡사에 왔다. 회향의 순간, 마음의 짐이 훨씬 가벼워졌다.

2박 3일간의 다짐을 담아 9월 14일, 18명의 취업대기자들은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다시 마곡사를 나섰다.

글 · 사진/마곡사=유철주 기자



손에 손을 잡고 명상에 빠져본다. 도반이 있기에 청춘들에게 미래는 두렵지 않다.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2004-8213~6
FAX 02)737-0696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개인,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 수련을 하지 않고도 바로 氣치료·원격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전세계에서 레이키(Reiki. 靈氣) 밖에는 없습니다. 8년 동안 스님, 거사님, 보살님등 많은 분들이 배웠습니다.
- 우스이 레이키 70만원 교육기간 2~3일
- 카루나 레이키 40만원 교육기간 1일
- 현대생활레이키 연구회 / www.reiki.co.kr
특유의 관정비법으로 전수합니다.

전화: 02)720-5719/720-5682

각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	천도재	수륙재	각시식	사물	바라나비충	경전
안	49재					
식						

학 인 행 자 모 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역학개인지도
명리학,성명학,택일,풍수
개업 책임지도(고급반)
※ 스님. 특별우대 ※
반야선원. 혜공합장
02)421-8494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찰의 각 행사 해드립니다
천도재, 49재, 점안식,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 회심곡, 호적
행사문의
010-4870-8359
범음범패 연수원장 덕산 합장

천도재, 점안식, 49재, 바라춤 학인스님, 행자모집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불교 범음·범패 교육도량
대구팔공산 구화사(한티재)
010-4816-6454

불교범음범패전통의식전수자모집
부산 경남 범음 범패 불음대학
의식스님 필요시 연락 바람
교육문의 011-584-5588 법수
행 사 문 의
011-869-8560 진우

육임역학 비법전수
- 5천년 역학사 검증된 정확성
- 역학 중 자타공인 최고의 길흉점증을
- 인간사 모든 문제 길흉 예측 정단

고려육임학회(육임학 전문 학술단체)
02)816-2115
053)551-1356(011-1763-3567)

정통 중국 황실
육임학 비법 전수
- 평생운 流年運의 정확한 예측법
- 古宮(자금성)에 소장중인 秘書로 강의
- 대육임 현대응용 활용법 강의

御定六壬學會
(어정육임학전문연구학회)
055)362-2799
010-4850-390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소백산 송이·능이 판매
054)634-3334
주문처: 농협(한희욱)
751081-51-060579
경북 영주시 봉현면 두산2동 269
심우사 한산 합장

사찰운영(동업,주주)모심
- 사찰위치 : 경주
- 규모 : 토지3500평,건물 300평 (소자본으로 힘을 모아 사찰운영 같이 할 분)

처사님 보살님 동참 바랍니다
정말 좋습니다
051)803-514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절에서 상주하실 분(50대 전후)
▷ 구파발 시연사
011-261-0572
02)352-0572

행자모심
고졸이상, 40세미만 대학, 대학원 까지 책임지원함
02)917-3363

공양주보살님 행자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법비오는 곳 동해사
033)672-2900
033)671-607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비구 부전스님 공양주보살님
(50전후)
사무1명 (40세전후)
사찰요리보조원1명
011-9150-9190

부전스님이 필요하신 사찰은 연락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0-4555-2981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급)구합니다
02)386-0926
011-286-0308

비구니 스님이나 보살님 모십니다
고통의 시달림 몸과 마음을 삼보저에 맞지시고 남은 여생 마음편히 기도하며 살아가실 분
동참금 3,000만원
018-406-307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전북
019-280-0093

비구니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50~60세)
모십니다
▷전남 화순
010-4634-9288

공양주보살님 구 함
나이 65세이하. 월보시금 70만원
위치-경남 밀양. 아주조용한 암자임
055)352-6556
011-9318-323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부천
032)684-5516

부전스님 구합니다
(비구)
010-7166-319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764-8381

본인이 생활력이 있고 마음이 정직하고 믿을 수 있어 노후에 서로 의지하고 남은 여생 평생을 같이 살 수 있는 배우자 (본인 45년생 女)
* 꼭 위 문구가 해당되시는 분만 전화 요망
011-775-8070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359-7766
02)353-3004

산 좋고, 물 좋은 오래된 암자 1,500만원에 사글세 냅니다.
031)582-9816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북부역 도보 5분거리
- 약 72평 3층건물중 2층 주차장완비 방 4칸 법당
- 가액: 전세 7000만원
시설비 4천만원 답사후 절충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010-9910-8275

암자 또는 별장터 안내
- 위치: 거창 덕유산 지역
- 답: 800여평
- 전망 좋고 마을과 떨어져 있음
- 가액: 추후 결정

055)963-2097
011-583-2097

제주도내 사글세 사찰구함
꼭 하실분 연락바람
(오후 8시 - 9시 연락바람)
010-3083-3320

유황 법제를 전수합니다
054)751-8225

행자 [예비스님, 남·여] 모집
- 행자원 있음(엘리트 스님 양성목표 - 45세미만)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 큰 절 중 택일
-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011-9852-0075(총무스님)
※ 단기 한시적 출가도 가능 ▷ 도심사찰 최신의 납골당 있음◁

전국 제1의 불교대학! 도심속의 7층 정법대사찰 TVbuddha.co.kr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053)474-8228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는 병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
◆ 책명 : 이책 읽고 불치명 나으소서
- 저자가 3개월 시한부 말기 암환자로서 수술, 재발, 말기현상은 물론 여러 합병증을 극복하고서 5년 여간 현대 첨단의학으로도 못 고치던 각종 암환자를 비롯하여 불치, 난치병으로 고통받던 3천여 분을 치유하게된 바로 그 방법을 자세히 기록한 책입니다.
- 각종 암, 당뇨, 중풍, 협심증, 퇴행성관절염, 성기능 장애, 아토피, 부종복수, 자궁근종, 치매, 간질, 천식, 갑상선, 악성빈혈 등으로 고통받던 분들께 희망의 메시지!

주요목차 자연의학에선 불치병은 없다 / 면역력만 살리면 된다 / 체질을 쉽게 바꾸는 법 / 유황오리의 신비한 능력 / 자연치유력 키우는 법 / 암 정복 식품의 다수
※구독을 희망하시는 농협 023-02-237173 김용식 계좌로 8,000원 입금 후 성명과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참 좋은 생명의 집
02)844-1655~6

사주특별개인지도
- 사주와 28숙을 정확하게 보는 방법을 빠른시일내에 쉽게 알려드리며 승려에 한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사주 운세 10초내 맞추면 입금
명리학질문 10초내 답변 / 사주 첩경 통달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혼사지연, 이혼, 부부갈등, 학업성적부진, 가출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립니다.
굿이나 부적 등 부담드리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www.10cho-unse.com
24304-3396114 하나은행(예금주 : 김진동)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선 방 대 중 모 심
대한불교조계종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에서는 감포도량에 선방을 개원하고 동안거 정진대중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산과 바다를 함께 아우르는 천혜의 대도량에서 큰 깨달음 있으시길 바랍니다.
- 무문관 : 15명 (법랍 10년~20년 승려증지참) - 비구
- 재가대중선방 : 40명(주민등록증지참) - 건강한 여성 불자
- 행자 : 10명(45세미만, 남.녀) - 대구큰절 중 택일
- 동안거 결제일 : 음력 10월 15일 (그 이전에 방부허락을 받으셔야 함)
- 감포도량 위치 : 감포 대본2리(회곡)에 있음
- 선방 방부문의 : 011-881-9710 (감포도량 연봉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입학 남골(053-474-8228), 행자문의 011-9852-0075

사주통달책임지도(성수철학원)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국내외 제자 200명 왕성히 활동중)
- 지도교수 : 백운 성수 (회장) 부교수 약간명

완전초보지도 혜도 혜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 한달만에 모든것 완전 통달됨. 교육 이수 후 월 250만원 보장

※전화 감정 대환영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은 특혜있음) 전국 최대 회원 양성 교육기관임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제일약국 (2층) 봉산동 가구 네거리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읍 평수 570평, 대지 11평 나머지는 전답
- 법당, 산신각, 요사채(방3), 스님방 별도.
- 가액 : 6천만원

054)732-7583
018-557-7583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도심포교적지
- 실평수 42평, 방4, 넓은거실, 주방, 욕실. 삼존불 및 불사 불기 일체
- 가액 : 보증금 4천만원에 월 10만원 시설비 방문후 절충

017-372-8968

사찰 안내
- 위치: 경기도
- 법당, 요사채
- 가액: 4억2천만원

011-9961-0241

고양시 포교원 운영하실분
010-2728-1667

토굴안내
- 위치 : 순천시내
- 임법당
- 마당 텃밭있음 시설일체완비
- 즉시법회가능
- 가액: 500만원

010-8227-0900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서산동
- 평수: 100평 대지: 200평 법당, 요사 합 100평
- 가액: 답사 후 절충

011-515-0594

토굴안내
- 위치: 중남 청양 칠갑산 자락 초막
- 토굴수행하실 비구스님 임대

011-218-5147

포교당안내
- 위치: 서울 홍재역 10분거리
- 상가 4층 건물중 1층
- 평수: 약 45평
- 전세금 3천2박6만원 시설비 1천만원 (시설완비 일체) 월세도 가능함

017-766-2788

암자안내
- 위치 : 구미시 옆 칠곡군 약목면 소재
- 임법당, 연꽃연못, 정원 밭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년 450만원, 양도도 가능 양도가 1억 1천만원

017-813-9126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부근
- 4층 45평, 5층 45평 옥상사용가능
- 삼존불, 제반시설 완비, 즉시 법회 가능
- 전세 4,000만원 월세7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0-4739-3461

포교당안내
- 위치: 울산 남구 무거동
- 대지 68평 법당, 요사채 50평
- 가액: 보증금 3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 비구니스님이 포교하시기 매우 적합함

052)223-8617
010-2269-8688

승계사찰안내
- 위치: 경주시 근교
- 대지: 약 200평
- 법당 25평, 산신각 칠성각 1채 요사채 주방 창고 50평 스님방 주방 창고 40평
- 산수수려, 아늑한 절
- 가액: 1억2천만원

011-511-0442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빙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732-1522 (直), 02) 2004-8200 (代)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사천지역
- 법당: 25평
- 요사: 55평 외 건물다수
- 부지: 530평
- 가액: 6억

- 위치: 부산
- 법당: 14평
- 요사: 5평
- 부지: 100 (사용평수포함)
- 가액: 1억1500만원

-사찰부지-
- 충북옥천: 1400평
- 가액: 2억
- 부산: 430평
- 가액 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미래공인중개소(구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안내

①북한산토굴1000평-6억5천
②충주사찰1000평-3억5천
③북한산임법당임대-월85만원
④경기목조사찰2000평-20억
⑤서울토굴2000-20억
⑥서울토굴만평-30억
◆ 1억~10억사찰많음.투자상담
※ 직원,공양주,기도스님신속연결

현대불사 02)555-0575

포교당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신정동 2층건물의 2층
- 법당 15평, 전체 32평 시설일체 완비
- 가액 : 보증금 2백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52)258-4994

사찰안내

- 위치: 부산 강서구 녹산동 부근 경내에 500년생 괴목 2그루 (부산시 보호수)있음. 420평
- 법당. 요사(큰방1, 각방3) 등기필
- 가액: 3억

010-5655-1250
051)973-4562
051)941-8989

포교원안내

- 위치: 인천 부평구 부개1동 (부개역 5분거리)
- 평수 : 48평(4층건물 2층내), 법당1,방2개,후원1개, 대중방 포함
- 주차 : 도로상 일렬 주차
- 전세 : 5000만원, 시설비 : 1천 5백만원
- 모든시설완비. 바로 법회 가능함

017-269-2629
032)517-3001

사찰 안내

- 위치: 경북 군청 소재지
- 땅 삼백평 중 등기 백평
- 법당: 18평 외 미륵불
- 요사: 23평, 용왕전
- 급매 1억2천, 약수물
- 위치 : 경기도
- 부지 : 천평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가액 : 10억

※ 전국사찰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안내

- 위치: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장승백이역 2분거리
- 대지 66평, 건평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4억 7천만원

02)815-0302
011-722-0302

사찰안내

- 위치 : 부산시
- 법당 30평 요사 20평 부지 73평
- 가액: 1억8천만원

010-8955-5535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북구 구포시장내요지 2층 건물에 2층 65평 법당, 방3칸
- 가액: 전세 300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결정
- 허가등록된 주차장운영 (월세 충당)

051)364-4889

사찰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3천9백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11-9542-5726

사찰 안내

- 위치: 대전시내
- 대지 905평, 전 150평, 임야 320평, 총 1,375평 임야 전은 현재 주차장 밑마당으로 사용중이며 언제라도 건축을 하면 대지로 전용 할 수 있음.
- 법당은 새건물이며 시멘트슬라브 기둥세워서 2층으로 올릴 수 있음.
- 1층 120평, 지하 40평, 요사채 구옥 시멘트슬라브 약 40평
- 가액 : 15억

011-209-7420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양평
- 부지: 2000평(평지임)
- 법당: 30평(목조)
- 요사: 80평
- 양도가: 15억(대출가능)

※서울강남에서 40분거리 유서깊은 사찰임

- 위치: 서울시내 (지하철역 200m)
- 대지: 60평 3층: 법당 40평 1,2층: 요사 80평
- 양도가: 10억(대출가능)

※30년 역사의 도심사찰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시 강동구 천호 4동 암사역 2분거리
- 대로변, 역세권 유동인구 많고 위치 최고 좋음
- 평수: 48평(5층 건물중 2층)
- 시설: 사존불외 집기일체 후불탱화, 방2칸, 주방, 화장실, 베란다, 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5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 즉시법회가능

010-7324-511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진주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376평, 전: 156평 법당: 25평, 요사채: 55평 전불전: 38평, 고시원: 45평 주지실: 10평. 주차시설 완비 건물 일체 심야보일러 온수
- 건물: 5억3천만원 총공사비 10억 소요

010-9889-3188

사찰안내

- 위치: 경남 사천시 사천읍 경계
- 건물(조립식) 대지 200평, 법당 25평 요사채 10평, 부속창고 20~30평 총 1600평
- 심야보일러 130m암반수
- 가액: 1억5천(절충가능)

016-9559-8889

신축사찰 안내

- 위치 : 강릉시 옥계면
- 대지 150평, 전 430평
- 가액 8천5백만원(절충가)

포교당 안내

- 위치 : 양산시 북부동
- 가액 : 500만원에 월35만원(절충가)

010-4841-3499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사 찰 안 내

- 위치: 경주 근교
- 대지: 3천평
- 법당: 20평
- 요사: 20평
- 가액: 2억
- 산세좋은 수행도량 암자

- 위치: 양산
- 대지: 120평
- 법당: 20평
- 요사: 20평
- 가액: 2억2천
- 교통좋은 근교암자

- 위치: 청송 보현산
- 대지: 1400평
- 법당: 30평
- 요사: 25평
- 가액: 5억
- 기가막힌 계곡, 버스진입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1)581-1599, 018-563-9575
대길부동산 홈페이지 cafe.daum.net/dongmuen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부근 원주시 국선 전철역 부근 개통 예정지 앞 의료단지 상업단지 부근
- 평수: 209평, 법당: 20평, 요사채: 20평,삼존불, 돌탑부처님 (관세음보살, 약사불, 미륵불)
- 가액: 2억1천만원

033)766-0057
011-471-1996

사찰(터)안내

- 위치: 경북 김천시 구성면
- 면적: 2만평
- 산세가 수려하고 둘로둘려싸인 천하절경명산
- 가액: 2억6천만원

054)433-3533
011-9570-3533

사찰안내

- 위치: 경남 하동 (지리산 자락)
- 면적: 756평 법당 집기 일체
- 방4개, 창고 50평
- 비구니 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7천만원

010-3138-4897

사찰 안내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 대지: 245평(전망최고)법당: 30평 요사채: 50평(화장실2, 창고1)
- 산좌수려(와우형),교통편리
- 가액: 3억
- 용도 : 사찰이나 수련원

016-626-4388
011-606-1976

※ 인연있는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포교당안내

- 위치: 충남 예산군 덕산면 소재지
- 평수: 38평 3층
- 삼존불 각단탱화, 앰프, 집기일체
- 즉시법회가능, 몸만오시면됨
- 전세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덕산온천 옆 4일 9일 장날

041)337-80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 부지 : 1천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 요사 : 40평
- 기타 : 산신각, 쑥뜸, 석탑
- 가액 : 7억
- 특징 : 바닷가 전통 사찰임

- 위치 : 경북 성주군
- 부지 : 7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1억7천만원
- 특징 : 조용한 산사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8-536-4064

사찰안내

- 위치: 마산시내에서 10분거리
- 법당, 요사채 2, 산신각
- 대지 300평 주차장 700평
- 가액: 4억5천만원

011-9527-3461

토굴 암자 안내

- 위치 : 전북 완주군 운주면 완창리 대둔산 안심사 주위
- 건물 3동, 경관수려하고 기도도량.
- 가액 : 6,700만원 (상환받을수 있는 4,400만원 짜리 분도권을 포함해 드립니다. 답사후 절충가능)

011-456-5587

사찰안내

- 위치: 경기도
- 총 602평에 대지 402평, 대웅전 33평(삼존불), 삼성각 10평, 요사채 66평, 7층석탑.
- ※수행과 포교에 적합
- 가액 : 7억 3천만원

011-9411-5302

포교당 안내

- 위치: 대구 남구 대명 5동 (영대전철역 옆)
- 총평수: 40평.즉시법회가능 법당(삼존불, 신중, 시왕, 방2개, 공양간) 집기일체 양도
- 몸만오시면 됨
- 가액: 보증금 5백 월 26만원 시설비: 1천2백만원

011-9850-2946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 20평, 요사 40평, 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교통편리. 텃밭있음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 찰 안 내

- 위치: 강원도 (서울에서 1시간30분)
- 화장터 장례예식장 300m사이
- 법당납골당 최고 명당자리 (민원없음) (건축설계, 토목공사 완료)

- 위치: 경기도 광주 (서울에서 30분)
- 대지: 290평 건평: 110평 새통나무 기와집 2동 대웅전 요사채 방8개
- 경기도 광주사찰 투자하여 운영하실분 모심

011-9109-3660/031)767-0837
011-9004-3613

토굴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대지: 70평, 건평: 20평 뒤는 산, 앞은 바다 마을 인접
- 가액: 4천만원

010-4879-0223

사찰안내

- 위치: 경남사천
- 부지 임야 9000평 종교부지 250평, 법당 22평,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 화장실 4평
- 가액: 3억
- 특징: 산세수려하고 지하수 물 좋음

055)854-8526

포교원안내

- 위치: 강남
- 법당 50평, 요사채 50평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160만원 시설비 절충

010-7163-5392

사찰안내

- 위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4동
- 건물: 약 40평(인법당)
- 법당: 18평 부지: 약 300평(국유지)
- 단청있으며 전망 좋음
- 가액: 2억9천만원

02)918-1215
016-237-3006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
- 대지: 150평
- 건물(시설) : 30평(건물 2동), 삼존불, 각단탱화
- 법당 : 사찰내까지 차들어감, 시세보다 싸게 급매
- 가액 : 6천 3백만원 (융자 2천만원 포함)

019-503-7959

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 대지 300평, 본채 별채, 방3개, 부엌1, 마루1, 욕실1.
- 특징 : 신라시대 절터로 명당 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음
- 정남향, 샘물 있음, 지리산 수 능선이 보임.
- 가액 : 2억

055)963-7233
011-9454-8785

수행처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 대지 100평, 작은방1, 부엌1, 마루1, 욕실1.
- 정남향,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 물 맑고 한적한 마을.
- 가액 : 5천만원

055)963-7233
011-9454-8785

암자안내

- 위치: 충남
- 대지: 270평
- 정남향 이면서 아늑하고 포근한 기도도량
- 법사 보살 비구니스님 보시는 적합
- 전망 아주 좋음

011-526-182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삼천포 사천IC에서 20분거리
- 사찰경내 2500평 법당 27평, 산신각 10평 요사채 60평, 주지실 10평
- 가액: 3억8천, 시설 A급 주차시설 30~40대 완비

011-806-3342

포교원안내

- 위치: 대전 비래동
- 5층건물 1층
- 법당, 공양간, 내실, 상담실, 삼존불
- 가액: 1천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즉시법회가능

010-5621-6196

토굴 임대

- 위치 :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 작은 법당, 요사채 큰방 1 작은방 2 입식부엌(냉장고, 세탁기, 집기, 불기 구비)
- 수양, 수도, 공부, 작품활동 (그림,창작)하실분
- 다구비 되어 있음(몸만 오시면 됨) 전세 1000만원 월세 30만원 권리금 등은 없음
- 만신들이나 무녀들은 거절

031)912-7114
(주지스님직접)

도심포교당안내

- 위치: 밀양시 교동 시청주변
- 대지: 310평
- 건물 3동, 3층건물 1동 단청 슬라브 기와 1동 별채 1동
- 가액: 6억 5천

010-4876-5535

사찰 안내

- 위치: 충북단양
- 430평 중 대지 290평 요사채 60평 법당 40평 지장전 20평
- 시설완비
- 가액: 1억4천만원

011-9567-5300

사찰 안내

- 위치: 추풍령 휴게소 김천IC (7~8분거리)
- 시내 이마트 10분거리
- 좌청룡 우백호의 명당(남동향) 4차선 도로에서 400m 해발 200m중 6부 중턱 총 1천여평중 (대지 400평)
- 가액: 1억3천5백만원

054)433-6315

사찰 안내

- 위치 : 마산시내에서 15분거리
- 대지 600평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교통편리, 산세위치 수려함, 신축건물 고건축
- 가액 : 4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530-8490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읍내
- 대지: 192평 법당 3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각각 10평(2층)
- 가액: 2억4천만원

011-879-7551

사찰 안내

- 위치: 전남 나주시 인근 현도로에서 2차선 도로예정 무안 광주간 고속도로 분기점 IC 5분거리 (1호선국도 7~8분거리)
- 대웅전(목조) 30평 요사채(목조) 20평 - 스님방1, 주지실방1, 종무실방1, 객방1 공양간(목조) 10평 방1개,화장실 목조 (해우소) 남여 각1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 cc카메라시설(내부외부 모두 설치) 총 490평
- 암반지하수 대형관전(130m 물량 100톤) 사찰주변계곡 물 흐름 안쪽으로 골프장 확정
- 가액은 꼭 보시고 의양이 있으신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627-0108

사찰 안내

- 위치: 김해신어산 (좌청룡 우백호 명당) 골프장이 그림같이 한눈에 마을 버스 1분 거리
- 사찰 입구:경남 영묘원(납골당) (신어산공원추모관,고급다예존 형성중)
- 대지 150평 (법당1, 요사채 방 4개) 각방 화장실 및 샤워실
- 가액:시세 2억 상당(절충가)

055)323-8337
017-541-9987

포교당안내

- 위치: 김해시 어방동 아파트 밀집, 상가시장, 대형마트 동김해 최요지
- 평수: 46평. 5층건물중 4층 방2개, 법당, 공양간. 시설1년 냉난방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면, 사주, 요가, 풍수, 수맥, 대체의학 전수가능

011-834-8545
055)337-8600

사찰겸포교당안내

- 위치: 경기도 부천(부천역사 2분거리)
- 시장유동인구 밀집지역 연립 5층의 2층 30평
- 법당1개,큰방2개,거실,욕실, 도시가스(살림해결), 금불상 삼존불,법단2단 목조각
- 가액:보증금 1천만원에 월 5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주차가능
- ※ 비구니스님, 법사님, 보살님, 보시는 분 적합

011-650-8481

포교당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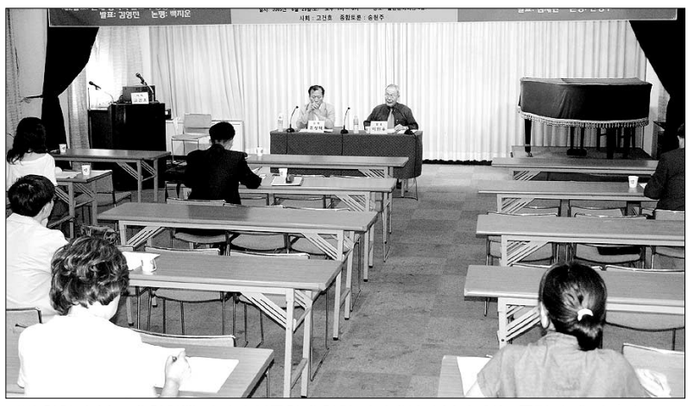
- 위치: 보령시 대천동 시내
- 45평 4층건물중 2층
- 시설: 약사여래불, 법당 방3개, 주방1개 에어컨, 엠프, 살림집기 일체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천2백만원 12개월 480만원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41)936-1056
010-4404-5777

'그들만의 잔치' 학술 발표회, 문제점과 대안

학술발표회의 계절이다. 발표자에게 학술발표회는 자신의 최근 연구성과를 공개하고 검증받는 자리며, 청중들에게는 최신 연구동향을 가늠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다. 이 같은 학문적인 소통은 불교학이 한층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다. 하지만 학술발표회는 언제부턴가 찾는 이 없는 '그들만의 잔치'가 돼 버려, 학문적인 소통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화 · 대중적 이슈 개발 나서야



텅빈 학회장. 불교계 학회뿐 아니라 인문학계 학회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 돼 버렸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청중 20~30명뿐 … 관련 전문가 거의 참석 안해
발표회 잦아 겹치기 출연 · 논문 재탕 부작용도
공동 개최 통해 참여 · 질적 제고 유도를

썰렁한 학술발표회장

현재 활동 중인 불교학회로는 한국불교학회 · 불교학연구회 · 한국선학회 · 보조사상연구원 · 인도철학회 · 한국선문화학회 · 한국정토학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몇 곳은 춘 · 추계 학술발표회 외에도 월례발표회를 개최할 정도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회 수나 학술발표회 빈도수 면에서 불교학계는 인문학 분야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막상 학술발표회 현장을 가보면 그 썰렁함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회원이 수백명인 학회의 발표회를 가봐도 청중은 20~30명에 불과하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발표자와 논평자 그리고 학회 임원과 진행자일 정도로 불교학계 학술발표회는 참여율이 저조하다.

주최 측은 논평자를 두 명씩 붙여 참석을 유도해보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 불교학 연구자가 가장 많은 동국대에서 학술발표회를 열어봐도 사정은 마찬가지. 동국대에 재직하는 교수들조차도 참석해서 함께 하는 이가 많지 않다.

무엇이 문제인가

이 같은 현실에서 학술발표회 의미는 당연히 반감되기 마련이다. 발표 주제와 유관한 전공자가 참석하지 않다 보니 학술발표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판과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어 발표논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토론 없는, 맥 빠지고 형식화된 학회가 돼 청중의 외면을 받게 된다.

중진학자들이 참석하지 않아 학술발표회가 박사과정 또는 갓 박사를 받은 이들 중심으로 흘러간다는 점도 문제다. 중진학자들이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하고도 신중하게 학문하는 자세를 보여주면서 신진학자를 이끌어가는 모습은 기대하기 어렵다. 중진 학자들의 무관심 속에 불교학계는 신진학자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신구간의 조화에 기반한 균형잡힌 불교적 발전을 저해한다.

이처럼 학자들조차 학술발표회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교학자들은 "참가해야 할 학술발표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첫째 이유로 꼽는다.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학술발표회를 다 찾아다니기 벅차다는 것이다.

최연식 목포대 교수(불교사상사)는 "학술발표회가 많아지면 불교학 저변 확대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발표논문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위험성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불교학 관련 박사가 160여명인데, 그 가운데 학술발표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이들은 대략 60명 내외. 이 적은 인원이 10여개에 달하는 학회의 행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겹치기 출연'을 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불교학자는 "심지어 같은 논문을 재탕해서 발표하는 이들도 눈에 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현상은 자연히 학술발표회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학술발표회의 질 저하 및 학회의 차별성 약화를 낳는다. 궁극적으로 학회의 존립 근거에 대한 위협요인이 된다.

하지만 학술발표회가 많고 적음에 앞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은 학자들의 기본 자세라는 지적도 있다. 이평래 한국불교학회장은 "다른 학자들이 애써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에 동참해서 질문하고 격려하는 것은 학자의 도리"라고 일침을 놓았다.

학회의 차별화가 관건

학회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학회 성격과 운영방식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불교학)는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전문적인데 대중적인 방식을 지향하다보니 부조화가 발생한다"며 "학술발표회의 성격을 전문적인 것과 대중적인 것으로 명확히 구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적인 주제라면 소수 전문연구자만이 참가해서 집중적인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적인 주제라면 공감대가 넓은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어 다수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전문적인 학술발표회가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학회가 전문화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불교생태철학만 다룬다든지, 고려불교사만 다룬다든지 하는 특정 주제로 특화돼야 한다는 것. 반면 대중화를 지향한다면 이슈 개발이 관건이 된다.

윤원철 서울대 교수(종교학)는 "현행 불교학 주제들은 지나치게 교학 중심이어서 이슈 개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대중과 유리되지 않은 불교학이 되기 위해서는 신행과의 연관성을 감안한, 이슈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회의 차별화가 어렵다면 유사한 학회들이 공동으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하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불교학자들은 "학술발표회라도 공동으로 개최해 활발한 참여와 논문의 질적 제고를 유도하는 것이 불교학회 활성화에 도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학회 어떻게 운영되나

현재 정기적으로 학술활동을 하는 불교계 학회는 10여곳 내외. 이 가운데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한국불교학회를 비롯해 불교학연구회 · 한국선학회 · 보조사상연구원 등이 활발하다. 이들 불교계 학회는 인문학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춘 · 추계 정기학술대회와 워크숍, 월례발표회 등을 열고, 학회지를 펴내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10여곳 활동 … 재정 등 어려움 많아

학회당 이 같은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연간 3천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회원들의 회비 납부율은 저조해 회비 의존도는 매우 낮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불교계 학회의 활동은 놀라운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학계의 이 같은 저력은 학회를 꾸려가는 임원들의 큰 원력과 드러내지 않은 불교계의 성원에 힘입은 바 크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이평래) 홈페이지(www.hanbulhak.or.kr)에 올라와 있는 후원금 내역은 불교계가 음으로 양으로 도움을 주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학회를 꾸려가는 어려움에는 재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학회의 등급을 정하고, 학회지의 가치를 평가하며,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권한을 쥐고 있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준에 따라 학회를 유지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회지 제출 원고를 평가해서 40%를 탈락시켜야 하고, 학회지를 제때 발행해야 하는 등의 스트레스, 학회 등급을 유지 또는 상향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은 모두 학회 임원진의 몫이다.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24>

느린 삶과 주파수

과학의 역사는 삼라만상의 모습을 알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학도 마찬가지다. 철학에서 존재론이 가장 중요한 테마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렇다. 과학은 존재의 모습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파동을 활용한다. 즉 물체에 파동을 보내고, 물체가 파동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는 것이다.

파동은 파도와 같이 물이 높고 낮은 모양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전파하는 모양을 말한다. 최근 동남아에서 일어난 지진해일 역시 지진으로 생긴 막대한 에너지가 파동의 모습으로 바닷물을 통해서 전달된 모습이다.

소리나 빛 역시 파동이다. 파동의 높고 낮은 모습이 일초에 몇 번 변화하는가를 주파수라 하고, 높낮이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

파장 짧을수록 빠르고 거대한 에너지 방출
치열한 경쟁으로 지칠땐 나를 들여다보자

주파수가 높으면 1초에 보낼 수 있는 정보량이 많아진다. 1초에 많은 수의 높낮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많은 정보량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동으로 얼마나 큰 물체를 알아낼 수 있는가는 파동의 파장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가시광선의 파장은 마이크론(1mm를 1000정도로 쪼갠 것)정도 밖에는 구분해 낼 수 없다.

현미경으로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바이러스를 보기 힘든 이유는 바이러스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빛(가시광선)의 파장보다도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파장이 짧은 파동을 쪼아주어야 한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에서 방출되는 원자선 파장은 매우 짧다. 가시광선 파장의 1000분의 1에 불과한 X선을 다시 1000등분한 정도의 크기다. 파장이 짧을수록 큰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원자선의 파동은 세포의 핵까지 침투해서 유전자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방사선에 쪼인 사람은 대부분 유전자 손상으로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과학기술자들은 또한 주파수가 짧을수록 많은 정보를 실어 보낼 수 있다는데 착안해 파동의 주파수를 높여서 통신에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PC의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주파수가 기가 단위(1초에 약 10억 번 진동)이다. 일초에 약 10억 개 이상의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물질의 본질을 알기 위한 역사, 그리고 많은 정보를 빨리 전파하는 역사는 파장이 짧은 빛을 다루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한 박자 느리게 사는 삶에 대한 향수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주파수 경쟁, 그리고 작은 세계를 보려는 경쟁이 사람들을 바쁘게 지치게 만드는데 대한 반작용으로 볼 수 있다. 심장의 박동은 기껏해야 일초에 100번 이상을 진동하지 않고, 신경 신호의 전달 신호 역시 수천 헤르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더욱 빠르고, 많은 정보를 추구하는 대열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끊임없는 경쟁의 대열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 때, 나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하도록 하자.

외부에서 주어지는 파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심연에서 나오는 본질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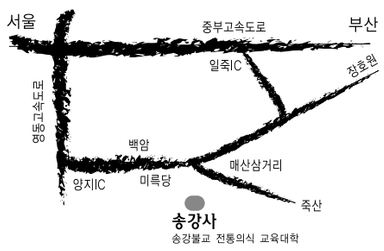
2005년 송강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입생 모집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시방세계에 가득 하길 기원하며.....
고(故)박송암스님께서는 열반하시기 10일전 소승을 불러 스님께서 정리해놓은 여러 자료와 범패의 짓소리 및 범음을 10시간가량 녹음해 주시면서 범패의 맥을 잇도록 당부 하셨습니다. 고(故)박송암스님의 유지를 받들고자 소승이 전승한 송암스님의 범패를 후학들에게 계승하기위해 송강불교전통의식교육대학을 설립하고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모집과목

학 과	과 목	모집인원	수업기간
기초반	도량석. 종성. 예불. 각단불공	OO명	6개월
중급반	49재. 천도의식 (시련.대령.관욕.관음시식.상용영반.화엄시식)	OO명	6개월
특수반	복청게.천수바라.도량게.다게.사다라니.나비춤	OO명	6개월
연구반	**예수재.**수륙재. 점안의식	OO명	6개월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소정양식) 1통 2. 사진 반명함판 2매
● 교육기간 : 각반 주 1회 2시간
● 접수기간 : 수시 접수
● 문 의 처 : 우편번호(456-894)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송강불교의식교육대학장 오송강 합장
☎ 031) 676-5929, 핸드폰 : 011-9677-4877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4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여법하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임,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 과 목
●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 서 예 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5:00 ~ 19:00

3. 교육기간(6개월)
● 원서접수 : 2005년 9월 20일 ~ 10월 20일 ● 개강일시 : 2005년 10월 25일 (금요일)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시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곡리 380번지 기원정사

신간안내
•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 저 자 : 백설운 스님
•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 금 액 : 35,000원
•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종무원 부설 교양대학

일주문



석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대한불교석암장학회장 정련 스님(부산 내원정사 주지)은 9월 3일 만불전에서 제61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중앙승가대 동문회 운영위 회의

김포 중앙승가대 동문회장 정념 스님(월정사 주지)은 9월 22일 오후 3시 승가대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한다.(02)922-7881



3대 종교 연합바자회

서울 화계사 주지 성광 스님은 10월 8일 오전 10시~오후 5시 난치병환자 돕기 3대종교 연합바자회를 실시한다.(02)990-1885



강릉시 장애인 바둑대회

강릉시장애인복지관장 현각 스님은 9월 8일 복지관 2층에서 장애인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1회 강릉시 장애인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청량사 산사음악회

봉화 청량사 주지 지현 스님은 10월 1일 오후 7시 경내 특설무대에서 '생명, 당신을 존경합니다' 주제 산사음악회를 연다.



동국대 정각원 개강법회

서울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은 9월 22일 중강당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불교의 사명' 주제로 2학기 개강법회를 봉행한다.



영남불교대 가을음악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회주 우학 스님은 9월 10일 경산 남천 둔치에서 난치병환자 돕기 '참 좋은 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청소년 장기대회 및 산사영화제

청주 화장사 주지 무진 스님은 9월 10일 화장사 앞 특설무대에서 청소년 장기경연대회와 명암골 산사영화제를 개최했다.



日 대학과 학생 식문화 교류협정

경주 위덕대 한재숙 총장은 9월 1일 일본 효고영양조리제과전문학교와 대학생 식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전 조계종 교육원(원장 청화)이 9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으로 이전했다. 이로써 조계종 총무원, 포교원과 함께 교육원까지 3원이 모두 새로 지어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건물로 입주를 완료했다. 주소는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그대로다.(02)2011-1800~1

"역경불사 후원은 모든 불자의 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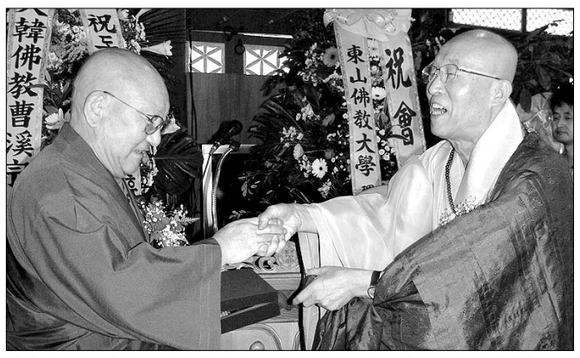
무진장 스님, 동국역경원 후원회장 취임

"온 힘을 다해 월운 스님이 펼치고 있는 역경사업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석주 스님의 원적으로 공석이 된 동국역경원후원회장에 무진장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이 추대됐다.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교육원장 청화 스님, 동국대 정각원장 진월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9월 9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된 추대식에서 무진장 스님은 역경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후원회는 1995년 발족해 2005년까지 총 16억 8천만 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금액을 동국역경원에 지원해, 후원회 없는 동국역경원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역경사업의 큰 비중을 담당했다. 지금은 총 회원 4500명에 지속적으로 회비를 내는 이는 350명에 불과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무진장 스님이 취임하면서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이 무진장 스님(사진 왼쪽)에게 후원회장 추대패를 전달하고 있다.

월운 스님을 가장 존경한다는 무진장 스님은 "후원회장은 자금을 끌어 모을 재주가 있어야 하는 할 텐데 누더기 한 벌만으로 살아온 내가 과연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 흔쾌히 승낙할 수 없었다"면서도 "동국역경원이 이 대장경 개역과 재발간 및 전산화 등 남아있는 과제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월운 스님은 "무진장 스님의 정법포교 원력에 힘입어 역경사업의 의미가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을 것"이라며 기뻐했다.

무진장 스님은 "특히 종단이 우선 역경사업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하며 "불자 여러분 모두가 후원회원이 돼 도와달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글 · 사진=박익순 기자

불자검사 김희옥씨 법무부 차관에 임명



사법연수원 불자모임 '다르마 법우회'를 창립한 김희옥(57 · 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9월 6일 신임 법무부차관에 임명됐다. 김 차관은 1995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며 '다르마 법우회' 창립을 지도했으며, 동국대 총동문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동문상'을 수상하는 등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경북 청도 출신인 김 차관은 1972년 동국대 법대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형사2부장 ▲서울지검 남부지청 차장검사 ▲수원지검 1차장 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대전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유신 기자

"서울에 우리시대 '나란다' 대학을"

바트 前 델리대 교수 동국대 특강서 강조

"불교학 발전을 위해 불교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한국불교가 불교학 연구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주길 바랍니다."

9월 7일 열린 동국대 불교문화원 해외 불교석학 초청강연에서 S. R. 바트 前 델리대 교수(사진)는 "'이 시대의 나란다대학'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서울에 세워져야 한다"며 "한국이 '국제불교학연구소'를 건립해 과거 인도처럼 인류 정신사의 리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에서 불교연구의 동향과 전망' 주제로 강연한 바트 교수는 "인도에서 불교는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서양 학자들과 암베드까르 박사, 달라이라마의 최근 노력에 의해 인도 불교와 불교학 연구는 새로운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고 소개했다.

바트 교수는 "불교 사상의 원천인 팔리어 문헌은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연구할 수 있지만, 불교사상의 철학적 핵심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철학적 바탕에 대한 연구가 없다면 문헌학이나 원전연구의 정치한 분석은 근시안적인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바트 교수는 이어 "인도 내에서 불교를 공부하는 연구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연구의 질은 높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기도에 끝과 시작있나요?"

1만5천일 기도회향 박관섭 · 이채란 부부



1만5천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는 기도로 많은 이들을 감동시킨 효천 박관섭(89 · 前 건국대 교수 · 사진 오른쪽) 관음성 이채란(88 · 시조시인) 부부. 그들은 누구도 해내지 못한 대작불사를 9월 4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500여 불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향했다.

"뭘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 가르침이 좋아 그대로 따르기 위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를 했을 뿐이지요.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는 생활인데 어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수 있겠어요."

41년 25일간의 기도를 회향하고도 노부부는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해왔던 대로, 육신의 짐을 털어내는 날까지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기도처는 다름 아닌 반평생을 살아온 그들의 집이었다. 노부부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의 높은 터에 40여년전 집을 짓고 기도를 시작했었다. 집을 떠나는 날에는 버스, 비행기, 호텔 등 어느 곳이든 기도처였다.

기도에 입제한 뒤 서재에 불단을, 뜨락에는 부모은중탑과 쌍사자석등을 모셨다.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일본헌병에 붙잡혀 고문으로 4개월 새 차례로 유명을 달리한 증조부와 조부, 아버지,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형님, 장조카의 명복을 빌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명분은 여읜지 이미 오래다. 이제는 바라는 바 없이 조석으로 합장한다.

노부부가 예불로 올리는 조석기도는 여느 예불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예불문도 없고, 반야심경도 없다.

부모은중탑 앞에서 초를 켜고 향을 올린 뒤 <법화경> '다라니편 제26'과 '관세음보살권발품 제28'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다시 불단으로 자리를 옮겨 30여분 경전 독송으로 마무리한다.

박관섭 옹의 불교와의 인연은 경성고보 재학시절 탐독했던 춘원 이광수의 글에서 비롯됐다. 불교사상이 고스란히 담긴 춘원의 문집을 접하고 부처님을 집안에 모시게 된 것. 따로 불교를 배운 적이 없는 박 옹. 남은 생, 경전을 스승삼아 기도를 올릴 뿐이다.

"춘원의 글 속에서 불교의 심오한 진리가 느낌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경전을 접하게 됐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춘원의 글에서 최고의 행복을 만난거지요."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경찰불교회 3기 집행부 출범



대한민국경찰불교회(회장 한진호) 제3기 집행부 출범 법회가 9월 3일 경찰청 법당에서 봉행됐다. 경찰불교회는 문영찬 사무국장(서울지방경찰정 감사관) 등을 비롯한 분과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법회에서 경찰불교회 고문 암도 스님은 "자비정신을 구현하는 경찰불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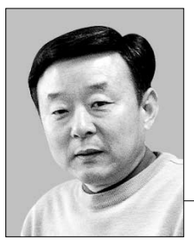
사회복지재단 '건강가정지원센터' 바자회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지현)은 9월 4일 조계사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동대문시장 상인들에게 후원받은 의류 3천 여 점을 판매해 91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사회복지재단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자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를 앞으로도 열 계획이다.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고향 찾기, 아름다운 본능

또 한 차례 장엄한 행렬이 펼쳐진다. 전국 도로가 주차장이 될 줄 뻔히 알면서 고향으로 향한다. 서러운 기억을 잠시 도시에 묻어두고 설렘의 풍선을 잔뜩 부풀게 하여 고향으로 간다.

짐짝 취급을 받아도 좋다. 고향 행 열차에 몸을 실을 수 있다면 풋풋한 엄살을 떨며 감수한다. 고성능 컴퓨터도 해석해 내지 못할 불가사의다. 고향이 뭐길래.

그곳에는 빳빳한 지식이 해독하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 굵은 주름 얼굴에 가득한 부모가 있다. 자식들의 트렁크에 더 넣어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늙은 부모의 사랑이 있다.

뿔뿔이 흩어져 삶의 막장에서 붉은 눈빛으로 살던 벗들이 선한 유년 시절의 얼굴이 되어 모여든다. 산천은 변했어도 그리움과 추억은 고스란히 남아 있다. 고향은 어머니의 자궁이다. 윤색과 가면을 모르던 시절의 초상이다.

그곳에는 협잡과 비난이 없다. 물고 물리는 사슬이 없다. 내 몫을 빼앗길까 눈에 불을 켤 일이 없다. 한없이 너그럽고 풍요롭다. 아들딸이 다투어 노모에게 용돈을 찔러 넣어 드리고 오랜만에 만난 유년 시절 동무들은 서로 술값을 내겠다고 다툰다.

그 많은 이기심은 어디로 가고 넘치는 자비가 주체하지 못할 지경이다. 고향에 오면 모두가 너그러워진다. 고향에 오면 옹색한 일상을 잊는다. 그래서 고향에서는 하나같이 천진불이다.

황토방 같은 고향이란 장치에 몸을 담그면 힘이 솟는다. 삼엄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다. 삭막한 기계가 되어 서걱거리며 돌아가던 자신을 버리고 조상과 가정과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인간의 피가 돌게 한다. 고향은 우리가 잃고 싶지 않은 추상이다. 날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체험 학교다. 자신과 타인에게 너그럽고 좀 더 베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정신이다. 단번에 몇 십 년 세월을 건너뛸 수 있는 굴림판이다.

부끄럽게 살아온 날들을 참회하며 넉넉하고 온유한 본래의 자신을 찾아주는 재생공장이다.

미국 뉴올리언스 사태는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없는 나무의 차이를 선연하게 보여준 교훈이다.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준 재앙이다. 강제된 규제로 형성된 질서와 오래 묵은 관습으로 이루어진 질서의 차이도 느낀다. 그러나 그들 또한 멀리 있는 이웃이다. 도움의 손길을 뻗을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 보름달, 한가위는 원융무애(圓融無碍)다. 만다라다. 걸림과 막힘과 뾰족함이 없다. 남에게 겨눌 창을 버리고 더불어 굴러가라는 은유다.

내 조상, 내 부모, 내 자식이 소중하나 둥근 이웃이 없으면 함께 굴러갈 수 없다. 더불어 사는 지혜를 담아오는 한가위 귀향길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고향이 그리워도♪ 못가는 신세♪♪도 많다. 열두 시간 걸려서 고향에 도착했다는 무용담을 부러워하는 이웃도 있다. 그들에게 나눠줄 고향 냄새, 그들에게 나눠줄 푸성귀 한 바구니를 함께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자. 천진불의 모습을 다시 장롱 깊숙이 구겨 넣지 말자.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얼굴로 살아가자. 이번에도 보름달은 어김없이 천 개의 강을 비출 것이다. 강에 비친 달의 모습이 바로 내 얼굴이다. 그 얼굴들로 삶의 막장을 가득 채우자.

민족 대이동은 헌법에도 없는 행사다. 마지못해 치루는 시험도 아니다. 차 속에 갇혀 꼼짝 못해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는다. 가다 서다를 반복해도 묵언 수행자처럼 운명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다.

기름 가득 채우고 먹을 것 넉넉히 준비해서 고향으로 출발! 아이들과 함께라면 휴대용 변기도 잊지 말도록.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가야산 골프장 재추진 안된다

2003년 2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아 취소된 가야산 골프장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판결이 난지 채 3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前 건교부 장관까지 포함된 인사들이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골프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설을 추진하겠다 하니 아마도 주민들을 갈라놓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부터 시작할 모양이다.

주민들과 불교계가 가야산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합해 나섰던, 그러면서 혹 판결에 져서 가야산 일대의 문화유적과 환경을 파괴할 골프장이 들어설까 애태우던 지난날의 악몽이 다시 살아나는 듯 하다.

골프에 대한 인식이 많아 바뀌었다 하지만 그런 인기와 무관하게 국내 골프장 건설은 심사숙고하고 또 심사숙고해야만 한다. 게다가 가야산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가 위치해있다. 늘 개발이익을 둘러싸고 지역공동체가 깨지는 골프장이라면, 과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역발전이라는 허울좋은 명목이 과연 얼마만큼 정당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자체들의 재정확보을 위해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 주어 이미 넘칠 정도로 많은 골프장들이 이미 건설되었는데, 과연 그 골프장이 국민의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를 전 국민들을 상대로 물어보고 싶다.

그만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주민들과 환경단체, 불교계가 반대하고 있는 가야산 골프장 건설은 절대 다시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구시대적인 개발논리는 이제 그만 둘 때가 되었다.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것은 결국 지역사회의 분열을 획책하겠다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혹시라도 그 사이 지난날의 기억이 희석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 움직임이라면 그 때에 모였던 것보다 몇배 많은 깨어난 눈들이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와 환경단체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불교계도 가야산 골프장 건설 재시도를 원천봉쇄하는 대열에 함께해야 할 것이다.

■ 성태용(건국대 철학과 교수)

이렇게 들었다 공부의 시기

온갖 존재는 한량이 없으니, 학문을 쌓아야 비로소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제법집요경〉

배움에는 때가 있다고 한다. 청소년기에 배움에 힘써야 하는 것도 배움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학문의 기반을 다져야 할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공부하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는 학생들과 공부할 여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음에도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에 관한 기사가 나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대전지역 장애인들의 유일한 배움터인 '모두사랑 장애인 야학'은 최근 학교가 입주한 건물 주인이 교실을 비워주도록 요구해 다른 공간을 찾고 있지만, 장애인 출입을 꺼리는 건물주들의 외면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한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던 25~50세의 중증장애인 60여 명은 1~2년마다 옮겨야 했던 짐을 다시 싸야한다는 사실에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다. 그들은 주위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을지도 모를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에 반해 광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눈병이 걸리면 집에 가서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눈병에 걸리려고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시교육청이 최근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유행성 결막염의 원인이 학생들의 '장난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것이다. 한 학교에서는 눈병에 걸린 학생들을 집에 돌려보내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 모두 모아 독서지도를 시켰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뒤 환자 발생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내가 가진 행복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 내겐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 누군가는 절실히 원해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안다면, 배움의 기회를 그렇게 쉽게 버릴 수는 없을 것이다.

■ 여수령(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 - 이렇게 생각한다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e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004-8243
(담당: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총림방장은 명안종사로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중앙종회의 장단에게 영축총림 방장추대권을 엄정하게 행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총림 방장은 "수행의 표상으로 종헌종법상에 제시된 선 · 교 · 율을 겸비한 명안종사로 20안거 이상 성만해야 한다"는 기본 조건을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물론 총림 방장의 위상을 생각할 때 이러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좌선만을 수행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수좌회에 있지 않기를 바란다.

영축총림의 방장이 어떤 분이 추대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선원에서 대중들과 더불어 정진해 오지 않으신 분이 방장에 추대되면 안된다'는 말은 단지 행자였던 '육조 혜능'이 '오조 홍인'으로부터 어떻게 법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마음 닦는 일이 어디 선원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나?

총림의 방장이 안거수가 부족할 경우 물론 수좌를 제접 할 경험이 부족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선원에 오래 살았다는 것만으로 기득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선의 정신을 손상하는 일이다.

방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분이 명안종사가 아님을 주장한다면 모르지만 선원에 주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그동안 한국불교를 이끌어 왔던 수좌회 답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애삿갓(붓다뉴스)

경주 핵폐기장 안될 말

얼마전 경주시의회가 경주에 핵 폐기장을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9월 7일에는 정부의 부지선정위원회가 경주 양북면 일대의 현장조사까지 벌였다고 한다. 각종 환경시민 단체는 물론 13개 주민대책위가 나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경주시가 위험천만한 핵 폐기장 건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도 핵 폐기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인근 울산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핵 폐기장을 지역경제 회생이라는 당장의 이익에 눈이 멀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않된다.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경주를 떠올릴 때 불국사 석굴암이 아닌 핵 폐기장이 있는 곳이란 인식을 심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주시가 민족의 유산을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불교계가 나서서 아무런 대응을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은 석굴암 부처님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불국사를 비롯한 지역의 사부대중들을 경주시가 유치하려하는 핵 폐기장 건설을 결사반대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다.

더구나 핵 폐기장이 들어선다면 수 십 년간 지속되어온 경주의 관광산업은 황폐해질 것이 뻔하다. 아직도 안정성 논란이 그치지 않는 핵 폐기장이 건설이 된다면 우리는 역사에 가장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국민으로 기록이 될 것이며 세계적 비난 여론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경주에 핵 폐기장이 들어서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진호(경북 경주시 석장동)

친일청산 촛불집회 동참하자

친일파 후손들의 내원암 땅찾기 소송 기사를 접하고 친일반민족특별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더구나 9월 13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불교계의 촛불집회를 계기로 특별법이 국민들의 염원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면,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갔던 친일 · 반민족 행위자들의 후손이 조상들의 재산을 환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전혀 어긋나는 일이 아니다.

해방 60주년이 지났음에도 '친일청산'을 이야기해야 하는 부끄러운 2005년을 사는 우리가 해방 100년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친일청산'을 이야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보각(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현대' 만평 심 민 섭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 (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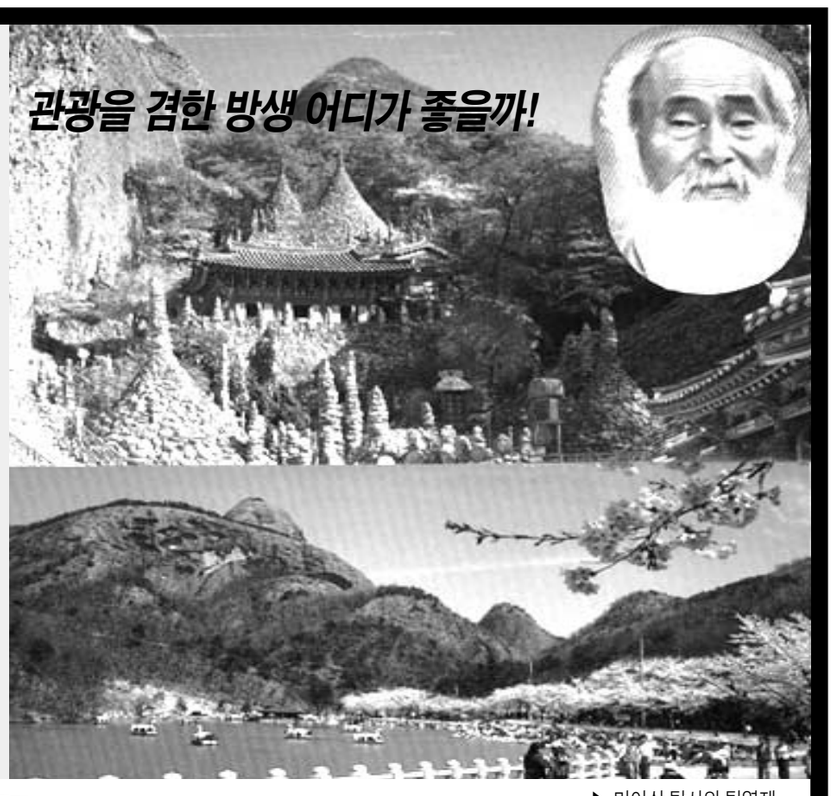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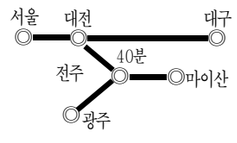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신비의 마이산 탑사 탑영제 방생



▶ 마이산 탑사와 탑영제

관광과 방생을 한곳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탑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063)433-2900,0303
432-0652,0072

헛발질 투성이~ 그래도 신나요

부산불교보현회, '가톨릭 평화의 집' 축구단 창단
후원회서 경비 지원…축구 지도 청년회서 맡아



"축구는 지금부터 시작!" 부산불교보현회가 가톨릭 '평화의 집' 축구부 창단을 돕고 9월 3일 창단식을 가졌다.

"평화의 집 선수들! 파이팅!"

9월 3일 가톨릭 법인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인 부산 평화의 집 운동장에 축구 경기가 한창이다.

그런데 붉은 색 유니폼을 차려 입고 평화의 집 운동장을 이리 저리 달리고 있는 선수들의 뜀박질이 영 서툴다. 축구공을 따라 뛰어야 하는데 공은 벌써 저만치 달아나고 제대로 공 한번 차는 것도 힘들다. 헛발질을 계속하면서도 힘든 줄 모르고 뛰고 있는 선수들. 바로 이날 창단식을 갖고 처음으로 부산 성우원 장애인 축구팀과 친선 경기를 가진 평화의 집 축구단원들이다.

평화의 집에 장애인 축구단을 만들자고 제안하고 축구단 창단 경비를 조달한 것은 부산불교보현회(회장 안성이). 종교를 떠나 장애인의 재활을 돕겠다는 마음 하나로 평화의 집에 장애인 축구단을 창단한 부산불교보현회는 이미 17년 전부터 천마재활원에 축구단을 만들어 지도해 왔다. 산하 단체인 부산불교보현청년회(회장 전진호)가 꾸준히 지도에 나선 결과 천마재활원은 이제 세계 대회에 한국 대표로 나갈 정도의 실력을 갖췄고 대회 우승도 바라볼 정도의 축구단이 됐다. 이처럼 축구가 장애인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재활에 큰 도움을 주자 4년 전부터는 성우원 장애인 축구단을 창단해 지도하고 있다.

축구단 창단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 5백만 원. 이 모든 경비는 3백여 명의 부산불교보현회 후원회가 마련하고 축구 지도는 부산불교보현청년회가 도맡는다. 처음 천마재활원 축구단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일반인들의 무관심으로 사비를 털어 충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한 부산불교보현청년회 전진호 회장의 경우, 셋째 주 일요일엔 천마재활원, 첫째, 셋째 주 토요일은 성우원, 첫째 주 일요일은 평화의 집 축구단을 지도해야 할 정도로 주말을 장애인들의 축구 지도에 모두 쏟아 붓고 있다. 선수들의 생일을 챙겨 매월 한번씩 케이크와 선물을 사들고 생일 파티를 하는 것도 빼놓지 않는다.

부산불교보현회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이 뿐이 아니다. 매년 5월경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한마음으로 어우러지는 시간을 벌써 8년이 넘도록 이어오고 있다.

9월 3일 평화의 집 축구단 창단식 준비도 부산불교보현회 후원회가 맡았다. 새벽부터 김밥을 싸고 떡을 했다. 후원회원들이 마련한 음식을 나누며 진행된 창단식은 '축구단 선수들 모두가 부상 없이 경기에 임하고 실력이 늘길' 기원하는 고사로 대신했다. 생일을 맞은 선수들은 전진호 회장이 마련한 선물까지 받고 웃었다.

안성이 회장은 "함께 팀을 이뤄 서로 마음을 나누고 장애를 극복하려는 선수들이 너무 대견하다"며 "많은 분들이 장애인들도 나와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장애인 포교,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018-579-4531(안성이 회장)

글 · 사진/부산=천미희 기자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하셨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김강진(현대불교)



민수에게 혈소판을

급성백혈병 진단을 받은 지 이제 5개월째로 접어든 민수가 혈소판이 부족해 헌혈이 가능한 O형을 급히 찾습니다.

현재 5차 약물치료를 진행 중인 민수는 약물과 함께 혈소판도 수혈 받고 있는데 혈소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헌혈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에게 헌혈이 가능한 분은 민수 아버님께 연락주세요. 부산대학병원을 방문, 정밀 검사를 받은 후 헌혈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016-547-8672 hompy/buddhapia.com/homepy/helpminsu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 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법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법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정사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연도 제보해주십시오.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언제나 밝은 표정의 장안사 신도들 덕분에 복지관 식당을 찾은 어르신들은 절로 밥맛이 난다. 사진은 9월 7일 봉사 모습.

성남 한솔복지관 장안사 신도회

나눌 수 있어 행복합니다

성남 한솔종합복지관(관장 성화) 식당에는 '웃는 얼굴'들이 있다. 무심코 식당에 들어선 사람들에게도 번지는 '미소'는 지역 어르신들의 얼굴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들. 식당 조리대에서서 어르신들에게 맛난 음식을 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장안사 신도회(회장 백춘란) 보살들이다.

9월 7일은 장안사 신도회의 봉사날. 아침부터 복지관은 밝은 웃음으로 물든다.

보살들이 이날 준비한 음식은 꼬리곰탕이다. 무와 쇠고기를 맛있게 양념하는 보살들의 손이 야무지다. 이미 4년여 동안 복지관의 김장을 도맡아했고, 행사만 있으면 자원봉사자가 되길 꺼려하지 않아서다.

복지관의 대소사를 살뜰하게 살펴온 것으로 유명한 장안사 신도회 백춘란(61) 회장은 봉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하다고 한다.

"친정부모님과 시부모님 모두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나와서 어르신들을 대할 때면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렐 정도랍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감사함을 담고 있는 백 회장은 "봉사는 그저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장안사 신도들을 이끌어나간다. 그 마음이 공유됐기 때문인지 장안사 봉사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을 한다. 서로 업무 분담을 한 것도 아니건만 알아서 척척이다.

"서로 힘든 일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화합이 잘 되는지 몰라요."

장안사 신도회가 자랑하는 것은 '봉사'하러 온 사람들을 존중하겠다는 의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함부로 하는 법도 없고, 힘든 일을 기피하지도 않는다.

최은숙(48)보살은 "건전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목을 다지다 보니 즐겁고 호흡도 잘 맞는 것 같다"고 말한다.

장안사 신도들은 이렇게 '즐거운 봉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자신들만 봉사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너무나 아깝다.

"봉사는 꾸준히 해야 알아요. 나름대로 이용자분들께 애착도 느껴봐야죠. 그 감정을 느낄 때까지 일하면, 기분 좋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글 · 사진/성남=김강진 기자

무료급식소 물품 필요해요

한솔복지관 인근에서는 현재 무료급식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경로식당에 필요한 그릇, 테이블, 책장 등의 물품이 없다는 것. 장안사 신도들은 "어르신들이 넓은 곳에서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031)716-4215

나눔의 손잡기 <동참문의 및 제보> 전화 (02)2004-8234/ 인터넷 홈페이지buddhanews.com '나눔의 손잡기'/ 동참계좌 :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 김원우 / ARS 060-700-1080(한통화 3천원) 나눔의 손잡기

청명한 가을 하늘, 여시아문이 秋天 하는 도서와 함께!!

모든 감정을 탁 놔버려라!
禪 너는 누구냐
'마음 공부 제대로 해서 행복하게 살자'라는 공통된 메시지로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추상 같은 엄격함으로 자신들의 수십 년 수행 경험을 청중들에게 전했던 지난봄 조계사 선원장 대법회 법문 내용이 책으로 묶여 나왔다. – 조선일보
신국판 / 288쪽 / 값 9,000원 현대불교신문사 엮음

대하 로그 다큐멘터리 신왕오천축국전
혜초따라 5만리
무려 15년 동안 7차에 걸려10여 개국을 떠돌고 머물며 발품으로 완성한 신왕오천축국전
상권 302쪽 · 하권 296쪽 값 각권 18,000원 / 김규현 지음

주제가 있는 '禪' 이야기
선 어 삼 백 칙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자, 이것이 바로 너의 보배이다 일체를 갖추고 있으며, 조금의 흠결이나 부족함이 없다.
신국판 / 420쪽 / 값 10,000원 차차석 譯解

잊혀져 가는 폐사지 그 소중함을 되찾는 이야기
잊혀진 가람탐험
폐사지 보존 법안 상정추진까지 이끌게 만들었던 책으로 시인 장지현이 폐사지를 직접 답사하여 책으로 엮었다.
B5변형 / 356쪽 / 값 23,000원 장지현 저

'선방'에서 벌어지는 사건
선 방 일 기
'지허'라는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의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는 이야기.
B6 / 136쪽 / 값 5,000원 지허 스님 지음

'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초펠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값 4,500원 초펠 스님 편역

집착은 마음의 적!
감 산 자 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혼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248쪽 / 값 8,000원 지허 지음 / 대성 옮김

참선자의 필수도서
참선요지(參禪要旨)
깨달음을 향한 과정 중 안일과 나태 그리고 아집과 자기 합리화에서 벗어나, 수행자의 모습을 찾도록 하는 필수 지침서.
B6 변형 / 278쪽 / 값 5,500원 허운화상 법어 / 대성 옮김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훌륭한 나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

그대의 날개를 자유롭게 펼쳐라!
황금빛 봉황이
바닷물이 밀려간 뒤 아름다운 조약돌이 드러나듯 쾌활 청량한 선어(禪語)들은 인위적인 문자냄새를 찾아볼 수 없다. 책에 담긴 실제의 묘용을 오득(悟得)해 모두 법계의 주인이 되길 바란다. –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신국판 / 358쪽 / 값 10,000원 수불 지음

조계종 수행의 길
간 화 선
이론보다 실천, 방편보다 법을 위주로 하여 선의 본지를 제시한다.
A5 / 436쪽 / 값 15,000원 불학연구소

염불삼매 속에서 나는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문수의 법왕자로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노니 선근공덕이 많은 선남자 선여인들은 이 책을 의심하지 말고 믿을지니라
A5 / 300쪽 / 값 15,000원 자재만현

www.yosiamun.com
이메일 : yosiamun@buddhapia.com 전화주문 : 02)2004-8220 팩스주문 : 02)737-0696

“마음 열면 주고 받을게 많아요”



월드빌리지에서는 한국어를 포함해 세계 13개 국어의 언어강좌가 60여 국내외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열리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문병환 대표.

97년 ‘세계언어문화공동체’ 구성 … 8천여 회원 활동 중

“월드빌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편안한 사랑방입니다. 비용부담 없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익히고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어 2년째 주 3회 정도 월드빌을 찾습니다. 월드빌에서 도움을 받고, 한국의 불우이웃들에게 밥퍼주기 등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 기쁩니다”<조조(47 · 인도인)>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 위치한 KIH(Korea International House) 월드빌리지(이하 월드빌) 인터넷카페(http://cafe.daum.net/worldvill)에 들어가보면 이 곳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감사 인사로 도배가 돼 있다. 대체 어떤 곳이길래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이처럼 열광하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다. 그 화두의 실타래는 문병환 대표(43)를 만나면서 이내 풀어졌다.

국제친교봉사단체인 월드빌은 1997년에 시작해 현재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쳐 8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어 정식명칭은 ‘세계언어문화공동체’. ‘나눔’의 대원칙아래 인종과 종교, 지역을 초월해 세계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파하고, 지구촌 가족애를 바탕으로 상호 친교 봉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이다.

지혜경영연구소(소장 손기원)에서 지난달 ‘8월의 지혜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문대표의 직업은 경제전문지 ‘머니투데이’의 기자다. 방과후와 주말 시간 등 여유 시간을 이용해 월드빌을 운영하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씨의 어릴적 꿈은 외교관이었다. 학창시절부터 예능과 외국어를 좋아해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었다. 하지만 대학시절 언론에 매력을 느껴 진로를 바꿔 졸업 후 한국경제신문사에 입사했다. 기자로 활동하며 1995년 독일에 취재 간 것이 오늘날 월드빌을 탄생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다. 독일에서 동료가 아픈 바람에 갑자기 병원을 찾아가야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도움을 줘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이역만리 타국에서 현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니 정말 고마웠어요.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에 도움을 줘야겠다고 결심했지요.”

이후 졸장에서 돌아온 문대표는 즉시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몇몇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모임을 알게 돼 그곳에서 한국어교사 봉사 활동을 하게됐다.

이후 문대표는 1997년부터 서울 동대문의 한 분식집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것이 월드빌 역사의 단초가 됐으며, 월드빌 본부는 다섯차례의 이사를 거치면서 현재의 대학로에 안착하게 됐다.

월드빌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국인 자원봉사자와 회원들에게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등 10여개 국가의 언어를 가르치는 쌍방향 봉사를 펼친다.

문대표는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주는 봉사는 반쪽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봉사를 받았으면 꼭 물질적인 것이 아니어도 무엇인가 타인을 위해 봉사할 것을 권합니다. 이 세상에는 누군가에게 아무것도 나눠주지 못할 가난한 이도 없으며, 아무것도 받지 않을 만큼 부자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봉사는 꼭 물질적인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월드빌은 원래 외국인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 그러나 한국어를 배우면서 자국 언어를 가르치는 외국인들, 그들에게 외국어를 배우러 오는 한국인들, 배낭여행객, 비즈니스맨, 어학연수생 등 다양한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외국인 허브’로 거듭났다.

특히 한국어 수업을 할때에는 딱딱한 이론식 수업은 절대사절이다. 한국어방에서 자원봉사 선생님인 정윤경씨(27)가 한복을 차려입고 ‘신분에 따라 달랐던 과거의 한복’을 설명하자 인도인 조조 나타니엘(47)이 인도의 계급제도에 대한 ‘특강’을 자청하고 나섰다. 선생님과 제자가 순간 뒤바뀐 것이다.

수업광경을 뒤에서 지켜본 문대표는 “이곳이 일반 대학의 한국어학당이나 일반 사설 학원과 다른점은 바로 언어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문화의 우수성도 함께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곳에선 현재 13개 언어, 48강좌가 진행 중. 한국어 강사 18명을 포함한 60여명의 강사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이다.

지금은 이곳을 다녀간 외국인들의 입소문 덕분에 해외에서 많이 알려져 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한국을 방문하면 꼭 들르는 필수코스로 입소문을 타자 세계적인 여행잡지 ‘론리 플래닛’은 올해 처음으로 월드빌을 소개하면서 ‘한국어를 무료로 배우고 유용한 정보도 얻는 곳’이라고 소개했다.

월드빌의 별관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강남구 신사동 빌라 부엌은 ‘키친 클래스’가 진행되는 수업현장이자 세계 각국 민속음식이 만들어져 소개되는 민간 문화친교장소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정기적이긴 하지만 문대표는 한국의 전통문화가 혼재돼 있는 사찰순례 기행을 기획하기도 한다. 지난해 찾아갔던 양평 용문사에서 외국인 회원 20여명과 템플스테이를 체험한 것이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털어놓는다.

“피부색과 언어, 종교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상생하며 살고 있는 느낌을 공유한다면 아마 지구상에 전쟁같은 것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어는 문화를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더 늘려 효과적인 한국어를 세계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럴때 우리 월드빌도 비로소 완전한 나눔문화공동체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창기 도반의

국제친교봉사단체 ‘월드빌’ 대표

문병환

외국 관광객 위한 정보 제공, 쌍방향 언어 교육봉사 펼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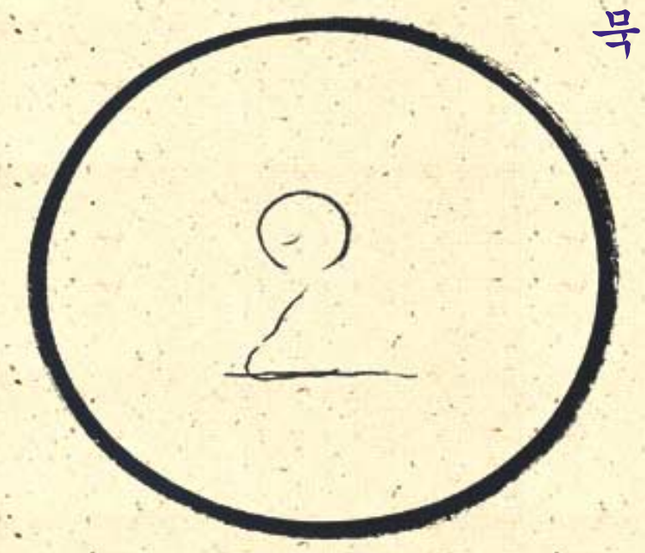
사찰 기행 · 템플스테이 통해 한국 문화 알리기도 앞장

묵연스님의 선화 전시회 및 묵연스님의 시화 명상집 출판 기념회



불교TV "시가 있는 찻집"과 "시와 사랑"에 출연하여 불자님들의 뜨거운 성원을 받았던 바로 그 묵연스님이 170평의 대 전시관에서 첫 전시회를 가집니다.

길이 5cm, 지름 8mm의 오직 한 붓으로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선에서부터 다른 모든 선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묵연스님만의 독보적 기법은 선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이며 보는 이로 하여금 오묘한 자신의 내면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붓으로 그렸다고는 믿기 어려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일필휘지의 일원상



- 장 소 : 갤러리 라메르
  (인사동 사거리에서 공평아트 방향 중간에 위치)
- 일 시 : 2005년 10월 5일 오후 2시부터 2005년 10월 11일 오전 12시까지
- 문 의 : 011-9366-1129

나의 수행법

사띠 체험기 - 손일권 (上)



개인적으로 '리더십 컨설턴트'라는 직함을 쓰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외국에 나갔을 때 다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국토의 크기에 놀라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레 형성되는 그들 생각의 크기에 자못 자존심이 꺾이기 일쑤였다. 이런 크기를 보고 자란 아이들과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세계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을까? 내게 파고든 의문이었다.

심지어는 한국에서 그토록 커 보이는 분들도 더 큰 세상에 나가면 별로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러니 특별히 세계수준에 맞게 공부하고 준비해온 것이 전혀 없이 대학을 졸업한 나로서는, 젊은 날 흔히 갖게 되는 세계 수준에 대한 막연한 꿈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 안에서 때때로 예고 없이 일어나는 고통은 피할 수 없었다.

외국에 가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지 눈으로 확인한 후 고통이 찾아왔다

게다가 그런 아픔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하루 중 단 몇 초, 일년 중 단 며칠뿐일 텐데도 이상하게 그 느낌은 하루 종일, 혹은 1년 내내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닌가!

서른을 훌쩍 넘어서 젊음의 특권인 패기와 도전정신 같은 것이 많이 남지 않게 되었을 때도 그런 고통은 오히려 줄지 않고 더 커져만 갔다.

그런데 고통은 다른 고통들과 어울려 증폭되는 속성이 있다. 또 주기적으로 반복됐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상의 고통들도 서로 뭉치면 아주 가끔은 눈덩이처럼 커지기도 했다.

직장,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는 일보다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알아가면서 아픔은 어김없이 따라 왔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순간순간의 아픔과 함께, 마음 한 쪽에 봉인해 두었던 '이런 삶을 다시 반복해야 한단 말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문까지 튀어나와 더해질 때였다. 그럴 때는 정말 며칠씩, 심지어는 몇 달씩 세상 살 맛이 전혀 안 나기도 했다. 매일 반복되는 듯한 일상도 어떤 때는 견딜 수 없이 지루한데, 만일 이런 삶이 반복되는 거라면 그 고통을 어찌 감당한단 말인가?

그런 주기적인 고통이 온다는 걸 인식할 때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맘에 안 드는 날의 주기가 점점 빨라질 때쯤, 그래서 뭔가 이 고통을 다루는 기술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 실컷 아플 때쯤 비로소 부처님의 수행법을 만나게 됐다.

불교계 언저리에 슬쩍 한 발을 담그고 가끔 봉사활동 한답시고 기웃거리던 20대를 보낸 덕인지, 다행히 꽤 많은 분들이 수행을 지도해주실 스승과 수행법에 대해 소개해줬다.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근기가 형편없는 건지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학교 체육 시간에 100미터 달리기를 할 때도, 손을 휘젓는 방법이라든가 보폭의 크기라든다 발을 디딜 때의 착지 방법이라든가 하는 것들이 경험에 의해 정리돼 있듯이, 수행도 그런 구체적인 테크닉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 "잘해라" 혹은 "구체적으로 잘 해라" 수준의 답은 곤란할 듯 했다. 그러니 고통을 다루는 방법을 익혀보겠다고 찾아가서, 고통의 제거는커녕 스승이라 알려진 분들의 어이없음과 불교에 대한 심한 회의를 덤으로 얻어오는 게 다반사였다. (계속)

■ 반냐라마 부설 지혜연구소장

근기에 따른 수행단계 상세히 제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과 순서를 일러주는 <대보리도차제론>은 티베트불교 수행의 핵심이다. 사진은 오체투지 수행을 하고 있는 티베트 수행자. 현대불교 자료사진

▌'대보리도차제론'으로 본 티베트불교 수행

'차 · 소금 · 밀가루 · 쌀 등을 서로 섞어 한 봉지 안에 넣어 사용할 것인가, 따로따로 나눠 쓸 것인가?'

티베트불교 수행의 대표적인 논서 <대보리도차제론(大菩提道次第論)>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대답은 단호하다. "절차 없이 마음대로 섞어 수행하면 발전이 없다"고 못박는다. 수행법에는 차제(次第, 순서)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처럼 '차제법'을 강조하는 티베트 수행법이 최근 달라이 라마 관련 서적 발간 붐과 함께 큰 관심을 얻고 있다. 특히 초펠(前 부산 광성사 주지) 스님이 편역해 낸 <람림-티베트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럼 티베트 수행의 특징은 무엇일까. '마음공부에는 월반(越班)이 없다'고 강조하는 <대보리도차제론>을 통해 알아본다.

■ <대보리도차제론>은 어떤 책?

티베트 불교의 중흥조 쫑까빠(Tsong-kha-pa, 1357~1419) 스님이 저술한 밀교 논서(論書)다. 집필의 기초는 1천년 전, 인도의 대학자였던 스승 아띠샤(Atisha, 982~1054)가 지은 <보리도등론>으로 했다.

논서의 이름을 쉽게 풀어보면, '8만4천대장경의 핵심을 빠짐없이 갖춰 선근(善根)을 갖춘 이가 보리(菩提)를 이루기 위해 대승의 길을 실천하는 올바른 순서'란 뜻이다. 즉 깨달음을 얻기 위한 방법과 순서(차제)를 일러주는 것이 핵심인 셈이다.

때문에 <대보리도차제론>(이하 차제론)은 '성불이란 집을 짓기 위한 세부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6백년 넘게 이 논서는 수행의 단계를 충실히 일러주는 지침서 역할을 해왔기에 티베트 수행자들의 기본 필독서로 애송돼 왔다.

인도 델리대에서 아띠샤의 <보리도등론>을 전공한 수각 정사(위덕대 불교학과 교수)는 "쫑까빠의 '차제론'은 당시 소승, 바라밀승(波羅蜜乘, 현교), 비밀진언승(秘密眞言乘, 금강승 또는 밀교)의 가르침을 상보적인 관계로 파악해 아우름으로써 기존 3승의 가르침이 상호배타적이라는 시각을 극복했다"며 "이런 성격은 티베트 불교수행의 중요한 흐름과 모델로 자리 잡게 돼 오늘날 수행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설명한다.

■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차제론>이 이처럼 티베트 수행의 나침반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 국내 최초로 티베트어 원본 <차제론>을 한글로 번역한 초펠 스님은 "수행자의 근기에 따라 수행법을 4단계로 세분화해 너무도 자상하게 설명해주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차제론' 대승불교 모든 경전 · 논서 총망라 사유 · 관상 · 실천법 구체적으로 알려줘

<차제론>에 따르면, '발심자→초심자→중참자→구참자' 등 수행력에 따라 4가지 차제법(순서)을 일러주고 있다. 특히 발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침을 들어야 하는지, 스승에게 의지해서 마음을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우선 <차제론>은 발심자가 갖춰야 할 6가지 자세를 '환자와 의사'의 비유로써 설명한다. '스스로 환자라는 인식' '정법이 약이란 인식' '스승은 의술이 뛰어난 의사란 인식' '반드시 실천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인식' '여래가 최고의 성인이란 인식' '불법을 오래도록 지속시키겠다는 인식' 등을 소개한다. 이 가운데 '자신이 환자'라고 인식하는 태도는 탐진치 삼독심으로 큰 불치병에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번뇌의 병을 무서워하라는 메시지다. 이 같은 연상법은 깊은 사유와 관상의 경험을 유도하는 티베트 수행의 한 특징에서 비롯된다.

초심자를 위한 수행체계에서는 죽음에 대한 사유, 행복과 고통 관상법, 불법에 입문해 귀의하는 법, 인과에 대한 온전한 신심을 내는 법 등이 담겨 있다. 인과의 실천법에서는 '참회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다. 즉 아주 작은 선행이든 악행이든 이를 잘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참회를 '치료제의 힘'으로 비유하고 있다. 자기가 쌓아온 죄를 알고 사무치게 후회하는 힘,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힘, 참회할 대상을 아는 힘 등이 구체적인 행법이다.

초펠 스님은 "'차제론'은 수행에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수행해 나갈지에 대해 상세히 가르쳐주고 있다"며 "중 · 구참자에게는 사성제와 삼법인, 육바라밀 등 대승불교의 핵심 가르침을 관상법을 통해 깨닫게 된다"고 강조한다.

■ 바른 스승 만나 정법 받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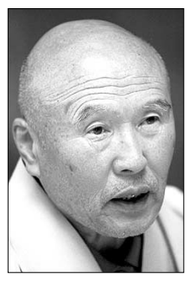
여법한 <차제론> 수행의 관건은 바로 '얼마나 바른 스승을 만나 정법을 전수받느냐'에 있다. 이 같은 정서는 티베트불교에 있어 바른 스승에 대한 동경에서 유래된다. 또 9~10세기의 '불법의 암흑기' 동안 인도에서 유입된 삿된 스승들의 폐해에 대한 처절한 반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때문에 <차제론>에서는 '도의 근원이 되는 근본 스승을 의지하는 법'을 강조한다. 관상하거나 공부하기 전에 수행처를 어떻게 청소할 것인가에서부터 공양물을 올리는 법, 업장소멸법(절하기, 참회, 법문 청하기)에 이르기까지 소개하고 있다.

특히 스승을 찾는 방법에서는 '믿음의 뿌리를 닦을 것'과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고 존경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수각 정사는 "훌륭한 스승의 강조는 '뜬구름 잡기식'의 막연한 공부에서 탈피해 바른 스승을 통해 매뉴얼화 된 수행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게 하는데 그 까닭이 있다"며 "이를 통해 수행과정 속에서 현혹되기 쉬운 자기기만의 함정에서 비껴갈 수 있고 자기의 수행근기와 현 단계를 자기 진단할 수 있어 신심과 정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

김철우 기자



우룡 스님

선사들의 선어록 강의 2題

간화선 수행의 필독서인 <서장> <선요>등의 선어록이 이 시대 최고의 강백과 선사의 특강으로 강독된다. 선교(禪敎)를 겸비한 대강백 울산 학성선원 조실 우룡 스님, 간화선 수행 풍토 진작에 앞장서고 있는 봉화 각화사 선덕 고우 스님이 <서장>과 <선요>특강에 나선다.

#우룡 스님의 <서장>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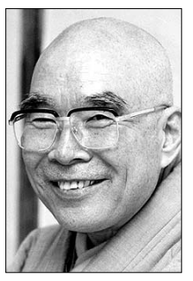
통도사 범어사 등의 선방에서 20여년 넘게 수행자들을 지도해오고 있는 우룡 스님이 10월 9일~13일 총 5일간 경남 고성 옥천사에서 여는 <서장> 강의에는 출 · 재가 구분 없이 동참할 수 있다.

매일 오전 9시~11시, 오후 2~4시 두 차례 열리는 이번 대중강의는 대혜 선사가 당시 사대부들과 '선 공부에 관한 여러 가지 요지'를 편지글로 문답한 <서장>의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강의가 참가자 질의응답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055)672-0100

#고우 스님의 <선요> 특강

40여년 참선정진을 해온 고우 스님이 10월 13일부터 6개월간 서울 대승암에서 <선요>를 집중강독한다. 참가 대상은 조계종 교육원 부설 서울불교전문강당을 졸업한 구족계 15년 이상의 중진 비구 · 비구니 스님. <선요>는 중국 송나라 고봉현묘 스님이 쓴 선어록으로 <서장><도서><절요>와 함께 우리나라 강원의 사집과목이다. (011)420-7838

강유신 기자



고우 스님

佛 心

관세음보살 금장시계

세상모든 중생의 소리를 듣고 관찰하여,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케하고 즐거움을 주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 보살님과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그리고 12시 자리에는, 모든 우주만물의 근원이자 근본인 ॐ자를 각각 24K 골드테크로 각인한 최고급 금장시계(로렉스형)를, 민족의 최대명절의 하나인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평소에 존경하고 항상 고마운분들께 선물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준비 하였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고급 로렉스시계와 똑같고, 24K GOLD이온도금을 하여, 쉽게 벗겨지거나 변질 되지 않으며, 포장도 고급 로렉스 케이스에 2중 3중으로 정성스럽게 하여 한층 중량감이 있습니다.

이 관음호신불 시계를 주시는분이나 받으시는분 모두가 관세음 보살님의한량없는 가피를 입으시고, 항상 관세음 보살님을 가까이 모시어 모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게 됩니다.



• 수량은 300세트 한정
• 현금특가 : set146,000원
• 제조 판매원 : 거암통상 (불교용품 제조, 도매)

◆ 즐거운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여러 특별 사은품을 준비하였습니다.

• 24K 순금달마카드-1
• 24K 순금달마열쇠고리-1
• 24K 순금달마휴대폰고리-1
• 고급 자석 두줄합장주-1



www.mandara21.com 051)636-5136 010-4436-2313
농협 : 906-02-043286 / 국민 : 113-21-0757314 예금주 : 유인자

제1회 민족사 출판원고 공모

불교전문 출판사 민족사에서는 새로운 원고를 발굴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신한 원고를 공모합니다.

▶ 상금 ◉ 대상작 : 1편 800만원 ◉ 최우수작 : 1편 500만원 ◉ 우수작 : 3편 300만원

공모요강

▶ 공모분야: 불교입문, 교리해설, 수행, 명상, 역사, 문화, 수필, 만화, 청소년, 아동 등 특정 분야에 관계없이 대중적 호응도가 높은 원고로 국내에서 출판된 적이 없는 순수 창작물. (단 시, 소설, 학술서는 제외)
▶ 응모자격: 누구나 응모 가능함.
▶ 서술방법: 새로운 내용의 글로써 참신하고 진지하며 대중성이 있어야 함. 주제와 소재, 서술형식은 자유.
▶ 원고의 상태: 100% 완성된 원고 또는 80% 이상 완성된 원고에 한함(단 80% 원고는 향후 3개월 이내에 100% 완성된 원고를 제출함을 전제로 함)

응모방법

▶ 원고제출: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이메일 및 우편으로 접수. 이메일로 보낼 경우는 출력원고 1부를 별도로 제출요망. 기타 문의 사항은 이메일로 문의 요망.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600매 이상(단 컷, 사진, 그림이 있는 경우는 매수와 상관없이 단행본 1권 분량이 되어야 함)
▶ 기 타: 원고 앞장에 책제목(가제), 원고개요(원고매수 5~10매), 저자소개(이름, 나이, 성별, 전공, 저 역서 등 구체적 소개), 응모분야를 별도로 명기할 것. 저자소개는 필명으로도 가능함.(단 민족사에서 본명을 의뢰할 경우 밝혀야 함)
▶ 원고마감: 2005년 10월 30일까지
▶ 보내는곳: 130-110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08-1 금강빌딩 2층 도서출판 민족사
E-mail: minjoksa@chol.com ☏ (02)732-2404
▶ 당선발표: 2005년 11월 넷째주 불교계 신문에 공고 및 개별 연락.
▶ 참 고
◉ 당선작은 민족사에서 출판을 원칙으로 함. 출판할 경우 상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인세를 지급함.
◉ 표절 또는 출판 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 취소와 함께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 응모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민족사에서는 참신하고 대중적인 필자 발굴을 위해 연 1회 지속적으로 원고를 공모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본래 갖추어진 불성 되찾는다

도심 수행도량을 찾아서 ⑬ - 전주 참좋은 우리절



전주 '참좋은 우리절' 신도들이 다라니 기도를 하고 있다.

흔히 우리가 사는 현대를 정보화 시대라 부른다. 몸으로 부딪혀 사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위주의 정보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편해졌다'고 한다. 수행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하룻밤 사이에 불교관련 책과 동영상물이 쏟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다. 전 세계의 불교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다양한 수행법도 안방에서 따라할 수 있다. 그러나 왠지 모르게 허전함은 여전하다. 왜 일까?

9월 5일, 전주역 앞 상가건물 4층과 5층에 자리한 '참좋은 우리절(주지 회일, cafe.daum.net/urijel)'을 찾아 이러한 의문에 답을 찾고자 했다.

이날은 마침 일요법회가 열리는 날이다. 오전 10시, 주지 회일스님의 주재로 <천수경> 독경이 시작됐다. 독경은 다라니 부분에 이르러 21번을 반복했다.

100여명의 재가불자가 함께하는 다라니는 한편의 아름다운 교향곡이 되어 도심 속으로 울려 퍼졌다.

얼마나 흘렀을까, 독경을 마치자 의식을 집전하던 스님들이 108참회에 들어갔다. 스님들의 오체투지는 마치 한분의 스님이 하는 것처럼 한 치 흐트러짐 없이 이어졌다. 다시 축원-유치-청사로 이어지는 법회는 태풍처럼 격하게 몰아치다가 숨죽이며 늦추어지더니 또다시 힘을 모아 법문으로까지 치닫았다.

"불교의 목표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입니다. 보리를 구함은 곧 수행이며 수행의 다른 말은 기도입니다. 흔히 복을 구걸하는 행위를 기도로 착각하는데 그것은 업을 짓는 것입니다. 그 업은 언젠가는 갚아야할 빚입니다. 기도는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어져 있는 불성을 되찾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기도를 놓치지 않으면 매사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나아가 긍극에는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저잣거리 상가 40여평의 작은 공간으로 시작된 '참좋은 우리절'은 개원 4년만에 1300세대 4000여명의 신도가 신행활동을 하는 수행도량으로 성장했다. 비결(?)은 바로 '기도'였다.

법회가 끝나자 회일 스님에게 기도에 대해 몇 가지를 더 들어봤다.

▲기도란 무엇인가

불교에서의 기도는 본래 갖춰있는 부처님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복을 짓는 작복(作福)을 뜻한다. 부처님도 실명한 제자 아나율 존자의 바늘에 실을 꿰어주시면서 "이 세상에서 복을 얻고자 나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여섯 가지 일에 게을리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섯 가지란 남에게 베풀며, 남을 가르치고, 억울함을 참고, 계를 가르치고, 중생을 보호하며,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왜 지금 기도인가

근래 들어 불자들도 공부를 한다면서 몸으로 하기보다 입이나 생각으로 하려고 한다.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는 풍조가 종교에도 파고든 것이다. 특히 기도가 그러하다. 몸으로 하는 기도일수록 돌아가고자 한다.

▲'참좋은 우리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나

천수다라니를 강조한다. 재가불자가 이 시대에 쉽게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천수경>독경이고 천수경의 골수인 '다라니'를 놓지 않도록 한다. 입에서 다라니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 번뇌가 스며들 틈이 없다. 이렇게 생각, 입, 행위를 다라니 기도에 묶어두면 순간순간이 당당한 삶이 된다.

물론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한다는 것은 어렵다. 먼저 조석예불부터 챙겨보기를 권한다. 꼭 법당에 나오지 않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예불을 하면 된다. 주변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라니를 독송하는 것으로 예불을 대신하는 것도 방법이다. 매일 예불을 챙기면서 조금씩 기도를 늘려가면 된다.

▲그것만으로는 개인 정진에 머무르는 것은 아닌지

기도는 곧 수행이다. 또한 기도는 자기 닦음이자 회향이다. 개인적으로는 부처가 되고(上求菩提), 중생에게 회향(下化衆生)하는 기도로 되어야 한다.

기도로 나와 남이, 인간과 자연이 한 몸임을 자각하고 생명을 나눠야 한다.

우리절에서는 자원봉사를 통한 자기 회향을 실천하고 있다. 조직을 갖춘 시스템 속에서 회향을 실천하는 것도 좋으나 스스로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주위에는 우리의 힘과 생명을 필요로 하는 생명이 많기 때문이다.

글 · 사진/전주=이준엽 기자

개원 4년만에 4000여 신도 신행 활동
다라니 끊이지 않고 외우면 번뇌 안 일어

기도를 방편으로 신바람나는 법회



▌회일 스님은 '참좋은 우리절'은 '누구든 와서 기도 하라'는 뜻에서 이름부터 편한 우리말을 선택했다.

주지 회일 스님(사진)은 1988년 금산사에서 월주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군종장교를 거쳐 서울 구룡사에서 어린이·청소년법회를 이끌었으며 당시 어린이법회 수련회에 2000여명이 참석해 교계를 놀라게 했다. 구룡사 철야정진 중에는 기도가 끝나면 대중들이 박수를 치곤 했다. 열정적이고 진지한 스님의 기도에 모두가 감동한 것이다.

이때부터 출가자의 본분사는 '열심히 사는 것'에 있다고 보고 '기도'를 방편으로 수행과 포교를 시작했다.

스님은 어느 자리에 있든 기도를 통해 '신바람나는 법회'를 만들었다. 또한 재정은 물론 조직 등 사찰의 운영 일체를 신도회에 일임하고 있다. 스님은 오직 '기도와 포교'만 이끌 뿐 그 이외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것도 여느 사찰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참좋은 우리절은 신도회 주관으로 삼천동에 대지 2000평, 지하1층 지상3층의 도량을 건립하고 있다. 내년 봄에 도량이 완성되면 기도회향을 실천하기 위해 소외된 이웃과 제3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063)245-8027~9

할로 죽이고 방으로 살리고

<34> 떡

추석명절이다. 이럴 때는 떡이야기가 제격이다.

백결선생은 명절인데도 떡을 만들 쌀이 없는 부인을 위하여 거문고로 떡방아소리를 내주었다고 한다. 예술 한답시고 쌀독도 채워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지아비가 그 절박한 상황을 예술로 승화시켜 놓은 것이 '방아타령'이다.

용담숭신 선사는 출가 전에 떡장수였다. 그래서 떡파는 노파가 덕산 스님을 용담 선사에게 안내해준 것일까?

동종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던지라 이미 서로 알고 있었거나, 업계에 떠도는 소문을 통해서 이름을 들었거나, 아니면 뒷날 그 회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거나 셋 중의 하나일 것이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설은 심증일 뿐이고, 세 번째 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운문 선사는 호떡뿐만 아니라 그냥 떡을 가지고도 많은 납자를 제접했다.

어느 날 공양을 하면서 떡을 먹다말고는 한 납자에게 물었다.

"발우 속에는 떡이 몇 개나 있으며, 떡 속에는 발우가 몇 개나 들었느냐?"

"??? 음~"

그리고는 납자가 알았다는 듯 떡을 번쩍 들어올리니 운문 선사가 말했다.

"차라리 노파에게 물어 보거라."

묻는 질문에 나름대로 떡을 들어올리는 것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답변이 시원찮았던 모양이다. 그래서 그 떡장수 노파에도 안목이 미치지 못한 것을 질책한 것이다. <금강경>의 대가인 주금강(뒷날 덕산 스님)이 떡장수 노파에게 허기를 면하고자 떡을 달라고 하니 도리어 질문을 던진다.

물론 제대로 답변하면 떡을 그냥 주고 답변을 하지 못하면 돈을 줘도 떡을 팔지 않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이쯤 되면 노파가 아니라 납자를 제접하는 선사나 진배없다.

"금강경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데(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 스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밝히시겠다(點心)는 것입니까?"

점심(點心)은 간단한 요깃거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점등(點燈)'에서 보듯 '점'은 '밝힌다'는 의미도 있다. 물론 출출함에다가 점심시간이라는 의미를 중첩시키면서 마음을 밝힌다는 의미가 동시에 포함된 이중적인 질문이다.

어쨌거나 운문 선사의 '발우 속의 떡' 물음에 대한 답으로 납자가 떡을 들어올린 것이 그 노파의 경지만도 못하다는 말이렸다.

운문 선사의 이런 점검방법은 다른 납자에게 또 떡을 들더니 그것을 가지고 말했다.

"나는 너에게 이 떡의 반을 나누어 줄까 한다."

그리고 난후 정작 주지는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다. 당연히 그 납자가 의아하게 생각하고서 물었다.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운문 선사가 말했다.

"네가 썩은 나무등걸이나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爾打野榾)."

옳은 나무라야 소리가 날 텐데 썩은 나무를 두드리고 있다는 말이다. 답변을 제대로 못한 까닭에 떡을 얻어 먹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공부를 완전히 마친 후 인가를 하면서 스승이 만들어 주는 떡을 파참재(罷參齋)라고 한다.

성철 선사가 파계사 성전암에서 법전 선사에게 파참재 떡을 해주겠다고 하니 "싫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는?

단지 떡을 싫어했기 때문이다.

■ 원철 스님(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운문 선사 "발우 속에 떡 몇개 있느냐" 묻고
납자의 답변 신통치 않자 "노파에게 물어라"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소원성취 기도도량
봉화 약수암
봉화에 위치한 약수암은 부처님의 가피와, 산신각의 산신 할아버지의 영험함, 그리고 경내 석간수로 흐르는 약수의 치유력으로 고통받아 오던 신도들이 건강을 되찾고, 소원하던 바를 이루어 가며 점차 기도도량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난치병으로 죽음만을 기다리던 김순분 보살님,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지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박정희 보살님.... 약수암 부처님께 의지해 지극한 정성으로 기도한 결과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도님들 또한 약수암의 기도로 원하는 바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삶의 끝에 서 있다고 절망하는 신도님들께 마음과 질병의 치유를 함께할 수 있는 약수암을 알려드립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돈보다 지극한 정성의 마음이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약수암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2리 약수암
(분천역 바로 뒤 / 영주에서 봉화를 거쳐 현동, 울진방향)
054)672-7932

불교의식(범음 범패)수련생모집
본 원에서는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범음 · 범패)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 지도합니다.
● 수련과정 : 단기속성 3개월 과정 (제23기)
● 교육방법 : (1) 출강 …… 매주 화요일 · 목요일 오후 2시~4시(2시간)
(2) 통신 …… 교재 및 테이프, 학습요점정리 교육자료 우송
① 송 주 편(도량석 ·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상단예불 · 조석예불 · 각단예불 · 향수해례 · 사성례 ·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삼보통청 · 중단퇴공 · 불공시식 · 관음 · 지장 · 신중청 등)
④ 재의식편(천도재 · 49재 · 시다림 · 기제사 · 명절제사 · 방생의식 등)
⑤ 시 식 편(관음시식 · 화엄시식 · 구병시식 등)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반명함판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 개강일시 : 2005년 10월 6일(목) 오후 2시 (목탁,필기구 지참)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로 법회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적으로 지도함
· 초심자라도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지도함
➪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한국불교법사대학 불교의식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 (한선빌딩 3층)
☎ 02)720-1836 · 733-1959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61)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강 <금강경> 1장 "법회가 열리기까지(法會因由分)"의 해설 (1)

<금강경>의 본문으로 진입하기로 한다. 1장은 이 법회가 열리기까지의 사정(因由)을 적었다. 번역 세 개를 우선 선보인다.

첫 번째는 세조 때의 언해본을 읽기 쉽도록 약간 손본 것이고, 두 번째는 구마라습 역의 경문이며, 세 번째는 내가 외람되이 해 본 것이다.

[언해] "이 같음을 내 듣자오니… 일시(一時)에 부처께서, 사위국(舍衛國) 기수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셔… 큰 비구(比丘) 중(衆) 천 2백 5십인과 함께 계시더니… 그 때 세존(世尊)께서… 식시(食時)에 옷 입으시고… 바리 가지시고… 사위대성(舍衛大城)에 들르시어… 그 성중(城中)에 밥 빌으시어… 차제(次第)로, 빌으심을 마치시고… 본처에 도로 가시어… 반(飯) 자심을 마치시고… 옷과 바리를 갖추시고… 발 씻으시고… 좌(座)를 펴서 앉으시거늘."

[원문] 如是我聞, 一時, 佛在舍衛國, 祇樹給孤獨園, 與大比丘衆千二百五十人俱. 爾時, 世尊, 食時, 着衣持鉢, 入舍衛大城, 乞食. 於其城中, 次第乞已, 還至本處. 飯食訖, 收衣鉢, 洗足已, 敷座而坐.

[번역] "한때 붓다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의 정사에 계실 때, 1250명의 많은 수행자와 함께 계실 때였다. 밥 때가 되어, 붓다께서는 옷을 걸치고, 발우를 들고, 도시 가운데로 들어가, 집집을 돌며 탁발을 하시고 나서, 본래 있던 거처로 돌아와, 식사를 마치고, 옷과 그릇을 거둔 다음, 발을 씻고, 자리를 펴서 앉으셨다."

여시아문(如是我聞)

모든 경전은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시작한다. 말씀을 듣고 적은 주인공은 아난(阿難, Ananda)으로 설정되어 있다. 후대에 성립된 경전들도 마찬가지이다. "기억력과 총명이 제일 뛰어났던 붓다의 사촌 동생 아난이 이 모든 말씀을 머리 속에 적어 암송하여 후세에 전했다"는 것이다.

초기 경전들이야 그럴 수 있었겠지만, 대승의 경전들은 명백히 후대에 지어진 것들이다. 이 사실을 설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전설이 생겨났다. 가령 반야부(般若部)의 경전들은 이미 붓다 당시에 설해졌던 것들인데, 이해력이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나가스, 즉 용궁에 보관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용수가 그것을 세상에 선보였듯이, <금강삼매경>도 원효가 부를 때까지는 용궁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을 기억한다. 상식은 이것을 영 엉터리 소리로 치부하려 한다. 그러나 좀 달리 볼 수 있지 않을까.

진리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래서 길은 늘 옛길이다. 서양의 탁월한 아마추어 철학자 듀란트는 "오직 오류만이 새롭다"고 일갈한 적이 있다. 우리는 예전의 현자들과

고타마 붓다 이전 설해진 대승의 이치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을 떼어낸다! 혹, 그것을 자랑으로 일부러 붙여 놓고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사위국(舍衛國)

"일시(一時)에 부처께서 사위국(舍衛國) 급고독원(祇樹給孤獨園)에 계셔…" 번역하자면, "언젠가, 붓다께서,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가 되겠다. 어느 경전이나 그렇지만 설법을 하자면 무대부터 세워야 한다. 주인공은 당연히 붓다이다. 시간은 알 수 없다. 장소는 그분이 생애 후반기 오랜 세월을 머물던 사위국의 기수급고독원이다.

(한 마디 덧붙이자면, 여기서 무대는 역사적 붓다에서 따 왔지만, 대승이 더 발전하면, 가령 <화엄경>처럼, 지상의 밖, 저 먼 아득한 환상의 나라에다 설정하기도 한다.)

사위국(舍衛國), 혹은 사위성(舍衛城)은 붓다의 고향인 코살라의 수도이다. 지금 네팔에 가까운 북부 인도의 사헤트 마헤트가 그곳이라고 한다. 붓다는 한때 90만호로 번성했던 이 '놀라운 도시'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후의 전법 40년 가운데 25년을 지냈다.

사위(舍衛)는 Srasvatti의 음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Pizza'를 '피자'라고 표기한 것과 같다. Srasvatti를 보다 실제 음에 가깝도록 표기했다면 네 음절 정도를 썼을 법한데, 발음의 편의와 경제성 때문에 안을 뭉개 두 글자로 줄인 듯하다. 일본은 외국어를 자국어 음가로 표기할 때 이보다 훨씬 더 과감한 생략과 단순화로 유명하다. 'television'을 '테레비'로 줄인 것은 애교라고는 해도, 워드프로세서를 '와뿌로'라고 잘라먹는 것을 보고는 좀 심했다 싶기도 했다. 자동차 수리점에서 '쇼바'라는 문구를 심심찮게 보았을 것인데, 그것이 '충격흡수 장치'를 뜻하는 'shock absorber'의 일본식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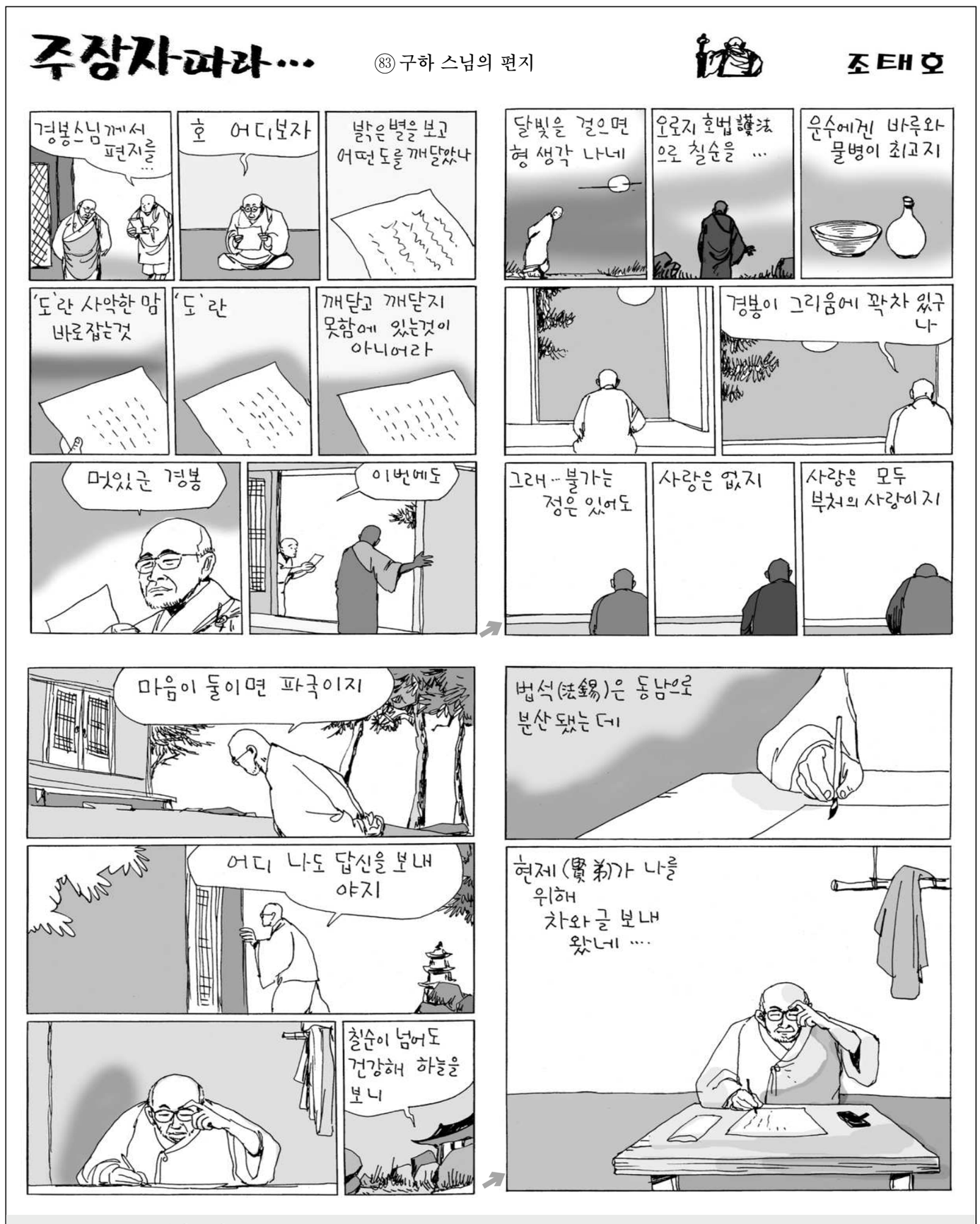
불교용어를 한문에서 산스크리트어로?

그러나 그 기이한 발음은 일본인이 발음하고 소통하는데 있어 가장 경제적이라는 판단의 결과일 것이니, 그야말로 자연적 선택에 가까운 것이다.

나는 외국어 음을 본토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하는 것이 능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효율적이지 않다. 그럴 필요도 없고… 관건은 소통이지 재현이 아닌 것이다. 지금도 Pizza를 '핏짜'라고 핏대(?) 올려 발음하는 사람이 있으나, 표기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게 대중화되고, 발음이 익숙해지면 그때 그것은 자연스레 표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말이 나온 김에, 작금에 추진되고 있는 '불교 용어 표준화'에 대해 한번 더 말해두어야겠다. 원어가 Srasvatti이니 이제 그만 사위성을 버리고, '스라스와띠'로 바꾸어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금강경>도 '바즈라쩨디카 수뜨라'로 바꾸어야 하겠지…. 결국 불교를 익히고 배움에, 한문을 그만 산스크리트나 빨리어로 배우고 익히자는 것인데… 이는 2000년의 불교 전통을 그만 바닷물 속에 가라앉혀 버리자는 폭거 아닌가.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절간마다 산스크리트로 독송한다? 우리말로 번역해서 독송하는 것이야 시대가 달라졌고, 소통과 이해를 위하여 본격 시도하는 것이 한편 바람직하지만, 지금 와서 산스크리트 원 발음을 되살리고 그 원 문자에 표기를 의뢰하겠다는 것은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아닐 수 없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구하 스님(九河, 1892~1965): 법명은 천보(天輔), 자호는 취산(鷲山). 1911~1925년 통도사 주지를, 1949년 총무원장을 지냄.

네티즌 교리문답

"참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사람들은 늘 죄 짓고 반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방법이 바로 참회라고 하는데요, 불교에서는 이런 반성법으로 참회를 중요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참회란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늘반성맨)

답 1 : 참회(懺悔)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참(懺)'은 죄를 용서받기위해 참는 것이고, 회(悔)는 부처님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함을 참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참회가 이루어지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회는 불교에서 유래된 용어로 참과 회로 분리해 파악해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한 마음과, 과거의 옳지 못한 일들을 반성하고 부처님과 보살님 또는 스승과 윗분에게 지은 죄를 고백한 다음 사죄를 구하는 것입니다.(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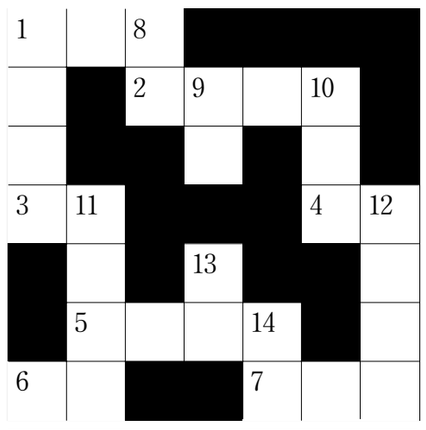
답 2 :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매달 보름날을 참회의 날로 정해 대중이 모여 지난 달 지은 죄를 참회했습니다. 이날을 포살일(布薩日)이라고 합니다. 안거가 끝난 마지막 날에는 안거기간 동안 저지른 잘못을 공개 참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날을 자자일(自恣日)이라고 부릅니다.

참회는 크게 이참(理懺)과 사참(事懺)으로 대별합니다. 이참은 지은 죄의 실상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는 참회를 말하고, 사참은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독경을 하거나 참회의 진언을 외우는 등 행위와 동작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절해서 참회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논서로 당나라 선도스님이 저술한 <왕생예찬(往生禮讚)>이 있습니다. <왕생예찬>에 의하면 상품(上品) 참회는 눈에서 피가 흐르고 몸의 털구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참회입니다. 중품(中品)참회는 눈에서 피가 나오고 털구멍에서 뜨거운 진물이 내리는 참회입니다. 하품(下品)참회는 눈과 코에서 피가 나오는 참회입니다.

하루에 3천배를 하고서는 눈에서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과연 참회란 얼마나 무서운 결심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인지 새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참회와 용서의 깊은 뜻을 알고 나면 우리가 참회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고 너무 무거움을 느끼지요. 지난 세월의 과오를 참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가올 날의 죄와 악을 짓지 말자는 각오와 수행이 더욱 절실합니다.(진정참회란?)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가로

1. 오계의 항목은 불살생 불음주 불사음 불투도 ○○○ 2.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3. 부처와 그의 제자들의 수행을 방해하는 마왕으로 파순이라고도 함 4. 여당과 정부를 아울러 이르는 말 5. 거문고나 가야금 따위의 줄을 고르는 기구, 안족 6. 나무토막으로 만든 베개 7. 국 · 한문 서체의 하나로 일반 서적이나 신문 · 잡지의 본문용 활자로 쓰임.

정답은 26면에

세로

1.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수 없다'는 한자성어 8. 임금이 타는 마차 9. 책의 저술 · 편찬을 지도 · 감독하는 일 10. 경남 통영시 한산도에 소재한 이순신 장군의 해군사령부가 있었던 곳 11. 가래가 나오지 않는 기침 12. 네 면이 정삼각형인 사면체 13. 군대를 통제하기 위한 규율이나 풍기 14. 그때까지 없던 기술이나 물건 따위를 새로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냄.



생명과 환경의 수수께끼
조홍섭 지음
고즈윈 펴냄 | 1만원

인류여 자연과 더불어 살자꾸나

공해 사건에서 생명공학까지
환경문제의 변화상과 대책
일화 중심으로 흥미롭게 엮은
환경 전문기자의 자연 예찬론

'자연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저 바깥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불어 살아야 할 우리의 집 자체다.'

<과학동아>와 <한겨레>신문에서 20년동안 환경전문기자로 활동해 온 조홍섭 국민대 사회학과 겸임교수의 자연 예찬론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가 최근에 펴낸 <생명과 환경의 수수께끼>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들을 담아 놓은 환경개론서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책장 몇 번 넘기면 금방 하품이 나오는 딱딱한 이론서가 아니다.

런던 스모그와 미나마타병 같은 역사적 공해 사건을 비롯해 최근의 환경오염과 유전자 조작 등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의 달라진 양상과 대책 방향을 일화 중심으로 소개해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1952년 12월 5일 영국 런던 주민들은 전날부터 끼기 시작한 안개가 더욱 짙어지는 것을 불안하게 지켜 보았다. 문제는 이 안개가 시골에 끼는 하얀 안개가 아니라는 점이다.

칙칙한 갈색을 띤데다 매캐하고 자극성 있는 냄새가 났다. 연기와 안개가 결합된 스모그였다. 12월 5일부터 9일까지 닷새 동안 스모그가 계속되자 병원 응급실은 환자들로 넘쳐났고, 급기야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도시 곳곳에 임시 시신 안치소가 설치됐다.

5일동안 런던에서 발생한 사망자만도 4,703명에 이른다. 이런 대형 참사에 놀란 영국 정부는 즉각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56년 대기보전법이 제정돼 공장과 가정은 검은 연기를 내지 않는 연료로 바꾸어 쓰도록 했다.

런던 스모그에서 나타났듯이 대기오염 피해는 건강한 사람이 오염물질을 마시고 갑자기 풀썩 쓰러지는 식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은이는 경고한다.

애초 건강이 좋지 않던 호흡기질환자나 노인, 어린이 등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오염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한다.

케냐의 차보 국립공원은 전 세계에서 큰 규모로 손꼽히는 곳이다. 1960년대 말 케냐에 최악의 가뭄이 덮쳤다. 굶주린 코끼리들이 차보 국립공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코끼리를 3천마리쯤 도살하자는 의견과 자연이 해결해 줄 테니 그냥 내버려두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자연의 치유력을 믿는 후자가 논쟁에서 이겼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코끼리 9천마리가 굶어죽었고, 죽기 전 이들은 공원의 상당 부분을 어수선한 달나라 풍경으로 만들어 놓았다.

현재 코끼리는 다시 늘어나고 있지만 논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코끼리를 솎아내야 한다는 관리 방안과 자연의 해결책에 맡기자는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지은이는 이 일화를 통해 자연에 대한 현명한 개입이 어디까지 인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흔히 환경문제의 해결을 보전과 개발의 '조화' 라는 말로 설명한다. 하지만 그 귀결은 늘 또 다른 개발이었다고 지은이는 주장한다.

대표적인 개발로 지은이는 시화호 간척사업과 새만금 간척사업을 꼽는다. 이 두 사업은 엄청난 돈과 노력을 낭비하고 자연을 망친 환경파괴사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지은이는 새만금 사업이야말로 새만금 연안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지속 가능한 삶을 꾸려온 어민들을 망가뜨린 장본인이라고 쏘아붙인다.



북극으로 향하는 도요새들이 영양분을 보충하는 '마지막 휴게소' 새만금 갯벌이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물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투발루 공화국(항공사진).



끝모르게 펼쳐진 시화호의 조개껍질 무덤. 일부 수질이 좋아지면서 호수바닥에 묻혀 있던 것이 떠올라 쌓였다.

이런 어수선한 사회에서도 삶은 지속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위해 지은이는 우선 공해의 가장 주범인 휘발유 자동차를 무공해연료차로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한다. 그 좋은 예로 1997년 하이브리드차(휘발유엔진과 전기모터를 겸용한 차)를 상용화한 도요타 자동차를 예로 든다. 또한 땅을 살리는 농법만이 살길이라는 주장을 펴는 지은이는 경남 하동군 옥종면 농사꾼 이영문씨의 친환경농법인 '태평농법'을 소개했다.

이 씨의 농법이란 생태계를 살려 토양 미생물과 지렁이, 무당벌레 같은 동물과 여러 가지 식물들이 제기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렇듯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자연을 보는 성숙한 시각과 생명 환경에 대한 속 깊은 성찰을 보여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유럽문명의 아버지 고선지 평전
지배선 지음
청아출판사 펴냄 | 1만5천원

고선지는 우리 역사에 풍문처럼 존재하던 인물이다. 물론, 그는 실존인물이지만, 한국사 사료 안에 담겨있는 그의 족적은 희미하기 그지없다. 오히려 고선지에 대한 평가는 서구학계에서 더 활발하고 의미 깊게 진행되는 듯 보인다. 영국의 고고학자 오렐 스타인은 고선지를 로마를 점령한 카르타고의 한니발, 프랑스의 나폴레옹과 견줄만한 인물로 꼽았고, 중앙아시아 역사학의 최고 권위자인 미국 인디애나 대학의 크리스토퍼 교수는 고선지를 실크로드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급했다고 한다.

유추해보자면, 고선지는 한국의 역사에서보다는 서구 문명의 초창기에 강렬한 족적을 남겼다. 그와 비견되는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성격이 가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고선지는 우리 역사에서 흔치않은 정복자의 전형에 닿아 있는 것이다. 기병 1만 명을 이끌고 연운보(連雲保, 지금의 파키스탄 동남쪽인 사르하드)를 공격할 때 눈으로 뒤덮인 세계의 지붕 파미르고원을 돌파하면서 용맹을 떨치는 모습 등이 생생하게 담겨 있지만, 지은이가 고선지의 행적 중 가장 중요하게 파악하는 대목은 바로 유명한 '탈라스 전투'이다. 지은이는 이 전쟁을 '동서 문명의 대회전'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인류 문명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파악한다. 그건 무엇보다도

제지술 서양에 알린 실크로드 인물

그 전투에서 포로가 된 고선지를 통해 제지술이 서양으로 전파됐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고선지가 실크로드의 대표적인 인물이자, 동서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인물이 될 수 있는 건 그 때문이다.

"탈라스 전투 이후 알려지기 시작한 제지술은 실크로드를 따라 사마르칸트와 바그다드를 거쳐 다마수쿠스까지 전파됐다. 8세기 중엽부터 바그다드에서 동서의 문헌들이 대량으로 번역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중국의 제지술을 비롯해 인쇄술이 전래되었던 결과라 할 수 있다. 제지술과 인쇄술의 놀라운 결합은 서양에서 구텐베르크(Gutenberg)를 통해 실현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포도 압착기를 개조해 만든 인쇄기로 최초의 인쇄물을 찍어냈다. …(중략)… 결과적으로 고선지의 탈라스 전투 패배는 서양 문물의 발전을 넘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체로 사료에 기반한 충실한 역사서지만, 적어도 '평전'이라는 이름을 달았다면, 고선지라는 인물의 입체적인 모습들을 보다 다이내믹하게 묘사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지은이의 의도가 고선지에 관한 왜곡된 편견을 바로 잡는 데 있는 건 그 자체로 인정하더라도, 일반 독자 입장에선 좀더 극적인 전개를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때문에 꼼꼼하게 제시된 자료들이 자칫 교과서적인 나열에 그칠 위험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고선지를 복원하겠다는 지은이의 끈기와 노력이 빛을 바래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호소력 짙은 구성과 문장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김정현(서울대 역사학과 강사)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법요집 · 기초교리집 괘도 특별한정 보급!!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찬양합니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산회가 • 기타찬불가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0. 삼귀의 11. 삼법인 12. 삼업 13. 삼학 14. 신도오계 15. 사성제 16. 사섭법 17. 십이인연 18. 육바라밀 19. 팔정도 20.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암도 큰스님의 감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리색 레자크지

괘도를 구매하시는 모든분께
고승열전도서 - 용성큰스님, 운허큰스님
(정가16,000원) 2권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사은품은 선착순 100분께만 드립니다.)

마하몰 MAHAMALL www.mahamall.co.kr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02-732-1520 / 2004-8218~9



핵의 평화 생명의 평화
도석 스님 지음 | 열린아트 | 9천원

日 원폭 피해 한국인 희생자를 추모하며…



일본 원폭피해 한국인을 위한 추모사업을 펼치는 (사)한민족 희생자 추모사업회 이사장이자 동양자수공예가인 도석 스님(사진)이 생평 평화에 관한 에세이 <핵의 평화 생명의 평화>를 펴냈다.

도석 스님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한땀 한땀 수 놓은 작품을 판매해 마련한 기금으로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폭 투하로 억울하게 죽어간 7만여명의 한국인 영혼을 달래는 위령제와 추모사업을 벌여왔다. 또한 몇 년 전부터는 한민족의 입장에서 원폭을 재조명하는 '한국인 원폭희생자 추모전시관'과 핵의 위험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릴 '청소년교육수련관' 건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책의 서문에서 스님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원폭 희생자들의 죽음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국과 일본은 물론 전 세계인들이 핵의 평화, 생명의 평화를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책을 펴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동양자수를 배우며 평범하게 살아가던 스님의 삶은 스물 아홉 살에 당한 교통사고로 전환기를 맞게 된다. 하반신 마비와 거듭된 수술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다. 병원에서 한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뒤늦은 출가를 하게 된 것이다. 그 후 10여년이 흘러,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해 우연히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둘러보게 된 스님은 원폭 투하로 우리나라 국민이 겪은 피해를 듣게 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그 기도는 무연고 영령을 위한 위령제와 추모전시관 · 청소년교육수련관 건립으로 이어져 온 것이다.

"불가의 공덕 회향은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많은 것들에 감사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선물을 다시 세상에 되돌려 주는 정신입니다. 이러한 공덕 회향 정신은 자기 내면의 평화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인간과 사회의 평화를 이뤄내는 훌륭한 씨앗이 됩니다."

책에서는 스님의 개인사와 평화를 위해 걸어온 여정을 풀어놓아 국민들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원폭 피해 현실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평화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쾌선(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자고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러워 조석 예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향(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보급문의:여시아문 (02)737-0695

나혜석 예술세계 집중 조명



화가 나혜석
윤범모 지음 | 현암사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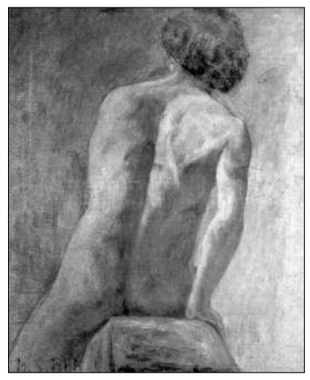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인 나혜석(1896~1948). 그러나 '최초의 여성 서양화가'라는 수식어에도 불구하고 나혜석은 '화가'로서 보다는 '진보적 여성 운동가'이자 '시대를 앞서간 선구자'로 더 많이 기억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조(貞操)는 오직 취미'라는 정조론 발표와 남편과의 세계일주, 프랑스 파리에서의 불륜과 이혼 후 지면을 통해 발표한 '이혼고백서' 등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파격적 행보를 걸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같이 굴곡 많았던 그의 삶은 자신의 예술세계를 뒤덮은 채 대중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미술평론가인 윤범모 교수(경원대 · 나혜석기념사업회 운영이사)는 최근 펴낸 <화가 나혜석>을 통해 나혜석 예술세계의 원형을 밝히려고 시도한다. 대중적 '스타'임에도 학술적 접근이 매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나혜석의 것이라고 전해오는 30~40점 유화작품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이들의 진위 여부에 대한 종합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화가 나혜석'의 삶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전칭(傳稱) 나혜석 작품'에 대한 위작 가능성에 대한 문제제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학창시절의 학적부와 당시의 신문 기사 등의 자료를 비롯해 그의 초기 미술세계를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사료를 소개했는데, 1919년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만평 형식의 소묘가 바로 그것이다. 이는 연말연시의 세시풍속을 그린 소묘에 간단한 해설을 덧붙여 소개한 것으로, 윤 교수는 이 만평을 통해 나혜석의 현실인식과 작가적 예술세계의 토대를 살피고 있다. 즉, 밥상 차리기와 다듬이질, 바느질 등 여성의 가사노동을 그림으로써, 즐거운 명절 분위기 뒤에는 쉴 새 없는 여성의 노동이 깔려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나혜석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나부'. 윤범모 교수는 이 작품이 구메 게이이치로의 '습작'의 모사화라는 의구심을 비롯해 나혜석 작품 진위여부에 대한 종합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유화 30여점 수준 천차만별**
> **진위 여부 종합적 검증 시도**
> **대표작 '나부' 모사화 가능성 제기**

이어 나혜석이 '조선미전'에 출품한 '농가'(1922년 출품) '봉화산'(1923년 입상) '가을의 정원'(1924년 입상) 등의 작품과 평단의 비평을 토대로 작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고 있다.

나혜석에 관한 글 한 줄, 삽화 한 장까지도 꼼꼼히 수집해 그의 작품세계를 살펴본 윤 교수는 미술 평단에 '전칭 작품'에 대한 진위 가능성을 묻는다. 대표작으로 알려진 '나부(裸婦)'의 경우 일본화가 구메 게이이치로의 '습작'의 모사화 가능성을, <한국근대회화선집>에 실린 '농촌 풍경'과 '무희' 등은 전작(前作)들과의 판이한 표현 기법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만년이 불행했다'는 단편적인 평가 대신, 불교적 세계관을 접하고 무소유를 실천하며 살았던 '무애행(無碍行)'으로 이해한 점도 나혜석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다.

그가 세상을 뜬지 57년. 아직도 사망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호적상 영생(永生)하고 있는 나혜석은 자신의 작품으로,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적 행보로 우리 가슴 속에 아직 남아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명당의 원리
덕원 지음
정신세계사
2만원

땅의 숨결 느껴 보세요

"조상 묘를 명당에 써야 집안이 잘 돼."

우리는 흔히 자신의 운을 가늠 짓는 근거의 하나로 '명당(明堂)'을 든다. 그렇다면 명당이란 과연 무엇일까? 최근 <명당의 원리>를 펴낸 김덕락(53, 필명 덕원)씨는 "명당이란 땅속으로 흐르는 기맥(氣脈)이 '공기 중에 있는 기(外氣)'를 흡수하고 배출하는 땅의 숨구멍"이라고 정의한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풍수지리를 잡술(雜術)이나 미신으로 치부하고, 명당이 없다는 등의 잘못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명당의 형성 원리를 밝히고 기존의 잘못된 풍수관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책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지은이가 전국의 사찰을 답사한 경험을 토대로 각 사찰의 명당과 명당의 원리를 설명하는 대목이다. 김씨가 명당으로 꼽은 사찰은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수원 용주사, 고창 선운사 등이다.

"천년고찰들은 예외 없이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스님들이 심안(心眼)을 깨치고 사심 없이 땅속 에너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찰이 명당에 서면 신도들이 자연과 순화되는 마음을 갖게 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때문에 김씨는 최근 전통적인 풍수사상을 무시한 채 무분별한 대형불사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더해 김씨는 풍수의 원리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기운을 알고 이를 인간에 유익하게 활용할 줄 알았던 우리 정신세계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의 다음 저서들이 기대되는 이유다.

원리를 알고 보니 한자 공부 재밌네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언어와 문자 생활을 지배해 온 한자(漢字). 그러나 '한글세대'들에게 한자는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여겨지기 쉽다. 불자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한역(漢譯) 경전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여 대부분의 경전이 한자로 이뤄져 있지만, 원전으로만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불자들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40여 년간 한문교육에 힘써 온 한학자 김광식(63 · 명광문화원장)씨는 무조건적인 암기와 지루한 설명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쉽게 익힐 수 있는 한자 학습법을 제시한다. 바로 2천3백여 자의 한자와 고사성어, 1만1천여 자의 어휘를 풀이한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이 그것이다.

김 원장은 "반만년 동안 우리 겨레는 한자를 통해 문자 생활을 영위해 왔으며 예의범절과 충효사상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한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며 "그러나 최근 주먹구구식으로 한자교육이 이뤄짐으로써 한자를 배우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일반인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한문서당>에서는 딱딱한 사전적 풀이 대신 쉬운 언어로 한자를 풀이하고 있다. 한자의 뜻과 형성 과정을 이해하면 글자는 절로 외워진다는 것이 김 원장의 지론이다.

일례로, '불(佛)'자에 대한 김 원장의 설명을 들어보자. 음은 불, 훈은 마음 · 부처로 새기며, 해석은 '사람 같으면서 사람이 아닌 것이 부처이므로 마음이 부처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 불가(佛家)와 불국사(佛國寺) 불보(佛寶) 등의 용어 해석을 덧붙여 글자의 이해를 돕는 식이다.

책에서는 상형 · 회의 · 형성문자 등 한자의 구성원리인 육서(六書)와 서체의 변천과정, 약자 및 속자 해설 등을 설명하고, 부수와 한자, 고사성어를 차례로 풀이한다. 1권에서는 214개의 부수를 일일이 풀이했는데, 이는 "셈의 기본이 구구단이듯, 한문의 기본은 부수"이기 때문이라고. 판매문의 (02)732-1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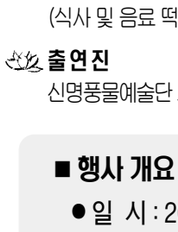
김광식 선생의 한문서당
김광식 지음
명광문화원
전 12권 | 각권 1만5천원

불서구입은 www.yosiamun.com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역저한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중 제7권 출간!
최초로 1,454칙의 본공안을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제2회 석문사 경로잔치



귀의삼보하옵고
이번 석문사에서 청원군 군민과 함께 하는 경로잔치를 개최합니다.
석문사는 청원 남이면 불교 사찰로서 자비실천의 불교 역할을 널리 알리고저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청원군의 특성을 살리고 관과 민이 함께 지역의 문화행사 발전을 위한 토대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전통사상과 효 실천이 어우러지는 문화 행사가 되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열리는 시간 :** 신명풍물예술단의 전통의 향연으로 열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 **흥겨운 시간 :** 트롯과 가요를 통하여 출연자와 관객과 함께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 참석한 어르신 에게 석문사 신도회에서 정성의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점심공양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사 및 음료 떡 주류 다과 등)
- **출연진**
  신명풍물예술단 스페셜 공연 (단장 외 7명), 민요 – 강선자 외 2명, 무용 – 정유진.이연경, 덕송초등학교 사물놀이단

■ **행사 개요**
- 일 시 : 2005년 10월 9 일 (일요일) 오전 10시 ~ 오후 2시
- 장 소 : 남이 초등학교
- 주 최 : 호국불교 효혜종 참된 삶 실천운동 석문사 자비원
  주지 혜전스님 011-9607-2199
- 후 원 :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사 대전충북지사. 청원군노인회. 석문사 신도회
- 문 의 : 현대불교신문 대전충북 지사장 011-9422-8453 혜철스님

청동 불상 제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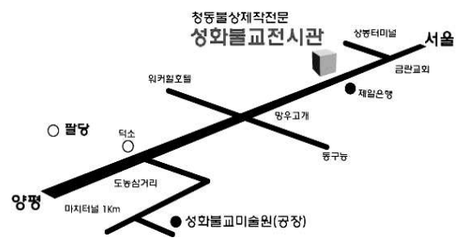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카다로그 필요하신 분 전화 주세요.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폰 : 011-302-1022 주 • 야 상담 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불교사상이 담긴 한국전통사찰건축

가르침 · 예술 · 과학의 총집합

'월간미술' 선정 '한국전통건축 베스트10에 부석사 선암사 등 사찰 8곳

'비움' '무정형(無定形)'.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이다. '비웠기 때문에 무정형적인 것이며 무정형적이기 위해 비웠다'는 의미이다. 이 비움과 무정형은 불교 사상을 아우르는 핵심이기도 하다. 스님들의 수행공간인 사찰은 바로 이러한 불교사상을 집약시켜 선(禪)적인 공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월간미술〉이 8월호 특집 '한국전통의 미(美)'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축 전문가 20인이 뽑은 한국전통건축 베스트10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부석사 선암사 석굴암 봉정사 불국사 수덕사 해인사 화암사 등 사찰 8곳이 포함됐다.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말처럼 한국 사찰건축에는 1600년 한국불교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다. 신라시대의 기품과 고려시대의 화려함, 조선시대의 절제미 등이 차곡차곡 배어 나오는 사찰건축. 이제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기둥에 기대어 사찰건축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부석사 무량수전

"불교 염원 · 미학의 집약"


선암사 승선교

"물에 비친 반원 합쳐 원 이뤄"


봉정사 영산암

"의도되지 않은 우연의 미학"


수덕사 대웅전

"육중함과 유연함의 조화"


화암사 극락전

"하앙식 공포, 백제 건축 백미"

■ 부석사 무량수전(2위)

산세에 순응하는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부석사이다.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은 천장부의 아름다움과 장엄함, 외부의 세련된 풍모 등이 어우러져 한국건축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부석사가 진정 아름다운 이유는 배치와 조화에서 온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김동현 교수(한국전통문화학교)는 "부석사 무량수전은 '세련미'로 그 아름다움을 집약할 수 있다"고 밝힌다. 김봉건 소장(국립문화재연구소)도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무량수전의 가구미(架構美)"를, 김봉렬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역시 "불국토의 이상과 고전미의 완성, 불교국가인 고려의 염원과 미학이 집약돼 있음"을 선정이유로 밝힌다.

■ 선암사 승선교(5위)

'세속의 세상을 떨치고 선계(仙界)로 오르는 다리' 선암사의 승선교(昇仙橋, 보물 제400호). 반원형의 아치형 다리는 반원으로 마무리 지어지지 않고 물에 비친 반원이 합쳐져 하나의 원을 완성시킨다.

이일훈 건축가(후리건축 대표)는 선암사를 "감춰 두고 싶은 불법(佛法)의 도시"라고 극찬한다. 선암사 전각의 배치는 영역마다 하나의 사찰이 될 정도로 독립적임을 지적한 민현식 교수(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는 "격자형 길에 배열된 현대도시의 축소판"이라고 선암사를 묘사한다.

■ 석굴암(8위)

베스트 10에 속해 있는 유일한 석조건축이 바로 석굴암(국보 제24호)이다. 석굴암은 여러 개의 화강암으로 석실의 비례와 균형을 맞춰 제작된 돔 형식의 인공석굴이다. 김봉건 소장(국립문화재연구소)은 "환기, 결로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건축 수법과 뛰어난 조각 솜씨 등이 석굴암을 석조건축의 백미로 꼽는 이유"라고 말했다.

■ 봉정사 영산암, 불국사, 수덕사 대웅전, 해인사 장경각, 화암사 극락전(공동 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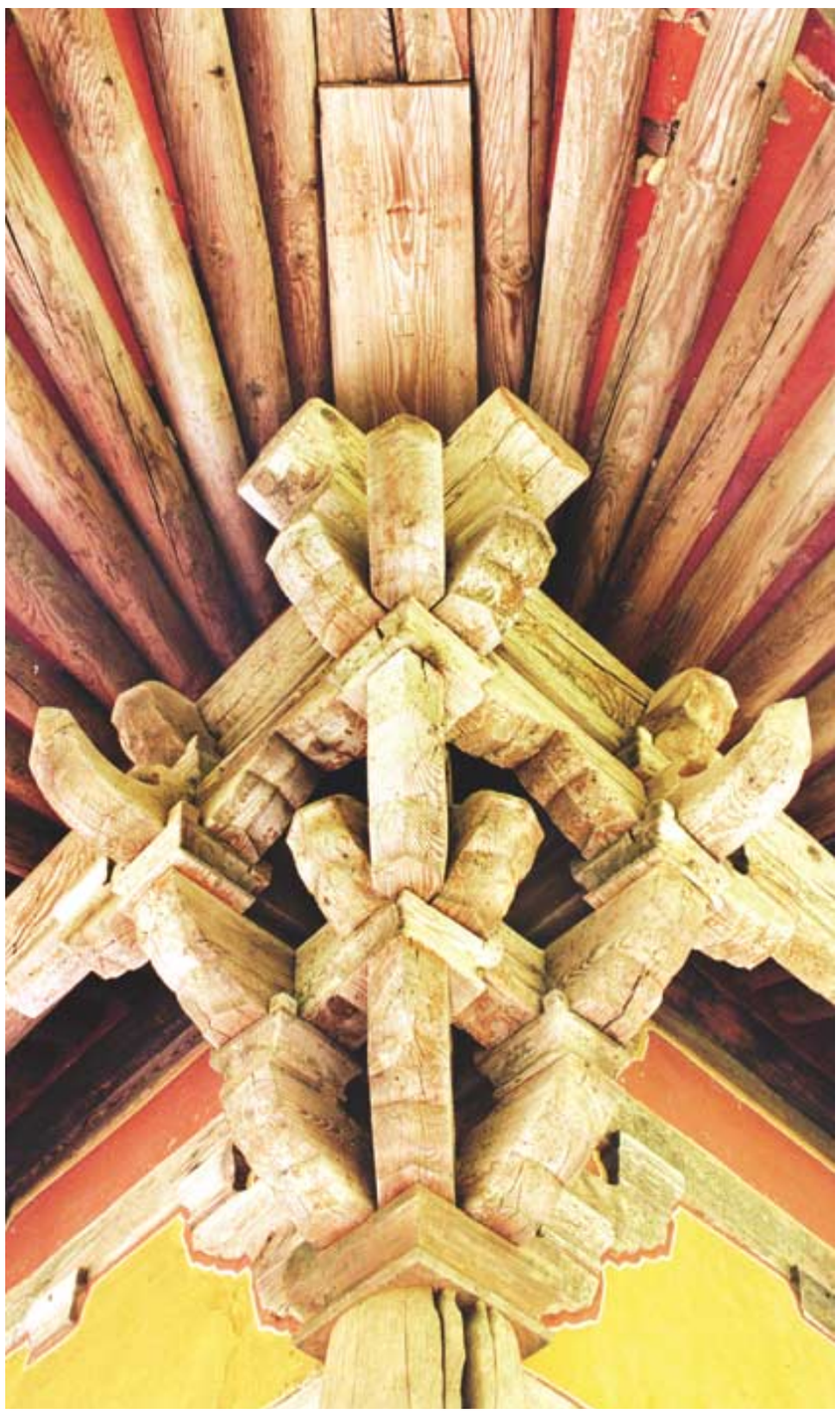
영산암은 한국건축이 이룩한 최고의 공간이며 건축이라는 찬사를 받는 건축이다. 김인철 건축가(아르키움 대표)는 "의도되지 않은 우연의 미학으로 이루어진 만들지 않은 만듦"이라고 봉정사 영산암의 공간을 정의한다.

기단 건축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불국사를 김봉렬 교수는 "불경에 묘사된 여러 불국토를 입체적인 건축으로 표현한 '건축 대장경'"이라고 묘사한다.

전문가들은 수덕사 대웅전을 정확한 비례와 완벽한 조화로 공예품에 가까운 예술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한다. 특히 이상해 교수(성균관대 건축과)는 "구조미의 조형성과 더불어 정면의 육중한 양감, 측면의 유연함이 생동감을 더한다"고 설명한다.

김봉건 소장은 팔만대장경의 보고 해인사 장경각을 두고 "경판 보존에 유리한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과학적 건축물"이라고 평한다.

우리나라 유일의 하앙식 공포를 간직한 백제건축의 산 증인 화암사 극락전. 양상훈 교수(순천향대 건축과)는 극락전 앞의 꽉 짜인 공간미의 탁월함을 지적했다. 강지연 기자


부석사 무량수전은 목재들을 짜 맞춰 엮은 가구식 구조를 하고 있다. 무량수전의 잘 엮어진 목재들이 만들어 내는 가구미(架構美)는 무량수전이 극찬받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불교건축 VS 유교건축

장엄하고 교화적인 불교 건축

흔히 사찰은 '00산 00사'라고 말한다. 해인사의 경우 가야산 해인사라고 표기한다. 여기서 가야산은 해인사의 뒷 배경이 되는 산이다. 사찰에서는 이처럼 뒷산이 중요하다.

불가에서는 왜 뒷산을 중시했을까? 불자들은 전각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늘 전각의 바깥에서 전각을 바라보기 때문에 뒷산은 배경으로 전각과 함께 바라보는 대상이 된다. 그래서 전각은 정교하고 화려한 외형을 가져야 하며 뒷산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지어졌다.

금욕적이고 정제된 유교 건축

병산서원의 병산은 서원 앞에 있는 산이다. 옥산서원의 이름 역시 서원 앞에 있는 자옥산에서 따온 이름이다. 서원에서는 앞산이 중요하다.

성리학자들은 왜 앞산을 중시했을까? 성리학자들은 늘 서원 내부에 머물기 때문에 뒷산을 볼 방법이 없다. 그들이 자주 대하는 산은 건물 안에서 바라보는 앞산. 당연히 모든 건축적 질서는 앞산의 방향과 형태에 맞춰져야 했다. 자신들에게 보이지 않는 건물의 외형에 대한 비례나 장식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찰건축에 숨겨진 과학! 그것이 알고 싶다

사찰은 불교의 교리와 한국 전통 건축 기술로만 만들어진 것일까. 선조들의 지혜로운 손길 속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가 있다.

사찰건축은 착시교정이라는 고급 기법을 사용한다. 착시교정은 나란한 직선의 가운데가 휘어 보이는 착시현상을 건축재의 길이나 굵기 등을 조절해 직선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이다.

사찰건축에서 착시교정을 활용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배흘림기둥이다. 배흘림기둥의 높이 3분의 1지점이 제일 굵고 위는 아래보다 더 가늘게 만든다. 고려시대 부석사 무량수전, 조선시대 무위사 극락전 등에서 뚜렷하게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비밀은 단청이다. 단청은 단순한 장식예술이 아니다. 곽동해 겸임교수(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는 단청의 목적을 건축물 수명 연장, 권위와 위풍 장엄, 재질의 조악함 은폐, 기념비적 건축물의 전시 등으로 설명한다.



청규 – 수행가풍·질서 위해 만든 선종만의 제도

동화사 – 현대불교 공동 주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계율수행 대법회 ⑤

주제 : 계율과 청규 (9월 3일)
법주 : 법혜 스님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9월3일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을 가득 메운 사부대중 앞에서 법혜 스님은 "'청규'의 근본인 계율을 잘 수지하고 보호하는 청정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규의 소의경전, 소승 '사분율'과 대승 '범망경' 보살계

백장 선사, 율장 불개변 원칙 고수하면서 중국현실에 맞게

청규 제정… 일부 학자 종교개혁 의미로도 해석

백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밥먹지 않는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선종승가에서는 청규라 합니다.

청규는 대 소승의 경론과 율장에 그 근거를 두고 박약절충(博約折衷, 모두 모아 정리해 선종에 맞는것만 뽑아냄)하여 제정됐습니다. 때문에 청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먼저 대 소승 율장의 성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중국 선종의 소의 율장인 <사분율>과 <범망경>의 구성, 계율의 정신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분율>은 금지조항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戒經)와 준수조항인 건도부(犍度部)로 나뉩니다.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 할 바라제목차는 하면 안 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계(止持戒)라 합니다. 건도 율장에는 계를 받는 법, 계를 설하는 법, 안거하는 법, 자자하는 법 등 20가지의 건도가 서술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식건도라 하는데 승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행사와 승가에서 비구의 행동이나 생활하는 바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합니다. 이를 작지계(作持戒)라 하지요. 의식건도를 근거로 청규가 제정됐습니다.

소승의 <사분율>과 대승의 <범망경> 보살계는 청규의 소의경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범망경>은 보살도를 수행하는 보살이 지켜야할 금지조항인 섭율의계(攝律儀戒), 일체의 모든 선업을 권장하는 섭선법계(攝善法戒), 일체 중생을 위해 이로운 행을 실천하라는 섭중생계(攝衆生戒)의 사상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범망경 보살계는 계의 사상을 담은 율장이지 율의 사상을 담은 율장은 아닙니다.

<범망경>의 보살계 사상은 율장의 계율 조항에서 부족한 모든 도덕적인 사상을 보충해 주는 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규에서 소승의 <사분율>과 대승의 <범망경>을 수지하는 것은 보살계의 정신으로 <사분율>을 지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장의 목적은 정법구주(正法久住)에 있습니다. 법은 불교입니다. 초기 비구승가는 출가하여 불타의 법을 듣고 성도(聖道)를 완성시켰습니다. 승가는 불도완성의 도량이며 불도실천의 현장입니다. 율장은 승가를 호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대소승 계율 정리, 가려 뽑아

'청규(淸規)'란 선종의 총림에서 수도하는 청정한 많은 대해중(大海衆)이 서로의 불도 완성을 위해 지켜야할 규구준승(規矩準繩)을 말합니다. 선종사에 있어서 승단의 생활규범을 제정한 청규의 출현은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청규를 처음 제정한 사람은 중국 당나라 중엽 백장산의 대지회해(大智懷海) 선사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백장 선사가 제정한 '고청규(古淸規)'는 당말 5대 사이에 모두 없어졌습니다.

북송 숭령 2년(1103) 자각종색(慈覺宗賾) 선사는 백장 선사의 '고청규' 사상을 부흥하고자 당시 총림고찰을 방문해 행법 격식(行法格式)의 자료를 수집하고 참고해 진정부 홍제선원에서 청규 10권을 찬술했습니다. 그것이 <선원청규>로서 현존하는 청규로서는 최고(最古)의 청규입니다.

<선원청규>를 비롯해 송 · 원 · 명 · 청대에 성립된 중국의 제 청규 및 청규의 주석서는 9종입니다. <선원청규> <입중일용청규> <입중수지> <총림교정청규총요> <선림비용청규> <환주암청규> <직수백장청규> <총림양서수지> <백장청규증의기> 등 9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청규는 <선원청규> <총림교정청규총요> <선림비용청규> <직수백장청규>의 4종입니다.

청규의 내용에 따라 <선원청규>와 같은 호법청규와 <직수백장청규>와 같은 호국청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협의의 청규는 <입중일용청규>와 <입중수지> <환주암청규> 등 입니다. 협의의 청규는 청규의 내용이 총림의 전반적인 규범이 아닌 어느 특정 선원의 규범이거나 일상의 의식에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광의의 청규는 총림 수행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청규를 말합니다.

청규는 율장과 성질이 같아 총림의 수행자들을 보호하고 선종교단의 유지존속을 위하여 범계자를 처벌하고 재판하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규의 내용은 <사분율>의 바라제목차인 지지계와 건도의 작지계를 의미합니다.

범계자 벌칙은 율장보다 엄해

초기 청규의 내용을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선문규식(禪門規式)>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문규식>이란 제목 △율사로부터 선원의 독립과 청규의 제정 △도안자를 장로라고 칭하고 방장에 거주하게 함 △불전을 짓지 않고 법당만 둠 △승당을 설치하여 대중 함께 거주 △장로의 상당설법 △재죽의 법식 △보청(공동작업) △중승의 직무인 십무 설치 △규범을 범하고 승당생활을 어기는 자에 대한 벌칙 △백장회해에 의한 선문의 독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참조해 보면 법당 설립과 승당생활의 의한 직무 역할, 보청 등이 율장과 비교해 지범개차(持犯開遮)의 해석에 커다란 변화를 보여줍니다. 청규가 범계자에 대한 징계갈마를 어디에 근거해 시행하였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범계자에 대한 벌칙은 오히려 율장의 내용보다 엄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네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첫째는 청정한 대중을 더럽히지 않고 공경과 신뢰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신구의(身口意) 삼업이 착하지 않으면 같이 살지 못합니다. 율장에 의하면 범계자는 계단법으로 다스려서 승원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둘째는 승려의 품위를 손상치 않으면서 불교의 체제에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는 관청이 소란하지 않고 감옥이나 송사 즉 시비가 줄어듭니다.

넷째는 밖으로 허물이 새지 않고 종문의 기강이 잘 보호됩니다. 이 벌칙의 내용은 후대에도 전승되고 있습니다.

청규의 성질이 율장의 바라제목차와 건도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면 선종의 율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백장 선사는 율장이라 부르지 않고 청규라고 했을까요?

율장의 조문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율장 불개변(不改變)의 원칙에 의해 고칠 수 없습니다. 초기 교단에서는 지범개차의 합법적인 응용을 위해 정법(淨法) 정어(淨語) 정인(淨人)의 방편을 활용했습니다.

선종은 초기 달마로부터 혜능에 이르기까지 선수행에 적합한 독립된 선원이 없었습니다. 백장 선사는 인도에서 성립된 대 소승 계율이 중국에서 그대로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음을 항상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율장을 수정하지 않고 대 소승의 계율을 박약절충(博約折衷)하여 새롭게 중국에 맞는 '청규'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학자는 종교개혁의 의미로도 해석합니다. 율장 불개변의 원칙을 초월한 일대 혁신적인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청규는 선종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입니다.

백장 선사의 기본사상은 후대에 성립된 제 청규에서 그 전승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청규, 율장과 성질 같아

종색은 "참선문도는 계율을 첫째로 삼는다"라고 하며 엄정한 계율의 수지 없이는 삼계의 모범인 불조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율의 강조는 선 수행자들에게는 무엇보다 계학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총림을 유지하기 위해 중승이 청규의 근본인 계율을 잘 수지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은 명칭 자체가 6조 혜능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아 만들어진 것입니다. 고려 시대를 거쳐 종파가 다양하게 번성했는데 조선조에 와서 종파가 통폐합됩니다.

자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의한 통폐합이었습니다. 태종 때는 11종을 7종으로, 세종조로 가면 7종을 선교양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일제시대에는 조선불교 선교양종으로 바뀌지요. 일제시대 때 조선불교 조계종으로 이름을 찾은 것이 광복 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청규가 전해진 것은 보조 스님 무렵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보조 스님이 송광사에서 정혜결사했을 때 <계초심학인문>의 내용을 보면 <선원청규>의 영향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태고보우 선사 때 백장청규를 간행했다고 하나 서문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은 총림의 운영과 청규의 시행은 없었으며 선종이 주도한 한국적인 선원 청규가 유통됐습니다.

우리나라 조계종은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처음부터 선종 교단이 독립유지된

법회 동영상 중계 hompy.buddhapia.com/homepy/morals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몸에 좋은 조청으로 심신을 새롭게 한다

전통 비법으로 산사에서 스님께서 직접 만드신… 山寺 조청

♣ 山寺조청 은 공해시대, 무엇을 먹어야 안심할까 고민하는 당신에게 참 좋은 인연입니다.
♣ 山寺조청 은 산천 초목의 뿌리 잎, 줄기, 열매의 영양소를 고스란히 뽑아내어 우리전통의 조청으로 고아 낸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입니다.
♣ 山寺조청 은 한의사 이기웅 원장과 약초연구가 김지문 거사님의 자문을 받습니다.
♣ 山寺조청 은 비구니 스님들의 청정심과 지극한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여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1.2kg

山寺 靑미래 조청
중금속해독, 풍습제거(부종), 사지관절, 중풍과 암 예방에 탁월한 기여 1.2kg

山寺 기혈량 조청
상기, 기혈조절, 손발냉증, 보혈, 혈액순환에 기여 1.2kg

山寺 약도라지 조청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1.2kg

● 주문 및 문의 : 대한불교조계종 금용사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개정

제3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공고

▣ 시상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3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홍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 시상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특별상 : 신행, 학술, 교육, 복지, 봉사 부문 약간 명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수상자 선정 기준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별도의 추천 없이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특별상은 교계의 일꾼과 숨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④ 재가 부문 수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할 수 없고, 단체 부문도 수상 후보 단체의 대표나 임원 등이 직접 추천할 수 없습니다.
⑤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⑥ 각 부문 수상자는 이전 3년 동안에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제3회의 경우 2003년 – 2005년도)
⑦ 해당 부문과 관련한 향후의 활동 계획을 참고합니다.
⑧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불교계 저명인사들로 '대원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할 것입니다.

▣ 제출서류
① (양식) 제 3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② 관련 부문 실적 자료.

▣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간 : 2005년 10월 1일 – 10월 31일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우 121-74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1855, 2606
– 홈페이지 : www.kbpf.org / – e-mail : kbpf@kbpf.org
③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자 소인 유효)

▣ 시상식 ① 일시 – 2005년 11월 25일(금) 14:00
② 장소 –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대법당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 승 희

것이 아닙니다. 여건상 중국과 같은 총림 청규를 시행할 수가 없어 규약 정도로 제정되어 시행된 것입니다.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계학 정학 혜학의 3학을 치우침없이 하는 중국 총림청규의 기본 수행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늘날 조계종 총림의 설치 개념과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 총림의 규정은 본사 규모에 따라 종무소를 포함해 선원 강원 율원 염불원 등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계를 위한 기본 교육을 받은 후부터 수행진로는 선택 사항입니다.

선객으로 수행하거나 경전 연구를 하거나 종무행정 또는 율장 연구 등을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선원청규>에는 개인의 선택 사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계종 종헌종법도 결국 청규

총림 대중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해탈과 총림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계율의 수지는 승가 본연의 의무입니다. 선정을 익히고, 부처님의 성교를 수호하고 그리고 맡은바 소임에 충실하여 종무행정 계율 선정 교학 염불 등이 하나가 되는 통일된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중국 청규에는 '사교입선(捨敎入禪)'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경전을 보지 않고 참선만을 한다든가 참선을 하지 않고 경전만을 연구하는 등 임의적이고 편파적인 수행은 없었던 것입니다.

청규에는 선(禪)이다 교(敎)다 하는 선교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엄이나 반야를 전공한 수행자는 재가인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그들을 '화엄두(華嚴頭)' '반야두(般若頭)'라고 불렀습니다.

불멸 직후 오백결집 때에 장로들이 승원을 수리했던 것처럼 백장 선사의 보청 정신에 의해 총림 대중은 나무를 베고 장원에 나가 일을 하고 물을 긷고 자급자족을 위한 정신으로 노동과 수행의 일체를 몸소 체험하여 왔습니다.

조계종 종헌에 보면 청규는 하나의 의식으로 취급되어 있습니다. 너무 협의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헌종법이 아무리 상위법이라 할지라도 근본사상은 율장을 우선할 수 없습니다.

종헌종법이 율장과 청규의 근본사상을 벗어난 별개의 것이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청규사상을 위배하게 되어 교단의 정체성에 문제가 야기됩니다. 이러한 내용의 성격에 의하여 현재의 종헌 종법을 검토해 보면 조계종의 종헌 종법은 조계종의 청규로서 모두 청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보조 스님 무렵 국내에 유입된 청규
중국과 달리 협의 규약으로 의미 축소



사부대중이, '청규'의 역사와 의미, 현대적 계승을 설한 법혜 스님의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법혜 스님은 1961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63년 해인사 승가대학, 72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했다. 2003년 일본 대정대학 불교학박사를 취득했다.

동국대 정각원장, 조계종 개혁회의 의원, 중앙종회 의원 등을 역임했다.

2004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지관 스님으로부터 율맥(律脈)을 전수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불교학과 교수, 대구 대각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고려판중첨족본선원청규> <고려판선원청규역주> <율장> 등이 있다.

논 찬



유진 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시대 변한다 해도 근본사상 잊지맙시다

질문1 : 기존의 어떤 율장과 법규가 선원생활에 방해가 되었기에 청규를 제정하게 되었는지요?

법혜 스님 : 저는 율장의 어떤 조항이 산승생활에 많은 방해가 되었는가를 고민했을 때 처음 백장 청규 제정 배경과 조건을 생각했습니다.

율장은 걸식을 하라, 나무아래 생활하라, 해진 옷인 분소의를 입어라, 약은 보통 약을 쓰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인도와 생활문화가 달라 걸식도 할 수 없고 자급자족해야 했는데 이런 계율은 불합리했을 것입니다.

기존의 율장으로는 중국에서 종단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교단의 법규를 만들려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중국은 사회상황에 맞게 자급자족을 위해서 노동을 하게 됐습니다. 율장에서 금하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스님이 직접 노동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청규가 제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질문2 : 지금 승단에서 쓰고 있는 계율과 청규가 이 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법혜 스님 : 상당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저는 율장과 청규라는 것은 승단과 총림 유지 존속 발전을 위한 금율과 준수조항이라 생각합니다. 변할 것이 있고 변하지 않을 것이 있는데 부처님과 조상이 남긴 근본사상은 변해서는 안됩니다.

율장은 대장경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분율> 수계의식 근본사상 계율조항 등을 승가의 귀감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대변화에 영향을 받는 청규는 시대에 따라 묻혀서 사용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장은 정법을 쓰는 것입니다. 조계종에서는 기존의 청규를 보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다 안 맞다의 판단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질문3 : 강원이나 선원에서 정진하다가 몸이 아파 도중에 그만두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4~15시간씩 참선하다보니 오온의 부조화로 병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자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기존의 계율이나 청규가 바뀌어야 될 것은 없는지요?

법혜 스님 : 출가자가 오온의 조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 병을 얻었다는 것은 출가자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자기 실수뿐만 아니라 공업(共業)의 상태에서 사고나 음식물 공해로 많은 사람들이 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선원청규>에 보면 연수당이 있습니다. 연로한 스님이 수행을 못하고 병나면 연수당주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항상 수행으로써 자기 몸을 간수해라, 시봉하는 사람은 항상 자애로써 잘 보살펴라'라는 연수당 규약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나중에 편찮으셔서 아난존자에게 "가사를 외겹으로 접어 펴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로병사 속에 살지만 생로병사를 초월하라는 것이 불교의 건강 유지법입니다.

선사들은 "마음하나 잘 챙기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진 스님께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선원의 험한 수행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물었는데 부처님은 '위법망구(爲法忘軀)'라 해서 진리를 구하기 위해 몸을 잊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위해 '위구망법(爲軀忘法)' 하면 부처님이 뭐라 하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중도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선원에서 좋은 수행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현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종권에 끄달리지 않으려면 계율 더 알아야

질문1 : 스님께서는 청규가 <사분율>과 <범망경>을 근본사상으로 제정됐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즉 보살계의 정신으로 사분율을 지키라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살계와 <사분율>이 배치되는 경우 청규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법혜 스님 : 보살계의 정신으로 사분율 지키라는 말의 뜻은 <사분율>은 율이고 <범망경>은 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율장에 비구는 자율적인 계의 정신으로 타율적인 율을 지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율적인 계의 정신이 없으면 타율적인 율을 피해나가면서 저지를 우려가 있습니다. 계의 사상이 아니면 율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의 정신이 결여된 율은 한갓 법률일 뿐입니다.

<범망경>은 <사분율>을 잘 지키기 위한 보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분율>에는 걸식하면 주는 대로 먹게 되어 있습니다. <범망경>에 들어서면 식육 · 오신채 금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를 금합니다.

최근 스님들도 먹는 음식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것 같은데 절에서 수행 중에 건강식품을 찾거나, 건강을 핑계로 한 육식은 안 된다는 것이 <범망경>에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질문2 : 청규가 '규범을 범하고 승당생활을 어기는 자에 대한 벌칙'을 율장보다 엄하게 다스리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혜 스님 : 제 대답이 완전한 정답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율장의 처벌조항은 청규와 달리 참 부드럽습니다. 율장은 '죄는 무겁지만 벌은 가볍다'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청규는 사회법과 많이 닮았습니다. 청규 제정당시 교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한 규칙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숭유억불정책을 썼던 조선조 500년, 일제 36년 등은 계율의 암흑시기였습니다. 이 시기가 한국불교를 망쳤습니다. 비구 대처를 나누고 그 후유증이 불교정화로 이어졌습니다.

율사들은 목숨 걸고 율맥을 전수하고 청규를 만들어 전수해 왔습니다. 선종은 법칙을 세워 잘못을 미리 방지해왔습니다. 대중을 가벼이 보고 법칙을 파괴하면 그 손상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아 율장보다 강한 법칙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질문3 : 율장에서 하면 안 되는 조항을 청규에서는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율장과 청규가 대치되는 경우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법혜 스님 : 율장과 청규가 배치되는 경우에 우리는 청규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율장은 근본대죄로 받아들이고, 참회 받을 수 있는 죄는 청규에 의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청규가 아니고 율장에 따르면 저만 해도 동화사에 오는 것을 포기해야 했을 겁니다. 차도 금전도 지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제한적으로 허락된 청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제가 동화사에 오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청규에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여 근본사상을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질문4 : 조계종 종헌종법이 율장에 위배된다고 보시는지, 미래의 한국불교를 이끌기 위해 새로운 청규가 필요한지 스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혜 스님 : 현 조계종의 종헌종법은 국가법에 따라 청규를 참조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구계 보살계의 전통, 청정 승가교단을 유지하기 위해 방대한 법령은 조계종을 최대 불교교단으로 만들었습니다.

현 종헌종법이 율장에 위배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분율장의 근본사상을 흐리게 했을 경우를 말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상위법이라 해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현재 승가는 율장이 아니라 청규에 의존하고, 거기에 국가의 법률이 상위에 있습니다. 청규에 이렇게 살았으면 해도 종헌종법에 따라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종헌종법보다 상위법이 국가의 법률이지요. 스님도 군에 가야하고 예비군훈련 민방위 훈련을 나가야 합니다.

종헌종법은, 부처님의 근본사상, 사분율장의 정신, 보조적인 범망경의 정신을 살려 독신출가 교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스님들이 수행하는데 여법 원만하게 수행하는데 좋은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종도들은 종단과 힘을 합쳐 총림 등 전반에 대한 것을 수렴해야 합니다. 율장에는 중앙기구가 없습니다. 중앙집권체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체제였습니다.

출가 시에 학력 구분, 연령 제한 등도 율장 정신에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선교육 후득도제는 율장을 더 참조해야 합니다. 율장에 의하면 20살이 되면 비구계를 주고, 은사스님 밑에서 3~7년 계율을 배운 후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배되니까 당장 고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교단은 이판사판을 겸해서 수행해야 하는데 너무 사판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권력에 끄달리는 종단이 되지 않도록 계율을 더 알아야 하고 계율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합니다.

Wellbl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캅셀)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캅셀)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연기와 화상 걱정에서 완전 해방된 새로운 쑥뜸용구 –

소자본으로 내박잡는 틈새업종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허준선생의 東醫寶鑑 - "약과 침으로 치유되지 않는 병은 반드시 뜸을 떠야한다."

■ 제품의 특징
● 화상과 연기의 위험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쑥뜸을 할수 있다.
● 복부의 5개 혈자리를 동시에 뜸할 수 있는 획기적 효과가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온열판 내장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하는 효과 증대.
● 혈자리를 모르는 초보자나 노약자도 간편하게 쑥뜸을 뜰 수 있다.



오행쑥뜸기

■ 제품의 특징
각종 통증 완화 사용후 45분이면...
● 벨트를 이용하여 무릎, 머리, 어깨, 허리 등에 간편하게 고정 할 수 있어 집중 쑥뜸을 할 수 있다.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음양쑥뜸기 (무릎관절)

■ 제품의 특징
● 좌훈기 내부에 온열판 장착으로 쑥의 원적외선 유효성분이 체내에 유입되는 효과가 증대 됨.
● 인체와 접촉되는 부위가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어 끓는 물에 살균소독이 가능하여 위생적임.
● 타이머 장착으로 정확한 효능을 조절하고 연기는 호스를 통해 실외로 완전 배출.
● 좌훈기에 등받이가 부착되어 편안한 자세로 뜸을 할 수 있다.



오행좌훈기

의료용구로 허가를 받은 믿을 수 있는 제품
대구 한의대 및 대구 한방병원 교수진에 의해 개발
특허등록
ISO 9001:2000
의료용구 제조품목허가 : 제 03662호
의료용구 제조업허가 : 제 1682호
전기용품 안전인증허가 : JC07019-3001
실용신안등록 : 제 0308642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18970호
실용신안등록 : 제 0328990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
의장등록번호 : 제 0344295호의 유사 제 01호
ISO 9001 인증서번호 : 제 017269호

대리점 및 쑥뜸기 체험방 모집
오행쑥뜸기, 음양 쑥뜸기, 오행좌훈기 등을 필질방 및 사무나, 피부미용실, 한의원 등에 목점 공급하실 분
※ 무경험자도 가능 (완벽한 본사의 교육)

문의전화 02)521-4453

www.moxa4u.com 오행쑥뜸·좌훈기/음양쑥뜸기 제품구입 문의 02)521-6353~4

D.M.I산업 대구한의대학교 한방바이오 창업보육센터

情이 넘쳐 넉넉한 한가위





▲경주 신라문화원은 추석 보름달빛을 받으며 신라유적을 답사하는 달빛역사기행을 개최한다.

◀마하붓다 구미 보현의집에 모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외국인 노동자 한가위 큰잔치'에 참여해 한복을 입고 한국문화를 배우고 있다.

추석맞이 행사 풍성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풍성한 추석에 불교계 안팎에서 준비한 행사에 참여해 마음까지 넉넉하게 보내는 것은 어떨까.

 # 사찰서 차례 지내고 템플스테이

추석에 고향을 찾지 못하는 불자는 사찰에서 마련한 합동차례에 참석해 마음을 달랠 수 있다. 금산사, 법주사, 통도사 등 전국 대다수의 사찰에서 합동차례를 봉행한다. 복잡한 길 위에서 시간을 버리기 싫은 가족을 위해 아예 사찰에서 휴식도 취하고, 차례까지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공주 갑사, 공주 마곡사, 해남 미황사, 서산 부석사 등에서도 템플스테이가 진행된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을 위한 템플스테이도 준비돼있다. 경주 골굴사와 계룡 무상사, 부산 홍법사 등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한국문화를 체험하고 싶은 외국인을 위해 산문을 개방했다.

경주 신라문화원(원장 진병길)은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16일에 달빛역사기행을 준비하고 있다. 전문해설가의 설명과 함께 휘영청 보름달 달빛이 고고히 흐르는 천년고도 경주를 답사하는 프로그램이다.

 # 장애인 · 탈북자와 함께

어렵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한가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행사도 많이 준비돼있다.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9월 10일 제5회 추석맞이 지역주민 화합한마당 잔치인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린음악회'를 황성공원 공설운동장에서 진행했다.

정토회 좋은벗들은 오는 25일 서울교대 운동장에서 민족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800여명의 탈북자와 함께하는 '제3회 통일체육축전'을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남북한 동포가 함께 합동차례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 연예인축구단과의 친선축구경기, 씨름, 줄다리기, 이어달리기 등을 하는 한마음 체육대회와 노래마당이 펼쳐진다. 행사 참가자들이 만들어 온 북측음식을 맛보는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 이날 수익금의 일부는 북측지원사업 기금으로 지원될 계획이다.

 # 외국인 노동자 민속놀이 마련

고향땅을 밟지 못하고 타국에서 외로이 추석을 보내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행사를 마련한 곳도 있다. 마하부다 구미 보현의집은 오는 17일 외국인 노동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체험행사를 연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복입기, 송편 빚기, 제기 차기 등의 프로그램이 준비돼있고, 고향에 편지쓰기 행사도 진행된다. 동두천 소요산 자재암도 '제1회 외국인 근로자 민속놀이 한마당'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추석법회가 봉행되며 이날 행사에 참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사찰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거제 금강사, 계룡사 등 7개 사찰로 구성된 거제시 불교 원륭회는 11일 '한가위맞이 외국인 근로자 및 지역노인 초청 한마당 잔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근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양 · 한방 무료 건강검진, 이 · 미용 봉사, 점심공양 등이 펼쳐졌다.

 # 그 밖의 추석관련 행사

연휴기간 동안 한복을 입은 관람객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에 입장료를 내지 않고 들어갈 수 있다. 연휴 기간 동안 경복궁에서는 '전통 놀이마당'이 펼쳐져 관람객이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널뛰기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오전 10시와 오후 1, 3시에는 '조선시대 수문장 교대의식 및 광화문 개문의식'도 볼 수 있다.(02)732-1931

국립민속박물관은 '추석맞이 천신굿'과 조선시대 병장무술인 '한국전통무예',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인 '강령탈춤'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연휴기간 내내 공연한다. 19일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전통공예품을 만들고 추석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민속교실도 열린다.(02)3704-3114

국립국악원은 추석당일인 18일 오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국립국악원 별맞이터에서 국악공연 '한가위날 달바라기' 행사를 연다. 중국 연변동포로 구성된 '아리랑 낭낭'이 북한식 개량악기로 연주하는 국악과 외국전통악기로 연주되는 우리 민요를 들을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02)580-3333

남산골 한옥마을에서는 연휴기간 내내 동춘서커스, 강령탈춤, 도드락, 경기민요 등이 펼쳐지고 전통 민속주 시음행사가 열린다.(02)2266-6923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 **전국 사찰 및 불교단체 한가위 행사**

주 최	전화번호	날 짜	행 사
정토회 좋은벗들	(02)587-8990	9월 25일	통일체육축전
경기 고양 흥국사	(02)381-7970	9월 18일	추석합동차례 및 영가천도재
경기 동두천 자재암	(031)865-4045	9월 18일	외국인 근로자 민속놀이 한마당
충남 공주 마곡사	(041)841-6226	9월 17~18일	한가위 템플스테이
충남 서산 부석사	(041)662-3824	9월 17~18일	한가위 템플스테이
충남 공주 영평사	(041)857-1854	9월 16~18일	한가위 템플스테이
충남 계룡 무상사	(042)841-6084	9월 17~19일	한가위 템플스테이
부산 홍법사	(051)508-0345	9월 17~19일	한가위 템플스테이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	(053)753-8883	9월 14일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경북 경주 골굴사	(054)744-1689	9월 16~19일	한가위 템플스테이
신라문화원	(054)774-1950	9월 16일	달빛역사기행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054)776-7522	9월10일	추석맞이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열린음악회
마하부다 구미 보현의집	(054)458-0755	9월 17일	외국인 노동자 한가위 큰잔치
거제 원륭회	(055)636-8635	9월 11일	한가위맞이 외국인 근로자 및 지역노인 초청 한마당 잔치
전남 해남 미황사	(061)533-3521	9월16~19일	한가위 템플스테이

이영화 어때요?

꿈이 있는 한 우리는 모두 챔피언

신데렐라 맨 감독: 론 하워드 출연: 러셀 크로우, 르네 젤위거 상영시간: 114분 등급: 연소자 관람가



영화 '신데렐라 맨'은 인간의 인내심과 사랑의 힘이 얼마만큼 위대해질 수 있는 지를 우리에게 보여 준다. 전도유망했던 라이트 헤비급 복서 브래독은 잇단 패배와 부상으로 복싱을 포기하게 되고,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각종 허드렛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간다. 하지만 복싱에 대한 꿈을 단념하지 못한 그는 결국 다시 링 위에 오른다.

브래독은 왜소한 체구와 끊임없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연승행진을 이어간다. 이미 2명 이상의 상대를 사망 직전까지 몰아간 챔피언 맥스 베어와의 결전을 눈앞에 둔 브래독은 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경기를 위해 링에 오르는데….

한편 이 영화는 'America is strong(미국은 강하다)'이라는 행간의 의미도 담고 있다. 감독은 또 브래독이 좌절을 딛고 챔피언의 자리를 다시 찾는다는 영화적 스토리를 1930년대 경제 대공황에 대입한다. 한 순간에 실업자가 된 브래독의 처지와 일반주의 액면가가 40%나 하락하면서 시작된 주식시장의 붕괴로 인해 미국 전역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으로 국가파산 위기에 직면한다는 배경이 바로 그것.

보릿고개 시절, 온 국민들에게 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심어준 4전5기의 한국판 신데렐라 맨 홍수환. 그와 너무나 닮은꼴인 이 영화가 우리에게 진정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뭘까. 그것은 가슴 속 꿈이 불타는 한 '우리 모두는 챔피언이다'는 말이 아닐까 싶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게시판

봉은사 기초학당 신도교육 봉은사 기초학당은 초심자를 위해 9월 2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와 오후 7시 30분 봉은사 보우당에서 신도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3개월 과정이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02)544-2141



수효사회복지대학 개강 수효사 효림원 부설 수효사회복지대학이 9월 27일부터 내년 3월까지 케어복지학과를 개설하고 사회복지 및 불교상담심리 등을 교육한다(사진).

교육 수료 후에는 케어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함과 동시에 수효사에서 운영하는 노인시설 및 관련 기관 취업기회가 제공된다. (02)313-2398

구로청소년수련관 가을 프로그램 구로청소년수련관이 가을을 맞아 10월 5일부터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해 점핑클레이 · 칼라점토, 비즈공예, 화훼장식 교실 등을 열고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10월 8일에는 원어민 교사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신나는 원어민 영어교실'도 열린다. (02)838-1318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공모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제주지부는 '청소년 스스로 지킴이' 공모전을 열고 9월 20일부터 10월까지 청소년 유해환경을 고발하는 표어, 포스터, 엽서 등을 공모한다. 제주지역 초중고 청소년은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작품은 우편접수 받는다.(064)725-0108

20면 상식 퍼즐 정답

불	망	어				
공		가	감	승	제	
대			수		승	
천	마				당	정
	른		군			사
	기	러	기	발		면
목	침			명	조	체

전시

티베트 탱화 탕카의 세계

한국불교미술박물관, '티베트 불화 : 삶과 죽음을 넘어서'



아촉불여래도.

동방의 정토를 관장하는 아촉여래가 만들어내는 묘희세계(妙喜世界)가 한국에서 펼쳐진다.

한국불교미술박물관(관장 권대성)이 소장 유물 가운데 티베트 탕카 100여점을 선보이는 '티베트 불화: 삶과 죽음을 넘어서' 특별전을 9월 7일 개막했다.

내년 2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아미타정토도(阿彌陀淨土圖) 석가여래도(釋迦如來圖) 불전도(佛傳圖) 관음보살도(觀音菩薩圖) 등 다양한 주제의 탕카를 감상할 수 있다.

걸개그림으로 제작된 티베트 탱화 탕카(thangka)는 예배의 대상이자 수행의 도구이다. 티베트 인들은 탕카를 보며 예배를 하고 명상을 하며 낯선 사후 세계에서의 대처법을 미리 훈련하기도 한다.

한편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직접 탕카를 그리고 족자로 제작하는 티베트 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05년 문화관광부 복권기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무료교육이다. (02)766-6000

빛으로 엮어낸 한민족의 美

국립광주박물관 '사진본색 우리 멋 우리 얼'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우리네 어머니가 즐겨 입으셨던 하얀 모시 저고리, 세월을 어깨에 짊어진 석불 등 생활 속에서 만나는 전통과 우리 얼이 사진으로 승화된다.

뽈끄레(회장 차종순)와 고향의 빛(회장 주영기)이 공동으로 국립광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사진본색 우리 멋 우리 얼' 전시회를 개최한다. 뽈끄레(Pulchre, 아름답게)와 고향의 빛은 국전초대작가 강봉규씨의 문하생들로 이루어진 모임이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민족이 일구어낸 생활 속 삶의 지혜를 영상언어로 선보인다는 야심한 계획으로 이루어졌다.

쌍계사 봉황, 법고, 목조 사천왕상 가운데 가장 오래된 장흥 보림사 사천왕상,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전의상암지 석불, 불갑사 문살 등을 선보인다. 맷돌 천연염색 폐백 장독대 등 생활상도 아름다운 빛깔과 전통이 사진 속에 그대로 남아있다. (062)570-7020

방송 프로그램

BBS 불교방송 (서울 FM 101.9 MHZ, 부산 FM 89.9 MHZ, 광주 FM 89.7 MHZ, 대구 FM 94.5 MHZ, 청주 FM 96.7 MHZ, 춘천 FM 100.1 MHZ)

12일 15:00 음악의 마을
13일 09:05 영화음악실
14일 22:05 마음으로 듣는 음악
15일 07:05 아침저널
16일 06:25 오늘은 좋은 날
17일 09:05 행복한 미소
18일 11:05 김혜옥의 아름다운 초대

Btn 불교TV (sky-life:161 케이블: 지역방송사 문의)

12일 21:10 TV법회
13일 02:40 불교TV스페셜
14일 15:50 열린마당
15일 23:25 유식삼십송
16일 20:30 명상음악산책
17일 07:30 조선불교탄압사
18일 20:00 또 다른 수행 '사경'

하이라이트

■**불교방송**: 낭만라디오(9월 16일 14:05~15:00) 3040세대들의 입맛에 맞는 추억의 노래, 마음의 노래, 다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다시 들어 볼 수 있는 시간. 고한우의 정겨운 입담과 재치로 오후의 나른함을 말끔히 씻어보는 시간. 잔잔한 노래와 선율은 지친 당신의 마음을 감싸주는 시간이 될 것이다.

■**불교텔레비전**: 엄앵란 장미화의 행복충전(9월 18일 21:45~22:45) 연예계의 입담꾼으로 통하는 엄앵란 장미화가 말하는 세상사는 이야기. 불자 연예인 등 각계 인사를 스튜디오에 초청해 삶의 지혜는 물론 생활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상품문의 : (02)2004-8218~9



향적당

동국대 산업기술연구원과 (주)선농바이오식품이 협동 개발한 향적당은 몸에 좋은 검은콩, 검은깨, 현미, 통보리, 다시마, 황태북어를 불에 익히지 않고 갈아 유산균, 효모와 함께 30일간 발효 숙성시킨 건강기능 효소식품이다. 생식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신진대사 기능이 향상되고 허약한 체질을 개선해준다. 먹기 좋게 캡셀로 처리되어있어 생식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쉽게 섭취할 수 있다. 올 추석에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향적당을 선물하며 건강

내 마음의 법당 (하)

장진익 (전북 부안군 계화면)

나를 불교로 이끌어 준 서 병장이 제대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나니 '내가 이렇게 이기주의자였나?'라는 자책이 들었다. 서 병장으로 인해 군종병이 되었고, 군종병이라는 특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부대원 모두를 위해 희생하고 그들에게 위로와 정신적 휴식처를 제공해주라는 것임에도 나는 나의 안락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다. 너무나 부끄러웠다.

행정반에서 서 병장의 연락처를 받아 그에게 전화했지만 결번이었다.

법당을 쓸고 닦고 법사님을 잘 모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힘든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전우들에게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져주는 것이 나의 우선적인 임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까? 나의 머리 속엔 온통 그 화두로 가득 찼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밥이야 밥!"

군대 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찌 어머니가 정성껏 해주신 밥에 비교할 수 있을까. 나는 법사님의 허락을 받고 일요 법회가 끝나면 법당을 찾은 전우들에게 손수 공양을 올리겠다고 청했다.

"쌀이며 반찬은 한정돼 있는데 어디서 그 많은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냐?"고 법사님이 물었지만 "다 생각이 있으니 맡겨 달라"고 말씀드렸다.

군 입대 전 나는 과외를 비롯해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푼푼이 모아 둔 적금이 있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전우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기로 결심했다.

요리를 잘 하진 못하지만 전우들의 입맛에 맞게 햄과 소시지 등 기름기 있는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일요 법회가 끝난 후 공양했다. 또한 평일 제초작업을 하는 전우들에게는 가끔씩 라면을 끓여 간식으로 대접했다.

비록 큰 선행은 아니었지만 이런 나의 공양은 입소문을 타고 중대에 퍼지면서 일요일마다 법당을 찾는 전우들이 하나 둘씩 늘어났다. 준비해야 할 밥그릇이 하나씩 늘어날 때 마다 내 마음의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그릇도 하나씩 늘어나는 기분이었다. 법회를 이끄는 법사님도 흡족해 하는 눈치였다.

전우들은 일요일뿐 아니라 평일 근무가 끝나면 법당이 마치 내무반인양 편하게 들

음식 공양, 상담자 역할하며 군 포교 열심
복학과 함께 희귀병 걸려, 108배로 극복
고통후 활기찬 삶, 타인에 도움줄 것 확신

렀다. 가끔은 내가 상담사 역할도 해야 했다. 여자친구 문제, 진로문제 등 상담거리도 다양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형처럼 의지하고 따랐던 서 병장이다. 서 병장으로 인해 군대에서 정신적 안정은 물론 마음의 평안도 찾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아무 탈없이 전역하고 나자 다른 시련이 다가왔다. 혈소판감소증이라는 희귀한 질병에 걸린 것이다.

일반인들은 혈소판의 수치가 15만개에서 40만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 이는 신체의 충격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피의 한 구성요소다. 이러한 혈소판 수치가 부족해지면 작은 부딪침에도 시퍼렇게 멍이 든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속이 쓰려 무슨 문제가 있나 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혈액검사를 통해 혈소판감소증이란 진단을 받은 것이다. 검사결과 나의 혈소판의 수치는 8만개였다. 한 달 후에 다시 검사 받으니 5만5천여 개로 더 떨어졌다. 혈소판의 수치가 2만개 이하로 떨어지면 코피를 쏟고 온몸에 멍이 든다고 했다.

대학교에 복학한지 몇 달 되지 않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니 나의 삶은 혼란스러워졌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법당을 찾았다. 대학생불교연합회 동아리방을 찾아 매일 108배를 올렸다.

그것은 어떤 대상을 위한 절이 아니었다. 단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밤 10시. 어두운 밤에 홀로 촛불을 켜놓고 정근을 했다. 지독한 감기까지 걸려서인지 108배를 올릴 때마다 숨이 찼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그렇게 좌선까지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솟구쳤다.

나의 노력을 부처님이 아셨을까? 나를 괴롭혔던 몸살감기는 씻은 듯 사라졌다. 얼마 후 다시 혈소판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도 매우 좋았다. 혈소판의 수치가 9만개로 늘었다는 것이다. 한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혈소판 수치가 9만5천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담당 의사님은 혈소판의 수치가 점차로 감소했다면 혈소판감소증으로 골수검사까지 할 뻔했다고 말했다.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또 한 번의 어려움을 이렇게 겪은 후에 나의 생활은 더욱 활기로 가득 찼다.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노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기 위한 강한 의지를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강한 의지로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게 된 것이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지금 나는 취업준비생이다.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중이다. 취업전선이 초비상이라고 뉴스나 신문에서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고통도 극복해낼 수 있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쓸쓸한 가을이 오고 온몸이 시리도록 추운 겨울이 와도 좌절하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날 반겨줄 따스한 봄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부처님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언제나 행복할 것이다.

이제 군대를 제대 한지 3년째. 문득 문득 군종병 시절을 떠올려 본다.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 법당을 찾았던 나.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할 때는 종교를 찾지 않다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또 부처님을 찾고 하느님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절을 찾고 교회를 찾기보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종교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군종병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법당 안의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내 소원과 우리 가족의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부처님은 법당에도 계시지만 내 마음 속에 계시는 부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끝)



그림 · 문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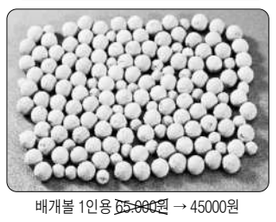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상쾌한숙면 건강한하루 **신비의은행석** | 배개속에 넣고 평생 사용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부모님께 최고의 효도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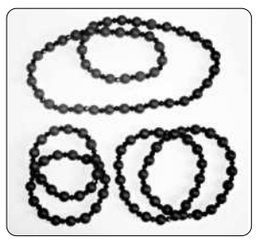


배개볼 1인용 ~~75,000원~~ → 45000원

생명의 빛 생명의 기 북한에서온 은행석은 죽어가는 것도 살린다는 별명이 붙어 잇습니다. 예를 들어 대야에다 수돗물을 받아 붕어를 넣으면 붕어는 배를 뒤집고 헐떡이며 죽어갑니다. 이때 은행석을 넣으면 붕어는 씽씽하게 살아납니다. 고급난등 이외의 죽어가는 것도 다 살릴 수 있어요. 베개속에 은행석을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중,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지며 기미가 줄고 하얀 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5시간만 주무셔도 8시간 잔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아침에 가볍게 일어납니다. 심하게 코를 골거나 기침을 하신는 분에게 적극 권장합니다. 북한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며 저를 믿고 주무시어 건강하게 장수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요. 손발이 자주 붓는 분은 은행석 목걸이, 팔찌와 같이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이온을 첨가하여 어깨 통증완화 및 각세포의 기능 향상

건강도 지켜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은행석 안심목걸이, 팔찌**



~~125,000원~~ → 95.000원

◆목걸이,팔찌 : 머리를 맑게 함, 손이 붓거나 어깨결림해소, 혈압조절, 혈압상승억제, 전신에氣를 골고루 전달, 심장박동원활, 신진대사촉진,신경 및 피가 맑아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아요.

은행석 108염주, 손목합장주도 제조 판매합니다

◇ 현재 많은 스님 ,불자님들의 사용 후 기적같은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금강닥터 문의전화 (02)723-9184 www.dk21.net

◈ 입금계좌:농협 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

불교방송과 현대불교신문이 자세히 소개한

영산범음집

한글해설판 사물장단악보

천도재(49재)나 각종 시식에 영산범음집(靈山梵音集) 한 권이면 여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산범음집 특징

-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순서대로 진행하면 재가 끝나도록 구성됨. 운운(云云)은 없음
- 전문(全文)에 걸쳐 한글해설을 실어 내용을 알고 집전할 수 있도록 함
- 장경연구소의 서체지원으로 고문자(古文字) 이체자(異體字) 100% 완벽조판
- 바라춤과 요잡 등, 각종 진언의 사물장단 (쇄. 태징, 북 등)악보를 실어 이해를 도움
- A4크기. 얇고도 질긴 최고급 재질, 이중배접 고서제본방식. 320쪽 (본문, 해설편, 장단편)

정가 50,000원 (구입시 상용천도집 증정)

천도재 비디오 3개 (대령, 관욕, 시식, 배송) 완벽한 방송용 자막 커리. 할인가 6만원

농 협 121047-52-069528
우체국 600841-02-046873 (예금주 이판암)

(080)208-8000. 8008
범패연구소 http://www.pompae.com

신비의 침술 대공개

불임증, 발기부전, 만성두통, 견항통, 오십견, 요실금, 구완와사, 이명, 비염, 중이염, 천식, 아토피 피부병, 요통, 좌골신경통(디스크), 풍치, 무릎관절통, 손 발목 관절통, 만성체증

비결침술로 1회 ~ 6회만에 완치되는 비방

초보자 누구라도 10시간만 배우면 대침술가 전문의가 될 수 있다

비 법 강 좌

※ 선착순 10명, 숙식 제공함 ※

- 일 시 : 9월 23일 ~ 9월 24일
- 보시금 : 일백만원(선입금 미리예약) 농협 457109-52-098389 홍점순
- 오시는 길 : 공주시에서 청양가는길 13km 오셔서 공수원 4거리 하차(신풍면 쪽) 900m 좌측 대나무 있는곳

충남 공주시 우성면 용봉리 686 **천제 불국사 의성 합장**

전화 041-855-7114, 016-552-2159

나무 묘법 연화경

시대에 맞는 생활불교의 지평을 여는 신 종단으로서 종도(스님) 및 법사, 전국 각 지역 종무원을 모집합니다.

년령, 학력, 출가이력, 경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법사 및 행자는 년령과 남,여 관계없이 일정의 교육을 실시하여 수계함

묘법 연화경으로 각종 예불 및 의식을 무보시로 가르쳐 드립니다.

대한불교 묘법 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연해광 합장

- 총무원 :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생활철학 강좌 학인 모집 (책임지도)

명리, 성명, 관상, 육효, 풍수지리

- 강 사 : 만오스님(현 창원 전문대학 강의중)
- 대 상 : 스님
- 모집인원 : 20명
- 보 시 : 50만원
- 접 수 : 9월 30일까지
- 강 의 : 10월 1일부터 – 10월 30일까지 (부족한 스님은 날짜와 관계없이 알때까지)
- 문 의 : 055)263-4984, 018-432-4984

정통 철학의 맥을 이어온 학문, 우주의 근본원리를 탐구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알게되면 부처님의 12인연법은 물론 운명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스님은 신도들의 상담에 필수적인 것이고, 우주의 이치로 실로 정연하여 한치의 착오가 없는 만고 불변의 학문이요, 대도(大道)라 할 수 있다.
즉 철학은 재미로 보는 것이 아니다.

창원시 중앙동 70-9번지 성한빌딩 4층 묘법정사

사교적인 모임이나 파티를 위해 손님을 초대했을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차(茶)다. 특히 우리나라의 다례(茶禮)나 영국의 티파티(tea party) 등은 사교에 있어 차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9월 6~10일 서울 무역전시관에서 열린 '제2회 토야 테이블웨어 페스티벌'에서는 이 두 가지의 찻상 차림이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제2회 토야 테이블웨어 페스티벌'서 韓·英 여인 찻상차림 선보여

티파티 문화

조선 사대부 여인 VS 영국 귀부인





조선 행다 예절교육 방편 활용

유교사상을 중시했던 조선시대 여성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서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최대한 자제해야 했다. 때문에 여성들은 집안에서 거의 모든 일을 해결했다.

차문화도 마찬가지다. 남성들의 찻자리가 주로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사랑방이나 야외 정자에서 이뤄졌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성들은 안채나 후원 등에서 다른 여성들과의 만남을 갖고 자신들만의 차문화를 꽃피웠다.

조선시대 여인들의 찻자리 문화 중 하나인 규방다례를 연구해 온 이귀례 한국차문화협회 이사장(인천시 무형문화제 제11호 규방다례 기능보유자)은 "규방다례는 손님 초청을 시작으로 차를 내고 다식(茶食)을 먹으며 다담(茶談)을 나누고 손님을 배웅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포함된다"며 "특히 행다 과정 곳곳에 배어 있는 예절정신은 조선시대 여인들의 지혜와 덕성을 개발시켜주며 자녀를 교육시키는 방편으로 활용됐다"고 말한다.

때문에 손님을 초대하는 편지를 보내는 법에서부터 손님맞이, 상보 접는 법, 다관 잡는 법, 찻잔을 들어 손님에게 전달하는 법 등 모든 순서에 일정한 형식과 예법이 담겨 있다.

'경기도 양반가의 홈파티'라는 기획전을 선보인 리빙컬쳐 대표 황규선 교수(숙명여대)는 "후원의 연못을 연상시키는 연꽃과 연꽃모양의 백자 다기를 이용해 녹차를 즐겼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찻자리를 재현했다"며 "조선 여인의 품격과 삶의 여유를 담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안채나 후원등 집안서 만남 이뤄져

영국 사교·정보교류의 장으로

17세기 중국을 통해 차문화를 수입한 유럽은 홍차를 중심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차문화를 형성시켜 왔다.

티타임으로 사교문화를 꽃피웠던 영국은 하루 7~8회나 티타임을 가졌다. 특히 오후 2~4시에 이뤄졌던 애프터눈 티파티(afternoon tea party)는 귀족문화를 기반으로 발전된 만큼 화려하고 푸짐한 티푸드(tea food)가 곁들여진 것이 특징이다.

차는 다즐링, 우바, 기문 등을 주로 마시고 티푸드로는 스콘이나 샌드위치, 케익 등을 준비한다.

처음 애프터눈 티파티를 시작한 사람은 베드포드 가문의 7대 공작부인인 안나 마리아(Anna Maria, 1788~1861)였다. 차를 즐겨 마셨던 그는 친구들을 초대해 응접실에서 함께 차를 마셨는데, 이것이 궁중과 중산계층 더 나아가 일반 서민층에게까지 전파된 것이다.

특히 빅토리아 여왕시대에 이 애프터눈 티파티는 사교의 장이자 예술과 문화에 관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다.

영국의 애프터눈 티파티는 조선시대 여인들의 찻자리와 마찬가지로 예절과 격식이 중요시됐다.

애프터눈 티파티 역시 상대에게 초대장을 보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초대 받은 손님은 찻자리에서 너무 사적이거나 정치·사회적인 화제를 피하고 일상적인 이야기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으며, 차도구들이 부딪혀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선시대와 영국 여인들의 찻자리 문화가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귀족문화 기반 푸짐한 티푸드 특징

글·사진=여수령 기자

소설가 정형남씨 '천년의 찻씨 한알' 펴내

제1회 채만식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정형남씨가 천년의 세월을 넘나들며 차의 역사와 유래를 밝히는 소설 <천년의 찻씨 한알>을 펴냈다.

소설은 김 교수와 청운, 백공 등의 인물들이 화개에 들러 차를 대접받은 후 영명사 주지 스님에게 김교각(696~794) 스님의 일대기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김교각 스님이 중국으로 구법 여행을 떠나는 순간부터 구도의 과정과 다성이자 지장왕보살로 추앙받게 되는 과정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애환, 차 정신을 보여준다.

정씨는 "김교각 스님은 마음 밭을 가꾸듯 가난하고 고통 받는 중생들을 위해 지장성지를 가꾸었고, 불씨 하나 일구듯 차 시배지를 일궜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시대 ⑲



정약용으로 인해 초의선사 중앙 진출
영수합 서씨 등 여류 차인 많이 배출

이 시기는 다음 시대에 차문화를 꽃피울 인물들이 속속 태어난 때다. 박제가 이서구 정약용은 새로운 학문을 추구한 선비차인으로, 이들로 인해 우리 다사(茶史)의 중요한 기점에 이르게 된다. 특히 다산은 강진으로 유배되어 다산 기슭에서 지내며 후에 초의선사를 만나는 계기가 됐다. 다산의 <동다기(東茶記)>의 내용은 확실치 않으나 그의 다법(茶法)만은 자하에게까지 전해졌음이 밝혀졌다. 또한 영수합 서씨나 빙허각 이씨 등 여류 차인들도 많았다.

중국도 돈재 서곤이 차에 관한 글을 많이 남겼고, 용정차가 널리 알려져 그에 관한 기록이 많다.

① 박제가(1750~?): 중국에 네 번이나 다녀왔고 그곳의 문인들과 교유한 차인이다.

② 영수합 서씨(1753~1823): 홍인모의 부인으로 차인이었다. 자녀들 모두 차를 즐겼고 그의 다시 여러 편이 전한다.

③ 홍인모(1755~1812): 차를 즐겨 여러 편의 다시를 남겼다.

④ 이상계(李商啓)가 쓴 가사로 '월하팽다(月下烹茶)'를 노래했다.

⑤ 빙허각 이씨(1759~1824): <규합총서(閨閤叢書)>를 썼다. 여기에 차를 생활과 연결한 다백희(茶百戱), 대용차, 다식, 다선고(茶仙姑) 등의 얘기를 담았다.

⑥ 정약용(1762~1836): 정치, 경제, 지리, 경학의 대가일 뿐 아니라 우리 차문화의 중흥에 태산북두(泰山北斗) 같은 차인이다. 초년부터 차를 즐기다 강진 유배 후 아암 스님을 만나 차에 깊이 빠졌다. 이후 초의를 가르치고 <동다기>를 썼다. 특히 그가 만든 다신계절목과 다신계는 훗날까지 지속되었다.

⑦ 조수삼(1762~1849): 문집에서 해남에 황차가 있다고 했으며 다시 수 편이 전한다.

⑧ 전조망(全祖望)이 쓴 글로 열두 가지 뢰차에 관해 기록했다.

⑨ 서곤(徐崑)이 쓴 글로 민중(閩中)에 있는 정씨댁 차나무 두 그루의 향이 천하의 으뜸이라 했다.

⑩ 정육(程淯)이 항주 추심루에 살면서 쓴 용정차에 관한 얘기다.

⑪ 정의증(丁宜曾)이 쓴 것으로 음식을 먹을 때 차를 중심으로 향(香)을 가한다고 했다.

⑫ 장홍(張泓)이 쓴 것으로 이 글에 보이차 얘기가 실려 있다.

⑬ 왕응규(王膺奎)가 쓴 것으로 하살인향차라는 벽라춘(碧羅春)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다.

⑭ 청대 시승(詩僧) 초전(超全)이 지은 것으로 송대 이후 오이(五夷)의 차 발전 정황을 내포하고 있다.

⑮ 왕맹현(汪孟鋗)이 용정차에 관한 쓴 것이다.

⑯ 석주류(石州流) 불매파(不昧派)의 시조다.

⑰ 산차 제다법이 설명된 책이다.

⑱ 대지유방(大枝流芳)의 지대아(池大雅)가 쓴 일본 최초의 전다(煎茶) 안내서다.

■성균관대 예절다도학

@ 표는 약(about)

	한 국	중 국	일 본
조선시대	1750 박제가(朴齊家)의 출생 ① @ 심사정의 활동 1753 영수합 서씨(令壽閤 徐氏) 출생 ② 1754 이서구의 출생 1755 홍인모(洪仁謨) 출생 ③ 1758 초당곡(草堂曲) ④ 1759 빙허각 이씨(憑虛閣 李氏) ⑤ 1762 정약용(丁若鏞)의 출생 ⑥ 조수삼(趙秀三)의 출생 ⑦ 1763 <일동장유가>		
청대		@ <십이뢰다조부서(十二雷茶?賦序)> ⑧ 1753 <돈재우필> ⑨ @ <용정방다기(龍井訪茶記)> ⑩ 1755 <농원편람(農園便覽)> ⑪ <전남신어> ⑫ 1757 <유남속필(柳南續筆)> ⑬ @ <오이다가(五夷茶歌)> ⑭ 1762 <용정견문록(龍井見聞錄)> ⑮	
강호시대			1751 송평치향(松平治鄕)의 출생 16 1754 <일본산해명물도회(日本山海名物圖會)> 17 1755 선과소각어(仙窠燒却語) 1756 청만다화(靑灣茶話) 18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 『다도(茶道)』 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 『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권당 가격 6,500원 |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梵魚寺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세트
문 없는 문을 열다



범어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열분의 법주스님들의 법문
카세트테이프 10개 1세트

판매처 : 마하몰 www.mahamall.co.kr
02)732-1520 / 02)2004-8218~9

입금계좌 : 국민은행 006-01-0785-361 현대불교신문사
우 체 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농 협 053-12-113210 하동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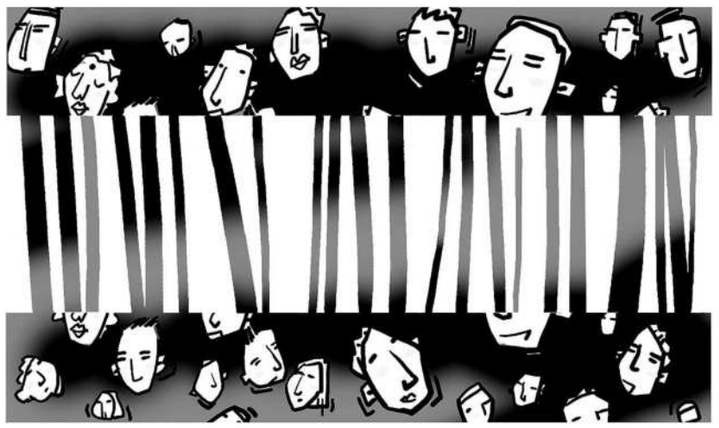
30,000원 (무료배송)
500세트 한정판매

※ 설선대법회 CD, Video도 있습니다. (각10,000원)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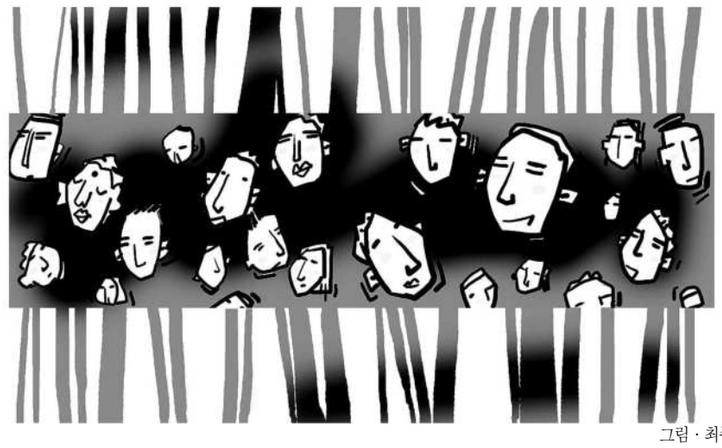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데 목표를 둬야

여러분과 또 같이 한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로 접어드는군요. 우리 마음자리는 항상 사철이 따로 없듯이, 공부하는 데도 서로 도반으로서 같이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는 마음이라는 정신계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만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도 없거니와 벗어날 수도 없고, 한 생만 이렇게 곤고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세생생을 끝간 곳 없이 그렇게 살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왜 이렇게 공부해야만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극락세계나 지옥세계를 따로따로 보지 마시고, 현 세상에서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광대하고 묘한 문제들, 수라장 같은 세상, 우리가 모두 현실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미생물에서부터 수없는 생명들이 짝을 짓죠. 그 모든 생명들이, 인간까지 말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수억겁 광년을 거쳐서 이렇게 인간세계까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거 미래 현재가 없이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대치를 하나요? 잘나잘나 닥쳐오는 문제들, 잘나잘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모두 그런 것을 어떻게 대치를 해야만 되며, 수없는 광년 겁을 지나오면서 누적된 문제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착을 버리지 못한 채 또는 관습에 의해서 끄달리는 습이 그대로 남아서 누적돼서 돌아가는 이 모두를 어떻게 해야만 대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부처님 마음과 더불어 같이 아시고 계시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광대하고 어떻게 보면 도깨비장난 같고 어떻게 보면 아수라장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아주 묘한 이치에 다다라 신비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합류화시켜서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한 번 쳐다보고 웃고 한 번 내려다보고 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공부를 안 한다면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그렇게 굴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물주머니에서의 삶과 같습니다. 지금 바다 속에서 생명들이 물속에서만이 살 수 있도록 돼 있듯이 또 물속을 벗어나면 즉듯이, 우리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기주머니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겁니다. 벗어나야 어떻게 해보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그렇게 수없이 좁나좁나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낳은 부모만 육의 부모가 아니고 수억겁을 돌아오면서 걸어오면서 우리는 자식이 됐었고 부모가 됐었는데 어떻게 현재 육의 부모 하나만이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둘이 아니라는 도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부모도 둘이 아니요, 자식도 둘이 아니요, 나 자체도 둘이 아니요. 일체가 다 공(空)했다. 즉 말하자면 고정됨이 없기 때문에 공했다. 그대로 여여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여여한 줄을 안다면 이렇게 고생도 안 해요! 고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말입니다.

항상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듯이 '여여하다, 공했다.' 이런 뜻은 여러분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가고 오는 것, 만나는 것, 먹는 것, 이런 것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했고 그대로 여여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이 도리를 납득을 못하겠지만 참나와 현재 나가 둘 아니게 통신이 된다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각 사찰에서도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모든 조상들이나 자식들이 또 죽은 영혼들이나 우리 산 사람 마음들이 은은히 모두 이 도리를 알아야 되겠기에 말입니다. 또 알아야만 공덕이 되겠죠. 공덕이 안되는 것은 내 정신계와 물질계가 합류화돼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덕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합류화돼서 돌아간다면 공덕이 되죠. 즉 말하자면 공생 공심 공체 공용 공식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공용을 하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용무를 그대로 하고 있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한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못났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자기를 아예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무시하는가 하면 잘났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하나하나를 정리해볼까 합니다.

법당에 들어와서 벌써 부처님이 여러분 모셔져 있으면 헷갈립니다. 조선시대 때에 스님네들을 탄압할 때에, 쌀 한 말만 갖다놓으면 도저히 스님네들이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중에서 숨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산신각, 칠성각, 신중단 모두 여러 분들을 해놓아야만 대중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종교 탄압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법당에 들어오면 만 불(萬佛)이 모셔져있다 할지라도, 일 불(一佛)로 봐야 됩니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의 한생각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진 겁니다. 지장, 아미타, 아촉 또는 미륵, 관세음, 지신이나 주해신이나 주림신이나 모든 이름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부처님께서, 부처님 마음속에서 탄생한 천백억화신은 모습을 바꾸어가면서 천차만별의 여러분한테다 천차만별의 모습으로 응신이 돼서 나투어 주신다고요. 그것도 과거가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현실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오신 것이 없기 때문에 가신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영원하고 끊임이 없이 생과 사가 들이 아니게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상을 모두 해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사찰에 가보시면 여러 가지로 놓여 있죠? 여러 부처님들이 말입니다. 그런 데에 사람의 마음이 헛갈려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도 여기 앉아계시면 천차만별로 다른 분들이 이렇게 같이 앉아 있죠? 그러나 모습은 다를지언정 어찌 마음이야 둘이겠느냐, 생명이야 둘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부처님들이 그렇게 계실지언정 내 마음은 항상 부처님테 가면은 부처님의 마음과 더불어 공했으니, 거기에다가 일 배를 하든지 삼 배를 하든지 칠정례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여유가 있는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일정례를 하고 급하지 않으면 칠정례를 하고, 더 급하지 않으면 삼천 번을 해도 좋습니다. 그건 자유죠. 자유스럽게 그렇게 여유가 있이 해야지, 만약에 마음이 급한데 꼭 삼천 배를 하랬다고 하고 하지 말랬다고 하지 않고, 일 배를 하란다고 일 배를 하고 쓱 돌아서서 나오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한 대로이니까요! 에누리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만큼 나한테 오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또 많이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지 마세요. 삼천 배가 한생각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가도 한마음이요, 칠성한테 가도 한마음이요, 지장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관세음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산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해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주림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지신을 찾아도 한마음이요, 모두가 한마음이니 마음은 체가 없어서 좁나좁나 들고 나는 데에 손색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됐다가 아내가 됐다가 또 형님이 됐다가 동생이 됐다가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습은 한 모습인데 그렇게 가지각색으로 좁나좁나 나투면서 그대로 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자유자재하시고 그렇게 나투시는 분이니까 겉모습만 보지 마라 이런 겁니다. 스님네들을 보고도 겉모습 고깃덩어리를 보지 말고 내 마음부터 알아야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내 마음부터 아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부터 알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상대가 없는 거라고 항시 말씀해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알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씨를 심어서 콩나무로 화했다면 콩씨를 어디 가 찾습니까? 네? 콩나무로 화했잖아요? 화한 콩나무는 여러분 몸이라고 볼 때에 콩나무에 콩씨가 또 붙었습니다. 그러면 콩나무에서 콩씨를 찾아야지 과거로 돌아가서 찾는다거나 미래로 돌아가서 찾는다거나 어디 두리번거리고 찾는다거나 이런다면 그것은 정작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까? 예를 들어서 수박도 그 콩씨와 다름없는 얘깁니다. 수박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관하고 화두를 삼아서 이거를 굴리다가 보면은 그 속에 씨가 들었는지, 땃이 어떤지 그걸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죽고 사는 그게 뭐 그렇게 겁납니까? 내일 죽은들 어떻고 오늘 죽은들 어떻고 모레 죽은들 어떻고 안 죽은들 어떻고, 뭐가 걱정입니까? 그냥 그대로 수박을 용기 있게 깨뜨려서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또 그냥 속성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이 세상에 난 게 화두인데 그 화두에다가 또 화두를 붙여서 찾는다면 얼마나 그게 미거한 짓입니까? 그래서 화두를 갖는다 하더라도 화두도 거기 놔야 됩니다. 화두 끊어질까봐 애를 쓰고 그런다면 10년, 20년 가도 도저히 자기가 자기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공했기 때문에 찾을 게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쥘 것도 없고 쥐지 않을 것도 없는 그런 공한, 바로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더불어 같이 먹고 있는, 내 육신 속의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이 통 속을 벗어나야 하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을 각 사찰에 모셔놨든 신중단을 모셔놨든, 하다못해 돌을 모셔놨든 상관할 것 없어요. 모두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부처다, 부처가 아니다.' 하는 대로 가는 거니까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만물만생이 다 내 스승 아님이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각자 찾으렵니까?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배를 타려고 뱃사공한테 가면 뱃사공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려고 공장에 갔다 한다면 그 공장 주인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치과에 엊그제 갔더니 정말 그 치과의 박사가 으뜸입디다! 그러니까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다 으뜸이에요.

> 죽고 사는 그게 뭐 그렇게 겁납니까?
> 내일 죽은들 어떻고 오늘 죽은들 어떻고
> 안 죽은들 어떻고 뭐가 걱정입니까?
> 그냥 그대로 수박을 용기있게 깨뜨려서 먹어볼 수 있는
>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벽을 치면 붓장이 울려야지.'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모른다면 백문선이 헛문선이죠. 그러니 내가 부탁할 것은 어느 법당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모두 일 불(一佛)의 한생각으로써 한마음으로써 부처님한테 지극하게 내 한마음과 일체제불의 한마음을 다 한꺼번에 하나로 모아서 일 배를 올린다면 천 배 올린 것보다 수확이 좋다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갔을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듭디까? 이 부처에도 놔야 하고 저 부처에도 놔야 하고,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자식이 어떻게 될까? 요 부처에 놓지 않으면 영감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또 재수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또 삼재가 들었으니 언짢으면 어쩌나? 이러한 까닭에 없는 살림에 몇 푼 가지고 가서 요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놓으려면, 어떤 때는 모자라서 그냥 나오고, 그러면 마음이 께름칙해서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인데, 한 부처님 앞에 그냥 고스란히 놓고 지극하고 정성스럽게 거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마음으로 모시면서 지극하게, 없으면 그렇게 하고 나오시고, 또 있으면 있는 대로 한마음으로써 놓으시고, 웬만하면 그 절에 주지스님을 찾아서 "모두를 위해 써 주십시오." 하고 갖다놓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거기 갖다놓으나 산 부처님한테 갖다놓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여러분 마음먹기 달린 겁니다.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백만 원짜리를 사러 갔다면 백만 원을 꼭 줘야 삽니다. 오십 원짜리 사러 갔으면 오십 원짜리는 꼭 오십 원짜리를 줘야 합니다. 오십 원을 주면은 오십 원짜리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 그것은 돈을 스님한테 준 사이도 없고 부처님한테 갖다놓은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또 가져간 사이도 없죠. 부처님이 준 사이도 없고 스님네들이 준 사이도 없죠. 그래서 준 사이도 없고 가져간 사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합니다. 이 뜻을 잘 알아서 행하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느 법당에 가보면 인등을 많이 켜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수억겁을 걸어오면서 부모가 됐다 자식이 되고 자식이 됐다 부모가 된 그 사실의 겁을 어떻게 대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등을 해놨을 때 마음의 인등을 켠 거는 비바람이 아무리 쳐도 꺼지질 않지만 그냥 등에다 불 켜놓은 거는 비바람이 치면 꺼져요. 요새는 또 전기로 켜놓는 거니까 전력만 나가면 그냥 꺼지죠. 그런데 마음의 등불은 전력이 나갔든 비바람이 치든, 억수장마가 들든 물에 잠기든, 산 속으로 들어가든 그거는 상관없이 꺼지지 않는다 이 소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있는 것이 인등이지 돈이나 몇 푼 스님한테 갖다 던져놓고 그것 켜달라고 쪽지나 붙여서 켜놓는 게 인등이 아닙니다. 그건 도깨비 등이지 인등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어느 스님네들은 날 욕을 하겠지만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정말 이거를 자세히 말을 하려면 길어서 끊어버리고 얘기하겠습니다. 요다음에 또 하죠.

세 번째로, 지금 위패를 다 붙여놓습니다. 위패를 붙여놓는데 지금 시대에 그게 걸맞습니까? 또 우리가 고상치도 못한데다가, 조상님들을 모실 때 그것은 모셔서 비뚤게 매놓는 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미국에 부모들을 모셔다가 영어를 못하니까 그냥 방에다 가두어놓고는 그냥 자기네들만 돌아다니는 것과 같이, 조상들을 꼼짝 못하게 위패를 해서 붙여놓고선 그냥 자유스럽게 나고 들지 못하게끔 해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조상을 나의 생명과 같이, 내가 또 조상이 되고 자식이 되고 하는데 거기다 꽁꽁 뭉쳐놓고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낼 때 부모를 모셔다가 대접하고서 그냥 또 자유스럽게 해드릴 수 있게끔 위패를 태워드리는 겁니다. 태워드릴 때도 물을 큰 그릇에다 떠다놓고 향 피워놓고 초 켜놓고 태워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식들을 가두어놔도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고 비뚜로 나가고 야단들인데, 체가 없다고 조상들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30면으로 계속

자기 발밑에서 깨우쳐야 돼요!

☞29면에서 계속

즉 조상이고 조상이 즉 우리들이니까요. 그렇게 해놓는다면 그 조상들이 빨리빨리, 우리가 개선을 해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또 천도를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고요. 음식을 잘 차려서 이렇게 해놓는다면 '너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고 쓰고 단 것을 먹어가면서 고생을 해라.' 하고 묶어 놓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밥 한 그릇 가지고 이 세상 만물만생을 다 먹이고도 밥 한 그릇은 되남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짜고 달고, 맛이 없고 있는 것을 쭉 차려놓고선 자꾸 관습에 얽매이고 집착에 얽매이고 그러게끔 만들어서 오히려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치가 지금 너무도 많습니다.

선종이 많이 태어나야 될 텐데, 모르는 어리석은 악종이 많이 태어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며,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그러죠. 과거 미래 현재를 한데 합쳐서 떡을 세 켜만 해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은 대로 일곱 켜를 해놓고, 많으면 아홉 켜를 해놓더라도 그저 세 켜만 해놓고 해도 되고, 또 세 켜를 못해 놓으면 한 켜만 해놔도 초, 향 그리고 큰 그릇에 물 떠서 상 옆에 하나 놓고, 너무 섭섭하걸랑 과일 세 가지를 한데 합쳐서 한 그릇에 놓고 지내면 벌써 조상들은 법당에 들어오면 어디부터 보는 줄 아십니까? 스님네들 마음부터 봅니다. 그러면 스님네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내느냐 하면은, 아, 재(齋)비용은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치를 흥정했고 얼마가 남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기부터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왔다가 위패로 돌아갑니다. 위패 옆에 꽃을 해놨다면 꽃에 응접하구요. 그렇게 자유스럽게 왔다가 자유스럽게 나퉈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보면 벌써 그 상이 덜 차려졌고 더 차려졌고 요런 것까지도 생각하게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 공부하는 스님네들한테 벌써 척 들어오면 삼계의, 삼세의 그 삼심이 일심으로써 그냥 광대하게 벌어진 것을 착 앎으로써 "허허!" 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써 벗어나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스님의 마음에 들어오면 스님의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그 차원대로 알고, 또 차려놓은 것도 그렇게 뜻이 있으니까요. 그 뚱근 안에 모두 들어서 천지가 다 내 천지이니까, 내 것 아님이 없으니 그 조상한테, 내 것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나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으니 어떤 것을 쳐야 되며 어떤 것이 될 때에 나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까지 조상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서 그런다면, 그 음식이 맛있고 맛없고 덜 차리고 더 차리고, 이런 데만 집착을 하고 온통 그냥 이집 저집 일가친척 집으로 다니면서 살아있는 것처럼 내 말도 듣지도 않고, 내가 와도 본척만척하고 이런다고 사단이 벌어지죠. 그래서 죽은 집에 가서,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정 안 하고 산 걸로 생각을 하고, 거기 어정거리다가 일가친척이 오면 자기를 본체만체했다고 탁! 그냥 그럴 수가 있느냐고 떠다박지르면 그게 병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생활 자체가 교재고 생활 자체가 바로 배울 수 있는 재료니까요. 이제 위패도, 재(齋) 지내는 것과 결부돼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이익하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셨지 해롭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나신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당시에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지금까지도 그냥 여여하게 살아계시고, 죽는다 산다 하는 게 없이 그냥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는 데에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모두가 다 으뜸이에요!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재 지내는 것 얘기해드렸죠? 천도재를 지내는데 억만금을 내놨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도재를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차려놓고 하질 않아서 싫다 한다면 나는 "가져가라." 이럽니다. 그러는데 그 재 지내는 것, 위패를 해놓는 것, 위패를 거기다 붙여놓고서 그러지 말고 지낼 때마다 위패를 접어서 하시라 이겁니다, 붙여놓지 마시라구요. 그러면 벗어나는 데 지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아무리 하셨어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다면 나도 못 벗어나는데 조상을 어떻게 벗깁니까? 그러하니 그렇게 아시고요, 또 한 가지.

이거 이왕 얘기하는 끝에 얘기하죠. 방생을 할 때에, 나는 방생을 하는 걸 보면 이런 생각이 난다고 얘기했어요. 8 · 15 해방 되고 나서 수없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드는데, 차 위에 모두 빽빽하게 들어서서 타고 오죠. 그런데 그냥 가다가 이리로 떨어지고 저리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고 이렇게 하는데, 참 가관이에요. 차를 내려서도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온통 서로들 헤매고 굶고서라도 그냥, 그 자기 집 찾아가느라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져가면서 가는 모습들을 볼 때 그 처참한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고기를 잘 노는 것을 잡아다가 말입니다, 진흙에서 노는 미꾸라지를 잡았다면 맹물에다가 딱 담가놓습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할까요? 미꾸라지뿐이 아니라 거북이랑 뭐 고기랑 모두 잡아다 놓으면 잡는 데 죽고, 잡아다 놨을 때 죽고, 갖다가 물에 넣었을 때에 죽고, 찾아가다가 죽고, 허! 몇 마리나 살리는 겁니까, 그게? 살리는 겁니까, 그게? 오히려 고문하는 거지. 냉철하게 따져보십시오.

사람을 그렇게 해보십시오. 사람도 그렇게 했죠. 일제시대 때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탄광으로 끌려가서 그렇게 했었죠!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지사 선덕을 쌓고 방생을 하려면, 지금 부모 없이 사는 애들도 많고, 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도 많고, 지금 먹는 게 흔한데도 먹지 못하고 흔치 못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구제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덕이 아닐까요? 그러고 방생을 하려면 차라리, 스님네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스님네들도 사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사찰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은 곤궁합니다.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사찰에 주지로 계신 분을 갖다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주지로 안 계신 분, 그냥 여기저기 다니며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생각해볼 수 있는 그 생각 말입니다. 그것이 공덕이 되지 않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해보면, 그르고 옳은 것을 전부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고등동물로 태어났어도 그르고 옳은 것을 모른다면, 부처님이 아무리 가르쳐도 그건 소용없는 일이죠. 이날까지 부처님이 가르쳐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습 저 모습 보인다고 해서 부처님이 아니라고 보지 마세요! 한국에도 역대에 일컫는 부처님들이 많이 나셨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많고요. 모습만 각각이면은 죄 각각이라고 보지 마세요. 모두가 한 부처 한 제자예요. 여러분까지도 말이에요. 일거수일투족이 다 그러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니었더라면 종교도 없고 상대도 없고 상대성의 원리도 없고 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올 때 형성시킨 장본인 선장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여북하면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몸뚱이는 허허바다에 띄워놓은 배와 같느니라. 그리고 그 몸뚱이 속에 들은 생명들은 중생으로 비유했느니라." 몸속에 중생들이 잔뜩 탔죠? 지금 여러분 오장육부 속에 얼마나 많은 중생들이 꽉 탔습니까? 비바람이 치고 그저 파도가 치고 이런다고 해서, 그 마음들 의식들이 다 제가끔 그냥 벌렁벌렁 뛴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여러분은 그냥 쓰러지게 돼 있어요.

만날 우리 남편 잘되게 하고 우리 자식 나가지 않고 공부 잘하게 하고 이러고만 있을 겁니까? 그대로 실천해야죠.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좋은 말하고 따뜻하게 행동을 해줘서 집에 들어오고 싶게 만들어주고, 안으로 맡겨놔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거기까지도 불이 들어와서 스스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강제로 욕을 하고 그 말이 씨가 돼서 오히려 자식들이 활발치 못하게 살게 만드는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모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모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자식을 잘되게 하는 마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상엔 그렇지 않다고 구박이나 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융통성 있고 지혜롭다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저 잘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깊이깊이 새기겠습니다."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자식이 잘된 줄 알고 기뻐서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관(觀)하는 도리를 가르쳐드리는 것도 돈이 드니 못 합니까, 무슨 노력이 드니 못합니까? 자기를 자기가 믿고 찾는데 뭐가 원통해서 못합니까?

그렇게 자녀들과 부모들을 다 그렇게 이끌어준다면, 승천을 하지 말래도 승천을 하게 돼 있어요. 벌써 죽기 사흘 전에 턱 하니 그리로 자동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요.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또 천안통 천이통 컴퓨터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된다면 입력대로에 나오죠. 그래서 입력이 그렇게 돼 있는데다가 입력을 다시 한다면 바로 누진으로 벗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벗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말이 좀 더듬거리고 좀 안됐다 하더라도, 배운 여러분은 잘 듣고 행하고 진실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천지를 획득할 수가 있고, 규모가 큰 것을 향해서 간다고 해서 크게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발밑에서 깨우쳐야 돼요!

※위 법문은 1995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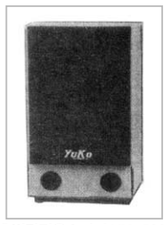
기적의치약 스님과 불자님!
지긋시긋한 치아
美國브라이트로 7일만 닦으시면 고생 끝!

스님? 7일만 닦으시면 고생 않하십니다.
스님? 세상에 서 제일 고통스럽고 참기 어려운것이 이가 아픈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스님만은 믿으세요. 저는 대전에사는 보살입니다. 대전에있는 사찰을 방문 하였을때 스님과 함께 공양을 하게 됐는데 1년전부터 치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양쪽 어금니를 뽑고나니 다른이도 흔들리며 잇몸도 낫벅고 하루하루 진통제에 의존해 왔고 병원에 자주 가야만 했습니다. 스님과 공양중에 이가 이파 잘 먹지 못하는것을 본 스님께서 미국구강학회에서 추천한 브라이트치약을 주시면서 아침저녁 7일만 닦으면 이가 좋아진다고 해서 마음속으로 병원을 다녀도 효과가 없는데 치약가지고 될까 의심하면서 스님께서 주시거라 아침저녁 사용하면서 4일째 되는날부터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돼고 찬물을 먹어도 이가 시렵지 않는 놀라운 효과를 보았습니다. 일반치약처럼 7일정도 사용하면 입냄세는 물론, 10일정도 사용하면 풍치, 잇몸부터, 잇몸농증, 찬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드실때 통증이 깨끗이 없어지며 누런이가 하얀이로 美白도 됩니다.
※ 五積중의 으뜸가는 치아를 보존하는데 기적의 약초 치약으로 충분합니다.
가격은 50,000원입니다.
수입판매원 금강닥터사
TEL:(02)2271-1441 농협:360-12-046446 최능우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교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 울 : 011-379-0667
강원도 : 010-3044-9708
경기도 : 019-690-4018
충청도 : 011-327-7697
경상도 : 010-9697-8580
전라도 : 011-368-0667
쪼은칼라지붕공사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당뇨병 희소식!!
당뇨로 고생하시는분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본 사찰에서 극비리 전해 내려오는 비법과 본인이 기도로 얻은 비방으로 당뇨를 해결해 드립니다.
1. 당뇨수치 높은 분
2. 합병증으로 고생 하시는 분
3. 발병한지 오래되고 약을 먹어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
4. 당뇨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
대한불교 해 월 정 사
경남 마산시 성호동 73-4번지
전 화 : 055)241-0374
휴대폰 : 011-833-0374
※ 남여 행자 모집합니다.

한가위 차례상 불심으로 풍성

불교식 차례로 조상 위하고 불심 키우고

20년째 절에 다니고 있는 김선미(53 · 경기도 군포)보살. 그동안 불교 경전도 열심히 탐독하고 큰스님 법문을 듣기위해 안 가본 사찰이 없다. 하지만 '불교식 차례법을 아느냐' 고 물으니 고개만 갸우뚱 거린다. 올바른 불교식 차례법을 가르쳐 주는 사찰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지만 불교식 차례상은 유교식보다 간편하면서도 알차다. 9월6일 '열린선원(원장 법현)' 에서 개최된 '추석맞이 불교식 차례 특강 법회' 를 통해 불교식 추석 상차리기를 배워보자.

술 대신 차 공양, 고기 생선은 피해야
차례상 좌우에는 소박한 꽃으로 장엄
父는 '선엄부…' , 母는 ' 선자모…' 로



불자들에게 올바른 불교식 차례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 9월6일 열린선원에서 봉행된 '추석맞이 차례법회'.

□ 차례상 차리기

불교식 차례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제주(祭酒) 대신 차(茶)를 쓰고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정신에 따라 고기와 생선은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동백서(紅東白西: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놓는다), 어동육서(魚東肉西:어물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좌포우혜(左脯右醯: 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등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평소 고인(故人)이 좋아했던 음식을 먹기 좋도록 놓아도 무방하다.

차례상 첫줄에는 과일과 과자, 둘째 줄은 나물류와 식혜, 셋째 줄은 채소와 탕류, 넷째 줄에는 전 송편(떡) 차, 다섯째 줄은 밥(메) 국(갱) 등의 순서로 차리며 차례상 좌우에는 국화 등 화려하지 않은 꽃으로 소박하게 장엄한다.

위패 모시는 것과 차례상 차리는 방식이 집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정석이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양식집에 가서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은 후 본 음식과 디저트를 먹듯 조상님이 드시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하는 음식을 순서대로 놓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식 차례법에서는 유교식과는 달리 병풍, 위패(지방), 사진 등은 상황에 따라 제외해도 무방하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위패를 쓸 때는 '선엄부(본관)(성)공(이름)영가(先嚴父本貫姓公이름靈駕)' 라고 쓰며 어머니의 경우는 '선엄부' 를 '선자모(先慈母)' 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위패의 경우도 '선조부(先祖父)' '선조비(先祖妣)' 로 쓰면 된다.



첫줄에는 과일과 과자, 둘째줄은 나물류, 셋째줄은 채소와 탕류, 넷째줄은 차와 떡, 다섯째줄은 밥과 국 순으로 차려진 불교식 차례상.

□ 차례의식(순서)

1) 미타거불(彌陀擧佛):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
나무극락도사 아미타불 (큰 절)
나무좌보처 관세음보살 (큰 절)
나무우보처 대세지보살 (큰 절)

2) 다게(茶偈): 차례상에 차를 올리며 "시방삼세 부처님과 청정 미묘하신 법과 삼승사과의 해탈 얻으신 승가에 공양하오니 자비를 베푸사 감응하여 주옵소서"라고 읊는다.

3) 청혼(請魂): 영가를 모시는 의식으로 "금일 고조, 증조할아버님과 할머님 영가시여 저희들이 모시는 추석(설) 차례에 강림하시어 감응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읊음 후 모두 큰 절을 두 번 한다.

4) 공양: 공양을 올리는 의식으로 숟가락은 밥에 꽂고 젓가락은 음식에 고르게 놓는다. "저희 자손들이 계, 정, 혜, 해탈, 해탈지견의 5분향을 공양하오니 자성의 큰 지혜를 발하고 반야의 밝은 등을 켜서 3계의 어둠을 밝히사이다. 조주스님의 맑은 차를 드리오니 목마름이 아주 없어지이다. 선계의 진품과일을 올리오니 맛보아 주소서. 진수를 올리오니 허기가 영원히 없어지이다. 오늘 조상님들께 올린 모든 진수는 저희 후손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올린 것이오니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쉬면서 조상님을 추모하는 담소 시간을 가짐)

5) 보공양진언: 숭늉을 올린 후 밥을 떠서 숭늉에 덜어 놓고 조상님과 다른 영가께 모두 공양되도록 하는 진언이다.
옴 아아나 삼바바 바아라 훔 (3번)

6) 보회향진언: 마무리하는 진언
옴 사마라 사마라 미마나 사라마하 자가라바 훔 (3번)

7) 발원: 원을 세우고 조상님에 대한 추모의 생각을 키우는 의식. "오늘 저희들이 올린 공양을 받으시고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으시어 아미타부처님의 국토인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고 저희 후손들이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으로 올바른 삶을 영위하여 깨달음을 얻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발원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10념) (큰절 2배후 헌식하고 그릇의 뚜껑을 닫고 위패를 사른다)

글=노병철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인터넷 활용, 불교식 차례 보급 앞장설 것"



"불자라면 당연히 불교식으로 차례 지내야죠."

9월 6일 서울 역촌동 열린선원 법당에서 올바른 불교식 차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석맞이 차례 특강 법회' 를 봉행한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사진 · 태고종 사회부장).

불가나 일반 가정에서 차례(茶禮)를 지낼 때에는 술이 아닌 '차' 를 올리는 것이 정석으로 알려져 있다. 불가에서는 육법공양 중 하나에 차가 포함되 있으며 다례식 때도 차를 올려 제를 지내는 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때문에 불교식 차례상에서 빠뜨려서는 안 될 첫 번째가 바로 차다. 법현 스님은 " '추석맞이 차례 특강 법회' 를 계기로 많은 불자들에게 올바른 불교식 차례법을 전수해 주는 기폭제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식 차례 보급에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심장은 마음 상태를 반영한다

티베트의학에서는 심장을 마음자리로 본다. 그래서 심장은 마음의 상태를 곧바로 반영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때 심장이 요동을 치기 때문에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사부의전>의 제3부 <비밀의전> '제34장 심장질환' 편에는 심장병의 여러 유형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심장질환의 원인은 온갖 탐욕과 이기심 야심 경쟁심으로 똘똘 뭉쳐진 마음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이다. 티베트의서에는 '만병에는 의당 원인이 있기 마련' 이며 '원인이 없다면 치료인들 어찌 가능하겠는가?' 라고 묻고 있다. 정신적 긴장은 심장활동을 도와 혈액순환을 주도하는 범습륭의 흐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장을 해치는 짓들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 전문경영인들은 시도 때도 없이 잦은 해외출장과 임원회의에 신규투자니 사세확장이니 이윤창출이니 생산성재고니 투자환경개선이니 하는 말들을 화두로 하루도 발뻗고 편한 잠을 청할 수 없다. 하루하루 빠듯한 일정을 소화해 내느라 그만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것이다. 그들은 회사의 몸이 되어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이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고 수면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며 체력을 돌볼 최소한의 휴식이나 여유를 생각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심장질환이 고임금 전문직 중년 남성에 가장 흔한 데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자들은 보통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눈물로 자신의 스트레스나 감정을 쉽게 털어내 버리지만 남자들은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스트레스를 꾹 눌러두는 쪽이기 때문이다. 심장질환의 또다른 주범은 고지방질 음식을 즐겨 먹는 식습관과 흡연 및 과음이다. 그러한 습관들은 모두 혈관이 좁아져 막히는 심장발작을 초래할 수 있다.

채식과 농경문화를 기틀로 한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심장마비나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은 그 이름조차 생소했다.

지금은 우리 전통사회의 식습관과 생활양식의 우수성과 숨은 지혜를 잘 헤아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건강사회의 미래상에 대해 깊이 고민해 볼 때이다.

티베트의서에는 일곱 가지의 심장질환이 기술되어 있다. 첫째는 광기(狂氣: 미친병)이다. 광기는 건망증 지남력상실 우울증 신경과민 불면증을 수반하고 숨이 가빠지며 탄식이 멎질 않고 혼자 말대답하며 물으면 대답이 없고 신체적으로는 통합 · 조정기능을 상실하는 증세들이 따른다. 현대의학에서의 치매와 비슷하다.

둘째는 협심증이다. 협심증에는 룽 장애로 인한 것과 혈(血) 장애로 인한 것 두 종류가 있다. 룽 장애로 생긴 협심증에서는 어지럼증 등통(腰痛) 호흡곤란이 있고 입과 혀가 바싹바싹 마르는 증상이 따른다. 반면에 혈의 장애로 야기된 협심증에서는 심한 흉통과 무호흡증 고정응시 그리고 혀가 마르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셋째는 심장염이다. 심장염에서는 두근거림(심계항진) 흉 · 배부(胸 · 背部)작열감 칼로 에는 듯한 심장통증 그리고 혀와 코가 바싹 마르는 증세들이 나타난다.

스트레스·탐욕·경쟁심 등은 심장질환 원인
한국, 서구화된 식습 보다 전통양식 지향해야

넷째는 심장에 체액이 불어나는(心臟流積) 심장병이다. 이 심장병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말수가 갑자기 많아지며 몸서리를 쳐대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성깔이 몹시 괄괄해지고 끊임없이 웃어대고 노래를 듣는 증세를 보인다. 다섯째는 우울증이다. 우울증은 건망증 식욕부진 막연한 근심 삶에 대한 무관심 몸속에 큰 바위가 들어앉은 듯한 느낌 그리고 수면과다 증세들이 나타난다.

여섯째는 개사상충(犬絲狀蟲)병이다. 이 심장병은 안구의 흰자위막이 거무스름해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침을 주체못해 질질 흘리고 동굴 속같이 암흑에 묻힌 느낌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아픔을 느끼게 된다. 마지막 일곱째는 심부전이다. 심부전은 태도는 다소곳하지만 성질이 과민해지고 위협적인 돌발 행동을 보이며 눈의 양쪽 바깥 시야를 보지 못하고 극심한 편두통과 함께 입이 비틀어지는 증상들을 수반할 수 있다. ■ 아주대교수 · 한국티베트의학원장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고급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5. 10. 4
월 · 화 반(주 · 야간 : 3개월 완성)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 울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2)2267-9136. 011-307-2975

"법회때마다 음향 때문에 고생 하셨다면…"

사찰에 설치된 음향이 대부분 단순히 확성기능의 음향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저렴한 가격에 스님의 법문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음향 시스템을 갖추십시오.

취급브랜드 JBL dbx AKG MACKIE crown



믿을 수 있는 회사와 제품을 원하신다면 스님이 운영하는 (주)야단법석과 상의 하십시오

전화 주시면 무료로 점검 및 음향 설계해 드립니다.

야단법석 문의 : 050-5844-0108 (관음사업부)

사원 모집
㈜야단법석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불법에 대한 신심을 더 중요시하는 회사입니다. 신행생활을 하면서 안정된 직장생활을 원하시면 야단법석과 함께 하십시오.
• 모집구분 : 지점장 - 남 0명, 여 0명. 사 원 - 남 0명, 여 0명
• 근 무 처 : 본인 거주지 • 문 의 : 050-5244-0108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 필름난방"

아직도 심야전기보일러를 생각하시고 (난방비 50% 절감)
전기온돌판넬을 생각하시고 (난방비 70% 절감)
기름보일러를 생각하시고계셨다면 (난방비 80% 절감)

최첨단 원적외선 복사열필름난방으로 생각을 바꿔보세요.

웰빙난방 기존 난방비의 80% 절감

※ 사찰에는 이런점이 유리합니다.
• 보일러기름을 미리 확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쓰지않던 방을 사용할때 하루전에 미리 보일러를 켜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본 난방은 5~6분이면 충분합니다.
• 한번 시공으로 건물수명대로 반영구적인 사용이 보장됩니다.
• 전국 사찰 시공경험이 많은 전문시공업체로서 사찰의 현실에 맞는 시공을 보장합니다.



■ 시공단면도

설치하면 좋은곳
법당, 요사채, 선방, 어린이집, 공양간 바닥과 벽 시공 가능

■ 본사 : 유성바이오텍(주)
■ 제품 : 정품(미국칼로리규사 제품)만을 취급합니다.

FILM HEATING FLOOR WARMING 대체에너지(주)
천안 · 아산총판(시공전문업체)

041)545-5593, 010-8120-3592

웰빙기수련원

기란?
기를 만지고 느낄 수 있다
자기 손에서 나온 기로 타인의 고통이 없어진다
자기 몸에서 나오는 탁기를 본인이 느낀다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에너지 요법
첫날부터 기를 느낀다면 믿겠는가?

치유기공 수련생 모집

◆ 이론은 있으나 실기가 안되는 분
◆ 실기위주 전문교육(집중교육)
◆ 3개월후에는 전문치유 기공사
◆ 기감 강화를 위해 전국 명산 수련
◆ 치유기공 과정 수료후 전국지부 개업 가능
◆ 개인지도 가능

교 육 내 용
• 기공의 종합이론 • 기감 증폭 수련
• 치유 특수 명상 • 자력 기공
• 타력 기공 • 치유 실습
• 염력 치유 기공 • 영적 치유 기공

치유기공 연구회 02)561-6488

바위는 우뚝 숲은 울창
생태·풍광의 조화


음식점, 숙박 시설로 가득한 대전사 진입로.


천연기념물 제270호로 지정된 망개나무


왕원추리와 산제비나비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7) 주왕산 대전사

주왕산은 매봉산, 일월산, 백병산, 통고산, 백암산, 보현산 등 1000m를 웃도는 고산준령과 함께 낙동정맥을 이루고 있다. 높이는 720m에 불과하지만, 튼실한 자연생태와 기묘한 풍광에서 손색없는 큰 산이다. 이웃에 고산준령을 두고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주왕산 지명과 관련된 전설에 신라 무열왕 후손인 김주원(金周元)과 당나라 때 반란을 일으킨 주왕이 등장하지만, 시기적으로는 모두가 의상대사가 대전사(大典寺)를 창건하고 난 다음의 일이다.

주왕산은 들어가는 주변 환경이 도무지 국립공원답지 않다. 음식점과 숙박업소들이 좌우로 밀집한 진입로는 시장통을 연상케 한다. 지난 2002년 환경부가 무질서하게 들어선 상가들을 자연발생취락지구로 변경해주는 바람에 더욱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다.

대전사는 마당이 넓지만, 가람배치가 산만한 것은 잦은 병화로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까닭이다. 경내 조경 역시 이렇다할 특징 없이 밋밋하다. 그런데도 대전사가 아름다운 절로 탐방객들에게 깊이 각인되어 있는 것은 보광전 뒤로 우람한 자태를 보여주는 기암(奇岩)과 주변의 자연때문일 것이다.

주왕산 들머리부터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는 기암은 마치 산(山)자를 세워 놓은 듯한 모양이다.

산내암자인 백련암 숲에서 매미가 자지러지게 울고 있다.

매미는 같은 나무에 여러 종류가 붙어산다. 그러면서도 한꺼번에 울지는 않는다. 한꺼번에 울면 자기 짝들이 짝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매미는 말매미대로, 유지매미는 유지매미대로 또 참매미는 참매미대로 각기 따로 운다. 자연의 질서는 이렇게도 신비하다.

백련암에서 광암사로 가는 묵밭 길에는 돌콩, 새팥, 쥐방울덩굴, 박주가리, 갈퀴나물, 고들빼기, 망초, 개망초, 달맞이꽃들이 어울려 저들의 세상을 이루고 있다. 산자락과 개울가로는 노인장대풀, 사위질빵, 꽃며느리밥풀, 맥문동, 마타리 등도 관찰된다.

화사한 묵밭은 나비들의 야유회가 열리는 곳이다. 산제비나비, 사향제비나비, 네발나비, 모시나비, 상제나비, 왕세줄나비, 꼬리명주나비 등이 날아든다.

산제비나비는 1년에 두 차례 나타나는데, 봄에 나타나는 것보다 여름에 보이는 것이 좀더 크다. 날개 표면 중앙에는 황록색의 비늘가루가 발달해 있고, 뒷날개 뒷면의 황백색 띠무늬가 선명하여 다른 제비나비와 쉽게 구별된다. 이름 그대로 산속의 계곡에서 많이 관찰된다.

백련사에서 계곡을 건너오면 주방계곡이 시작된다. 계곡의 초입에 해당하는 기암교-자하교 구간은 자연 휴식년제 구간으로 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주왕산이 자랑하는 산철쭉도 이 구간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

대전사에서 주왕암과 폭포골로 가는 길은 걷고 싶은 사찰 숲길 가운데 하나이다. 갈참, 굴참, 졸참, 떡갈, 신갈 등 참나무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엽수들이 띠숲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군계일학은 천연기념물 제207호인 망개나무이다. 망개나무는 씨앗의 발아율이 극히 낮아서 멸종할 위험이 매우 높은 나무이다. 현재 주왕산을 비롯해서 월악산-주흘산-속리산 등 일부 백두대간 지역에만 분포되어 있는데, 모두가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있다. 둥근잎꿩의비름꽃은 망개나무와 함께 주왕산에서 보호되고 있는 희귀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곳 주왕산에서만 분포하고 있는 희귀종이다. 돌나물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꽃으로, 가지 끝의 잎은 분청색을 띠며, 둥글고 두툼하다. 진분홍빛 자잘한 꽃송이들이 주먹처럼 뭉쳐서 피어난다.

숲길과 함께 하는 주방계곡은 주방천의 상류로, 갈겨니가 우점종으로 서식하고 있다. 갈겨니에 비해 몸집이 작은 버들치는 얕은 계류에서 관찰된다. 대전사를 지나면 강폭이 넓어지면서 물고기의 종류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몇 해 전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주방천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가 약 27종이라고 한다. 그 가운데 자가사리는 환경부에 의해 보호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주방천은 새들의 무대이기도 하다. 호반새, 물까마귀, 물총새, 큰유리새 등이 대전사 주변 주방계곡에서 관찰된다. 여름 맹금류로는 붉은배새매, 소쩍새, 새매, 수리부엉이, 솔부엉이 등이 서식하고 있다.

팔각정에 이르면 오른쪽 계곡 건너 주왕암으로 가는 길이 나 있다. 주왕암은 대전사 '큰 절'에 견주어 '안 절'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주왕암 약수는 물을 마시면 지혜로워진다는 '총명수'로 소문이 나 있으나, 주왕굴로 올라가는 철제 사다리가 약수터 위로 지나가고 있어서 등산객들의 신발 등으로부터 흙과 이물질 등이 떨어져 약수로 스며들 위험도 높고, 장마철이 되면 지표수가 그대로 흘러들어가게 되어 있다. 게다가 관리가 부실하여 여름철에는 벌레들이 들어갈 위험도 높다. 수시로 수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왕암 앞 숲길로 생태탐방로가 이어진다. 주왕산은 전체적으로 소나무와 활엽수가 분점하고 있다. 주왕산은 산의 경사면에 따라서 소나무림과 활엽수림의 분포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전형적인 식생대의 천이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연화봉, 병풍바위, 학소대, 급수대, 시루봉 등이 어울어진 협곡은 기암절벽들이 노출되어 있어서 암극식생의 다양성을 잘 보여준다. 바위 절벽에 곡예 하듯이 붙어서 자라는 부처손은 암극식생의 대표적 식물이다. 부처손은 망개나무와 둥근잎꿩의비름꽃과 함께 주왕산의 환경지표종이다.

편백잎과 흡사한 부처손의 잎은 부채살처럼 퍼져서 자란다. 상록성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라 습도에 민감하다. 물기가 공급되지 않거나 공기 중 습도가 낮으면 흡사 아이들 주먹처럼 잎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린다. 그러다가 비라도 내려서 습도가 올라가면 다시 새파랗게 되살아난다.

글 · 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음식점 · 숙박업소 등으로 시장통 연상, 잦은 병화로 가람배치 산만
망개나무 등 희귀 보호 식생 관찰, 부처손은 주왕산의 환경지표종


대전사는 우람한 자태를 보여주는 기암과 주변의 자연환경이 아름답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1회 특별 법회는 2003년 12월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간, 티베트 망명정부가 자리하고 있는 다람살라 남걀 사원에서 있었습니다. 이 특별 법회의 의미는 참으로 큰 것이었습니다. 달라이라마께서 한국 불자에게 하신 최초의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한국 불자와 달라이라마의 만남은 많았습니다. 거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회는 달랐습니다. <입보리행론>을 교재로 삼아, 제1장 보리심 공덕 찬탄품부터 제4장 보리심 불방일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달라이라마께서 그 의미를 짚어가며 읽어내려 가셨습니다. 경전 속 활자에 불과했던 샨티데바의 가르침이 우리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샨티데바의 가르침에 달라이 라마의 숨결이 더해지면서 <입보리행론>은 수행 지침으로 되살아 난 것입니다.

2004년 10월 델리에서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2회 특별 법회가 봉행되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이 법회에서는 <입보리행론> 제5장 호계정지품부터 제8장 선정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 2회 특별 법회 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일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의 제안으로 제2장 죄업 참회품을 독송을 하던 순간, 강당을 가득 메웠던 낭낭한 독송 소리는 조용한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티베트 학승과 티베트 불자까지 젖어들은 조용한 울음이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동안 한국 불자를 위한 달라이 라마의 제3회 특별 법회가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에서 봉행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는 매번 법회를 시작할 때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법음을 열어갑니다.
아주 상세하고 구체적인 달라이라마의 가르침은 우리를 부처님의 가르침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며, 신행의 목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줄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이 펼쳐지는 순간을 함께 하십시오.

입보리행론<入菩提行論> - 보살행의 실천에 들어가는 길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꽃인 '보살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입보리행론>은 총 10장 - 제1장 보리심 공덕품, 제2장 죄업 참회품, 제3장 보리심 전지품, 제4장 보릭심 불방일품, 제 5장 호계 정지품 제 6장 인욕품, 제7장 정진품, 제8장 선정품, 제9장 지혜품, 제10장 회향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샨티데바의 <입보리행론>은 티베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가르침입니다. 이를 반증하듯이 여러 종의 번역본과 종파별로 수많은 주석서가 있습니다. 10세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보리행론>은 대승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아주 쉽게 전달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교재 입보리행론은 청전스님이 우리말로 번역한 것을 드립니다.**

"……보리심이라는 것이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리심에 대해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즐거울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즐거움에서 오는 우월감, 자만심, 다른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슬플 때 보리심을 수행하면 절망이나 좌절 때문에 극단적인 행동 등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보리심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겨우 몇 달, 몇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허공계가 다할 때까지 기억하고 실천하겠다고 원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자주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허공이 존재하는 한
중생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여기 머물러
중생의 고통을 소멸하게 하소서. (입보리행론 3장 보리심 전지품 22)

이렇게 기도를 하면 내면에 힘이 솟아 오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제 인생에 뚜렷한 목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2003년 12월 28일 한국인을 위한 법문 중에서..

행사일정
A팀 : 12월10일 - 19일(10일간) -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20만원)
인천-델리-다람살라-델리-인천
• 장 소 : 인도 다람살라 남걀사원 대법당

B팀 : 12월 3일 -18일(16일간) - 불교성지순례와 법회동참 일정 (동참금 265만원)
인천-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기원정사-다람살라(법회)-델리-인천
• 주 관 : 여수 석천사 (진옥스님 061-662-1607)

※ 참가신청 및 문의 : 본 행사는 법회진행비가 포함되어 있어 신청하신 분들만 참석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문을 발송해 드립니다.

Silkroad (주)실크로드여행사 전화 : 02)720-9600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MAHAMALL
www.mahamall.co.kr

3,000여종의 불교용품을 앉은자리에서 편안하게 쇼핑하고 받아보세요!!



M 테마상품을 한눈에

연실악세서리 / 불교카렌더 / 봉축행사용품 / 시계방 / 희담석 건강용품 / 달마도



M 주간 베스트 상품

베스트상품은 상하로, 세일상품은 좌우로 엑티브하게 움직이는 화면으로 편리하게..



M 스님용 추천상품

스님들께 엄선하여 선정한 스님용 추천상품



M 마하몰 까페

고객들의 편안한 쉼터로 고객들만의 카페 신설

M 강력한 불교정보 검색가능

불교인물검색, 불교용어사전, 불교 단체주소록을 마하몰에서 검색하세요.




봉축현수막, 연꽃리본 등 다양한 봉축행사용품


연꽃등, 만월등, 청사초롱 등


불교 캐릭터시계와 엔틱시계가 한자리에


달마도의 대가 청곡 이한동선생의 달마도를 마하몰에서 만나보세요.


아로마향, 들꽃향, 참솔향, 한방향 등 웰빙시대의 천연향


특허받은 건강에너지 별똥별 보석염주


불상조성전문가들이 제작한 불상


살아있는 연꽃열매를 몸에 지닌다 연실 악세서리


불자들이 갖고싶어하는 반야심경 반지, 목걸이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을 늘인 무공해식물성양초


명상음악, 찬불가, 독경음반 등


탁월한 효능으로 인정받은 희담석 건강용품


사찰용 냉,난방기와 고급무선찻주전자 등


백련대축제가 열리는 동양최대의 백련 자생지인 전라남도 무안의 백련차 세트


2006년도 불교 카렌더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주문전화 02-2004-8218~9

Mahamall.co.kr 02-732-1520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현대불교

불기 2549년(서기 2005년) 9월 14일 수요일(음력8월 11일)

제 543호(부록) buddhanews.com

2~6면 □ 깨달음으로 가는 길
8~9면 □ 한국의 율사들
10~11면 □ Q&A로 본 계율
12~13면 □ 책속에 살아 있는 계율
14면 □ '지계 제일' 불자들

戒律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

부처님이 최후에 남긴 일성이다. 불자가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자신의 본성과 계율뿐이라는 부처님의 사자후다. 계율은 선정(定)과 지혜(慧)를 얻기 위한 공부의 첫걸음이 된다. 마치 그릇이란 게가 금이 가거나 깨지면, 선정이란 물이 고이지 못하고 물 밑바닥을 훤히 들여다보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 것과 같다.

계율이 이 같이 중요함에도 불교계의 계율 인식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일부 출가자들은 깨달음만 얻으면 된다는 식으로 막행막식을 개의치 않으며, 재가자들은 제대로 된 계율 교육을 받지 못해 그 중요성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

8월 5일부터 10월 9일까지 동화사에서 열리는 계율수행대법회가 '깨달음으로 가는 사다리'로 계율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고 있다. 동화사(주지 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공동으로 주최한 계율수행대법회에는 매주 토요일 1천여 불자들이 모여 계율의 성립과정부터 경전속의 지계정신, 종단제도, 한국불교의 계맥전승 등 계율의 전반적인 문제를 공부하고 있다.

이번 계율대법회는 대중법회로는 첫 법회라는 의미뿐 아니라 재가불자들에게 '계율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반응이 뜨겁다. '불자로서 첫 관문인 수계→깨달음을 얻기 위한 지계→끝없는 자기다짐의 참회'로 이어지는 계율수행이 개개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현대사회에서의 생명경시, 환경오염, 빈곤 등의 문제해결에 열쇠가 된다는 점을 이번 대법회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법회를 계기로 불교계 안팎에서는 지계수행의 확산을 위해서는 현대사회 흐름과 계율의 관계를 재해석하는 시도를 비롯해 계율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도록 계층별·연령별 계본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김철우 · 사진=박재완 기자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02)2004-8211~2 ● 구독료는 자동이체나, 전화요금에 합산해서 내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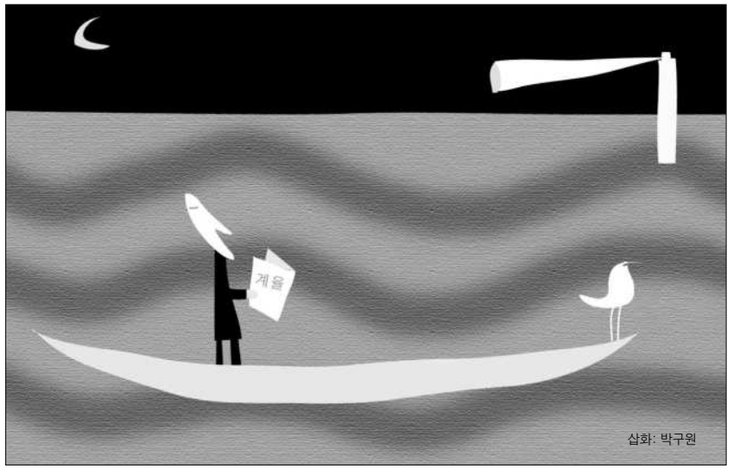
戒律 잘 지키면 청정한 마음 얻어

"계를 지녀 신구의(身口意)를 깨끗이 하고
섭심하여 생각을 바로잡으며
다문하여 진실지를 나타내나
계율은 이들의 바탕이 되네.

계율은 미묘법을 간직하는 곳
그대로가 출세간의 재보(財寶)가 되고
계율은 큰 배를 타고 감과 같은 것
생사의 저 고해를 건네어 주네.
계율은 청량한 연못이 되어

모든 중생 열뇌(熱惱)를 모두 식혀주고
계율은 두려움 없는 이슬이 되어
중생의 사독해(邪毒害)를 제거해 주네."

<범망경> 보살계 '계율찬'의 일부분이다. 계율수행을 왜 하는지, 또 계율이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표현한 주옥같은 게송이다. 계율은 올바른 행을 몸에 익히고 이를 기반으로 깨달음으로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메시지다. 그럼 계율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으며, 그 의미는 무엇일까?



삽화: 박구원

계율(戒律), 너는 누구냐?

하나의 행동 규범이다. 해서는 안 될 일을 제시한 금지 조항이다. 불교의 계율을 이렇게 이해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피상적인 이해로는 계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알기 힘들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를 신이나 절대적 존재에 매달려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존재의 참모습을 여실히 보는 지혜의 가르침이 불교이기에 그렇다.

계율이란 무엇인가? 혜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은 "계율은 '열반의 산'을 오르는 탄탄한 발(戒足)"이라고 말한다. 계의 발이 튼튼해야 악행을 그치고(止惡) 선을 행해(行善) 자기를 극복하고 남을 이롭게(克己利他) 하는 것이다. 때문에 계행 없이 얻어진 '삿된 정(邪定)'과 바른 선정 없이 얻어진 악혜(惡慧)로는 열반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이처럼 중요한 계율은 선정에 앞서 몸과 행위를 다스리는 계학(戒學)이 된다. 따라서 계학은 선정과 지혜를 얻기 위한 공부의 첫걸음이다. 깨침의 사다리에 오르는 첫 단계가 곧 계학인 것이다.

계와 율의 차이는?

계와 율은 그 성격을 달리한다. '계'라는 말의 인도 원어 실라(Sila)는 '명상하다, 봉사하다, 실천하다' 등의 뜻을 가진 동사에서 파생해 습관, 행위, 성격, 경향 등의 의미를 지닌다. 습관이나 행위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있지만, 그냥 '계'라고 말할 때는 '선한 계'를 의미한다. 그래서 계는 '선한 습관, 선한 행위, 선한 성격' 등의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계의 보다 중요한 의미는 자발성에 있다. 자발적으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라는 것이지 단순히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지적 조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는 주체성이나 자발성을 강조한다.

선정 · 지혜 얻기 위한 공부의 첫걸음
계-자발적 행위, 율-공동 생활 규범
절대성 아닌 '상황 윤리적 성격' 강해

가령 이런 식이다. 불살생계는 '죽이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나 금지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다는 결의다. 또 그런 다짐을 반복해 간직함으로써 몸에 완전히 배이게 하는 행위인 것이다. 불교 교학에서는 어떤 계가 일단 몸에 배이게 되면, 그 사람이 계를 무의식중에 범하려 해도 이미 습관화된 계의 힘이 작용함으로써 그 사람은 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고 한다. 전문 용어로는 그런 잠재력을 계체(戒體)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계를 실천하는 사람은 선한 행위를 반복해 습관적으로 익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는 자연히 위엄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계를 '위의(威儀)'라고도 한다.

반면에 '율'이라는 말은 비나야(vinaya)라는 원어를 번역한 것인데 '제거, 훈련, 교도'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의미가 공동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생활 규범을 일컫는 말로 진화됐다. 그리고 이 말 자체는 타율성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역에서는 '조복(調伏)'이라고도 하고 원어를 음역해 '비나야(毘奈耶)'라고도 쓴다.

'수범수제(隨犯隨制)' 원리로 만들어져

이러한 불교의 계율은 일반인들의 소박한 믿음과 달리 처음부터 부처님이 정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계율이라고 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가르침을 펼치는 과정에서 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공동생활의 질서가 필요하게 됐고, 그 때마다 '이것은 이렇게 하자'고 하나하나의 계율을 만들어나간 것이다.

그래서 이를 '수범수제'라고 한다. 잘못이 발생할 때마다 계율을 제정했다는 뜻이다. 불교의 계율은 다른 종교의 계명처럼 절대 명령이기보다 '상황 윤리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부처님은 계율 적용에 항상 융통성을 보였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적용되던 계율은 부처님이 입멸한 뒤에 오히려 고착화되기 시작했다. 부처님이 입멸하기 전에 '소소계(小小戒)는 버려도 된다'고 아난다 존자에게 말했지만, 아난다 존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묻지 않았다. 또한 제1결집에서도 버려도 될 소소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규정지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결집에서는 '부처님이 제정하지 않은 조항은 새로 제정치 말고, 부처님에 의해 제정된 것은 버리지 않고 지키도록 하자'고 결의했다.

참회하는 마음 갖는것이 계율 잘 지키는 것

계율은 깨침으로 이끄는 나침반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계율이다. 바른 생활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선정, 바른 지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계율수행의 요체는 무엇인가. 과거칠불, 즉 모든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가르친 법문이 바로 '칠불통계게(七佛通戒偈)'다. 그 내용은 '제악막작(諸惡莫作) 중선봉행(衆善奉行) 자정기의(自淨其意) 시제불교(是諸佛敎)'로, '무릇 온갖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만 행해 자기의 마음을 맑힘이 불법의 요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참괴심(慚愧心)'이 계율의 기본이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은 선과 악이 뭔가를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절대로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참회다. 그런 측면에서 계율은 '수계와 지계, 참회', 이 세 가지에 있어서 핵심이다. 수계는 맑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고 약속이다. 만약 계를 어겼다면, 그것을 덮어두고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늘 참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다. 참회를 함으로써 우리는 청정하게 맑게 거듭 태어나게 된다. 청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 앞으로 일정

9월 24일	각묵 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현대사회에 있어서의 율장정신
10월 1일	경성 스님(중앙승가대 강사) -율장정신에서 본 종단의 제도
10월 8일	지관 스님(가산불교문화연구원장) -한국불교 계맥의 자주적 전승
10월 9일	회향 • 보살계수계대법회

※증명: 보성(조계종 전계대화상) 진제(동화사 조실) 범룡(동화사 비로암 조실) 스님
※3사: 지관(전계) 혜정(갈마) 종진(교수) 스님
※7증: 지성 수성 지우 지하 도영 흥교 문인 스님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6시
- 문의 : 동화사 (053)985-4404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1
- 법회 전체 동영상 중계
  donghwasa.net와 buddhanews.com
  매주 현대불교신문 24~25면 법문내용 소개

계율 제정 의미 10가지

부처님이 설명한 계율 제정의 이유는 <사분율>권1에 나온다. 전문적으로는 계율제정의 10가지 정당성이란 의미의 십구의(十句義)라 부른다.

①대중의 통솔을 위해서이다. 제자가 많아지자 수행자의 근본을 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계율이 필요했다. ②대중의 화합을 위해서이다.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개성을 발산하며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 많은 불협화음을 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③대중의 안락을 위해서이다.

이어 ④통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⑤참회한 사람들의 안락을 위해 ⑥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입문시키기 위해 ⑦입문자의 신심을 증장시키기 위해 ⑧현세의 번뇌를 끊도록 하기 위해 ⑨후세의 욕망을 끊기 위해 ⑩정법이 영원히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자연 속에 천둥, 번개칠 때의 대기정화 방식
새로운 기술방식의 공기청정기


model:XL-15


model:Fresh Air

공기청정기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자연의 원리를 재현한 'Living Air'의 특성"

無균 천둥 번개가 일어날 때 지구를 정화해 주는 원리를 도입하여 실현된 100%살균 능력으로 신선한 공기 생성.
無필터 신소재 린트스크린 방식으로 필터 교환의 번거로움이 없어 비용이 절감되고 성능의 저하를 막아 줍니다.
無소음 Thunderstorm Theory의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되어 작동의 소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반영구 추면 신소재 스크린과 카드플레이트의 세척만으로 반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소형 높이 30cm, 폭20cm, 무게8kg 으로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이동 설치가 가능합니다.
신뢰성 미국과 캐나다환경 보호청 및 국내 산업공해연구소의 시험 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으로 미국내 공기 청정기 시장에서 최고의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조작기능 5명에서 84평까지 공간에 알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자연의 신선한공기 우리가 꿈꾸는 내일

자연에서는 공기가 천둥번개와 비로 인하여 깨끗해진다. 천둥번개는 오존을 생산하고 또한 양이온과 음이온을 발생하여 자연적으로 공기를 정화 한다. 비는 오존과 이온을 지구표면에 가까이 내려오게 한다. 오존과 이온은 대기의 오염물질에 부착하여 공기중의 오염물질을 제거 하고 지상에 떨어지거나 산화 시킨다. 리빙에어는 야외의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인공적인 환경을 만들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자연적인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 기기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 공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리빙에어는 공기를 여과하거나 나쁜 증세를 가리거나 희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기를 청정한 상태로 정화하는 것이다. 이온화는 공기중에서 먼지입자와 오염물질을 충전시켜 더 끌어당기게 함으로서 제거하는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한다. 입자는 계속적으로 더 큰 입자로 커지다가 결국 그 무게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기 중에서 떨어져 내린다. 그리고 오존은 먼지에 남아있는 세균을 살균해 준다. 이 모든 순수한 오존이 그 본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은 Living Air의 생성 및 Fan에 의한 송출방식으로만 유지된다.

미국 Ecoquest사 제작 수입완제품이며 탁월한 기술력으로 스피커만한 크기로 84평까지 청정지대로 유지하며, 필터가 없으므로 교환의 수고가 없고 구입 후 별도의 유지비가 전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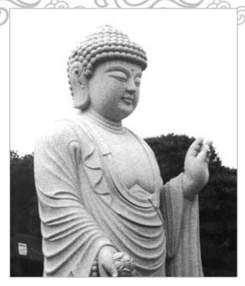
인증서
▶ 산업공해시험성적서 : 오존수치(세계안전 오존(O_3) 안전수치 0.05ppm이하)
▶ CSA : 캐나다 표준협회 발행 산업안전규격 승인청
▶ EPA : 미국 환경보호청(검사인증서) ▶ 미국방성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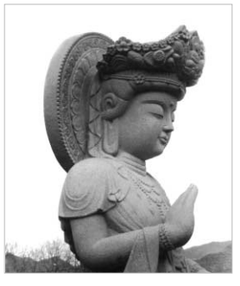

◀ 고려대학교 환경의학연구소 발행 분진, 수은 검사 측정결과서

다중 시설에 필요한 공기청정기 사찰 및 복지기관에 꼭 필요합니다.

TEL : (02)2055-0202 FAX : (02)2055-0279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93-7 이오빌딩 518호
www.o2air.net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 031)531-5349 / 휴대폰 : 010-7474-5349



불자들은 오계와 보살계를 받지만 지계 '따로' 생활 '따로'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계를 수지하지만 철저하게 지키려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데 계를 목숨처럼 여기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불자들이 있다. 이들은 "계는 타의적 구속이 아닌 올곧은 마음으로 불법을 닦기 위한 수행의 방편"이라고 입을 모은다. 생활 속에서 오계를 서릿발처럼 지키고 있는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명예회장과 학원강사 김민정씨를 만나봤다.



땅만 보고 다니는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 명예회장

"불살생(不殺生)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한불자가수회 남강수(68 · 법상) 명예회장은 오계(五戒) 중 불살생 계목만큼은 15년간 철두철미하게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 남회장의 오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남다르다. 남회장은 15년 전 오계와 팔재계를 수지한 후부터 걸을 때 땅만 쳐다보고 걷는다. 바로 개미 등의 곤충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그는 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밤에 외출도 삼간다. 부지불식간에 발로 곤충들을 밟지 않기 위해서다.

남회장이 이처럼 오계를 생명선처럼 지키고 있는 이유는 15년 전 원효종 종정 법홍 스님과의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간장과 장아찌만으로 공양했던 법홍 스님의 청정한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오계를 받으며 불살생만큼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스님과 약속했어요. 그 약속은 부처님과 맺는 것과 같잖아요."

그 이후 육식을 철저히 금하고 있다. 15년 동안 주위에서는 '이제 그만큼 오계를 틀림없이지켰으면 가끔은 좀 풀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친다.

"미물 밟을까 두려워 밤 외출도 꾸~욱 참지요"

오계점검일지 쓰고 하루일과 반성

사실 그동안 음식 때문에 겪는 대인관계의 어려움도 많았다. 동료들과 설렁탕집에 갔을 때 고기대신 면을 넣고 먹으면 핀잔 아닌 핀잔을 들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해외공연이나 경로잔치 등에 갔을 때, 따로 식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그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주위의 따가운 시선도 부담이었다. 그래서 해외공연이나 위문공연 갈 때는 과일과 옥수수를 식사대용으로 가져간다. 이런 남회장의 마음을 알아준 가족의 배려와 격려도 지계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됐다. 그러다보니 남회장네는 아내와 딸도 육식을 하지 않는다. 콩과 두부 등으로 부족한 영양을 섭취한다.

남회장은 불음주 계를 지키는 데도 남다른 열의를 보인다. 연예활동을 하다 보면 거의 매일 회식과 술자리가 생겨 불음주를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공연이 끝난 후 회식자리에서 술을 몰래 버리다 들켜 선배들에게 호되게 혼난 적도 많았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금기시하면 합수록 선 · 후배들과 점점 멀어져 간다는 느낌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과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때문에 '직업인이니까 불음주는 파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한 적도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음주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과의 약속은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는 초발심의 신심으로 극복해 냈다.

때론 노래를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정 계행만은 기필코 실천하고 싶다고 말하는 남회장. 그는 "'내 몸과 마음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오계를 수지하고 실천하면 그것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다"고 말한다.

특히 남회장은 "오계를 어겼을 시 아전인수격으로 자기합리화를 시키는 것을 제일 경계해야 한다"며 "일기형식으로 오계점검일지 써 하루 일과를 반성하고 오계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면 일상생활에서 오계를 지키기가 훨씬 수월하다"고 조언한다.

노병철 기자

학원 학생에게 스마일 쪽지 보내는 **김민정** 씨

"불망어(不妄語)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친절한 말과 칭찬이라고 생각해요."

입시학원 영어 강사인 김민정(39 · 법승행)씨. 그녀는 일상생활 속에서 오계를 지키며 살기란 의외로 쉽다고 자신 있게 말한다. "오계의 불망어를 '말조심하기' '아름답고 예쁜 말 사용하기' '칭찬하기' 등으로 풀어서 해석하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다"고 김씨는 조언한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김씨는 수업시간 전에 사탕과 초콜릿을 학생들에게 나눠 준다. 입시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콤한 사탕으로 잠시 잊고 다시 활력을 찾으란 의미에서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은 사탕이 아니라 김씨가 사탕과 함께 건네는 '스마일 쪽지(김씨가 직접 만든 활짝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때문이다. 스마일 쪽지는 웃고 있는 이모티콘, 명언, 불교경전 문구 등 다양한 내용으로 채워진다.

"요즘 중 · 고등학생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너무 살벌해요. 그렇다고 불교경전의

"부드러운 말 한마디 불망어계 지키는 길이죠"

매일 새벽 108배 참회기도 · 오계 실천

원론적인 내용만을 청소년에게 소개하면 오히려 거부 반응만 보이더라고요. 쪽지는 불망어의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방편이죠."

사실 김씨는 15년 전만해도 선교를 위해 매일 신방을 다니던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 그러던 김씨가 불교로 개종한 이유는 통성기도, 새벽기도, 신방 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차에 부친의 소개로 김씨는 청화 스님을 친견한 후 차츰 불교에 귀의하게 됐다.

"청화 스님은 저에게 지계와 보시를 강조하셨죠. 스님은 말로써 업을 짓는 것을 가장 경계하라며 '옴마니반메훔'을 늘 외울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김씨는 오계를 철통같이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더군다나 말로써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김씨는 오계 가운데서도 '불망어' 항목은 남다르게 다가왔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 잘 못된 지식을 가르치는 것, 상처 주는 말 등이 학생들에게는 평생 동안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힐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물론 15년 동안 김씨가 오계를 지키는 일이 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항상 부드러운 말과 웃는 얼굴로 학생들을 대하다 보니 김씨를 만만히 보고 가끔은 욕하고 대드는 학생들과 부딪칠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보증을 서달라는 사람도 많았다. 또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에서도 불망어를 지키는 것은 결코 녹녹한 일이 아니었다.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고 싶어 하는 자녀들 공부를 봐줄 때 짜증도 부리고 화를 내고 때론 회초리를 들었을 법도 하지만 그때마다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새벽 108배 참회기도였다. 새벽 108배 참회기도는 김씨에게 단지 수행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일종의 오계 점검시간과도 같다.

김씨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자신에게 엄격해지면 오계는 '구속'이 아닌 깨달음으로 향해 가는 '대자유'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108배를 하며 오계를 점검하면서 매일매일 제 삶을 점검하고 신행의 성취감을 느끼며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질

"부처님께서 금강수보살(金剛手菩薩)에게 이르셨다.

'무생계(無生界)는 모든 성자(聖者)를 세우는 땅이며, 온갖 선행(善行)을 생기게 하는 터니, 터(땅)를 만들지 않는다면 어찌 성스러운 선(善)이 설 수 있겠는가?

모래를 쪄서 밥을 만들려 한들 어찌 이루어질 때가 있을 것이며, 똥을 파내어 향을 만든다고 될 리가 없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가려면 반드시 자비의 배를 빌려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려면 모름지기 지혜의 횃불을 켜 들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온갖 중생도 이 계를 지키지 않으면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는 말이 안 된다. 이 계는 온갖 승속(僧俗)이 누구나 수지(受持)해야 한다."

<무생계경>

수계(受戒)는 불제자가 되는 필수과정이다. 즉 '작선(作善)'과 '이타(利他)'를 위한 자기선언이 바로 수계다. 즉 부처님의 행을 닦기 위한 첫 출발점인 셈이다. 그럼 계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계를 어떻게 받을까? 계를 받는 의미는 무엇이고 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알아본다.



수계는, 계의 정신에 동의하고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지켜 불자로서 살겠다는 자기 맹세다. 사진은 2004년 열린 동국학원 초 · 중 · 고등학생 합동수계법회에서 연비를 받고 있는 학생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수계 - 청정 회복 · 악업 정화 … '면죄부' 아니다

수계, 왜 생겨났나?

수계는 초기 불교교단에는 없던 제도다. 최초의 5비구 중 한명인 콘단나(驕陳如)에게 부처님이 한말은 "오라 비구여"였다. 이 말이 곧 최초의 수계였다.

하지만 처음 제자 5비구가 들어오면서 성립된 교단은 이어 1000명의 베화교 교도 집단 개종, 사리불 목건련 등 250명의 개종 등으로 교단은 급속도로 커진다. 이 때까지만 해도 "오라 비구여" 이 한마디면 충분했다. 제자들이 많이 늘어 난 뒤에도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과 법과 승단의 삼보에 귀의합니다"라는 말이면 족했다.

그러나 불교의 교세가 확장되면서 부처님이 직접 만나서 제자로 받아들이는 일이 불가능하게 됐다. 제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현지에서 직접 교단에 입문할 수 밖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수계제도가 생겨났다.

계를 주는 스님들은?

〈사분율〉 수계건도에 의하면, 현지에서 출가하려는 사람은 삼사칠증(三師七證) 앞에서 삼귀의를 다짐하면 승가의 일원으로 승인토록 했다. 삼사(三師)는 전계사와 교수사, 갈마사를 말한다. 전계사는 의발(衣鉢)을 갖추어 주고 제자로서 교육하는 스승을 말하며, 교수사는 갈마가 행해지는 직전부터 끝날 때까지 계를 받을 때 옷 입는 법, 계목을 잘 아는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법 등을 교수하고 비구가 될 수 없는 신체상의 결점 및 질병 유무를 검사하는 비구이다.

갈마사는 수계를 내릴 때 갈마의 의장이다. 갈마를 백사갈마라고 하는데 백(白)은 의안(議案)을 말한다. 즉 계를 줄 때 '모 비구를 화상으로 하고 아무개에게 계를 준다'며 외치는데 이를 백(白)이라고 하는 것이다. 세 번 찬부(贊否)를 묻는데 찬성하면 침묵하고 이의가 있으면 발언하는 방식이다. 전원 찬성해야 당사자는 계를 받는다.

이 같은 수계제도는 중국 일본 등지에서 삼사칠증(三師七證) 제도로 나타난다. 칠증은 율장에는 없는 말이다. 삼사 이외의 다른 비구는 증명사(證明師)라는 말이다. 즉 수계를 내릴 때는 모든 비구들이 참석해서 증명법사가 됐던 것이다. 이 삼사칠증은 현재 한국불교에서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계율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계율은 재가자 5계, 보살 10계, 사미(니) 10계,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가 있다. 이는 일일이 규제하지 않아도 출가수행자로서 재가불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한 것이다. 즉 삼귀의를 '기초'라 한다면, 비구계는 '구족(具足)'이라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삼귀의계가 불문에 '첫 관문'이라면, 비구계는 '마지막 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들 계율 간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선 삼귀의계를 받은 사람은 계속적인 발심을 통해 오계를 받는다. 이후 오계를 받은 사람은 다시 한걸음 더 나아가 보살계 10계를 받는다. 이것이 10중대계(10重大戒)다. 재가불자가 이 10중대계를 받고 나서, 비구 비구니 구족계를 받아 출가자로서 길을 걷게 된다. 반면 출가하지 않고 재가불자로 남을 경우, 팔재계를 받는다.

불교 교세 확장되며 수계제도 형성
삼사칠증이 찬성해야 계 받아
재가는 오계, 구족계 받으면 출가
보살계는 스님 못지 않는 수행 인정

재가자들의 계율은?

그렇다면, 재가불자들이 받아야 할 계율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표적인 것이 삼귀의계(三歸依戒), 오계(五戒), 팔재계(八齋戒), 보살계(菩薩戒)다.

삼귀의계는 불문에 귀의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즉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교단에 귀의합니다'라고 함으로써 부처님의 삶을 닮겠다는 서원이다.

오계는 첫째 생명을 존중하고 억압하거나 죽이지 말라는 것이고(不殺生), 둘째는 아낌없이 베풀어 주고 결코 남의 물건을 빼앗지 말라는 것이며(不偸盜), 셋째는 청정행을 할 것이요 결코 사음을 하지 말며(不邪淫), 넷째는 진실한 말을 하고 결코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不忘語), 다섯째는 바른 마음을 지키고 술에 취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라(不飮酒)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오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은 불자로서의 본분공덕을 실현하는 길이다.

재가자들이 받아 지녀야 할 계 가운데 오계가 목숨이다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팔재계는 하루 동안만 지키는 실천덕목이다.

계목 구성은 오계에 세 가지 계율을 추가해 팔계라고 하고, 6계는 정오에 식사를 하고 그날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 7계는 꽃으로 장식하지 않으며 향을 바르지 않는다는 것, 8계는 높은 침대나 의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계는 지나친 식탐을 경계하는 것은 물론, 사치 향락적인 생활을 조심하고 자만심이 가득 찬 아상(我相)을 버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살계는 재가불자가 받는 가장 높은 단계의 계다. 일반적으로 10중대계라 한다. 부처님이 재가불자로서 해탈을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설한 10중대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삼귀의, 오계를 받아 지니고 수행하는 불자로서 세속에 살면서도 출가수행승 못지않게 수행하는 사람이다. 부처님은 "보살계를 받은 자로서 만약 이 계를 송하지 아니하면 보살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보살계로는 〈보살지지경〉의 4바라이 41경계, 〈유가사지론〉의 4바라이 42경계, 〈보살영락본업경〉의 10무진계, 〈우바새계경의〉 6중 28실의계, 〈보살내계경〉의 47계 등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망경〉 보살계본에 의한 10중(重) 48경계의 보살계 수계를 하고 있다.

수계자의 마음자세는?

수계는 계의 정신에 동의하고 그것을 몸과 마음으로 지키겠다는 맹세다. 부처님의 세계에 도달하는 최선의 사상이고 행동인 것이다. 그러므로 수계는 가장 올바른 삶을 사는 길이자 참된 해탈의 길로 들어서는 거룩한 의식이다.

특히 보살계를 수지함은 삼독심을 제거해 신구의가 깨끗해져 삼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초심자들에게는 계가 마치 밤길을 갈 때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수계자는 계를 받아 지닌다는 것을 부처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을 이어가겠다는 자신과 약속으로 여겨야 한다. 수계 받기 전 삼귀의와 발보리심을 갖고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참회와 앞으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원을 해야 한다.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도록 계를 받아 지니겠다는 굳은 결의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계는 모든 악을 막고 모든 선을 실천하고자 하는 계의 의미를 몸과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겠다는 발원이기 때문이다.

김철우 기자

참회하고 초발심으로 돌아가야

"계는 위대한 뱃사공이니, 능히 생사의 바다를 건네준다.
계는 시원한 못이니, 온갖 번뇌를 씻어낸다.
계는 두려움을 없애는 술법이니, 사해(邪害)의 독을 제거한다.
계는 무상(無上)의 반려(伴侶)니, 험악한 길을 통과하게 된다.
계는 감로의 문이니, 성자들의 근거 처다.
그러므로 지계는 마음에 동요가 없고, 전념해 포기하지 않게 하며 바른 계상(戒相)을 헐뜯지 않게 한다. 이를 일러 청정한 지계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승기율〉

일제 식민불교 잔재, 선적 깨달음 지상주의 등 진정한 지계행 의미 훼손

수행의 첫 단계이자 깨달음을 향한 첫 걸음인 지계(持戒).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지계행임을 강조한 글귀다. 바른 생활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선정, 바른 지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불교 수행은 계정혜 삼학을 균수하지 않으면 완성될 수 없다. 그럼에도 계율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은 취처와 음주육식을 장려한 일제시대 식민불교가 남기고 간 유산 때문이다. 여기에 빗나간 깨달음 지상주의와 이에 근거한 무애론이 겹쳐짐으로써 계율을 도외시하는 원인이 됐다.
그럼 지계행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또 지계행을 하는 데 왜 어려움을 겪고 그 해결법은 어떨까?



지계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자 실천행이다. 때문에 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불자로서 가져야 할 당연한 도리다. 사진은 8월 6일 계율수행을 주제로 한 첫 대중법회인 동화사 계율수행대법회에서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이 '계와 율이 생긴 까닭은'을 주제로 법문하는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지계할 것인가 파계할 것인가

어느 청년회의 법회 모습. 오후 늦은 7시에 시작한 법회가 끝나자 일부 회원들이 저녁공양을 하기 위해 식당을 찾는다. 음식을 주문하면서 청년회원들이 반주로 술을 시킨다. 일주일 만에 만난 법우들과 안부를 물으면 인사를 하는데 술은 빠질 수 없는 것이다.
법회 후의 법우들과 술 한 잔. 단순히 법회 후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입회원 환영식, 창립일 수련대회 등 각종 대소사 행사 때 어김없이 술을 찾으며 술로써 축하를 한다. 부처님오신날 제등행진 후에도 절집 근처 술집들은 불자들로 만원을 이룬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심을 축하하기 위해 불자들은 술을 마시는 것이다. 그 중 일부는 술에 취해 고성방가는 물론 주먹질까지 하는 추태를 보인다.
오계 가운데 불음주계, 과연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재가불자라면 한번쯤 겪었을 상황.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왜 지키기 어려운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지어온 습이나 업을 한 순간에 소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를 받고도 돌아서면 바로 그 계를 잊거나 죄를 범하게 된다. 또 한번 범하고 나면 조금 부끄럽다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두 번 세 번 자꾸 계를 범해 아예 부끄럽다는 생각도 없이 포기해 버리는 것이 문제다.

나약한 의지 환경에 휩쓸려 범계 일삼아
자주 죄를 범해 포기해 버리는 것 문제
"지키지 않으면 불종자(佛種子) 아니다"

그 이유를 보면, 첫째는 환경적 유혹 때문이다. 주변의 여건과 환경이 계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려 계를 범하는 예가 많다. 둘째는 번뇌의 충동력이다. 업이 두텁고 번뇌가 치성해서 부처님과 약속은 했지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셋째는 나약한 지계심이다. 환경이 열악하고 자기 번뇌가 치성해 의지가 나약한 사람들은 계를 지키기 힘들다.

#수계보다 지계가 더 중요하다

한국불교계의 지계 인식. 한 마디로, '수계는 하지만 계율은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수계를 하지 않으면 불자라 할 수 없다. 아무리 불교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고 불교에 우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불자가 아닌 것이다. 바로 '계율에 입각한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과 민족에 따라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계율을 지키는 것이 불교의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유는 분명하다. '계율을 지키는가 아닌가'에 따라 '불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잣대가 됐기에 그렇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상황논리'에 어쩔 수 없이 파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내 참회하고 계율의 근본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재가자들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이다

#경전이 가르치는 지계 의미

대승보살계 경전인 〈범망경〉에서는 지계가 갖는 위상에 대해 "중생이 불계(佛戒)를 받으면 곧 부처의 위치에 오르니 그 위치가 대각세존과 같다"고 말한다. 즉 중생으로서 계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부처가 된다는 뜻이다. 때문에 〈범망경〉은 "보살이 10중계를 받고 지키지 않는다면, 불종자(佛種子)가 아니다"고 단언한다. 중생 스스로가 부처임을 모르게 된다는 의미다.
경전의 이 같은 메시지는 율장인 〈사분율〉에서도 확인된다. "천당을 구하고 열반을 구하려거든 계를 수호하라. 계를 어기지 않으면 능히 멀고 험한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광명경〉에서는 "계를 지키는 공덕을 수행해 성취하면, 계를 지키는 공덕 때문에 성불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경전에서의 지계행 강조는 단연 불교의 목적인 성불에 있다. 즉 '지계행은 깨달음의 사다리이며,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대승경전인 〈원각경〉에서는 "일체법은 모두 진여의 모습으로 여기니 남녀의 모습도 없고 자타의 모습이 없으며, 범함이 없고 지킴이 없을 참된 지계라고 이름한다"고 설하는 한편, 〈현우경〉에서는 "계율을 잘 지켜라. 차라리 목숨을 버릴지언정 끝내 계율을 범하지 말라. 계율은 도에 들어가는 기초요, 번뇌를 없애는 길이며, 열반에 이르는 길이다. 그러므로 계율을 가지는 이에게 큰 공덕이 있다"고 강조한다.

김철우 기자

혜능 스님의 지계수행 위한 조언 5가지

계를 밝게 하는 방법은 첫째 육근(六根)을 잘 단속해야 한다. 육근은 늘 밖으로 마음대로 나다니려고 한다. 눈과 귀 등의 육근을 잘 다스리면 부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다.
둘째는 '음식의 양(飮糧)'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 음식에 집착하는 것은 온갖 번뇌와 갈등을 일으킨다. 음식의 양을 안다는 것은 스님들의 발우로 설명할 수 있다. 발우를 '음량기(飮糧器)'라고 한다. 즉 양에 맞는 그릇이라는 뜻이다. 발우공양은 발우에 자기가 먹을 만큼의 음식을 담아 남기지 않고 다 먹는 식사방법이다. 항상 음식의 양을 아는 것, 이것이 계를 범하지 않고 계를 잘 지키는 법이 된다.

육근 잘 단속하고
음식량 조절해야

셋째는 '늘 깨어있는 일'이다. 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다. 수행자는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이 두 가지를 똑똑하게 분간하면서 고고하게 걸어가야 한다. 또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넷째는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물질에 대해 지족해야 한다. 물론 만족이란 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만족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허둥대면서 더 많은 것을 획득하려 하다보니 많은 악업을 짓게 된다. 다섯째는 마음을 세속의 여러 가지 일에 매이지 말고, 늘 전심으로 불법을 구해야 한다. 오로지 밝고 맑은 고요한 부처님의 말씀만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 모든 번뇌와 악업에서 벗어나게 된다.

깨침 향한 방편, 읽고 또 읽자

잘못된 마음의 향방 다스려라



계율학개론
목정배 지음
장경각
9천8백원

"불교에서는 마음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계율을 제정했다. 마음이 바르게 나아가지 않고 있으면 그 잘못된 마음의 향방을 다스리는 것이 계율인 것이다. 때문에 흔히 계율을 엄격한 쇠사슬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오히려 계율은 깨침으로 향하는 방편일 뿐만 아니라 청정을 이루게 하는 계체다."
동국대 교수와 한국불교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목정배 교수가 계율의 세계를 풀이했다.
책에서는 인도 사회의 변화와 불교교단의 성립 등 계율의 성립 배경을 설명한 후 계율 제정의 과정, 율장의 성립 과정, 죄과의 분류 등 계율에 대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살피고 있다.
또한 연기적 세계관에 근거한 실천체계인 계율에 나타난 생명사상과 윤리 · 도덕적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계율의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지를 짚어보고 있다.
목 교수는 "계율 제정의 목적이 정법을 영원히 머무르게 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승가의 모든 운영과 문제 해결은 정법과 계율에 의지해 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바라제목차의 올타리 속에서 자성의 자율성을 제도하는 불자가 될 때 진정한 불교교단의 수호자가 되기 때문이다.

계율 제정의 동기와 의미 해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존자 카알루다인이 새를 보기 싫어해 활을 만들어 쏘아 죽였다. 이때 거사들이 참배하러 왔다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비방하지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계를 만들었다. "어떤 비구가 축생의 목숨을 끊으면 파아얏티카이니라."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밟아 죽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고의로 죽일 때만 이 계에 해당한다"고 했다.
〈불교계율해설〉은 이처럼 각 계율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계에 담긴 뜻을 자세히 밝히는 책이다.
1편 '율장의 성립과 결집'에서는 계율의 정의와 계율 재정의 동기, 계율 경전의 편집 과정과 그 종류를 설명하고 있다.
2편 '비구계와 비구니 계목에 대한 해설'에서는 비구 · 비구니 계율에 대한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대중으로부터 쫓겨난 비구를 따르지 말라' '남의 중매를 하지 말라' '대중으로 가는 불건을 가로 채지 말라' 등 각 계목이 제정되게 된 배경과 일화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3편 '기타 여러 가지 율의(律儀)'는 삼귀의와 오계, 사미십계, 보살십중대계, 재가신도 팔제계, 비구니 팔경계법 등을 집약 해설했고, 4편 '수계작법'은 계를 받고 설하는 법을 알려준다.



불교계율해설
한정섭 엮음
불교통신대학
8천원

재가 불자에게 지계 의미는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혜능 스님 지음
여시아문
6천5백원

지계는 수행의 첫 단계이자 깨침을 향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바른 생활이 되지 않으면 바른 선정, 바른 지혜도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가 불자들은 어떤 계율을 지켜야 할까?
해인사 영산율원장 혜능 스님은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강좌〉에서 계율의 참된 의미를 일러준 후, 재가 불자들이 불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혜능 스님은 책에서 모든 계의 기본인 삼귀의계를 비롯해 오계, 팔관재계, 십선계, 보살계 등을 재가 불자의 윤리적인 측면과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전을 바탕으로 단계별로 정리했다.
또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과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등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도 수록해 지계를 생활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계를 받았지만, 그 중요성이나 현실에서 어떻게 지켜야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몰랐던 불자들에게 권할만한 책이다.

팔리어본 등 4개 계본 비교해석



비구계의 연구 1, 2
히라카와 아키라 지음
혜능 스님 옮김
민족사
각권 2만2천2백원

세계적인 계율연구가이며 교단사 전문가인 前 동경대 명예교수 히라카와 아키라(平川彰, 1915~2002)가 쓴 〈이백오십계의 연구〉를 혜능 스님(해인사 영산율원장)이 우리말로 옮겼다.
1권에서는 바라이법(波羅夷法) 4조와 승잔법(僧殘法) 13조를 다루고 있다.
서장 '이백오십계와 바라제목차'에서는 율장 전체에 걸친 '이백오십계'의 위치를 밝히고 있다. 1장 '계서의 연구'는 이백오십계경의 첫머리에 놓인 '계서'의 의의를 고찰했다. 2장 '바라이법의 연구'에서는 이백오십계와 바라이의 관계, 바라이법의 문제점 등을, 3장 '승잔법의 연구'에서는 승잔법 13조의 한 조목 한 조목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다.
2권에는 주로 비구들이 가져서는 안되는 물건에 관해 다룬 사타법 30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각 계율이 갖는 의미와 계율이 성립된 인연담을 설명한 뒤 조문을 하나씩 해석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책에서는 "비구는 스스로 판매하며 이익을 구할 수 없다" "여분의 발우를 얻은 경우 10일간만 소지할 수 있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사타법의 조문을 통해 초기 비구의 일상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불교 최초의 계율학 개론서

일제 때 해이해진 승풍을 지계청정정신으로 바로잡고자 한 석전 스님의 〈계학약전(戒學約詮)〉을 효탄 스님이 알기 쉽게 옮겼다.
한국불교 최초의 계율학 개론서라 일컬어지는 〈계학약전〉은 〈사분율〉 〈범망경〉 등 한국불교 전통 계율을 간추린 책이다. 석전 스님은 1926년 중앙불전 교육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계학약전〉을 펴냈으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책을 효탄 스님이 등사본 원본을 입수, 1년 6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현대적 언어로 새롭게 꾸민 주해본(本)을 발간한 것이다.
〈계학약전〉은 총서계체(總敍戒體) · 별현계상(別顯戒相) · 결권수학(結勸修學)의 총3장으로 구성돼 있다. 서론에 해당하는 총서계체는 23장 분량으로 2부18파 분파와 계율의 제정 및 전체 계율에 대한 기술을 본론에 해당하는 2장 별현계상은 약50장에 걸쳐 사미율의 비구 비구니 구계약상 보살계약술 능엄사종율의로 나눠 설명했다. 결론격인 결권수학은 범망경의 유통분을 끌어 말미를 대신했다.
효탄 스님은 "〈계학약전〉은 만해 한용운 스님의 진보 혁신적인 계율관과는 큰 대비가 되지만 당시 민족적 자긍심과 조선승가의 정체성 확립에 일조했다"고 평가한다.



계학약전주해
석전 스님 지음
효탄 스님 옮김
동국역경원
8천원

교단 성립 과정 · 승가 생활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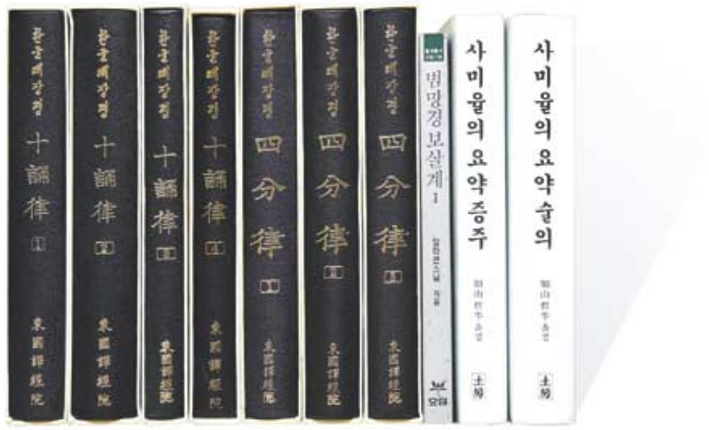
초기불교와 계율 연구에 평생을 바친 사토 미츠오 교수(前 대정대 학장)가 방대한 율장의 문헌을 정리해 불교 교단의 성립과 계율, 그리고 승가의 구성원으로 지녀야할 여러 가지 생활 규범에 대해 기술했다.
특히 1부 '불교의 교단생활'에서는 율장 건도부(犍度部)를 중심으로 교단운영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다. 2부 '교단의 규율'에서는 비구 · 비구니 계율 및 실제 교단의 운영과 규범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남전 율장에 의거한 이 설명을 통해, 〈사분율〉을 중심으로 전해진 한국불교의 비구 · 비구니계와 어떤 점이 다른지 비교 · 검토할 수 있다.
사토 마츠오 교수는 이 책에서 불교교단의 성립과 전개를 서술하면서도 통시적 관점이 아닌 불교교단의 단층을 미시적으로 접근해 분석하고 있다. 인도불교 교단사를 통시적으로 서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계율 조목에 대해 해설을 첨부하여 현재의 한국불교 계율과는 무엇이 어느 정도 다르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것도 이 책의 큰 특징이다.

여수령 기자



초기불교 교단과 계율(깨달음 총서 24)
사토 미츠오 지음
김호성 옮김
민족사
5천원

넓고 깊은 가르침… '백문이 불여일經'



출가자 근본계율서로 널리 채택

사분율(四分律)

불교교단의 기강 확립과 불교도들의 본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여러 계율을 한데 모은 것을 율장(律藏)이라고 한다. 그 중 유명한 다섯 가지 율장, 즉 대중부의 <마하승기율>, 법장부의 <사분율>, 유부의 <십송율>, 화지부의 <오분율>, 음광부의 <해탈율>을 '오분율(五部律)'이라고 한다. 이 중 현재 전하지 않는 <해탈율>을 제외한 네 가지 율을 '사대광률(四大廣律)'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분율>은 부처님 열반 후 100년 뒤에 담무덕(曇無德)이 상좌부(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4회에 걸쳐 뽑아 엮은 율문이다. <사분율>의 명칭은 내용이 네 단원으로 나눠졌다 해서 붙은 것이지만, 편의상의 분류일 뿐 실제로는 5종(種)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일찍부터 한국에 전래되어 <범망경(梵網經)>과 함께 스님들이 반드시 익히고 닦아야 할 근본계율서로 채택되어 널리 유통되었고, 출가자들의 모든 규범과 생활이 이 책에 준하여 행해졌다. 비구와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율이 각 250계, 348계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사분율에 근거한 것이다.

원래 소승의 계율서인 이 책은 예로부터 많은 주석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장(慈藏)의 <사분율갈마기>, 원효(元曉)의 <사분율갈마소>, 경흥(憬興)의 <사분율십비니요기(四分律拾毘尼要記)> 등이 대표적이다.

계율 성립 과정·적용방법 설명

오분율(五分律)

원제는 <미사색부화혜오분율(彌沙塞部和醯五分律)>. 미사색부는 부처님 열반 후 300년경 설일체유부(說一切有部)에서 갈라져 나온 파로 화지부(化地部)라고도 한다. 모두 30권이며, 산스크리트본은 남아 있지 않다. 중국 송나라 때인 5세기 초에 불타집이 한역했다.

책의 제목대로 내용을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계율이 만들어진 사연과 조문, 적용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제1분은 비구의 계율을 다루고, 제2분은 비구니의 계율, 제3분은 비구들의 공동생활, 제4분은 비구들의 각종 모임과 규정, 제5분은 기타 여러 문제를 다룬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수계법·포살법·안거법·자자법이다.

이 경전에서 유래한 경전으로는 <미사색오분계본>은 계문 251가지를 뽑아서 비구들의 참회 모임에서 읽을 수 있도록 묶은 것을 말하고, <오분비구니계본>은 비구니들을 위해 373가지의 계문을 엮은 것이다. 주석서로는 <미사색갈마본>이 있다.

총 61권, 구마라습-비마라차 번역

십송율(十誦律)

10송(誦)으로 구성된 율장이라는 뜻이다. 모두 61권으로 구성된다. 구마라습(鳩摩羅什, 344~413)이 번역했지만 완역하지는 못했다. 후에 비마라차(卑摩羅叉)가 구마라습의 한역본을 보충하여 61권으로 완역했다.

내용은 비구계와 비구니계로 나뉜다. 비구계는 남성 출가자인 비구가 지켜야 할 계율로 모두 257조를 해설하였다. 비구계의 뒤를 이어 교단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총 17법으로 7법·8법·잡송(雜誦) 2법을 말하는데, 다른 율장에서는 이를 '건도부'라고 부른다.

이어 여성출가자인 비구니가 지켜야 할 비구니계로 총 355조를 소개한다. 비구니계의 조직은 비구계의 조직과 같으나 조문 수가 훨씬 많고, 부정법이 없는 점이 다르다. 이 중 비구계와 공통되는 조문은 총 205조이다. 비구니계 뒤에는 증일법(增一法)과 우바리문법(優波離問法) 등의 부수법을 설명한다.

이 율장은 중국에서 중요시되어 404~409년 번역된 직후에는 주석서도 많이 나왔으나 내용이 번잡하여 <사분율(四分律)>이 더 많이 읽혔다.

설일체유부의 한 파인 근본설일체유부에도 이 율장과 비슷하면서 교훈적인 이야기가 더욱 많이 실린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根本說一切有部毘奈耶)>가 전한다.

대중부로 전승, 엄격하고 진보적

마하승기율(摩訶僧祇律)

인도 출신 승려 불타발타라(佛陀跋陀羅)와, 파미르 고원을 넘어 인도로 간 최초의 중국 승려 법현(法顯)이 5세기 초에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다. 이 중 <마하승기율>은 상좌부에서 전승된 다른 율장들과 달리 대중부(大衆部)에서 전승되었으며 보수적인 상좌부의 계율보다 진보적이며 엄격하다.

전 40권으로, 제1권부터 제35권까지는 비구와 비구니 모두에 해당하며, 제36권부터 제40권까지는 비구니에게만 해당하는 계율이다. 이 중 비구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모아서 편찬한 것이 <마하승기율대비구계본(摩訶僧祇律大比丘戒本)>이고 비구니에 해당하는 부분을 따로 편찬한 것이 <마하승기비구니계본(摩訶僧祇比丘尼戒本)>이다.

불제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규칙과 작법, 계율을 제정하게 된 동기, 각 계율의 세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였고, 또 탑을 세우는 작탑법(作塔法)이 있어 불탑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 율장을 번역함으로써 동진 이후 중국의 율종이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후세 계율에 큰 영향…주석서 다수

범망경(梵網經)

상하2권. <범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계품제십(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第十)>이라고도 하며, 흔히 <범망경(梵網經)> <보살계본(菩薩戒本)>으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산스크리트 원본은 120권 60품이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인도의 승려 구마라습이 한역한 것으로 전해져 왔으나, 근래의 연구로는 5세기경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으로 보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 양식은 <화엄경>과 비슷한 점을 보이고 있다. 상권은 노사나불(盧舍那佛)과 십발취심(十發趣心)·십장양심(十長養心)·십금강심(十金剛心) ·십지(十地)에 관해, 하권은 십무진장계품(十無盡藏戒品)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 안에서 대승 계율로서 보살이 지켜야 하는 가장 무거운 계율인 10중(十重) 계율과, 가벼운 계율인 48경(輕)율을 설명했다. <범망경>의 계를 흔히 범망계(梵網戒)라고 하는데,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의 계가 소승의 계율을 포함한 대승계(大乘戒)인 데 비해서 이는 대승 독자의 계율이라는 데 특징이 있다.

<범망경> 대한 주석서도 종파를 가리지 않고 저술되었는데, 특히 천태종의 개창자인 지의 대사의 <보살계의소(菩薩戒義疏)>, 화엄종의 이론을 집대성한 법장 스님의 <범망경보살계본소(梵網經菩薩戒本疏)>, 유식학(唯識學)의 관점에서 본 신라 대현 스님의 <범망경고적기(梵網經古迹記)> 등의 3가지 주석서는 이에 대한 또 다른 주석서가 저술될 정도로 후세의 계율사상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中 연지율사, 사미십계·예절 다뤄

사미율의(沙彌律儀)

중국 명나라 연지(蓮池)(1536~1615)율사가 저술한 책으로 사미십계와 기본적인 사찰 예절을 다루고 있다. 연지율사는 32세에 출가해 50여 년 동안 수행하며 32권의 저술을 남겼는데, 특히 계율을 엄격히 지켜 후학들을 위해 <사미율의>를 남겼다.

경전과 선원의 청규(淸規), 당시 유통되던 사미승들의 예절을 다룬 <사미성범>의 내용 중 가려 뽑았으며 처음 출가한 사미 스님들이 지켜야할 열 가지 계율과 사찰 생활에서 지켜야할 예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새로 비구계를 받은 스님들이 지켜야할 도리를 다룬 도선 율사의 <행호율의> 가운데서 지켜야 할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조계종에서는 행자교육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부처님 마지막 설법광경 담아

불유교경(佛遺敎經)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광경을 담은 경전이다. 구마라습이 한역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열반 전 제자들에게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를 스승으로 삼아서 계를 지키고 오욕을 삼가하며 정적(靜寂)을 구하고 정(定)을 닦아 깨달음의 지혜 얻을 것을 부탁했다. 그리고는 최후의 가르침으로 해탈을 얻어 무명의 암흑에서 벗어나라고 가르쳤다. 부처님의 임종이라는 극적인 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간명하게 설명한 탓에 예로부터 널리 읽혀졌다.

선종에서는 '불조삼경(佛祖三經)'의 하나로 여긴다.

잘못 드러내 '업장의 뿌리' 자르기

참회의 방법 포살과 자자

정해진날 죄 고백하고 반성하는 것이 '포살' '자자'는 대중에게 허물 지적을 청하는 의식

"그대의 죄를 가져오너라!"

"죄를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조 혜가 대사와 제자 승찬 사이에 오간 '참회 문답'. 승찬은 이어 스승 혜가 선사에게 무상(無相)참회의 경계를 내어보인다.

"오늘 죄의 본성이 안에도 밖에도 중간에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마음이 본래 여여한 공(空)인 것처럼, 죄의 티끌 또한 그러합니다."

"됐다(그리고 입을 닫다)."

삼조 승찬 스님이 제시한 참회(懺悔)의 원리. 이 같은 무상참회는 육조 혜능 대사가 <육조단경>에서 강조한 '자성(自性)참회'로 연결된다. 즉 '제법의 참된 실상을 여실히 보면, 삼세에 지은 죄의 업장을 소멸할 수 있다'는 메시지다.

그럼, 계율과 참회는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고백하는 참회, '지혜의 칼날'로 업장의 뿌리를 잘라내는 참회가 무엇인지 살펴본다.



계율수행의 완성은 끊임없는 자기참회로 이뤄진다. 즉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는 고백의 장인 포살과 자자로써 새롭게 발심하는 것이다. 사진은 장궤합장을 한 채로 참회 기도를 하고 있는 불자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계율참회는 무엇인가?

참회는 계의 참회와 율의 참회가 있다. 신구의 삼업으로 지은 죄악업을 참회하는 것이 계의 참회다. 오계를 어겨도 계를 준 스님이나 부처님의 율법적으로 죄를 묻지 않지만, 그 업은 그대로 남는 것이다. 그 업을 참회하는 것이 계의 참회다.

율의 참회는 마음속으로 뉘우쳐서 없어지는 죄도 있고, 한 사람의 비구에게 가서 고백하면 없어지는 죄도 있다. 또 일정시간 참회 행위를 해야 하는 무거운 참회도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참회를 통한 본인의 본래 청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율의 참회다. 이를 통해 승단의 청정과 화합이 유지되는 것이다.

해인사 율원장 혜능 스님은 "문제는 계의 참회다.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간섭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악행의 그림자는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며 "죄를 정화하는 힘이 참회에서 비롯되는 만큼, 계 참회는 마음에 물든 업장의 더러움을 말끔히 씻어내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강조한다.

#포살과 자자가 계율참회다.

계를 범했을 때 할 수 있는 참회법은 무엇일까? 바로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다. 일정한 날을 정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죄가 있으면 고백 참회하는 의식인 포살과 자자.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갈등과 불화가 많은 현대인들에게 자자와 포살은 더없이 필요한, 자기를 점검하는 계율참회법이다.

포살을 하는 방법은 원래 포살당이나 혹은 도량 등 일정한 장소에 모여 계율에 능한 스님이 250계(戒)의 조문집인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의 한 조목을 3번씩 읽으면 계율을 어긴 자가 다른 스님들에게 고백 참회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일부 사찰에서 주로 음력 보름에 포살 법회를 열어 참여하는 재가불자들이 계를 받을 때 서약했던 오계(五戒)를 독송하고 자신의 수행생활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안거가 끝날 때 치르는 의식인 자자는 스님들이 각자 스스로 안거 기간 중에 자신에게 범계(犯戒)의 허물이 있었다면 무엇이든지 지적해 달라고 동료 스님들에게 청하는 의식이다. 자자 의식의 진행은 차례가 된 사람이 대중 앞에 합장하고 나서 "여러분, 저의 행위와 언어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때 만약 지적할 것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지적할 것이 없으면 대중은 가만히 있으면 된다.

도반들 간에 허물을 서로 지적해 주고, 지적받은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고 참회함으로써 승가 본연의 청정성을 유지하자는 데 근본 목적을 두고 있다.

#계율수행에서 참회가 왜 중요한가?

참회 없는 지계행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1991년부터 관음대참회수련원을 개원해 참회수행을 지도해오고 있는 나주 불회사 주지 정연 스님은 "참회 없는 계율수행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참회가 근본 무명인 업식(業識)을 녹이는 마음공부의 바탕이 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참회는 계율수행은 물론 모든 불교 수행의 출발점이 된다고 설명한다.

스님은 "업식의 정화 없이는 어떤 수행법에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자기가 지은 업장을 해결하지 않고 깨달음을 추구한다면, 모래로 밥을 짓는 꼴"이라고 말한다.

해인총림 율주 종진 스님도 "지계는 실천에 그 핵심이 있다"며 "마치 집을 지을 때 터를 닦는 것처럼 참회는 지계 수행에 밑바탕이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참회는 '자기발원(發願)'이란 점에서 중요하다. 육조 혜능 선사는 <육조단경>에서 "영원히 번뇌 망념을 짓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이 참회"라며 무상참회법문을 강조했다. 즉 '참(懺)'이 자기 행위를 반성하는 것이라면, '회(悔)'는 다시는 그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란 의미다.

#포살과 자자, 얼마나 되고 있는가?

불자로서 지켜야 할 실천계목을 조목조목 읽으며 자기 잘못을 드러내고 뉘우치는 고백의 장인 포살과 자자. 과연 불교계 현실은 어떠한가?

대중 앞에서 참회하고 바른 삶의 각오를 다지는 포살전통이 활발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초하루, 보름, 각 재일 등 전통법회와 일요법회, 각종 테마법회 등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포살법회는 일부 사찰에서만 하고 있다.

포살법회가 대중화·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구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혜우 스님은 "자기 허물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한다. 즉 포살법회를 주관할 지도법사의 부재, 포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해이한 지계 정신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재가자를 위한 포살법회 활성화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1999년 포살법회의 순서와 진행법을 담은 <재가보살 포살본> 3천부를 발행,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당시 불교계는 "성찰적 참회수행법을 통해 재가불자가 정기적으로 자신의 수행을 검증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강한 기대감을 표했지만 지금까지도 포살법회를 여는 곳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

조계종 5대 총림을 비롯해 일부 사찰 및 선원 등이 정기적인 포살법회를 봉행하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중요성에 비추어 스님이나 재가자들의 관심도는 대단히 미약하다. 그나마 몇 군데에서 포살법회를 정기적으로 열어 계율참회를 통한 자기점검을 하고 있다.

청주 관음사의 경우, 1995년 8월 개원이후 매월 한 차례 포살법회를 열고 있다. 포살법사가 예경삼보, 현행계 등의 포살요목과 보살계서문을 먼저 낭독하면, 신도들이 '나무석가모니불'를 외며 참회를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정토회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 포살법회를 연다. 정토회 포살법회의 특징은 불자의 기본 계율인 오계와 함께,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계본(戒本)으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계율을 지도법사가 낭독하면 잘못한 사람은 일어나 3배로 참회하고, 조별로 다시 포살을 열어 잘못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안성 도피안사도 매월 첫째 일요일 포살법회를 봉행해 참회의 생활화를 유도하고 있다.

정기적으로 포살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강화자(63·서울 석관동) 씨는 '포살법회는 식사 후 설거지'로 비유한다. 알게 모르게 지은 일상속의 잘못을 늘 참회로써 자신을 성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처음에는 지계에 대한 부담감이 컸지만, 지금은 자기반성은 물론 기복 중심의 신행에서 벗어나 복을 짓는 수행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포살과 자자를 통한 계율참회는 자기변화의 강력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 많은 스님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다. 수행자의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해낸다. 현실 생활에서 겪는 사소한 문제들의 원인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포살법회의 대중화를 통한 지계점검 전통회복을 위해서는 ▲계율 관련 법회의 상설화 ▲계층별·연령별 포살계본 마련 ▲통일된 포살법회 형식 복원 ▲매월 초하루, 보름날의 '포살의 날' 제정 ▲포살지도 법사 양성 등이 활발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김철우 기자

▮특별기고 : 현대사회와 계율지키는 삶

목숨 버려 계 지킬 '마음' 있어야

승가의 생활규범을 제시하는 계율.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불교의 궁극적인 이상인 해탈(자유)과 열반(행복)을 실현케 하는 계율은 특히 재가자들에게 신심과 공덕을 증장시키는 방법을 일러준다.

계율은 먼저 건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식을 보여준다. 오계를 통한 자기제어, 소욕지족과 무소유로써 청빈한 삶을 살게 하고,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응집시키고 단결시키는 힘을 준다. 때문에 계율은 남을 존중하는 생명존중사상으로 연결돼 인간과 자연을 구별하지 않는 조화와 화합의 정신을 실천하게 한다.

또 계율은 승속 계급 나이 성별 등을 초월한 평등정신을 구현하기 때문에 불자들에게 행위의 자발성과 믿음을 준다. 게다가 자신의 문제를 참회하는 데 있어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현실적인 참회법을 이끌어낸다. 즉 절차의 중시와 타당한 징계는 불자들의 청정성을 스스로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계율은 현대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을까?



현대사회에서 계율은 건전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한다. 특히 지계를 통한 자기제어, 소욕지족으로써 청정한 삶을 살도록 한다. 사진은 현란한 빛을 내품으며 불야성을 이루는 도심의 야경. 사진=박재완 기자

모든 존재는 '나'처럼 소중함 알면 매순간 진지하게 지계의 생활 가능

얼마 전 열 가지 악업에 대하여 강의를 할 때의 일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남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항목을 설명하면서 여기에서 남의 생명이란 미물에 이르기까지 목숨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때쯤 어떤 50대 남자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강사님, 요즘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바쁘게 돌아가는데 그까짓 곤충 한 마리 목숨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말문이 탁 막혔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서 남을 밟고 올라서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것이 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세계 최강대국에서조차도 제방이 무너져 기록적인 인명피해, 재산피해를 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미물 하나의 목숨을 중히 여기고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계는 그야말로 환상 속의 공허한 메아리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율을 처음으로 정하던 부처님 당시에도 사정은 이와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의 환경이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 터이고, 영토확장과 주도권선점을 노리는 강대국들간의 쉼 없는 전쟁이 지금과 똑같이 벌어졌을 터이기 때문입니다.

왕가에서 태어난 부처님이 이런 사정을 모르실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물고기를 물으로 끌어내어 괴롭힐 때면 "너희도 너희보다 힘센 누군가가 자신들을 괴롭히면 싫겠지? 그런데 왜 너희보다 약한 동물을 괴롭히느냐"라며 만류하셨고, 벰을 때리고 노는 아이들을 보고서 "생명 있는 것은 다 죽음을 겁내나니 몽둥이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없다"라며 장난으로라도 매질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부처님을 뵈러 비구 두 사람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뭄이 들어서 모든 샘물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데다 더위에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그러다 기적처럼 오래된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물에는 아주 작은 벌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민하였습니다. 물을 마시면 저 벌레들을 산채로 다 죽이는 일인데 그렇게 해서라도 목숨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뵈러 갈 것인가, 아니면 설령 부처님을 뵙지 못하더라도 산목숨을 해치지 말라는 계율을 지켜서 물을 마시지 않을 것인가.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한 사람은 일단 내가 살고 봐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부처님의 밝은 계율은 인자함을 으뜸으로 삼는데 생물을 해쳐 가면서 생명을 부지하여 부처님을 뵙는다 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차라리 계율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계율을 범하고 살지는 않으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곧 마음껏 물을 마시고 길을 떠났고, 한 사람은 끝내 물을 마시지 않아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전에서는 숨을 거둔 사람이 도리천에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마셔 생기를 되찾은 사람이 저간의 사정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은 뜻밖에도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는 내 얼굴만 보고 내 계율은 받들지 않았다. 너는 비록 나를 본다 하겠지만 나는 네가 보이지 않으니 너는 내게서 1만 리나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율을 받들어 행한 그 비구는 바로 내 눈앞에 있구나."<법구비유경>

분명 부처님의 이 말씀은 너무 심합니다. 심하다 못해 잔인하게까지 들립니다. 앞서 저에게 반론을 제기한 그 남자분과 같은 심정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을 한다는 말이 됩니다. 나는 무엇인가의 희생을 딛고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떤 희생은 무시해도 되고 어떤 희생은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 것일까요?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목숨의 경중을 잴 수가 있을까요?

매의 공격을 피해 폼안으로 날아든 비둘기를 구하려 한 보살의 일을 떠올려보시기 바랍니다. 한줌 밖에 되지 않는 비둘기의 무게와 똑같은 무게의 살점을 베어주겠노라 약속하였지만 결국 보살은 제 몸을 온전히 비둘기 한 마리와 바꿔야만 했습니다. 목숨의 가치는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느라 안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 버둥거리는 것은 식물이나 동물, 사람에게 똑같은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나'만큼 소중한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바로 여기에 '계율을 지키는 삶'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 나아가 나의 수행까지도 다른 목숨의 희생을 딛고서 얻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지해질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급적 악보다는 선을 추구할 것이요, 되도록 나 혼자만의 기쁨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연화합으로 이 몸을 이루어 이렇게 살아가듯이 저 미물 역시 인연화합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려고 애쓰고 살아가듯이 저 미물 역시 행복한 삶을 향해 쉬지 않고 꿈틀거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반듯하게 옷을 입고 행동거지가 흩어지지 않으며, 나를 유혹하는 대상 앞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계율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외부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과감히 계율을 깨고 범하는 일에조차도 걸림이 없어지는 이것이야말로 대자유인의 삶이라고들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계율을 지키는 삶이란 그렇지 않습니다. 꿈틀거리는 미물이건, 총을 든 강대국의 병사이건 간에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생명줄 하나를 움켜쥐고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밝고 깨끗한 지계인(持戒人)이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깨달음이 온전히 차올라서 그로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면 그 사람의 행동거지는 굳이 계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거나 매순간이 진실한 지계의 삶이 될 것이요, 어지럽게 춤을 추는 폭력과 살상으로부터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하나뿐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미령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용어공부 Q&A

쉬운 듯 어려운 계율. 그 용어부터가 낯설고 생소하다. 보살계 구족계부터 연비까지 자주 접하는 계율 용어의 뜻을 간추려 본다.

구족계(具足戒) 출가한 비구 비구니 스님이 지켜야 할 계율을 말한다. 비구는 250계, 비구니는 348계를 받는다. 이 계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에 청정(淸淨)하게 살 것을 약속하는 것이므로 구족이라고 한다. 사미(니)계를 받고 4년간 강원이나 선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뒤 수계산림을 거쳐 구족계를 받는다.

보살계(菩薩戒) 보살계란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지혜와 자비를 실현해 나가는 출가와 재가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실천덕목이다. 보살계는 <보살지지경> <범망경>등 여러 경전에서 설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범망경>의 '범망계(梵網戒)'가 가장 많이 설해졌다.
범망계는 '10중계(重戒)'와 '48경계(輕戒)'로 이루어진다. 10중계는 '바라이'라 하여 범하면 교단으로부터 축출된다. 48경계는 10중계를 잘 호지하기 위한 계로 범했을 경우 참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삼취정계(三聚淨戒) 대승의 보살이 지녀야 할 계법(戒法)으로 삼취청정계 · 삼취계라고도 한다. 소승의 금계적(禁戒的) 계법에 비하면 적극적인 성격이 강하다. 섭율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 △섭율의계-율의계를 준수하는 것. 율의계란 대승 이전의 교단에서 악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한 온갖 계율 조목을 가리킨다. 흔히 소승계로 불린다. △섭선법계-악행을 피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선행을 실천하는 것. △섭중생계-요익유정계라고도 불린다. 중생에게 이익을 베푸는 자비행을 말한다.

보살계란 깨달음 이루겠다는 원력으로 출·재가 보살이 받아 지켜야 할 실천덕목



금강계단은 부처님 진신사리 모시고 탑과 단 쌓아 스님에게 계 주는 식장

계첩(戒牒) 수계를 하고 나면 계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서이다. 평생 지키고 살아야할 계의 내용과 내 삶의 목표로 삼아야할 법명이 적혀 있다.

바라제목차(波羅提木叉) <사분율>에서 비구 비구니가 지켜야할 계의 내용을 열거하고 그 계에 대해 낱낱이 설명하는 부분이다. 비구 250계, 비구니 348계의 내용을 남방 팔리율장의 경분별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건도(犍度) 건도란 편(編) · 품(品)의 의미이다. 출가법 포살법 등 교단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제도와 의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계를 받는 법, 계를 설하는 법, 안거하는 법, 자자하는 법, 가죽에 관한 법 등 총 20개의 건도가 있다.

인례사(引禮師) 수계를 할 때 수계자들을 위해 예를 이끌어주는 스승을 말한다. 수계를 하면서 삼보를 청하거나 전계사를 모시는 청사 등의 과정에서 인례사가 선창을 하면 수계자들이 따라하는 과정을 거친다.

금강계단(金剛戒壇)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탑과 단을 쌓아 스님들에게 계를 주는 계단의 역할을 한다. 계단은 계를 주는 식장이다. 통도사는 금강계단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가사를 봉인해 대웅전에 불상이 없는 사찰로도 유명하다.

수계산림(受戒山林) 계를 받는 의식을 뜻한다. 득도수계산림은 출가자를 대상으로, 보살계 수계산림 등은 재가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것. 계를 수지하는 법회이다.

일불제자(一佛弟子)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라는 뜻. <증일아함경 팔난품>에 출가 수행자는 모두 부처님의 일불제자라는 의미에서 '석'씨를 써야한다고 했을 정도다. 또한 부처님의 일불제자로 살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재가자든 출가자든 법명을 받는 것으로 징표를 삼는다.

연비(燃臂) 온 몸을 부처님께 바친다는 뜻. 전통적인 연비의식에 따르면 촛불을 먹인 삼베실에 불을 붙여 팔목에 올려놓고 진언을 외우며 계행을 지킬 것을 서원하는 것이다. 삼베대신 향을 잘라 올려놓기도 한다. 최근에는 불붙인 향을 팔에 살짝 대는 것으로 연비를 끝내는 경우가 많다.

정리=강지연 기자

나의 지계 지수는? 체크해 봅시다

오계를 수지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죄업은 다 자기 자신에게 쌓인다고 율사 스님들은 말한다. 불자라면 당연히 받았을 오계, 어떻게 지켜야 올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계를 받고 지키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고 뉘우치는 이를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이며, 현재의 실수를 없애고, 미래의 실수를 막아서, 바른 법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경전에서는 설한다.

지계란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10개의 점검사항으로 오계를 잘 지키는 일등 불자가 되자.

점검사항	매우 자주(10)	자주(7)	보통(5)	드물게(3)	안함(0)
언제, 어디서나 항상 오계(五戒)를 지키려고 노력하는가?					
잠자기 전 하루 동안 계를 잘 지켰는지 자신을 돌아보는가?					
가족 및 도반 친구들에게 오계 지킬 것을 권하는가?					
자신의 지계행이 사회를 밝게 한다고 생각하는가?					
잘못한 일을 반성하고 참회하는가?					
점검사항	**매우 자주(0)**	**자주(3)**	**보통(5)**	**드물게(7)**	**안함(10)**
술을 마시는 횟수는?					
낚시 사냥 등을 즐기는가?					
남편이나 부인, 미혼이라면 애인 외에 딴사람을 마음에 품는가?					
좋은 물건을 보면 몰래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거짓말, 욕설 등을 하는가?					

A(75점 이상)-당신을 오계지킴이로 인정합니다. 불제자로서 청정한 삶을 지향하며 남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B(51~74점)-비교적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율을 지키는 것은 한 치의 허술함도 허용되지 않는 것. 더 분발하시면 퍼펙트해집니다.

C(31~50점)-조금 더 노력합시다. 생활이 바빠 계를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를 지킴으로써 얻는 마음의 여유는 당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D(30점 이하)-수계는 계를 지키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초발심으로 돌아가 계를 받은 이유를 되새기세요. 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Q&A

수계를 왜 해마다 받아야 하는지, 법명을 여러 개 받아도 되는지 불자들은 오계 · 보살계 등을 받으면서도 궁금하다. 살아가면서 수지한 계를 올바로 지키기 위한 불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도 의문이다.

파계사 영산율원 율주 철우 스님(사진)에게 불자들이 궁금해 하는 계율 관련 의문 일곱 가지에 대한 답을 듣는다.



마음으로도 범하지 말라
계 받기 보다 실천이 중요
법명은 하나만 받아야
불음주 원칙 분명히 세워라
'삼각관계'는 사랑 아닌 불륜

대승계율, 소소계는 무시해도 된다?

대승계율은 적당히 큰 것만 추려서 지키는 것처럼 오해한다. 대승계는 계를 범하는 마음조차 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소승계는 마음속으로 계를 범해도 행동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처벌의 기준이 약하다.

즉 마음으로 아무리 계를 어겨도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았다면 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소승계이다.

그러나 대승계는 계를 어기겠다고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계를 범한 것이 되는 엄격한 계율이다.

우리는 바꿔 생각해야 하다. 만약 지금처럼 적당하게 계를 광의해석하려면 대승불교를 지향하지 말아야 한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계는 해마다 받아야 한다?

오계는 한 번 받아서 평생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수시로 받는 계는 육재일에 받는 팔관재계다.

그러나 계를 한 번 받고 평생을 지키는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학생이 수업을 받아도 복습하듯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환기시키고 복습하기 위해 또 받는 것이다. 계를 여러 번 받는 것 자체는 재가자들에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다만 많이 받을수록 내가 청정해진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이미 수계가 아닌 기복이다.

요즘 수계는 '앉아서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받으라'는 말에 너무 얽매여 있다. 이 말을 핑계삼아 수계를 강요하고 불자들은 계를 받는 것만으로 끝낸다. 단지 수계증을 받고 법명만 받았을 뿐 계를 지키는 생활은 안 되고 있다. 계를 받아 지키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참회 반성해야 하는데 그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계의 내용이 생활문화가 되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계는 면죄부가 아니다. 수계식이 죄를 없애주는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수계의 의미는 계를 받아 지킴으로써 악행이 사라지도록 하는 것에 있다.

오계는 어기더라도 벌칙은 없다. 벌칙은 없지만 개인적인 죄업은 있다. 악행에 대한 괴로움의 과보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다. 계를 받고 지키는 생활을 하면서 불자에 대한 자각, 불성에 대한 자각을 해야 한다.

재가자는 해마다 계를 받는 것보다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포살의 기회가 더 많이 필요하다. 포살에는 출가포살과 재가포살이 있다. 출가자들은 보름마다 지난 보름을 반성하고 자기 생활을 참회하고 승가 청정과 화합을 확인한다. 재가자들은 육재일마다 계를 받아 하루 낮밤을 한시적으로 지키는 것으로 재가포살을 한다. 이때 받는 계는 팔관재계이다. 팔관재계는 출가계라서 재가자가 지키면 그 공덕이 더 크다.

법명은 수계 때마다 새로 받는다?

불자들이 수계할 때마다 큰스님들에게 법명을 받는다. 그래서 법명이 여럿인 사람들도 많다. 수계 받을 때마다 법명을 새롭게 받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명을 바꾸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불신을 불러온다.

법명은 불교에서 지어준 이름이라 해서 불명, 계를 받을 때 얻어진 이름이라고 해 계명이라고도 한다. 계는 여러 번 받아도 법명은 그대로 써야 한다. 별명은 여러 개 있어도 이름은 하나이듯 법명도 하나만 써야 하는 것이다.

법명에서 성명학적 의미는 중요하지 않다. 법명은 불자로서 계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자 이상이고 목표이다. 법명대로 살도록 노력하라는 뜻이다. 법명을 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라고 지어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명을 자꾸 바꾸고 새로 받는 것은 자신의 목표가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내가 제어할 수 있을 정도라면 술을 마셔도 상관없다?

불교가 태어난 나라 인도는 열대지방이다. 열대지방 사람들은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런데다가 힌두교 이슬람교 등 종교를 가진 이들은 종교의 계율을 술을 금하기 때문에 더더욱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나라 불자들은 어떠한가. 편리에 따라 술을 마신다. 계율 해석조차 자기 마음대로이다. 원효대사의 무애행 등을 핑계 삼아 쉽게 술을 마신다. 술은 36가지 과실을 만들어낸다고 했다. 이 술이 오계의 불살생(不殺生) 불사음(不邪淫) 불투도(不偸盜) 불망어(不妄語)가 만들어진 계기가 된다. 그만큼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술을 끊는다고 못사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처럼 술을 즐기는 민족은 전 세계적으로 드물다. 단순히 즐기는 범위를 넘어서 광적으로 마신다. 오죽했으면 검찰청에서 폭탄주 마시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폭탄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술이다. 불음주에 대한 원칙이 분명하게 서야 한다. 내 편의에 따라 원칙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불자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한다.

삼각관계는 사랑이 있으니까 괜찮다?

요즘 언론매체나 미디어에서 이중관계 또는 삼각 사각 관계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려내고 있다. 부처님께서는 '불사음'이라 하여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의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마음속에 담는 것도 안 된다.

그러나 요즘은 사음하는 것을 당연시한다. 영화, 드라마 등에서 정상적인 부부 이외의 관계가 아름다운 것처럼 그려내는 것도 문제다. 애인이 없는 기혼자는 뭔가 부족한 사람인양 쉽게 매도하는 것을 본다. 불륜은 말할 것도 없고 근친상간 같은 자극적인 소재도 비일비재하다. 사회적 현상이 잘못되었음을 직시하고 불자들은 환경에 끄달리지 말고 초심을 굳건히 가져 불사음계를 지켜야 한다.

계율 내용을 다 모르는데도 받아야 할까?

오계는 대부분 알고 있지만 보살계의 경우 계율 항목이 많아 불자들이 계를 받기 전에 모를 수 있다. 보살계에 대해 따로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율 항목을 다 모른다고 해도 계는 받아야 한다. 계를 받고 난 후부터 그 계율을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계를 어기지 않도록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계첩을 받으면 그 안에 계율 항목이 다 나온다. 기억하지 못하겠으면 매일 계첩을 봐라. 매일 보면서 계를 기억하고 또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공부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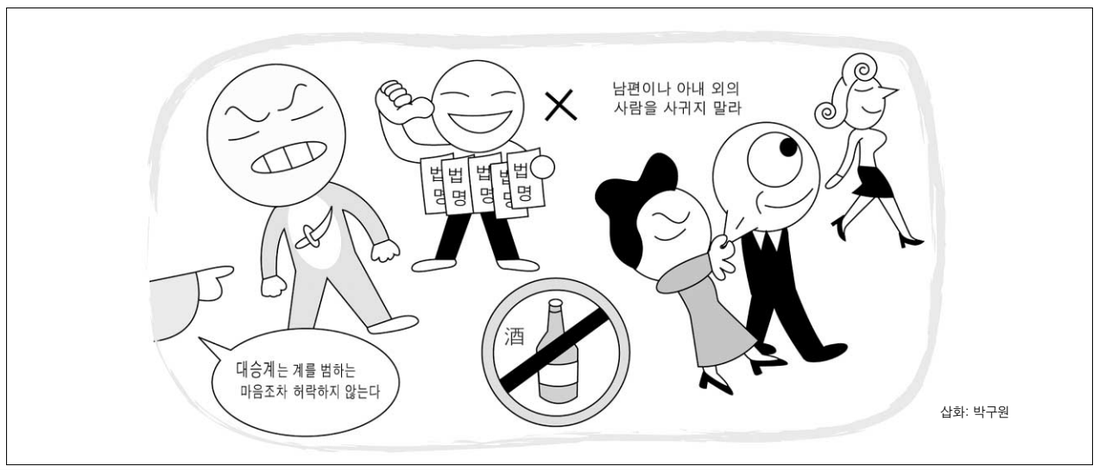
계율 항목을 다 외우고 있어도 100% 금방 고쳐지지 않는다. 계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실생활에서 삼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진'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법을 주려고 계를 받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려고 계를 받는 것이다.

불자는 채식주의자가 되어야 하나?

불자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살생하려는 마음을 끊기 위함이다.

그러나 환경에 의해 먹을 수밖에 없거나 만부득하게 먹는 것도 안 된다는 단순 금지조항이 아니다. 식탐을 내고 즐기면서 먹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육식은 많은 질병을 만들어낸다. 광우병도 결국 살생에 의해 생겨난 병이라는 것을 명심하자. 정리=강지연 기자



삽화: 박구원

여시아문 특별 기획 판매

또 하나의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

계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던 동화사 계율수행 대법회를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는 시간을 여시아문이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여시아문에서는 총 10회에 걸쳐 법회를 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집필하신 도서를 특별기획판매하고자 합니다.
동화사에서 주셨던 스님의 높으신 법문과, 계율을 의지하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으라고 하셨던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정진하는 계기를 위해 마련한 여시아문 특별기획판매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재고부족이나 절판등의 사유로 모든 스님의 도서를 판매할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www.yosiamun.com
e-mail : yosiamun@buddhapia.com
• 전화주문 : 02)2004-8220 • 팩스주문 : 02)737-0696

혜능스님 편

재가불자를 위한 계율강좌
정가 : 6,500원
–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불자를 위한 계율과 자기수양의 도를 써내려간 책. 1장 삼귀의계를 시작으로 십선계, 재가 불자의 윤리,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등을 담았다.

법화경의 세계
정가 : 10,000원
– 법화경에 대한 연구서. 행(行)의 불교에서 신(信)의 불교로 전환하시는 불교 경전 〈법화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원시불교의 연구
정가 : 25,000원
– 계와 율의 성격 분석과 차이점 등 율학의 기본 개념들에 대해 명쾌하게 밝혀 놓았을 뿐만 아니라 승가의 기본적인 성격과 인도 사회에서의 발전 배경과 변천 과정등 교단 조직의 원형에 대하여 치밀하게 고찰한 책

지운스님 편

깨달음으로 가는 길
정가 : 10,000원
–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전해주는 책
자비수관의 수행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진정한 행복이 삶 그 자체가 되어 생로병사의 고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하는 자비수관은, 자비심을 중심에 두고 몸을 주된 관찰 대상으로 하여 정념으로 삼법인을 체득하고 삼해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초 수행법이다.

철우스님 편

사미니율의
정가 : 7,500원
– 사미니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계율을 통하여 지침하는 법을 상황과 때에 맞게 모두 풀이하여 엮은 책으로 원문뒤에 한글로 풀이를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사미율의
정가 : 7,500원
– 사미가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자세를 계율을 통하여 지침하는 법을 상황과 때에 맞게 모두 풀이하여 엮은 책으로 원문뒤에 한글로 풀이를 하여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각묵스님 편

금강경역해
정가 : 18,000원
– 금강경 산스끄리뜨 원전 분석 및 주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경전인 금강경의 말씀이 구마라집의 안목에 갇혀서 불자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각묵스님께서 원전, 그 중에서도 원전의 중요한 술어들을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풀이하고 해석한 책.

계율수행 후에 참 실천의 가르침을 주는, 여시아문 추천 도서

집착은 마음의 적!
감산자전
마음은 본래 맑은 못과 같으나, 눈앞의 경계를 받아들이는 까닭에 그 성품을 흔탁하게 하여 온갖 어지러움을 일으키고 고민에 빠지며 번뇌를 낳는다. 그 근본 원인은 집착에 있다.
248쪽 / 값 8,000원
지허 지음 / 대성 옮김

오직 당신에게만 권하는 붓다의 지혜 이야기
현대인을 위한 붓다의 가르침
2,600여 년이 지난 21세기에도 훌륭한 나침반으로서 행복의 길을 제시하는 붓다의 가르침
신국판 / 344쪽 / 값 9,000원
안양규 지음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
이론보다 실천, 방편보다 법을 위주로 하여 선의 본지를 제시한다.
A5 / 436쪽 / 값 15,000원
불학연구소

'화 잘 내는 사람'은 최고의 수치다!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화 잘 내는 사람이라는 말을 최고의 수치로 여기는 티베트 인들의 성전 '보리도차제(菩提道次第)'를 초월 스님이 직접 배워 번역한 책.
B6 변형 / 178쪽 / 값 4,500원
초월 스님 편역

자장 율사

계 지키고 하루 살지언정 파계하여 백년 살기 싫다

자장율사는 590년 신라에서 진골출신 김무림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인생무상을 느껴 출가를 결심했다.

자장율사는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가시덤불을 둘러놓아, 벗은 몸으로 그 속에 앉아서 수행했다. 움직이면 가시에 찔리게 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한 것. 머리는 천정에 달린 끈으로 묶어 혼침을 방지했다. 할 정도로 그는 열심히 정진하며 백골관을 닦았다. 선덕여왕이 등용하기 위해 불러들이자 그는 "차라리 계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백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부할 정도로 계를 중시했다.

638년(선덕여왕 7)에는 당나라로 유학, 장안(長安) 공관사(空觀寺), 승광사(勝光寺) 등에서 수학했으며, 종남산(終南山)에서 수행하며 남산율종(南山律宗)의 개창조인 도선(道宣)율사와 교류했다. <속고승전>에는 자장율사가 오후불식을 철저히 지켰던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양산 통도사 개산조당 해장보각에 소장된 자장율사 진영

도선율사가 장안성 밖 정업사에 계단을 설립한 것이 667년이고 자장율사가 통도사에 금강계단을 세운 것이 646년으로, 자장율사의 계단이 21년이나 앞서있어 자장율사가 도선율사에게 부처님 계율을 가르쳐줬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자장율사가 종남산에 있을 때 한 장님이 그의 설법을 듣고 참회하자 곧 눈을 뜨게 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자 그를 찾아와 계를 구하는 사람이 매일 10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던 중 자장율사는 불교를 근간으로 나라를 통치하던 선덕여왕의 도움요청으로 귀국하게 된다. 자장율사는 대국통 자리에 올라 계율로써 승단의 기풍을 바로잡는 한편 백성들에게는 보살계를 받아 지니게 했다. 불교 믿는 사람은 계를 받고 불교에 귀의하는 법도를 확립한 이가 바로 자장율사다.

그의 공으로 불법은 크게 발전했다. 거의 모든 국내 사람들이 계를 받고 부처님을 승봉했다고 한다.

그 계율관은 <사분율(四分律)>에 엄격히 입각하되 보살계정신을 가미한 형태였는데, 그가 구축한 불교교단체제와 계율사상은 후대까지 강인하게 지속됐다.

자장율사의 업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나라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한 승려로 현신한 문수보살로부터 가사와 바루, 부처님 불골을 받아온 것.

문수보살은 "일체의 법은 모두가 자성이 없다. 법성(法性)을 이렇게 요달하면 곧 노사나불을 보게 되리라"는 가르침을 줬다고 한다.

자장율사는 오대산 월정사 적멸보궁, 설악산 봉정사, 태백산 정암사, 통도사 등에 사리탑을 세워 사리와 불골을 모셨다.

진표 율사

'점찰법회' 대중화로 계법 중심 참회불교 확립

진표율사는 백제 유민을 이끌던 진내말의 아들로 태어났다. 생몰연대는 정확치 않으나 742~766년에 크게 활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송고승전>에는 진표율사의 출가 기연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진표율사가 11세 때, 홀로 사냥을 갔다가 연못에서 놀고 있던 개구리를 잡아 구워먹을 생각에 꿰미에 꿰어 연못에 넣어둔다. 하지만 사냥에 정신이 팔린 그는 잊어버린 채 집으로 돌아오고 만다.

이듬해 봄 다시 연못을 가보니 개구리는 산채로 올고 있었다. 버드나무 가지에 꿰인 채 겨울을 난 개구리를 본 그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금산사로 출가했다.



김제 금산사 조사전에 소장된 진표율사 진영

진표율사는 순제(順濟)에게 사미계법을 받았다. 순제는 <공양차제법>과 <점찰선악업보경>을 주면서 미륵과 지장전에 참회해 계법을 지니고 세상에 널리 전할 것을 부탁했다.

개구리에 가한 고통을 속죄하기 위해서였을까. 그는 신체에 극한적인 고통을 주는 참회법으로 계법(戒法)을 구했다 한다. 전신을 계속 치고 받으며 일심으로 망신참을 수련한 지 21일이 지나자 지장보살이 계본(戒本)을 주고, 미륵보살이 목간(木簡)을 주면서 교법을 전수했다고 한다.

교법을 받고 내려온 진표율사를 향해 뭇 짐승이 엎드렸고, 백성은 정성을 다해 맞았으며, 대연진에서는 용왕으로부터 옥과 가사를 받았고, 그 용왕으로부터 금산사를 중창했다고 전한다.

진표율사는 속리산, 금강산 등지로 옮겨 다니면서 많은 중생을 교화했다. 일화에 따르면 속리산에서 소(牛)들로부터 귀의를 받기도 하고, 명주해변에서 고기떼에게 계법을 설하기도 했다.

또 왕과 궁중의 중신들을 모두 불러놓고 보살계를 설했는데, 감읍한 왕이 스님에게 7만7천석을 공양하고, 왕후궁에서도 비단 5백단과 황금 50냥을 공양했다고 한다. 스님은 공양물을 전국 여러 사찰에 나눠주고 자신은 다시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다.

금강산에서는 발연사(鉢淵寺)를 지어 7년간 머물면서 점찰법회(占察法會)를 열었다.

점찰법회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에 제시된 목륜상법(木輪相法)이라고 하는 점찰법에 따른 것으로, 점괘를 풀이하고, 거기서 나온 자신의 업보를 참회법회를 통하여 소멸시켜 대승의 수행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또 흉년으로 굶주리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

진표율사는 점찰법회를 계승하면서 점찰법회를 점찰행위에만 한정시키지 않고 계법 중심의 참회불교를 확립했다. 참법(懺法)의 대중화는 민중들에게 호응 받으며 새로운 불교운동의 상징이 됐다.

고암 스님

자비 · 인욕 · 하심 철저 제자에게도 늘 '경어'

고암 스님은 1899년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다. 17세가 되던 1917년 해인사로 출가, 제산(霽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22년 용성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38년에는 용성 스님과의 법거량을 통해서 인가를 받았다. 한번 하기도 힘든 조계종 종정을 세번(제3 · 4 · 6대)에 걸쳐 역임하기도 했다.

선교(禪敎)를 두루 섭렵한 스님은 어느 한쪽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근기에 따라 가르침을 폈다. 계율과 관련해서 스님은 자비와 인욕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지계행이 무엇인지 보여줬다.

고암 스님은 무욕청정의 자비보살로 통한다. 스님은 재물이나 명예 등 어느 것에도 집착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스님은 재물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수행자에게 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에게 욜려진 공양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법문을 하고 받는 거마비도 마찬가지였다. 절 형편이 어렵다싶으면 받은 거마비를 법단에 놓고 나왔으며, 어렵지 않은 사찰이면 거마비를 받아서는 필요로 하는 이에게 줬다. 그래서 고암 스님 돈은 '받아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고 한다.

사정이 그렇다보니 스님의 수중에는 돈이 남아나지 않았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주변에서 "더 늙으면 약도 먹어야 하고 용돈도 필요할 것"이라며 모아 두시라고 권했지만, 스님은 "옛날 빚이 커서 저금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유인 즉 스님이 20세 때 불법을 배우려 이곳저곳 돌아다닐 때, 임진강을 건너려 하는데 뱃삯이 5전 모자랐다. 이를 어느 젊은 아낙네가 대신 내줬다는 것. 그러나 스님은 어디 사는 누군지도 묻지 못하고 배에서 내리고 말았고, 그



후로는 다만 그 아낙네와 자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만 열심히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님은 그때 그 빚이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나는 것만 같다고 느끼고 있었다.

스님은 돈이나 물건뿐 아니라 책이나 명예에도 집착이 없었다. 유명해지면 명리(名利)에 떨어져 공부를 그르친다는 신조에 따라 절에서 수행할 때 공양주를 맡는 등 늘 하심에 힘썼다.

겸양이 아예 스님의 몸에 배었는지 스님은 제자에게도 경어를 썼다. 신도들이 자신에게 삼배하면 한번만 하라고 만류했고, 절을 받더라도 꼭 맞절로 받았다.

스님은 자신의 일을 남에게 시키는 법이 없었다. 세수 70이 넘은 나이에도 자신의 옷은 언제나 손수 빨아 입었다. 열반에 들기 직전까지도 이 일만은 그치지 않았다.

제자 대원 스님이 미국 하와이에 대원사를 창건할 때는 하와이의 불편한 컨테이너 박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밤중에 일어나 제자들이 먹을 아침 공양을 손수 지어줬다.

자운 스님

포살 · 보살계 되살린 한국불교 율의 중흥조

자운 스님은 한국불교 율(律)중흥조로 평가받는 현대의 대표적인 율사다. 청정계율을 근간으로 수행하면서 후학을 지도해 자장율사의 후신으로 불리기도 했다.

스님은 1911년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나, 27년 해인사에서 혜운(慧雲)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34년에는 범어사 금강계단에서 당대 최고 율사였던 경념(敬念) 스님으로부터 비구계를 수지했고, 그해부터 본격적으로 율장을 연구했다.

스님은 오부율장(五部律藏)과 주소(註疏)를 모두 필사하는 등 율장, 특히 사분율(四分律) 연구에 정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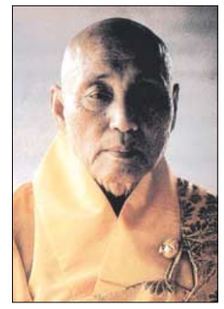
찌는 듯한 여름날에도 무명 장삼 가사를 벗지 않고 서사하고 외우며 부지런히 율행을 실천하는 각고 정진을 계속했다.

35년에는 율진 불영사에서 결사에 돌입,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으로 결사를 회향했다. 38년에는 도봉산 망월사에 주석하고 있던 용성 스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1939년에는 자장율사를 본받아 오대산에 들어가 하루 20시간씩 '100일 문수기도'를 봉행했다. 기도를 시작한 지 99일째 되던 날 청사자를 타고 나타난 문수보살로부터 "착하다 성우여! 불교의 승강(僧綱)을 회복토록 정진하라"는 말을 듣게 된다.

이처럼 서상을 입어 심지계법문(心地戒法門)을 통달한 스님은 일본불교로 인해 세속화된 전통계맥을 바로 세우고 승풍을 쇄신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게 된다.

이를 위해 48년 처음으로 문경 봉암사에서 보살계 대법회를 주관함으로써 잊혀졌던 보살계를 부활시켰다. 또 49년에는 대각사에서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등의 간행을 준비했으나 한국전쟁으로 소실되고 말았다. 다시 간행에 나서 부산 감로사에서 계본 4만8천 권을 출판했다.



이밖에도 <무량수경> <약사경> <자비수참> <권발보리심문> 등 경율 21종을 간행했다.

51년에는 통도사에 전화율원을 개설해 후학들에게 율학을 강수했다. 이 곳에서 일타 스님을 비롯해 여러 율사가 배출돼 한국의 율맥 계승에 크게 기여했다.

스님의 가르침은 승가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속인처럼 세끼 식사를 하던 승단에 '때 아닌 때에는 먹지 말라(不非時食)'는 가르침을 강조해 오후불식의 기풍을 다시 세운 이도 스님이었고, 대중들이 모여 허물을 드러내고 참회하는 의식인 포살법회를 되살려 계율이 서는 승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이도 자운 스님이었다.

1981년 조계종 단일계단 전계대화상에 추대된 스님은 1992년 열반에 들기까지 해인사 ·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비구 1650명, 비구니 1536명을 포함 수계제자 총 1만여 명을 배출했다. 자운 스님의 계를 받지 않은 불제자가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스님의 역할은 대단했다.

용성 스님

전통율맥 이어 대각 · 청정교단운동 펼쳐

용성 스님은 1863년 전북 장수에서 아버지 백남현씨와 어머니 밀양손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16세 되던 1879년 화월스님을 은사로 출가, 1884년 통도사에서 선곡율사(禪谷律師)로부터 비구계 및 보살계를 받아 칠불암 대은율사의 맥을 이었으며 1940년 입적했다.

스님은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 어느 하나로 성격을 규정하기 쉽지 않다. 선 수행에 진력한 선사이기도 하고, 불교경전 한글번역에 앞장선 역경가이기도 하다. 또 일제시대에 대각교 운동을 전개해서 불교현대화에 힘쓴 인물이기도 하다.

근대 최초의 도심포교당 대각사를 창건했고, 불교의식 간소화 및 찬불가 제정, 경전 한글화를 통한 불교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3 · 1운동 33인 민족대표 가운데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에 앞장서기도 했다.

이에 비해 율사로서의 면모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스님은 단절됐던 전통율맥을 다시 이은 대은(大隱)으로부터 시작해 금담(錦潭) · 초의(艸衣意恂) · 범해(梵海)를 거쳐 선곡(禪谷)으로 이어진 맥을 이어받은 6대 율사다.

스님은 한국전통율맥 계승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엄격한 지계행을 닦았다. 청정교단을 위해 건백서 운동 등 지속적인 정화운동을 벌였던 점은 그런 율사로서의 사명감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스님은 1926년 두 차례에 걸쳐 총독부에 건백서를 제출하는데, 여기서 스님은 "승려의 취처식육을 허가한다면 승속의 이중(二衆)을 구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며 "금지하지 않으려면 대처승려의 비구계를 취소하고 환속토록 하라"고 요구했다.

스님의 계율부흥운동은 신앙생활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1929년 부처님오신날 해인사에서 대대적인 수계식을 가졌다. 이때 수계 대중이 200여명에 달했다고 한다.

<범망경>을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한 것도 계율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키고자 했던



스님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울러 음주식육과 막행막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계율로써 스승을 삼으라'는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기도 했다.

스님은, 계율을 논하기에 너무나도 타락한 당시 불교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대각(大覺)운동을 벌였다. 대각교의 의식집과 수계의식은 스님이 직접 제정했고 실천에 옮겼다.

용성 스님이 계율을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는 10개 항목으로 된 용성스님유훈에서도 잘 드러난다.

스님은 8번째 항목으로 "삼귀의 · 5계 수계법회를 통해 수계자가 1백만 명이 넘도록 할 것이며, 이 수계자에게 아들이나 내지 손자대나 증손자대에 가서 한 아들이나 한 손자나 한 증손자를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잘 가르쳐서 부처님 전에 바쳐 출가봉공케하라"는 말을 남겼다.

아울러 용성 스님은 직접 설한 "세간오계(世間五戒)를 수지하여 호국호법의 간성으로 삼으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간 오계 ▲나라에 생명 바쳐 충성하라 ▲어버이에게 생명같이 효도하라 ▲스승에게 생명 다해 공경하라 ▲벗에게 생명 함께 신의로 사귀어라 ▲싸움에 생명 걸고 지혜롭게 이겨라

일타 스님

율장전서 열람후 계법 정립 … 계율書 다량 집필

일타 스님은 1929년 충남 공주에서 태어났다. 스님의 집안은 소문난 불교집안으로, 친가와 외가에서 41명이나 출가했다. 외증조 할머니인 평등월(平等月) 보살이 입적했을 때는 방광(放光)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고 한다. 특별한 출가동기가 없었을 정도로, 스님에게 출가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1942년 통도사 고경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스님은 43년 4월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고, 49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다.

스님의 본격적인 율장연구는 53년 천화율원에서 자운 율사의 권유로부터 시작됐다. 스님은 율장전서를 열람하고 계법을 정립했다.

54년에는 적멸보궁에서 오른 손 열두 마디를 태우는 초인적인 연지연향(燃指燃香)을 발원하기도 했다.

"허공과 같은 법신 자리에 절하옵고/ 간절히 임하나이다/ 오직 가피를 드리우시어 / 저의 미혹한 구름 열어주소서(…)"로 시작된 발원문은 구도에 대한 스님의 열정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짐작케 한다.

이듬해인 55년에는 경북 봉화 도솔암에서 동구불출(洞口不出) · 오후불식(午後不食) · 장좌불와(長坐不臥)를 지키며 홀로 6년 결사를 하기도 했다.

스님은 계율을 불자만의 특권으로 인식했다. 그래서 스님이 저술한 <범망경 보살계>에서 "선은 불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닦을 수 있고, 교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지만 계율은 불교 집안 사람의 전유물"이라고 지적하며 "계율을 온전히 행할 때 불자는 부처님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계율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구속이 아닌 적극적으로 아름답고 덕스러운 자기본분행을 행하라는 것"이라고 스님은 설명했다.

76년 해인총림의 율주로 추대된 후 <사미율의> <불교와 계율>등 계율과 관련된



여러 책을 발간하고 후학들을 양성하여, 일제 강점기 때 무너졌던 이 땅의 계율을 재정립하는데 전력투구했다. 스님은 불교가 중흥하기 위해서는 계율정신 회복이 시급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타 스님은 명예도 고사했다. 1970년 무렵 해인사 대중이 일타스님을 주지로 선출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보니 일타 스님이 사라지고 없었다. 성철 스님이 스님의 상좌인 혜국 스님에게 말하기를 "주지안 하려고 너희 스님 도망갔다. 갈아입을 옷이나 챙겨다 드려라" 해서 수소문해보니 일타 스님은 도봉산 어느 토굴에서 정진하고 있었다.

일타 스님은 또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했다. 스님은 평소 길가에 버려진 포장지라도 눈에 띄면 주워 모았고, 한번 쓴 편지봉투는 버리지 않고 재활용했다.

92년부터 불자들의 올바른 신행생활을 위해 집필을 시작해, <기도> <생활 속의 기도법> <윤회와 인과응보 이야기> <시작하는 마음>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등 20여권을 출간했다.

1993년 조계종 전국 구족계 단일계단 전계대화상으로 추대돼 수계의 중임을 맡았고, 1999년에 입적했다.

BCMY